

연구보고 09-R-15-2

조기유학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연구 I:
청소년의 조기유학 결과와 정책방안

책임연구원 :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수석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송민경 (경기대학교 · 교수)

문경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민선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한국사회의 특유의 교육열을 바탕으로 증대하고 있는 조기유학 현상에 대해 조기유학 종료자를 대상으로 조기유학의 결과를 분석, 제시하여 조기유학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예측을 줄이고 조기유학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조기유학의 결과 및 조기유학 현황에 대한 면접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유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2. 연구내용

- 조기유학의 개념 및 변화 추세, 사회적 배경, 조기유학의 유형, 조기유학의 결과와 관련변인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 검토
- 조기유학 종료자와 어머니 대상 면접조사결과를 기초로 조기유학 결과 분석
- 현지 학교와 유학원을 대상으로 한 조기유학 현황 분석
- 조기유학의 문제점 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3. 연구결과

- 본 연구참여자의 조기유학 결정동기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글로벌역량을 향상시키고자하는 기대와 한국교육의 치열한 입시경쟁을 떠나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기대를 기초로 하고 있다.
- 조기유학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성취의 측면에서 볼 때 우수한 학업 성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만족스러운 직업 성취로 요약된다. 조기유학의 최우선 목표는 조기유학과정에서 우수한 학업성취를 이루고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며 이후 진로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 결과 학업성취에 비해 직업 성취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매우 다양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둘째, 가족관계는 계층적으로 차이가 있다. 조기유학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없고 부모관계가 좋고 형제, 자매가 같이 유학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가족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수용이 이루어졌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하층에 해당하거나 기러기가족으로 지냈을 경우, 조기유학생의 학비 마련을 위한 부모의 희생과 이로 인해 일어나는 가족 불화로 조기유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의문을 표현하고 있었다. 조기유학자의 친구관계는 같이 유학경험을 한 아시안계 학생 10명 내외로 제한적 경향을 갖고 있다.

셋째, 글로벌역량이나 문화정체성의 측면에서 볼 때 영어능력의 향상에 비해 한국어능력의 정체라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문화 또는 타인에 대한 포용력, 자신감과 결단력, 대인관계기술 등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전반적으로 조기유학이 자신의 행복 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었고 좀 더 자유로운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었다는 점과 높은 학업성취와 더불어 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 조기유학의 결과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유학 종료자의 진로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다. 조기유학자들은 장기간의 유학생화로 인해 한국의 조직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가능한 현지에서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취업은 외국인으로서 제한적이어서 대학원 진학 등으로 취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한국에 취업한 경우 만족도가 낮으며 휴직 등의 선택을 하고 있었다.

둘째, 조기유학자들은 높은 학업 성취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높은 취업

장벽으로 인해 글로벌인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길에 서지 못하고 현지 문화에 동화되어 현지 사회의 주변인이자 한국사회의 주변인으로 소시민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조기유학의 목표가 명문대학 진학에 맞추어져 있어 대학졸업 이후 취업에 대한 목표 설정이 부족하다. 조기유학에 막대한 조기유학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대학졸업 이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없다.

넷째, 조기유학자들은 정서적 고립과 오랜 기간 받게 되는 문화적 차별로 인한 정체성의 위기, 인간관계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글로벌 세계를 향한 적극적인 관계 맺기에 어려움이 있다.

4. 정책제언

- 안전한 조기유학을 지원하기 위해 ①조기유학 사전상담제 활성화, ②조기유학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③조기유학 청소년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지원, ④홈스테이 필터링 방안 등을 마련한다.
- 조기유학의 수요를 감소하기 위해 ①국제학교의 설립, ②자유롭고 질적 수준이 높은 대안교육기회의 제공, ③조기유학의 실태와 결과에 대한 국가차원의 홍보강화, ④교환학생제도의 정착 등을 실시한다.
- 조기유학 종료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①국내외 대학간 상호학점인정제 확대, ② 조기유학자대상 한국교육지원체계 강화, ③조기유학자에 대한 국가적 관리·보호체계, ④조기유학 종료자에 대한 취업지원체계 등을 수립한다.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
| 2. 연구내용 | 5 |
| 1) 선행연구검토 | 5 |
| 2) 조기유학의 결과 분석 및 관련변인 탐색 | 5 |
| 3) 조기유학의 문제점 분석 및 정책대안 탐색 | 5 |
| 3. 연구방법 | 6 |
| 1) 문헌연구 | 6 |
| 2) 면접조사 | 6 |
| 3) 델파이조사 | 7 |
| 4) 전문가 자문회의 | 7 |
| 5) 워크숍 | 7 |
| II. 이론적 배경 | 9 |
| 1. 조기유학 현황 및 변화 추세 | 11 |
| 1) 조기유학의 개념 | 11 |
| 2) 조기유학의 현황 및 변화 추세 | 12 |
| 3) 조기유학의 사회적 배경 | 16 |
| 2. 조기유학의 유형 | 19 |
| 1) 동기와 목적에 따른 분류 | 19 |
| 2) 가족동반 및 거주형태에 따른 분류 | 20 |
| 3) 유학시작시기와 유학기간에 따른 분류 | 21 |
| 4) 유학경로에 따른 분류 | 22 |
| 5) 학교유형에 따른 분류 | 23 |

| | |
|--------------------------------|----|
| 3. 조기유학 결과 | 24 |
| 1) ‘성공과 실패’라는 용어 사용 | 24 |
| 2) 성공과 실패의 지표 | 26 |
| 4. 조기유학 결과 관련 요인 | 32 |
| 1)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32 |
| 2) 조기유학 유형과 조기유학결과 | 34 |
| 3)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 요인 | 36 |
| 4) 조기유학의 결과 관련 요인 | 37 |
| | |
| III. 연구방법 | 39 |
| 1. 조기유학종료자 및 어머니 면접조사 개요 | 41 |
| 1) 조사대상 | 41 |
| 2) 표집방법 및 사례수 | 41 |
| 3) 조사방법 | 41 |
| 4) 면접조사내용 | 42 |
| 2. 전문가조사 개요 | 44 |
| 1) 면접대상 | 44 |
| 2) 면접방법 | 44 |
| 3) 면접내용 | 45 |
| | |
| IV. 연구결과 | 47 |
| 1. 연구참여자의 조기유학 유형과 실태 분석 | 50 |
| 1) 조기유학종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50 |
| 2) 조기유학의 유형 | 56 |
| 3) 조기유학 생활 | 64 |
| 2. 조기유학의 결과 분석 | 78 |
| 1) 개인적 성취 평가 | 78 |
| 2) 관계 평가 | 91 |

| | |
|--|------------|
| 3)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평가 | 106 |
| 3. 조기유학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120 |
| 1) 조기유학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절반의 성공사례) 분석 | 120 |
| 2) 조기유학 결과 관련 변인 탐색 | 134 |
| 4. 현지 학교와 유학원 사례를 통해 본 조기유학 현황 | 140 |
| 1) 현지 학교를 통해 본 조기유학 현황 | 140 |
| 2) 현지 유학원을 통해 본 조기유학 현황 | 144 |
| 5. 조기유학의 문제점 분석 및 정책대안 | 150 |
| 1) 조기유학 결과 분석에 따른 문제점 | 150 |
| 2) 조기유학 현황 분석에 따른 문제점 | 154 |
| 3) 정책대안 | 155 |
| V. 요약 및 결론 | 167 |
| 1. 요약 | 169 |
| 1) 조기유학 종료자의 조기유학 유형 및 실태 | 169 |
| 2) 조기유학의 결과 분석 | 170 |
| 2. 정책제언 | 177 |
| 참고문헌 | 185 |
| 부 록 | 189 |
| 부록 1. 조기유학 종료자 면접조사지 | 191 |
| 부록 2. 조기유학 종료자 어머니 대상 면접조사지 | 197 |
| 부록 3. 현지 유학원과 학교 대상 면접조사지 | 200 |
| 부록 4. 조기유학 종료자와 어머니 응답 내용 | 202 |

표 목차

| | |
|--|-----|
| <표 I-1> 심층면담 | 6 |
| <표 I-2> 델파이조사 | 7 |
| <표 I-3> 전문가 자문회의 | 7 |
| <표 I-4> 워크숍 | 7 |
| <표 II-1> 연도별 조기유학 청소년 수 변화추이 | 13 |
| <표 II-2> 연도별 학교급별 조기유학 청소년 수 | 15 |
| <표 II-3> 주요 국가별 조기유학청소년 수 | 15 |
| <표 II-4> 조기유학 적응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33 |
| <표 II-5> 조기유학의 성공 및 실패 관련요인 | 37 |
| <표 III-1> 조기유학 종료자 사례 수 | 41 |
| <표 III-2> 조기유학종료자 면접조사내용 | 42 |
| <표 III-3> 조기유학종료자 어머니 면접조사내용 | 43 |
| <표 III-4> 전문가 면접 일정 | 45 |
| <표 IV-1> 조기유학 종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1) | 52 |
| <표 IV-2> 조기유학 종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2) | 53 |
| <표 IV-3> 조기유학 종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3) | 54 |
| <표 IV-4> 조기유학 종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4) | 55 |
| <표 IV-5> 조기유학 종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5) | 56 |
| <표 IV-6> 조기유학 결과에 대한 분석 지표 및 사례 분류 | 130 |
| <표 IV-7> 성공적인 조기유학(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139 |
| <표 IV-8> 유학원 프로그램과 비용 | 146 |
| <표 IV-9> 1인당 연간 유학비용 추계 | 148 |

그림 목차

| | |
|-------------------------------|----|
| [그림 II-1] 조기유학청소년 수의 변화 | 13 |
| [그림 II-2] 조기유학의 사회적 배경 | 18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의 조기유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해외유학은 대학이나 대학원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9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글로벌화에 따라 90년대 중반 이후 중고생의 해외유학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중고생 뿐 아니라 초등학생의 유학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5년에 2,259명이었던 조기유학자가 2007년에는 27,668명으로 12배 이상 증가하였다.¹⁾

조기유학생 1인당 교육비는 연 수천만 원으로 가정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는 액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열망은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 형성되어 증폭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부모들 중 여건만 되면 자녀를 조기유학 시키고 싶다는 응답이 30%를 넘고 있다 (김홍원, 2005:15).²⁾

아직 조기유학의 교육적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입증되고 있지 않다. 간헐적으로 보도되는 언론의 해외유학 성공사례, 해외조기유학생의 비행과 문제가 조기유학의 결과에 대한 정보가 되고 있을 뿐이다. 학부모집단이 인식하고 있는 조기유학의 성공률은 30% 정도인데, 현지 사회나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조기유학 성공률은 10~20% 수준으로 가늠되고 있다. 조기유학은 외화유출과 무역수지 적자라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유학비 부담에 따른 가계경제 악화라는 개인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경제적 요인 외에 해외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비행과 교육실패의 가능성, 더 나아가 개인적 삶에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1)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2) 김홍원(2005),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과 실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특유의 교육열과 성취욕을 기초로 학부모들의 조기유학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열망을 반영하는 ‘관리형 유학’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조기유학 상품이 개발되어 이제 조기유학이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집합적 차원으로 발전, 시스템화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기유학 추세와 경향을 볼 때 단시일 내에 조기유학 증가세가 멈출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조기유학현상에 대한 다양한 원인 진단이 있지만 조기유학은 본질적으로 한국사회 특유의 교육열에 바탕을 둔 것으로 글로벌화라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새로운 발현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열은 투자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흐른다. 조기유학에 대한 개인적 투자와 투자열망이 존재하는 것은 조기유학의 결과에 대한 낙관과 기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유학의 결과는 과연 이러한 낙관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있는가? 조기유학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있었으나 이제까지 그 성과를 연구한 바는 없었다. 교육의 투자효과는 서서히 드러나는 것으로서 개인적 수준에서 볼 때 최소 10년 내지 20년이 경과해야 그 성과를 알 수 있다. 이제 90년대 중반이후 조기유학을 감행한 세대들의 교육적 성과가 점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조기유학 청소년의 교육결과에 대해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기유학 결과 및 결과에 작용하는 변인들에 대한 분석은 조기유학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또는 예측을 줄이고 정확한 현실에 기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무분별한 조기유학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성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을 견비하고 준비, 지원하게 함으로써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 조기유학 현황과 변화추세는 어떠하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조기유학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셋째, 조기유학의 결과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조기유학의 결과, 성공과 실패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넷째, 조기유학의 결과는 어떠한가? 조기유학에 대해 부모와 청소년은

어떠한 목적과 기대를 갖고 있었으며 조기유학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다섯째, 조기유학의 결과(성공과 실패, 또는 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여섯째, 조사결과 나타난 조기유학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2. 연구내용

1) 선행연구검토

조기유학의 유형, 조기유학의 원인, 조기유학의 결과와 관련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2) 조기유학의 결과 분석 및 관련변인 탐색

조기유학의 결과를 개인적 성취와 관계, 글로벌역량의 습득 및 활용, 행복감의 측면에서 조기유학자 본인과 학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초로 성공과 실패로 개념 정의하여 분석하며 이러한 결과에 관련되는 요인을 탐색한다.

3) 조기유학의 문제점 분석 및 정책대안 탐색

조기유학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탐색한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조기유학의 현황, 조기유학의 유형, 조기유학의 원인, 조기유학의 결과와 관련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2) 면접조사

조기유학종료자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미국의 사회단체인 BNM과 협력하여 면접원과 조기유학 종료사례를 찾고 눈덩이 표집을 통해 조기유학 종료자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1> 심층면담

| 주요 요소 | 내용 |
|--------------------------------------|---|
|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거주 조기유학 종료자와 그 학부모는 해외 협조단체를 통해 섭외 • 국내거주 조기유학자와 그 학부모는 비공식 연결망을 통해 섭외 |
| 면담참여자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유학 종료자(고졸이상) 18명 • 조기유학 종료자의 모 18명 |
|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유학 종료자(고졸이상)로서 해외거주 진학, 취업, 유랑, 국내거주 진학, 취업, 유랑 등 다양한 진로유형을 표집 |
| 면담방식 (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구조화 된 면담, 개별면담 |
| 면담 시간 및 횟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시간 내외, 각각 1회 |
|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자료 기록 |
| 면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요원 |

3) 델파이조사

<표 1-2> 델파이조사

| 조사대상 | 표본수 | 조사내용 |
|-----------------------------|------------------------------|--|
| 국내외유학원 | 3개 사례 (다양한 유형으로 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유학생의 규모(월간, 연간) - 관리형 프로그램 실태: 비용, 기간, 관리의 내용, 교육 프로그램 - 학생모집방식, 한국과의 연계관계 - 학생관리 및 가디언 관리실태 - 관리, 보호효과에 대한 평가 |
| 현지 학교, 현지 교육청 | 1개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외국인학생 정책과 프로그램 실태 - 한국의 조기유학생에 대한 평가: 성취수준, 문화적 적응수준, 문제점 - 교육청, 정부차원의 외국인 학생 정책현황 |
| 기타 조기유학생 지원기관이나 단체 | 1개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유학실태, 문제, 대책 등에 대한 의견조사 |
| 4개 그룹 | 5개 사례 | |

4) 전문가 자문회의

<표 1-3> 전문가 자문회의

| 횟수 | 자문영역(내용) | 자문진 | 비고 |
|----|---------------------|-------------|----|
| 1회 | •질적조사 및 분석방법에 대한 논의 | •질적조사분석 전문가 | 5월 |
| 2회 | •전문가조사지 검토 자문회의 | •조기유학 전문가 | 8월 |

5) 워크숍

<표 1-4> 워크숍

| 회수 | 주요내용 | 참석자 범위 | 개최시기 |
|----|---------------------------|---------|------------|
| 1회 | 조기유학 실태와 결과, 적용관련 변인 등 | 학계인사 7명 | 5.29(금) 실시 |

Ⅱ. 이론적 배경

1. 조기유학 현황 및 변화 추세
2. 조기유학의 유형
3. 조기유학 결과
4. 조기유학 결과 관련 요인

II. 이론적 배경

1. 조기유학 현황 및 변화 추세

1) 조기유학의 개념

조기유학이란 개념은 사용하는 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규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기유학이란 “초·중·고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나가 현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김홍원, 2005:3). 조기유학은 사유별로 인정유학, 미인정유학, 자비유학, 파견동행, 해외이주로 구분되고 있다(김익기, 2006:15-16).

- 인정유학 : 자연과학, 예체능 등의 분야에서 특수한 업적을 이룬 자, 특수교육대상자 등으로서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수는 매우 적음.
- 자비유학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학생이 자비로 유학을 가는 경우.
- 파견동행 : 부모가 직장에서 해외파견 등의 이유로 인해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가는 것으로 부모 모두 동행하는 경우.
- 해외이주 : 가족전체가 이민을 가는 경우.
- 미인정유학 : 유학을 가는 초·중학생으로서 위에서 제시한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유학을 가는 경우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인정 유학임. 파견동행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국내에 남으면 불법이 됨.

법적 의미로 보면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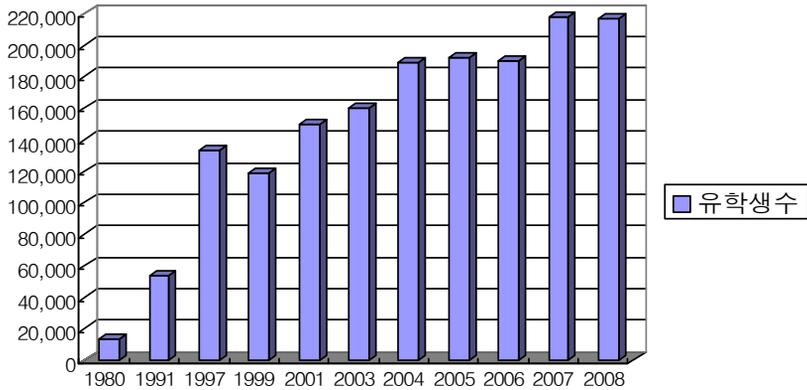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을 의미하고 있다(김홍원, 2005:3).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를 조기로 볼 것인지는 법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조기를 사회 통념상 국민기초교육 및 보통교육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학하는 시기를 조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김혜순, 2006:7).

과거 유학은 일부 사회계층의 학생과 학교교육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이 주로 갔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향상,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외국어 습득과 국제적 경험 습득의 중요성, 입시제도와 같은 우리 학교교육의 문제점 및 증가하는 사교육 비용 등으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조기유학을 가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김익기, 2006:16).

본 연구에서는 조기유학이란 청소년이 외국에서 생활하며 해당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조기유학의 현황 및 변화 추세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조기유학청소년수도 급증하게 되었다. <그림 II-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80년 이래 조기유학 청소년 수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1980년에 13,302명에 지나지 않았던 조기유학청소년수가 1997년에는 133,249명으로 늘어났다가 2008년에는 216,867명으로 증가하였다. 단지, 한국의 금융위기가 있었던 직후인 1999년에는 약간 줄어들었으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1] 조기유학청소년 수의 변화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대체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유학은 대학과 대학원 진학, 영어 연수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초·중·고생 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조기유학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조기유학청소년 수는 해외 조기유학청소년 수 중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표 11-1>에 의하면, 초·중·고 해외 유학생 수가 1995년도에 2,259명이었던 것이 2007년도에 27,668명으로 늘어났다. 최근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조기유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MF때보다는 10배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그러나 15-16세 이전의 조기유학이 완전 자유화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유학생 수는 통계 수치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표 11-1> 연도별 조기유학청소년 수 변화추이

| 학년도 (3.1~2월말)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
| 유학출국 학생수 (초·중·고) | 2,259 | 3,573 | 3,274 | 1,562 | 1,839 | 4,397 | 7,944 | 10,132 | 10,498 | 16,446 | 20,400 | 28,650 | 27,668 |
| 전년대비 증감률(%) | - | 58.2 | -8.4 | -52.3 | 17.7 | 139.1 | 80.7 | 27.5 | 3.6 | 56.7 | 24.0 | 40.4 | -3.4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초등학생의 조기 유학은 중·고등학생의 경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II-2>에 의하면, 1995년도에는 초등학생 중 해외유학생이 235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 숫자가 계속 증가하여 2001년에는 2,107명에 이르렀다. 2000년까지는 초·중·고 중 고등학교 유학생의 숫자가 가장 많고 초등학교 유학생의 수가 가장 적었다. 그러나 2001년에는 중학교 유학생의 숫자가 가장 많았다. 이 추세는 다시 바뀌어서 2002년부터는 계속적으로 초등학교 유학생 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도를 보면, 초등학교 유학생 수가 12,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유학생 9,201명 및 고등학교 유학생 6,126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비하여 환율급등으로 인하여 감소하였다. 유학은 IMF, 환율,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가별 유학생의 분포에도 변화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II-3>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전체유학생 가운데 미국에 가는 유학생이 39.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캐나다(14.6%)로서 북미주에 유학 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전체 유학생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국(10.9%), 일본(10.0%) 및 호주(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분포가 2003년에는 미국(30.7%), 중국(11.4%), 일본(10.8%), 호주(9.9%) 및 캐나다(8.8%)의 순으로 바뀌었다. 초창기 유학시절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던 미국과 캐나다 유학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중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1년에 39.0%를 차지하였던 미국 유학생의 비율이 2008년에는 28.8%로 떨어졌고, 캐나다 유학생의 경우 2001년 14.6%에서 2008년에는 5.0%로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의 비율은 2001년에 10.9%에서 매년 상승하여 2008년에는 그 비율이 전체 유학생 가운데 26.5%를 나타내고 있다.

<표 11-2> 연도별 학교급별 조기유학 청소년 수

| 연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 1995 | 235(10.4%) | 1,200(53.1%) | 824(36.5%) | 2,259(100%) |
| 1996 | 341(9.5%) | 1,743(48.8%) | 1,489(41.7%) | 3,573(100%) |
| 1997 | 241(7.4%) | 978(29.9%) | 2,055(62.7%) | 3,274(100%) |
| 1998 | 212(13.6%) | 473(30.3%) | 877(56.1%) | 1,562(100%) |
| 1999 | 432(23.5%) | 709(38.6%) | 698(37.9%) | 1,839(100%) |
| 2000 | 705(16.0%) | 1,799(40.9%) | 1,893(43.1%) | 4,397(100%) |
| 2001 | 2,107(26.5%) | 3,171(40.0%) | 2,666(33.5%) | 7,944(100%) |
| 2002 | 3,464(34.2%) | 3,301(32.6%) | 3,367(33.2%) | 10,132(100%) |
| 2003 | 4,052(38.6%) | 3,674(35.0%) | 2,772(26.4%) | 10,498(100%) |
| 2004 | 6,276(38.2%) | 5,568(33.8%) | 4,602(28.0%) | 16,446(100%) |
| 2005 | 8,148(39.9%) | 6,670(32.7%) | 5,582(27.4%) | 20,400(100%) |
| 2006 | 13,814(46.8%) | 9,246(31.3%) | 6,451(21.9%) | 29,511(100%) |
| 2007 | 12,341(44.6%) | 9,201(33.3%) | 6,126(22.1%) | 27,668(100%)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표 11-3> 주요 국가별 조기유학청소년 수

| 연도 | 미국 | 캐나다 | 중국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기타 | 계 |
|------|-------------------|-------------------|-------------------|-------------------|------------------|------------------|-------------------|-------------------|
| 2001 | 58,457 (39.0%) | 21,891 (14.6%) | 16,372 (10.9%) | 14,925 (10.0%) | 10,492 (7.0%) | - | 27,796 (18.5%) | 149,33 (100%) |
| 2003 | 49,047 (30.7%) | 14,058 (8.8%) | 18,267 (11.4%) | 17,339 (10.8%) | 15,775 (9.9%) | 9,870 (6.2%) | 35,547 (22.2%) | 159,903 (100%) |
| 2004 | 56,390 (30.1%) | 13,307 (7.1%) | 23,722 (12.6%) | 16,992 (9.1%) | 17,847 (9.5%) | 13,297 (7.1%) | 46,128 (24.6%) | 187,683 (100%) |
| 2005 | 57,896 (30.1%) | 11,400 (5.9%) | 28,408 (14.8%) | 19,022 (9.9%) | 15,179 (7.9%) | 10,306 (5.4%) | 50,046 (26.0%) | 192,254 (100%) |
| 2006 | 58,901 (30.9%) | 11,853 (6.2%) | 39,329 (20.7%) | 18,961 (10.0%) | 16,384 (8.6%) | 9,281 (4.9%) | 35,655 (18.7%) | 190,364 (100%) |
| 2007 | 59,022 (27.1%) | 12,795 (5.9%) | 42,269 (19.4%) | 19,056 (8.7%) | 16,591 (7.6%) | 8,707 (4.0%) | 59,519 (27.3%) | 217,959 (100%) |
| 2008 | 62,392 (28.8%) | 10,792 (5.0%) | 57,504 (26.5%) | 17,274 (8.0%) | 16,774 (7.7%) | 10,183 (4.7%) | 41,948 (19.3%) | 216,867 (100%)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3) 조기유학의 사회적 배경

(1) 교육열: ‘희소성 있는 더 좋은 교육’에 대한 열망

조기유학이 이상과 같이 사회적 추세를 형성하면서 한국사회에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등장하게 되는 사회적 배경에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한국사회의 특수현상으로서 교육열이 그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 이종각에 의하면 교육열은 ‘교육행위에 과고 들어가서 그 행위의 열도를 높이고 강화시켜주는 원인, 즉 어떤 교육행위에 대한 열성이며 어떤 교육현상을 강화시켜주는 원인’이다. 교육열은 학부모에 속한 것이며 자녀의 행복과 성공과 출세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 기초하고 있고 교육열은 자녀교육을 지원하려는 동기 체제이며 사회적 경쟁의 조건에서 표출된다. 그리고 교육열은 더 자녀들에게 더 나은 학력을 갖게 하려는 행위로 표출된다(이종각, 2003: 72-73).

한국사회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공트랙’에서 탈락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교육열은 ‘현상 타개적 기민성’이 뛰어나며(오욱환, 2000: 159) 따라서 부모들은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교육열을 발산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나서고 교육열 억제조치와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것을 우회하거나 허점을 교묘하게 공략하는 기지와 순발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결합 대상을 찾아 상승 이동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욕망을 드러낸다(김경근, 2003).

즉 교육열은 단순히 학교나 학벌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불안정한 사회에서 안정되게 살아남기 위한 욕망, 그리고 상승이동에 대한 열망과 하강이동에 대한 두려움과 이어져 있다. 여기에서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희소성 있는 더 좋은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2) 세계화와 글로벌 역량 습득

세계화는 국민국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람과 물자, 정보와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류하는 지구촌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화라는 문명사적 변화는 한국의 부모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었다. 국민국가의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던 경쟁이 이제 이를 벗어나 국제사회라는 넓은 마당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경험, 본격화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추세, 무한 경쟁 구도 속에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은 개인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자극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서 나오되지 않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입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선행학습 등 다양한 사교육 과목을 개발하며 국내 사교육시장을 팽창시켜 왔던 학부모 집단은 이제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교육 아이템으로서 조기유학을 감행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는 글로벌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무한경쟁의 시대에 글로벌 교육을 받은 글로벌 인재만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는 무성한 사회적 담론은 학부모들의 교육적 고민을 강화시켜 왔다.

국내대학 입시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사교육비 규모, 교육비 대비 입시 교육의 무가치함과 질적 수준에 대한 회의, 입시교육과정에서 자녀가 치러야 할 고통 등을 고민하면서 세계화 시대에 보다 필요하고 가치 있으며 경쟁력 있는 교육수단으로 조기유학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3) 입시위주 학교교육으로부터의 탈출

한국의 공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학력사회 또는 학벌사회의 폐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과열입시경쟁이 공교육을 황폐하게 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러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서 교육 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현상을 이중각(2003)은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 및 이에 따른 외국유학 현상을 ‘공교육 도피증후군’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사교육의 번성, 교육 이민, 기러기 아빠 등을 한국의 공교육이 행사하고 있는 제도적 폭력으로부터 도피해 나가는 현상으로 규정한다. 한국의 학교교육은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진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지나친 학벌중심 사회로부터 기인하는 과잉 학력경쟁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교육풍토를 탈피하여 보다 자유스럽고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자녀가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조기유학을 선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조기유학은 한국사회에 내재된 특유의 교육열을 기반으로 세계화라는 문명사적 변화가 촉발하여 나타난 교육현상이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입시위주 한국 교육이 배출요인으로 작용하여 조기유학을 촉진하고 있다. 조기유학은 일정 부분 한국교육의 질적 수준과 무가치함에 그 원인이 있다. 자녀들을 무척 바쁘게 하면서도 고비용이면서도 자녀의 인성교육은 물론 지적 성취까지도 회의적인 한국교육에 대한 불신과 회의에 그 원인이 있다.



<그림 11-2> 조기유학의 사회적 배경

2. 조기유학의 유형

1) 동기와 목적에 따른 분류: 어학연수형-입시활용형-대안교육형-글로벌인재육성형

김홍원(2005)의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이유는 ‘외국어 습득’(28.2%),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 육성’(24.7%), ‘극심한 경쟁위주의 교육과 대입제도’(10.7%), ‘학생의 능력, 재능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8.4%), ‘과다한 사교육비’(4.9%) 등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의 가장 주요한 동기는 외국어 습득이며 그 다음은 글로벌 인재의 육성이다. 세 번째로 지적된 것은 경쟁위주 교육풍토, 학생의 재능을 살리지 못하는 교육, 그러면서도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 한국교육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대안을 찾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순형(2007)의 연구에서는 조기유학의 동기가 ‘미래를 위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싶어서’, ‘현지어(영어)를 잘하기 위해’,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권유하셔서’, ‘나에게 맞는 일을 찾고 싶어서’, ‘외국에서 대학에 가고 직장도 구하고 싶어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싫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학에 가기 유리해서’ 등의 순서로 지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더 좋은 교육, 외국어교육, 외국에서의 진학과 취업 등 유인요인이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싫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등 발인요인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조기유학에 있어 유인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³⁾

위의 연구에서는 조기유학의 목적을 별도로 조사한 바, 첫 번째는 외국어실력 향상이었으며 그 다음은 외국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였다. 조기유학의 목적은 어학연수와 국외대학진학이 조기유학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다.

3) 시로워와 잉켈레(Sirowy & Inkeles)는 본국에서 밀어내는 ‘발인요인(push factor)’과 유학국에서 끌어당기는 유인요인(pull factor)가 맞아 떨어지면 유학 및 유학대상국이 결정된다고 했다. 왕성성, 2005에서 재인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국내대학 진학을 위해서’,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 등 유학경험을 국내 입시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조기유학의 목적은 첫 번째는 외국어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어학연수형, 조기유학경험을 특목고 진학이나 대학진학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입시활용형, 한국교육환경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 속에 질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한국교육에 대한 대안교육형, 새로운 외국 경험을 통해 외국에서의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인재형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유학동기와 목적이 서로 간에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영어를 목적으로 하지만 입시경쟁에 유리하게 유학경험을 활용하려 할 수 있는가 하면 한국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더 좋은 교육기회를 얻고자 조기유학을 추진하였지만 장차 국제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목적이 될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국내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유학형이라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해외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유학형이 일반적이다.

2) 가족동반 및 거주형태에 따른 분류: 전가족동반형-기러기가족형-기숙사형-홈스테이형

조기유학은 가족동반유학과 가족비동반유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족동반의 경우, 전가족 동반형, 어머니나 아버지 한 쪽만 동반하는 기러기가족형, 형제 동반형으로 구분된다. 전가족 동반형이나 기러기 가족형의 경우, 유학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게 되지만 형제동반형이나 나홀로 형은 다양한 거주형태를 띄게 된다.

이순형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자기 집에서 사는 경우(57.6%)가 가장 많았고, 한국인 가정 홈스테이(10.7%), 학교 기숙사(9.4%), 외국인 가정 홈스테이(7.6%), 친척이나 아는 사람의 집(6.9%), 자취(1.7%)의 순서로 나타났다.

나홀로형이나 형제동반형은 거주형태가 다양하다. 기숙사에 머무는 경우,

기숙사 사감선생을 통한 일상생활 관리가 이루어진다. 학생이 수업을 빼먹고 친구들과 어울려 돌아다닌다거나 하는 등 잘못 된 길로 빠지는 것을 막아 주어 부모의 입장에서는 염려가 덜할 수 있다.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 홈스테이 보호자와 유학생과의 관계와 질이 어떤 수준인가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홈스테이의 경우, 대부분 혼자 생활하며 많은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이겨내야 하며 어린 나이에 언어·문화적 충격을 극복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당사자가 외로움을 많이 겪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하는 반면 경제적인 부담 이외의 가족의 희생은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나 형제 등과 함께 유학을 오는 경우는 학생 단독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보다 관리가 잘 되어 안정감 있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반면 가족의 희생이 크다. 이 경우 주로 어머니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가 더 많고 어머니가 직장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경우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키고 다른 한 쪽은 돈을 벌어 학비를 대는 경우이다(조명덕, 2000;176-181).

김현주(2007)의 연구에 따르면 혼자 유학을 온 학생들의 경우 보호자가 가족을 대신하는 만큼 보호자와의 관계가 적응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나홀로 유학을 떠난 조기유학 청소년 가운데 보호자로부터 가족을 대신하는 긍정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적응과정에서 커다란 도움이 되는 요인이었다. 반면, 보호자와 갈등이 있는 경우 부모의 부재는 곁돌음 현상을 강하게 지속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김현주, 2007; 204).

본 연구에서는 조기유학 청소년을 가족동반 및 거주형태에 따라 가족동반형, 기러기가족형, 기숙사형, 홈스테이형(현지, 한국)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3) 유학시작시기와 유학기간에 따른 분류: 장기형-단기형

조기유학을 시작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생, 초등학교 고학년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학시작시기와 유학지속기간은 유학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이순형(2007) 연구에서 조사된 조기유학생 준비생의 학령별 분포를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생(30.2%)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등학생(28.9%), 중학생(21.2%), 초등학교 저학년생(19.6%)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의 학령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교 저학년 순이었다. 한편 현재 유학 중인 조기유학 청소년의 학령별 분포는 고등학생(35.3%), 중학생(28.5%), 초등학교 고학년생(22.8%), 초등학교저학년생(13.4%) 순이었다.

조기유학기간이 짧을수록 귀국 후 한국학교에서의 적응은 용이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길수록 한국학교에서의 적응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순형(2007)의 연구에서 조사된 조기유학생의 유학기간은 6개월 미만(4.7%), 6개월 이상~2년 미만(34.1%), 2년 이상~4년 미만(26.1%), 4년 이상(31.8%)로 나타났다.

조기유학 종료자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3년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을 단기유학, 3년 이상을 장기유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4) 유학경로에 따른 분류: 개인형-기업형

김홍원(2005)의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과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기유학에 관한 정보의 습득은 주로 학부모의 친구(16.3%), 같은 지역의 학부모(14.9%), 유학 상담소나 학원(13.8%), 학부모 자신의 외국경험(13.1%)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주로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를 얻고 유학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학부모 자신이 외국경험이나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에는 유학상담소나 학원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이에 의존해 유학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까지 개인적 네트워크, 또는 유학상담소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개별적으로 유학을 추진해 온 것이 보편적인 유학 경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학원이나 어학원 등에서 조기유학생을 모아 집단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급속히 늘고 있다. 소위 ‘관리형 유학’은 부모가 청소년과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필요한 서비스를 업체가 대행하여 제공함으로써 조기유학을 집단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이다. 관리자(가디언) 등이 청소년의 학업 및 생활전반까지 관리하고 학부모에게 청소년의 상태를 일일이 보고하는 형태의 유학이다. 대부분 현지(유학국가)에서 정규수업 이후 한국학제에 맞춘 과외수업을 제공하여 귀국 후 한국학교 적응에 대비하고 있다. 현지에서 학교와 인접한 장소에 학원과 기숙사를 구비하고 학생의 생활과 학업을 관리해 줄 한국출신 학원 강사를 영입하기도 한다.

이 경우 조기유학생은 유학원 및 유학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분포되기 때문에 현지어보다는 한국어 사용이 활발하여 외국어 능력향상이라는 조기유학의 목적을 무색하게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유학원이나 어학원 등에서 부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과후 생활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조기유학을 기업형으로, 정보를 얻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조기유학을 개인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5) 학교유형에 따른 분류: 지원형-방임형

조기유학생의 학교유형은 유학하는 국가의 유학 허가기준이나 현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학 비자를 가진 초·중·고등학생에게 공립학교의 입학과 편입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 재학률이 월등히 높고, 그 중 기숙사가 있는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도 많다. 유학생들의 공립학교에 입학이 허용되는 캐나다 경우에는 공립학교 재학률이 높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모두에 유학생의 입학이 허용되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공립학교 재학률이 더 높다. 중국의 경우, 영어를 사용하는 국제학교 재학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유형에 따라 학교규모, 학교분위기, 교사-학생관계, 학교의 인종구성,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외국인 학생정책 하에 학교유형별 외국인학생 지원정책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유형을 공립학교, 사립학교, 국제학교로 분류하고 외

국인 학생에 대해 지원적인 학교를 지원형, 방임적인 학교를 방임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3. 조기유학 결과

1) '성공과 실패'라는 용어 사용

교육결과와 성공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이상 기간 동안 청소년 조기유학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조기유학 연령은 초등학생까지 낮아지면서 양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조기유학 결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조기유학의 결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기유학의 결과에 대해서는 '적응과 부적응', 또는 '성공과 실패', 교육효과의 유무 등으로 논의할 수 있다.⁴⁾

'적응과 부적응'은 현재의 유학생황을 분석하는 데 매우 적절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현재의 적응여부를 토대로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조기유학의 결과를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타국의 문화와 타국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거나 부적응하고 있다는 것이 일정기간 이후의 조기유학의 결과와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기유학의 결과 개념으로는 제한점을 갖는다.

4) 적응과 부적응에 대한 연구로 '중국조기유학생의 유학생황실태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보호요인탐색'(임인숙, 2008,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인 중국 조기유학생의 유학선택 및 적응에 관한 연구(왕성성, 2006,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국일시거주 한인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촉진을 위한 인터넷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박영숙, 2002, 한국심리학회지 Vol. 21, No. 2, 97-139) 등이 있으며 성공과 실패에 대한 연구로 '조기유학 성공과 실패 사례조사 및 학부모 계도를 위한 홍보방안 연구'(조삼섭, 2006,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있다. 유학 동기가 어학능력향상과 같은 실제적인 것일 때는 성공과 실패라는 용어보다는 교육효과가 있고 없으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삼섭, 조기유학 전문가자문회의(2009.5.29) 회의록 참조.

이에 비해 ‘성공과 실패’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표현해 준다는 점에서 결과를 지칭하는 용어로 타당하다. 조기유학으로 가정경제 측면에서 감당해야 하는 교육비 부담이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가족관계, 일탈과 비행 등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희생 부분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는 것이다.⁵⁾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지를 정의할 명백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박영숙은 이에 대해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는 장, 단기적 관점에서 정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⁶⁾ 단기적으로 볼 때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는 조기유학 출발 당시 설정했던 개인적 목표의 달성여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즉, 조기유학의 목표를 달성했다면 성공이며 달성하지 못했다면 실패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박영숙은 대학 졸업 후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조기유학으로 성취한 지식과 능력,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조기유학 현지, 또는 귀국 후 국내에서 조기유학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전문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느냐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유학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국외, 또는 국내에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는 조기유학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전문성의 사회적 발휘 여부로 볼 수 있다.

손준중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조기유학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⁷⁾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누가 규정하는지의 문제가 또한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학 지역, 유학기간도 다양하고 유학의 목적과 기대도 다양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의 유학에 대한 기대와 목적을 목록화하여 이에 대한 성취 여부를

5) 김홍원, 조기유학 전문가 자문회의(2009.5.,29) 회의록

6) 박영숙, 조기유학 전문가 자문회의(2009.5.29), 발표자료.

7) 손준중, 조기유학 전문가 자문회의(2009.5.29), 회의록 참조.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조기유학의 기대와 목적은 조기유학이 진행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영숙은 출발당시의 목적과 중간단계의 목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⁸⁾ 이를 위해 손준중은 특정사례를 중심으로 유학결정의 초기과정에서 실행, 귀국 후 일정 기간이 흐를 때까지를 치밀하게 추적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⁹⁾

조기유학의 결과를 지칭하는 용어로 ‘성공과 실패’보다는 ‘교육효과의 유무’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영어능력 향상’이 조기유학의 목적일 때 그 결과는 교육효과의 유무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는 조기유학을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이해할 때 수용 가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기유학을 청소년의 삶의 과정과 인생경로, 진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조기유학은 청소년에게 있어 문화충격을 전제하는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거대한 인생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기유학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2) 성공과 실패의 지표

(1) 개인적 성취

본 연구는 조기유학을 청소년의 삶의 과정, 인생의 경로라는 관점에서 수용하면서 조기유학의 결과를 ‘성공과 실패’로 정의하기로 하였다. 조기유학의 결과를 ‘성공과 실패’로 정의할 때 성공과 실패의 지표는 무엇인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개인적 성취이다.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의 의미는 협의의 관점에서 볼 때 ‘조기유학 출발 당시의 목적 달성 여부’를 의미한다. 조기유학 후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 정해진 진로, 즉 진학이나

8) 박영숙, 조기유학 전문가 자문회의(2009.5.29), 회의록 참조.

9) 손준중, 조기유학 전문가 자문회의(2009.5.29), 회의록 참조.

취업 등에 대해 청소년 당사자나 부모가 내리는 평가가 조기유학 결과의 주요 지표가 된다.

조기유학 후 진로유형은 정착지에 따라 국내와 국외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고졸 이후 현재 상태에 따라 대학 재학형, 취업형, 기타(진로미정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두 요인을 결합하면 조기유학생의 진로유형은 잠정적으로 국외대학진학형, 국외 취업형, 국외거주 진로미정형, 국내대학진학형, 국내취업형, 국내거주 진로 미정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순형의 연구에 따르면 조기유학을 준비하는 학부모의 자녀의 학업이나 유학 후 정착계획에 따르면 ‘유학 후 한국에서 다니던 학교에 돌아오겠다’는 응답이 23.6%, ‘특목고 학교에 진학시키겠다’는 응답이 7.9%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조기유학을 외국어능력 향상의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전체 응답의 31.5%를 차지하고 있다. 유학 후 외국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응답은 34.4%, 한국대학에 진학시키겠다는 응답은 5.4%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거나 기타의 응답이 27.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조기유학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외국대학진학까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양분됨을 알 수 있다(이순형, 2007:66-67).

학업 후 정착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공부 후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다’(26.6%)에 비해, 가능하면 계속 남아서 공부하고 싶다(26.1%), 가능하면 계속 남아서 취직하고 싶다(15.6%), 외국에 정착해서 살고싶다(12.1%)로 학업이나 취직을 위해, 또는 외국생활 자체를 위해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사가 53.8%로 절반이 넘는다.

조기유학 출발시 설정한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 자신의 평가가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2) 관계

조기유학은 삶의 기반인 문화권을 이동하게 됨으로 가족, 친구 등 관계의 형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조기유학으로 변화될 수 밖에 없는

인간관계에 대해 청소년 당사자와 가족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도 조기유학의 결과를 보여주는 한 지표이다.

조기유학은 가족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자녀의 조기유학, 자녀와 엄마의 동반 유학 등 가족구성원들이 국경을 가로질러 존재하는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 또는 다국적 가구(multinational household), 글로벌 별거가족(global split family) 또는 글로벌 가족이 생겨나고 있다.

권미경의 연구에 따르면 조기유학 시 가족과 동반하는 비율은 52.8%, 동반가족이 없는 경우는 47.2% 정도 나타났다(권미경, 2006:25). 유학국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족동반자가 없는 경우가 절반에 가깝다. 가족동반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 또는 형제만 동반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족형태의 변화는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기유학으로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서 생활하게 됨에 따라 상호작용이 줄어들어 부모 자식 간에 친밀감이 형성되기 어렵고, 부모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모델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조명덕(2000)은 자녀의 조기유학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선택 갈등 증가 및 부부관계의 변화 및 가족 해체를 들고 있다. 자녀의 조기유학을 선택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와 동반하는 경우, 혹은 자녀 혼자서 유학을 하는 경우, 가족관계 특성은 일반적인 가족생활 패턴과 달라질 것이며,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정도도 약해져서 가족이 해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녀의 조기유학 선택으로 자녀와 엄마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 해외에 거주하고, 아버지는 한국에 남아있는 경우 가족의 기능은 일반적인 가족에 비해 축소·변형된다(최양숙, 2005).¹⁰⁾

가족이 장기간 동거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가족관계의 문제로 아버지의 역할상실과 가족 간의 단란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대한 불만이 노출되고 있다(김성숙, 2006:151). 심지어는 장기간 별거에 따른 부부관계의 해체위기를 맞기도 한다(이순형외, 2007:452).

이에 반해 조기유학으로 가족이 떨어져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10) 조혜영. 조기유학생 학업수행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pp. 206~210

가족간 대화의 기회가 늘었다는 긍정적인 보고도 있다(이순형외, 2007:420).

청소년의 조기유학은 해외로 인간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 문화적 차이로 친구관계가 위축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조기유학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한국에서의 친구관계, 현지에서의 친구관계로 2 종류로 형성이 된다.

이순형 등의 연구에 따르면 조기유학 청소년들은 현지 친구보다 유학 전 한국에서의 친구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깊이 있는 친구를 맺을 수 있었지만 현지에서는 문화차이, 언어적 의사소통의 차이로 친밀한 친구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유학 중에 사귀는 한국 친구들도 서로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이 심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이다(이순형, 2007:447).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할 때 학교생활을 통한 친구관계가 충분하지 못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취약하게 노출되는 것이 조기유학 청소년의 인간관계의 결과가 되기 싶다.

관계는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측면을 구성하는 것이다. 조기유학으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변화를 청소년당사자와 부모가 어떻게 수용, 평가하고 있느냐 역시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를 보여주는 측면이 될 수 있다.

(3) 글로벌역량과 문화정체성 평가

조기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어 등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습득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이자. 글로벌 인재의 자질로서는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경영학은 글로벌 기업들의 인적자원 개발차원에서 글로벌리더의 조건과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Black, Morrison Gregersen (1999)은 'Global Explorers'라는 책에서 3년간 유럽, 북미, 아시아의 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글로벌 리더의 능력을 결정하는 주요 특성으로 호기심, 인성, 다양성 수용, 통찰력이라는 네 가지의 자질을 제시하였다. 네 가지 자질 중 다원성 수용은 타문화 이해와 수용과 관련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전 경험이나 신념을 일단 보유하고 당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취하면서도 통찰력에 근거하여 문제를 적절히 통합하는 능력을 말한다.

리상섭은 글로벌역량을 직무능력, 외국어능력, 이문화적응능력, 지도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직무능력이란 직무분야 전문지식과 컴퓨터사용능력 등을 의미하고 외국어능력은 영어 또는 현지어를 이해하고 그 언어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문화능력이란 해당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문화권에서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지도력으로는 자기주도적 능력과 다른 사람에 대한 동기화 능력 등을 의미한다(윤철경, 2008:32-33).

조기유학은 청소년에게 외국어는 물론 외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외국어능력 및 외국문화 이해와 수용능력을 키우기에 풍부한 여건이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로 인한 문화충격의 발생으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상당한 혼란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모국에서 사용하던 규범이 더 이상 적절한 행동방식이 아님을 알게 되고 문화적응의 부담을 갖게 된다.

타문화 이해와 수용능력이 글로벌역량의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이해와 수용이란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된 상태에서 건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조기유학 청소년의 경우, 문화충격은 자칫 자신의 문화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화정체성이란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이 소유하는 가치와 정서 등으로 인해 특정 문화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이다. 문화정체성은 각 개인이 자신이 소속한 사회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일반지식, 신념, 기대 등을 형성하고 그 사람이 사물, 상황, 타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의미를 해석하느냐를 결정짓는 인지적 정보처리의 틀, 또는 필터로서 기능한다. 이것은 한 개인의 행위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속감이나 정서적 의미를 넘어서 개인의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Tajfel, 1981; Shibutan & Kwan, 1966; Phinney, 1990; Uba, 1994, 양계민, 2008:39 에서 재인용).

조기유학이후 한국사회와 유학국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조기유학 청소년들의 문화정체성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조기유학 이후 청소년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은 보통정도로 가기 전에 비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학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혜신, 2006:57). 이것은 조기유학생들의 한국문화 정체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조기유학 청소년들이 외국어능력과 타문화이해수용능력 등 자신의 글로벌 역량이 어떻다고 평가하는 지, 자신은 한국사회와 현지사회 어느 쪽에 더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지, 조기유학 청소년이 조기유학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어느 정도 습득했다고 평가하는 지와 자신이 현재, 또는 향후 이러한 능력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 또는 기대하고 있는 지가 조기유학의 결과의 지표가 된다.

(4) 총체적 결과 : 행복감

외국어능력 및 국제적 감각의 습득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떠나는 조기유학은 성공 가능성과 실패의 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조기유학으로 인해 얻은 것이 있으며 또한 잃은 것이 있다. 많은 경제적 비용 부담, 기러기 가족 등 가정생활과 가족관계의 어려움,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조기유학으로 인한 인생의 행복감은 어느 정도일까? 조기유학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는가? 청소년과 부모의 조기유학 만족도와 행복감에 대한 평가 또한 조기유학의 결과의 한 측면으로 살펴볼 가치가 있다.

4. 조기유학 결과 관련 요인

1)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조기유학은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역경이다. 언어장벽, 문화충격, 기존 친구관계로부터의 단절, 가족관계로부터의 분리 등 관계적 고립 등을 상당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역경 속에 어떤 청소년은 성공하고 어떤 청소년은 실패하는가? 이를 탐색하기 위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살펴본다.

이해리는 청소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보호요인을 개인내적 특성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호요인은 위험 혹은 역경 상황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위험요인의 부적인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긍정적 적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적응유연성 요인이다(Garmezy, 1991). 즉 보호요인은 부적응적 결과를 낳기 쉬운 어떤 위기환경으로부터 개인의 반응을 수정, 개량하는 요인으로 위험요인이 청소년에게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개념이라면 보호요인은 행동문제를 보일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개념이다(Jessor et al., 1995).

이해리는 고역경에서 유연한 청소년사례연구를 통해 첫째, ‘목표와 희망’을 적응유연성의 보호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명한 목표의 설정과 더불어 목표를 향해 자기 스스로를 동기화하며 목표에 근접해 가는 태도를 말한다. 두 번째, 낙관주의이다. 낙관적인 청소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긍정적인 감정들과 결합하여 심리적 안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셋째, 종교적 영성은 신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본다는 믿음과 신뢰를 토대로 기도라는 영적 자원을 활용하여 역경을 이겨내도록 동기화한다.

<표 II-4> 조기유학 적응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 | | 임인숙(2008) | 이해리(2007) | |
|----------|---------------------|--|--|---|
| 보호 요인 | 개인 내적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감 - 계획성 - 자기유능감 - 내적통제소재 - 대인관계 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적(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 정서적(감정과 충동조절, 공감과 수용) - 의지적(목표와 희망, 낙관주의) - 영적(의미추구, 종교적 영성) | |
| | 사회 환경 적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의 지지 - 친구의 지지 - 교사의 지지 - 민주적 양육태도 - 민주적 학교 분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어머니의 돌봄과 기대, 가족간의 대화 등 의미 있는 상호작용) - 학교(교사의 지지와 기대, 의미 있는 상호작용) - 지역사회(이웃과 멘토, 교회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돌봄, 의미있는 상호작용) - 또래영역(친사회적 또래와의 교체, 긍정적 상호작용) | |
| 위험 요인 | 개인 적 요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역경(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 | |
| | 사회 환경 적 요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적 역경(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사망, 사고, 양육 결핍, 경제적 결핍) - 학교나 또래(폭력이나 소외와 같이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부정적 경험) -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부정적 영향 | |
| 결과 | 보호 요인 | 개인 내적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학생은 책임감(B=.231, p<.001), 유능감(B=.321, p<.001)으로 밝혀졌고 여학생은 유능감(B=.398, p<.01), 대인관계 기술(B=.331, p<.05)로 밝혀졌다. 남/여 조기 유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공통적 보호요인은 유능감으로 밝혀졌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들의 적응에 의미있게 관여하는 유연성 하위요인들은 인지적 유연성(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과 의지적 유연성(희망·목표, 낙관주의), 영적 유연성(의미추구, 종교적 영성)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사회 환경 적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학생은 민주적 학교분위기(B=.588, p<.001), 여학생은 교사의 지지(B=.358, p<.05)로 밝혀졌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와 지역사회 영역 자원이 의미 있게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위 험 요인 | 개인 적 요인 | | |
| | | 사회 환경 적 요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근본적인 역경이 가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제적 곤란은 부모 간의 불화로 연결되어 가족 내 폭력이나 이혼 고려, 별거 등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 여러 사례에서 폭력이나 괴롭힘을 경험하였는데, 학교에서의 집단 폭력과 따돌림이나 수용시설(보육원)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

임인숙(2008)의 중국조기유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여하는 보호요인을 탐색하였다. 임인숙 역시 보호요인을 개인내적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면서 개인내적 요인으로 책임감, 계획성, 자기유능감, 내적통제소재, 대인관계기술을 설정하였고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사회적지지, 민주적 양육태도, 민주적 학교 분위기를 설정하였다.

임인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기유학 고적응 집단의 보호요인이 성별로 차이가 있다. 남학생의 경우, 민주적 학교분위기, 유능감, 책임감 순으로 보호요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 교사의지지, 유능감, 대인관계기술 순으로 보호요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남녀학생 모두 개인적 특성으로 유능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남학생의 경우 민주적 학교분위기, 여학생의 경우 교사의 지지가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리와 임인숙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역경(조기유학)의 적응 보호요인으로 개인내적 특성으로 목표와 희망, 낙관주의, 유능감 등이 지적되었고 환경특성으로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돌봄과 기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지, 민주적 학교분위기 등이 학교환경변인이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기유학 유형과 조기유학결과

이순형 등의 연구는 조기유학 유형별로 조기유학결과를 살펴보고 있다(이순형, 2007;489-493). 먼저, 가족동반여부에 따라 볼 때 ‘가족동반형’이 ‘나홀로 유학형’보다 적응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혜신의 연구도 가족동반여부에 따라 조기유학 청소년의 스트레스 지각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을 동반한 유학생에 비해 가족을 동반하지 유학생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혜신, 2006:62)

유학기간에 따르면 2년이상의 ‘장기유학형’이, 2년미만의 ‘단기유학형’보다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목적에 따라 볼 때 ‘외국대학진학형’은 자신에 대한 신뢰와 도전의식이 강한 반면 불안, 우울 등 부정적 정서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특목고 진학을 위한 유학형’은 자기신뢰는 높고 우울과 불안은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하는 학교유형은 ‘사립학교’, ‘공립학교’, ‘국제학교’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마다 유학정책과 입학허가기준 있어 유학생의 재학학교 유형에 차이가 난다. 미국 유학의 경우 ‘사립학교’ 재학이 가장 높으며 ‘중국이나 동남아 유학’은 국제학교비율이 높다. ‘중국’이나 ‘동남아’ 유학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유학이 많아 가족동반유학이 주류를 이룬다. 중국유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미국유학생들의 학교성적이 가장 높다. 그러나 ‘불안’의 정도는 ‘미국유학생’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남아유학생’들의 불안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기유학을 가는 연령도 조기유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황혜신은 초기청소년기보다 후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조기유학생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황혜신, 2006: 62). 이는 후기청소년들이 초기청소년들에 비해 귀국여부나 진로결정 등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기유학의 목적은 연령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초등학생’들은 조기유학의 목적이 ‘외국어 실력의 향상’을 위해, ‘고등학생’들은 외국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경향이다. 초등학생들의 유학목적은 어학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은 교사에 대한 애착정도가 낮고 외모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춘기 시기의 청소년이 정체감 형성으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때임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등학교보다 이 시기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로 보인다(이순형, 2007:492).

3)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 요인

조삼섭(2006)의 연구는 조기유학의 성공요인으로 청소년의 의지력과 청소년을 지지하는 성인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으며 김익기(2006)의 연구는 조기유학의 결정 주체가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본인 스스로 조기유학을 결정한 청소년이 타인의 영향을 받아 유학을 온 청소년 보다 중국에 유학 온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강의(2006)의 연구는 조기유학준비정도가 조기유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학국의 학교생활, 혼자서 생활하는 방법, 현지어, 유학국의 문화와 생활방식 등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갈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으며 유학전 한국에서의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유학이후 학교적응도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강이는 또래애착과 조기유학생의 학교적응 및 학교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래애착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이강의, 2006: 43-44).

조기유학의 동기 또한 조기유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답답한 교육현실이 싫어서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하여 유학을 선택한 것보다는 자신의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조기유학을 선택한 것이라면 적응 상의 문제를 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초중고 중국조기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王星의 연구에 따르면(王星, 2006: 49-50), 학업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성별, 한국학교에서의 평균성적, 중국어실력, 중국인교사에 대한 만족도, 체류기간, 주거형태이며 유학결정자 및 사교육상황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교에서의 성적이 좋은 학생, 중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중국인친구와 잘 어울린다. 이는 유학전 사전준비 정도가 유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거형태로는 ‘기숙사’에 사는 집단이 ‘부모와 함께 사는 집’이나 ‘일반가정집’에 사는 학생보다 중국인

친구가 많으며 생활도 규칙적으로 관리하여 학교적응을 더 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족을 동반한 유학이 긍정적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른 연구결과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유학생 체류기간, 유학기간이 길수록 중국인 친구 수가 많아지고 관계도 원만해지며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조기유학의 결과 관련 요인

앞의 논의를 종합하면 조기유학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다음과 같이 5개 영역으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영향력을 미치는 방향은 <표 II-5>과 같다.

<표 II-5> 조기유학의 성공 및 실패 관련요인

| 영역 | 요인 | 성공에 미치는 영향 |
|--------|------------------|-----------------------------------|
| 사전준비요인 | 유학 동기 | 목표의식>도피성 |
| | 유학에 대한 의지 | 본인의 의지> 부모의 의지 |
| | 학업성적 | 좋음> 나쁨 |
| | 외국어 준비 | 잘됨> 안됨 |
| 개인적 요인 | 유능감, 책임감, 대인관계기술 | 높음> 낮음 |
| 학교요인 | 학교유형 | 민주적·지원형> 엄격·방임형 |
| | 교사관계 | 교사의 지지> 방임 |
| | 친구관계, 클럽활동 | 친사회적 > 고립 |
| 유학유형 | 유학목적 | 글로벌인재육성, 입시활용> 기타 |
| | 가족동반여부 | 가족동반형> 기타 |
| | 유학기간 | 장기형> 단기형 |
| | 유학시기 | 초등학교 저학년, 고등학생>사춘기(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

조기유학을 떠나가기 전, 또는 조기유학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련되는 사전준비 요인으로는 유학동기와 유학에 대한 자기 의지, 학업성적, 외국어 준비 정도가 있다. 목표의식이 분명할수록, 유학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강할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외국어 준비가 잘되어 있을수록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적 특성요인으로는 자신에 대한 유능감, 책임감, 대인관계기술이 높을수록 성공가능성이 높다.

셋째, 학교요인으로는 학교가 민주적인 분위기이고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지원적 분위기일 때, 교사와 지지적 관계를 맺을 때, 또래집단의 지지를 받을 때 성공가능성이 높다.

넷째, 유학유형별로 볼 때 유학의 목적이 외국대학 진학 등 글로벌 인재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할 때, 국내특목고 진학 등 입시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족동반 및 거주형태로 볼 때는 가족 동반형이 기러기 가족형이나 기숙사형, 홈스테이형보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가족동반보다 기숙사형이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유학기간별로는 장기형이 단기형에 비해 성공하기 쉽고 유학시기별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등 사춘기 청소년이 그 이전과 그 이후 시기에 비해 적응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Ⅲ. 연구방법

1. 조기유학 종료자 및 어머니 면접조사
개요
2. 전문가조사 개요

Ⅲ. 연구방법

1. 조기유학종료자 및 어머니 면접조사 개요

1) 조사대상

20대 연령의 조기유학을 종료자 18명과 그 어머니 18명

2) 표집방법 및 사례수

조기유학 종료자는 눈덩이 표집을 하였으며 조기유학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표 Ⅲ-1>과 같이 6개의 유형으로 사례수를 배정하였다.

<표 Ⅲ-1 > 조기유학 종료자 사례 수

| 조기유학 결과 | 표본수 | 결과분석 시* |
|------------|-----|-------------|
| 1.현지거주 취업형 | 3 | 성공사례 |
| 2.현지거주 진학형 | 3 | 성공사례 |
| 3.현지거주 미정형 | 3 | 실패사례 |
| 4.국내귀국 취업형 | 3 | 성공 또는 실패 사례 |
| 5.국내귀국 진학형 | 3 | 성공 또는 실패사례 |
| 6.국내귀국 미정형 | 3 | 실패사례 |

3) 조사방법

미국 보스턴 소재 사회단체인 BNM과 협력하여 면접원 및 조사표본을 뽑았다. 면접조사는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미국 조사 표본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면접원이, 한국 조사 표본은 한국에 거주하는 면접

원이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는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면접원에 대한 사전교육이 한국과 미국에서 각기 이루어졌다.

면접조사는 2009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실시되었으며 면접시간은 2시간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다.

4) 면접조사내용

면접조사도구는 조기유학종료자용과 어머니용으로 초안을 개발한 후 일차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정·보완되었으며 이차로 예비조사를 통해 보완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면접조사도구의 구성내용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조기유학종료자 면접조사내용

| 영역 | 문항 |
|---------|---|
| 인구학적 배경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령 2. 성별 3. 유학시작학년과 유학기간 4. 유학지 5. 학력(유학지에서의 최종학교명, 전공/한국에서의 최종학교명, 전공) 6. 부모의 직업과 경제수준 7. 결혼여부 |
| 유학결정과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기유학동기 2. 유학결정주체 3. 유학관련 정보의 도움처 4. 가족동반여부 5. 조기유학 결정당시 향후 계획 6. 유학전 학업성적 및 외국어 수준 |
| 조기유학생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학한 학교의 특성 및 분위기 2. 학교생활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친구관계 2.2 클럽활동, 종교생활 2.3 공부나 학업성적 2.4 문화차이와 적응 2.5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

| | |
|-------------|--|
| 조기유학종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료사유 2. 연장의사 |
| 조기유학에 대한 평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자신의 성격에 미친 영향 2.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3. 친구관계에 미친 영향 4. 진학 및 진로에 미친 영향 5. 글로벌 역량 또는 문화정체성에 미친 영향 6. 성공적인 조기유학의 의미 7. 조기유학 재선택 의사 8. 조기유학이 현재 삶에 주는 도움 |
| 현재의 생활 | <p>【학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학성과에 대한 만족 2. 입학전형방법 3. 외국인 학생으로서의 유, 불리 4. 취업계획 5. 계획의 달성가능성 <p>【취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의 직장 2. 직장에 대한 만족도 3. 역량 발휘하는 데 만족한 직장인 지 4. 취업방식 5. 미래에 대한 계획 <p>【기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하는 일 2. 진학, 취업하지 못한 이유 3. 당면과제 4. 미래에 대한 계획과 달성가능성 |

<표 III-3> 조기유학종료자 어머니 면접조사내용

| 영역 | 문항 |
|---------|---|
| 인구학적 배경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령 2. 본인 학력/배우자 학력 3. 자녀의 수 및 유학여부 4. 자녀유학시 동반거주 여부 |

| | |
|-----------------|--|
| 자녀의 조기유학 결정과정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의 조기유학 추진동기 2. 유학결정주체와 자녀의 의사 3. 유학관련 정보의 도움처 4. 자녀의 거주형태 5. 조기유학 결정당시 향후 계획 6. 유학전 학업성적 및 외국어 수준, 가족관계 |
| 자녀의 조기유학생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로서 가장 어려웠던 일 2. 조기유학에 대한 기대와 현실 |
|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평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녀의 성격에 미친 영향 2.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3. 친구관계에 미친 영향 4. 진학 및 진로에 미친 영향 5. 글로벌 역량 또는 문화정체성에 미친 영향 6. 성공적인 조기유학의 의미 7. 조기유학 재선택 의사 8. 조기유학이 현재 삶에 주는 도움 |

2. 전문가조사 개요

1) 면접대상

조기유학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보스턴 지역의 한 고등학교와 유학원, 사회단체를 방문하여 조기유학생과 함께 일하고 있는 전문가를 면접하였다. 면접일정은 <표 III-4>와 같다.

2) 면접방법

면접은 개별면접과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현지의 학교와 유학원은 방문하여 개별면접을 하였으며 면접요원 및 관련 전문가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III-4> 전문가 면접 일정

| 일 시 | 일 정 | 면접자 | 내 용 |
|---------|------------------|-----------------|-------------------------------------|
| 9.17(목) | BNM 연구소 | 천○○ | 면담 |
| 9.18(금) | B유학원/ 면접요원 회의 | J○○ 김○○ 등 6인 | 조기유학에 대한 면담 연구취지 및 면접조사 개요 설명 회의 |
| 9.19(토) | - | - | - |
| 9.20(일) | 포커스그룹인터뷰 | 김○○ 등 4인 | 조기유학에 대한 면담 |
| 9.21(월) | L 유학원 | E○○ | 관리형 유학에 대한 면담 |
| 9.22(화) | 면접요원회의 | 천○○, 안○○ | 예비조사결과 검토회의 |

3) 면접내용

| 조사대상 | 문 항 |
|------|--|
| 유학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간유학소요비용 2. 유학원의 서비스 3. 유학원 접촉경로 4. 연간 유학생 모집인원수 5. 부적응학생에 대한 지원 6. 유학원 보호관리의 유용성 |
| 학교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의 특성 2. 외국인학생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응과정의 문제 - 어떤 어려움 -한국학생에 대한 평가 |

IV.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의 조기유학 유형과 실태 분석
2. 조기유학의 결과 분석
3. 조기유학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 현지 학교와 유학원 사례를 통해 본 조기유학 현황
5. 조기유학의 문제점 분석 및 정책대안

IV. 연구결과

본 절에서는 미국에서 유학생생활을 경험한 조기유학종료자¹¹⁾ 18명, 조기유학종료자의 어머니 18명의 조기유학 경험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와 현지 학교와 유학원 및 현지 전문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조기유학 종료자와 어머니에 대한 사례 분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 졌다. 첫째, 조기유학 준비 및 결정과정, 학교생활 등을 통해 조기유학의 유형과 실태를 분석했다. 둘째, 조기유학의 결과를 분석했다. 조기유학의 결과는 학업성취와 취업 등 개인적 성취의 측면, 친구관계와 가족관계 등 관계의 측면, 조기유학의 주요 동기가 되고 있는 글로벌 역량 또는 문화정체성 측면에서 조기유학 종료자 본인과 부모의 평가를 통해 분석하였다. 셋째, 조기유학의 결과를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절반의 성공사례)로 분석하고 이것과 관련된 변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조기유학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와 유학원, 현지 전문가 면접 조사결과를 통해서는 조기유학현황을 분석하였다. 즉, 현지학교의 외국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 현황, 조기유학생의 학교생활 실태 및 적응문제, 유학원의 조기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및 비용실태, 조기유학생의 적응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조기유학 종료자 및 어머니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현지전문가 조사결과분석을 바탕으로 조기유학 문제점을 도출 한 후 조기유학에 대한 정책대안을 탐색하였다. 정책대안 탐색은 ① 조기유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전한 조기유학 정책, ② 조기유학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 ③ 조기유학 종료자의 활용촉진대책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11) 본 연구에서 조기유학종료자라 함은 만 18세 이전에 초·중·고등학교 시기부터 해외 유학을 시작하여 고등학교까지 해외에서 학업을 중도탈락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례를 의미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취업·미취업, 결혼한 사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1. 연구참여자의 조기유학 유형과 실태 분석

1) 조기유학종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IV-1>에서는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 종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기유학종료자 18명 중 4명을 단위로 성별, (현재) 연령, 유학 시작부터 종료까지 소요된 총 기간, (유학 시작 시) 한국에서의 최종 학년, (유학 이전) 한국에서의 학교 성적 및 영어 실력, (유학 시작 시) 미국에 입학한 학교 유형, 유학 중 최종 학교(학력) 및 전공, 한국으로의 귀국 또는 미국 체류 여부, 부모의 직업 및 부모의 경제 수준을 요약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유학종료자의 성별로는 여성이 10명, 남성이 8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종료자는 유학시작 시점으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유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조기유학종료자의 2/3는 단독으로 사립기숙사학교에 생활하면 유학생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매우 이른 시기에 타국에서의 독립생활을 시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조기유학종료자의 1/3은 어머니나 부모의 지인, 홈스테이로 유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자 모두 최소 6년 이상의 유학경험을 가진 장기유학 사례에 해당하였다.

유학 당시, 한국에서의 학교성적은 조기유학종료자의 절반 이상이 반에서 5등 이내 또는 전교 10등 이내였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반에서 10등 내외의 성적을 유지하거나 반에서 중간 등수의 성적을 가졌던 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유학 당시, 영어실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간단한 영어회화정도는 가능했지만, 능수능란하게 영어로 작문을 하거나 편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례 12나 사례 13처럼 유학 이전에 이미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또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재미있게 느끼고 이를 좋아했던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학교 유형으로는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종료자의 2/3는 사립기

숙사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는 외국학생 신분으로 말미암아 공립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한 ‘기러기가족’으로 부모 중 아버지나 어머니가 별거하면서 조기유학생과 함께 동거하는 유학형태를 취하기보다는 사립기숙사학교가 소규모이지만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명문대학으로의 입학률이 높기 때문에 사립기숙사학교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공립학교에 입학한 경우는 사례 9, 사례 12, 사례 18처럼 미국에 친척이나 부모님의 지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친척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기유학 종료 이후 입학한 대학교는 미 동부지역에 위치한 명문사립대학이거나 주립대학으로 나타났다. 명문사립대학이나 주립대학에 입학한 경우 모두, 고등학교 성적이 최상위권에 속해야 입학이 가능한 학교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학졸업 이후 진로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미국에 위치한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한국에 귀국하여 한국에 소재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사례 8이나 사례 13과 같이 미국 현지에서 교포 또는 본인과 비슷한 조기유학 출신과 결혼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사례 1이나 사례 16과 같이 결혼하여 한국에 돌아와서 전업주부로 지내는 사례도 있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련하여 본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이 유학 당시 사립(명문)기숙사학교에 입학했던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아버지의 직업이 변호사나 의사, 대기업의 상무,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조기유학종료자 본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상층 이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직업이 목사나 향수도매업과 같은 중소상인일 경우에는 조기유학종료자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서민층이나 중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1> 조기유학 종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1)

| | 사례 1 | 사례 2 | 사례 3 | 사례 4 |
|---------------------|--|---|---|---|
| 성별 | 여 | 여 | 여 | 남 |
| (현재) 연령 | 28세 | 25세 | 27세 | 29세 |
| 유학체류 기간 | 11년 | 8년 | 7년 | 19년 |
| (유학 시작 시, 한국) 학년 | 중학교 졸업 |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재학 | 중학교 1학년 |
| (유학 이전) 학교 성적, 영어실력 | 영어에 능숙함 | -중상위권 -영어: 문법은 익숙했음; 말하기는 그리 익숙하지 않음 | -학급 상위 5% 내외 -영어: 기본적인 회화 가능; 읽기실력은 좋았음. | -반에서 중간 -외국어 능력은 외국인과 대화가 자유롭게 가능함. |
| (유학 시작 시, 미국) 학교 | 사립여자 기숙사학교 | -공립학교 (첫 4개월) -기독교사립학교 (1년 6개월) -기숙사학교 (1년 6개월) | 사립기숙사학교 | 사립기숙사학교 |
| 최종학교명, 전공 | Boston University, Mass communication public relations | Wellesley College, Economics | Tufts University. 심리학 | Tufts University. School of Dental Medicine |
| 현재 직업 | 영국 유치원 교사 | 서울대 대학원 재학 | 외국계 헤드헌팅 회사 근무 | 치과대학원생 |
| 귀국 여부 | 한국에 귀국함 | 한국에 귀국함 | 한국에 귀국함 | 미국에 체류 중 |
| 부모 직업 | 부-변호사 (작은 법률회사 운영) 모-전업주부 | 부-변호사 모-전업주부 | 모 -부모교육 강사 | 부-신문기자 모-commercial consultant |
| 부모 경제수준 | -경제적으로 여유로움 -유학에 대한 부담은 없었음 | 보통 | 상층 | 중산층 |

<표 IV-2> 조기유학 종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2)

| | 사례 5 | 사례 6 | 사례 7 | 사례 8 |
|---------------------|--------------------------------------|--|--|----------------------------------|
| 성별 | 남 | 여 | 여 | 남 |
| (현재) 연령 | 28세 | 28세 | 21세 | 32세 |
| 유학체류 기간 | 14년 | 11년 | 6년 | 9년 |
| (유학 시작 시, 한국) 학년 |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 중학교 | 중학교 졸업 |
| (유학 이전) 학교 성적, 영어실력 | -반 5등 이내 -꽤 잘하는 편이었음 | -반 10등~15등 -영어구사능력은 자기소개도 하지 못했던 상태였음 | -반 10등 정도 -간단한 회화를 할 수 있는 정도였음 | -중상층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인사말 정도 가능함 |
| (유학 시작 시, 미국) 학교 | 사립기숙사학교 | 사립 기독교기숙사학교 | 사립기숙사학교 | 사립기숙사학교 |
| 최종학교명, 전공 | University of Toronto (학사/석사), 고대근동학 |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통번역전공 |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Graphic design | University of Connecticut, 경영전공 |
| 현재 직업 | 대학원생 | 한국 국가기관에서 일했다가 잠시 쉬고 있음 | 대학생 | IT관련 업종 |
| 귀국 여부 | 미국에 체류 중 | 한국에 귀국함 | 미국에 체류 중 | 미국에 체류 중 |
| 부모 직업 | 부-목사 모-개인사업 | 사업가 | 자영업 | 부-개인사업 모-주부 |
| 부모 경제수준 | 상중층 | 중상층 | 중상층 | 중상층 |

<표 IV-3> 조기유학 종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3)

| | 사례 9 | 사례 10 | 사례 11 | 사례 12 |
|---------------------|-------------------------------|------------------------------------|---|--|
| 성별 | 남 | 여 | 여 | 남 |
| (현재) 연령 | 20세 | 29세 | 29세 | 24세 |
| 유학체류 기간 | 6년 | 10년 | 9년 | 9년 |
| (유학 시작 시, 한국) 학년 | 중학교 | 고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
| (유학 이전) 학교 성적, 영어실력 | -반에서 상위 -기본적인 회화를 하는 정도였음. | -반에서 5등 이내 -간단한 의사소통이 겨우 가능하였음. | -반에서 상위 -간단한 회화가 가능한 수준. | -반에서 5등 정도 -영어로 말하는 게 재미있었고 회화에는 문제가 없었음. |
| (유학 시작 시, 미국) 학교 | 공립학교 | 사립 여자기숙사학교 | 사립기숙사학교 | 공립학교 |
| 최종학교명, 전공 | Cooper Union, Architecture | Stanford University, 교육정책연구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nternational Relations; (한국) 국제학대학원, 국제협력전공 | New York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
| 현재 직업 | 대학생 | 대학원 연구실 연구조원 | 대학원생 | 치대대학원생 |
| 귀국 여부 | 미국 체류 중 | 미국 체류 중 | 한국에 귀국함 | 미국 체류 중 |
| 부모 직업 | 자영업 | 부-변호사 모-전업주부 | 부-의사 모-교수 | 부-보험회사 상무 모-한의사 |
| 부모 경제수준 | - | 중상층 | 중상층 | 상층 |

<표 IV-4> 조기유학 종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4)

| | 사례 13 | 사례 14 | 사례 15 | 사례 16 |
|---------------------|--|--|---|---|
| 성별 | 남 | 남 | 남 | 여 |
| (현재) 연령 | 28세 | 26세 | 28세 | 30세 |
| 유학체류 기간 | 13년 | 11년 | 7년 | 9년 |
| (유학 시작 시, 한국) 학년 | 중학교 1학년 | 예술중학교 | 고등학교 1학년 | 중학교 졸업 |
| (유학 이전) 학교 성적, 영어실력 | -전교 3등 이내 -미국사람과 회화 수준이 좋았던 편임 | -중상위권 -영어는 기본적인 단어만 할 수 있었음 | -중학교: 전교 한 자릿수 -고등학교: 전교 세 자릿수 (내신성적은 나빴으나, 모의고사 성적은 아주 좋았음) | -중간 정도 -간단한 회화 정도는 가능했음 |
| (유학 시작 시, 미국) 학교 | 사립기숙사학교 | 카톨릭 사립기숙사학교 | 사립카톨릭학교 | 기독교 사립기숙사학교 |
| 최종학교명, 전공 | -Cornell University (학부, 석사)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Master of Divinity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Violin (학부를 끝내지 못함); 요리학교에 입학함. | -Harvard University, Economics(학부) -Harvard University, Statistics(석사) | -Woodbury University(CA) 패션 전공(학부)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NY), 패션디자인 1년(대학원) |
| 현재 직업 | 사립고등학교 교사 | 요리학교 학생으로 등록 | Strategy/Economic consulting | 전업주부 |
| 귀국 여부 | 미국 체류 중 | 미국 체류 중 | 미국 체류 중 | 한국에 귀국함 |
| 부모 직업 | 광고회사 | 향수도매업 | 부-금융업 모-전업주부 | 부-사업가 모-전업주부 |
| 부모 경제수준 | 중상층 | 중하층 | 중상층 | 상층 |

<표 IV-5> 조기유학 종료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5)

| | 사례 17 | 사례 18 |
|---------------------|---|--|
| 성별 | 여 | 여 |
| (현재) 연령 | 28세 | 26세 |
| 유학체류 기간 | 8년 | 12년 |
| (유학 시작 시, 한국) 학년 | 중학교 | 고등학교 1학년 |
| (유학 이전) 학교 성적, 영어실력 | -전교 5등~10등 -영어는 상당히 잘 하는 편이었음. 그러나 현지에서 영어 쓰기과 듣기가 쉽지는 않았음. | -전교 5등 이내 -영어는 기본 회화는 하는 정도. 영어는 유독 못한 편이었음. |
| (유학 시작 시, 미국) 학교 | 사립기숙사학교 | 공립학교 |
| 최종학교명, 전공 | Wellesley College, International Relations | New York University, 치대 |
| 현재 직업 | 중이회사, Senior marketing coordinator | 치과대학원생 |
| 귀국 여부 | 미국 체류 중 | 미국 체류 중 |
| 부모 직업 | 부-제조업 회사 운영 | 부-목사 |
| 부모 경제수준 | 중상층 | 서민층 |

2) 조기유학의 유형

(1) 조기유학의 결정동기와 목적: 글로벌인재육성형 vs. 대안교육형

조기유학의 결정동기와 목적에 따라서는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 종료자는 대안교육형과 글로벌인재육성형이 혼재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종료자 중에는 외국어능력 향상만을 목적으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어학연수형이나 조기유학의 경험으로 특수목적고등

학교나 한국에서의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례는 없었다.

글로벌인재육성형은 좀 더 자유롭고 전인적인 교육환경에서 질 좋은 교육을 기대하여 조기유학을 결정한 대안교육형이나, 외국경험을 통해 외국에서의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조기유학을 결정한 사례에 해당한다. 조기유학에 시작하게 된 계기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인재육성형인 경우는 형제자매관계에서 현재 유학 중인 언니나 친척, 본인이 캐나다나 미국 등에 살고 있는 친지 방문이나 여행, 조기 어학연수 등을 경험한 후 해외유학생생활에서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수업 선택과 수업방식, 폭이 넓고 자유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매력, 건문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가능성, 영어로 수업을 함으로써 영어실력 함양 및 글로벌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가 주요하였다. 글로벌인재육성형으로는 사례 1, 사례 7, 사례 9, 사례 10, 사례 11, 사례 13, 사례 15, 사례 16, 사례 17, 사례 18이 포함된다. 대안교육형으로는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사례 6, 사례 8, 사례 12, 사례 14가 이에 속한다.

사실 두 살 터울 언니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기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나는 언니가 유학 가서 너무나도 잘 지내고, 방학 때 한국에 올 때마다 나도 너무나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게 되었어요, 일단 언니가 미국에 조기유학을 너무 잘 적응해서 부모님하고 나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방학 때 올 때마다 미국에서 각종 선물이나 물건을 가져오고, 미국 친구들과 찍은 사진 등을 보여 줄 때마다 샘이 너무 났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영어실력도 많이 늘었고, 언니 스스로 너무 만족해하는 모습에 나도 반드시 유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사례 1)

더 넓고 자유로운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 어머니의 권유로 가게 되었어요, 또한 저는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자신감과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사례 4)

중 1때 캐나다에 여행 갔다가 캐나다에 반해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지고 확실해졌어요, 엄격한 규율과 처벌이 있는 한국 학교와 교육방식도 싫었구요.(사례 5)

당시 음악전공을 하고 있어서 음악을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싶어서요, 또한 한국보다는 경쟁력이 심하지 않으면서 음악을 보다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곳에서 교육받기 위해서.(사례 11)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당시 외삼촌을 뵈러 캐나다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약 3주정도 머무르고 있었을 때 외국생활이 너무 멋있고 좋아서 조기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패션이나 미술, 그리고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에서 공부하기보다는 환경이 더 크고 자유로운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다가 캐나다에 방문한 후 정말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졌고 그 다음해 큰 언니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결심을 굳히게 되었어요.(사례 16)

두 번의 어학연수를 통해서 제가 원해서 오게 되었어요, 중학교 때 유학을 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한번쯤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은 생각도 트이고 표현력이 좋으며 자신감도 높은 것을 볼 때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과 언어,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어서.(사례 17)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워낙 좋아했고 또 성적이 늘 상위권이라 어렵듯이 있던 꿈을 나름대로 펼쳐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제약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에 계셨던 아버지 친구분의 권유로 그리고 부모님의 권유로 유학을 오게 되었어요..... 성적은 전교에서 5등 이내로 줄곧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아버지 친구 분의 권유와 부모님의 동의하에 결정했지만 본인의 의지는 없었어요.(사례 18)

아이들이 좀 더 편하고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추진하게 되었다.(사례 4 어머니)

예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 본인의 마음과 딸의 의사로 인해서.(사례 7 어머니)

음악을 공부하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크고 음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었기 때문에.(사례 14 어머니)

장애가 있었기는 하지만 워낙 머리가 비상하고 운동(수영)을 훌륭하게 하여 상도 많이 받고 몸은 자유롭게 쓰지 못하더라도 그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있을 때에 남편 친구가 본인의 아들 같은 인재를 한국에 그냥 놔둘 수 없다고 제안했어요, 미국처럼 크고 넓고 자유롭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에게 맞추어져 편안히 되어 있는 시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비교도 안 되게 나은 더 편하고 큰 세계에 나가 보고 배우면 후에 쓰일 날이 많을 것임을 생각하고 준비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고해 봤을 때 유학을 추진하게 되었어요.(사례 15 어머니)

대안교육형의 경우는 유학 결정 당시 한국에서 학업성적이 상위권이던 중위권에 속하든지 간에 치열한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컸으며, 이러한 한국의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혹시 낙오가 되거나 크게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조기유학자 본인과 마찬가지로 부모 역시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이나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족, 사교육과 유학을 비교하여 오히려 유학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여 조기유학을 추진하게 된 동기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공부가 대학입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자기개발이나 여가생활을 할 여유가 없이 밤낮으로 학교수업과 학원으로 이어지는 공부에 대한 압박이 컸기 때문에 해외유학에 대한 부모나 주변의 지인으로부터의 권유나 본인의 직접적인 타국방문과 문화체험은 비록 어린 나이에 시작되는 조기유학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유학에 대한 결정동기와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안교육형에 속한 연구참여자 모두 한국에서의 입시위주나 암기위주의 교육방식에 대한 대안교육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에서의 조기유학을 선택했지만 또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글로벌역량을 가진, 국제적인 언어를 획득하고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조기유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대안교육형과 글로벌인재육성형이 함께 혼재된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한국은 입시위주 교육인데, 내가 입시교육시스템에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암기하고 시험 보는 것을 잘 못했어요.(사례 2)

비록 성적은 좋았으나 고등학교 진학 후 모든 공부가 대학입시에 집중되는 학교시스템으로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어 공부와 생활에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유학도 고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자녀를 유학시킨 경험이 있으신 분이 미국학교에서는 시험성적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지 않고 학습방법도 우리나라의 암기위주의 천편일률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한다며 미국 유학을 적극 추천해 주셔서 조기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어요.(사례 3)

한국에서 성적은 보통이었지만 목표는 높았기에 한국에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학교생활은 나름대로 재미있게 있었지만 외국에 대한 동경이 많았었고 또한 외국생활이 해보고 싶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보다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인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사례 6)

중 2 겨울방학 때 영어공부 차 잠시 미국에 갔다가 공부환경이 자유롭고 편하고 무엇보다 대학입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등 더 나은 점이 많을 것 같아서 미국에 계속 있으며 유학생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사례 12)

한국은 대학에 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너무나도 공부에 목숨을 걸고 하여 자유와 선택이 아닌 거의 강요에 의해 하게 되어 흥미를 잃을 뿐더러 거의 단 한 번의 기회로 대학이 결정되지만 미국은 선택의 폭과 기회 또한 넓다고 들었기 때문에 꼭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국내에서만 공부하면 세계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고 또한 보다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다른 나라 친구들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마음에, 또 사촌형이 조기유학을 한 적이 있는 데 들어보니 미국은 수업방식도 자유롭고 또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례 13)

큰 아이가 고등학교를 갈 때쯤 한국은 이미 중3을 고3처럼 사교육을 시켰어요. 딸이 셋인데 엄마인 내가 자신이 없어졌어요.....한 번씩 딸 아이에게 물어봐도 가고 싶다고 했고 한국교육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사례 1 어머니),

중3 진학하면서 국사, 가사, 기술 등 어머니 아버지 세대부터 해왔고 달라지지 않은 한국의 교육 현실이 암담해서 추진하게 되었어요.....한국 교육의 질 자체가 변하지 않아서, 영어 실력 향상이 가장 큰 선택 이유였고 또 애들이 학교생활 할 때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사례 2 어머니),

딸이 한국 공부가 재미없고 4지선다형 공부가 싫다고 했어요. 미국이면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사례 3 어머니)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입시가 힘들고 쓸데없이 힘을 많이 쏟는

다는 생각과 사교육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재정을 생각하니 유학을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되서,(사례 6 어머니)

(2) 조기유학의 결정주체

조기유학의 결정주체는 본인주도형, 부모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본인주도형이나 부모주도형은 모두 조기유학을 진행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유학원에만 맡긴 경우는 없었다. 유학원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유학지나 관련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활용하기 위해서였으며, 동시에 부모나 지인 등이 직접 현장답사를 한 후 자녀가 조기유학을 할 지역과 학교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주도형의 경우는 본인이 먼저 조기유학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부모에게 보이고 설득한 사례이며, 이에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받아들여 조기유학을 결정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기유학종료자 본인이 조기유학을 강력히 원했던 본인의지형인 경우에도 조기유학의 주요한 결정주체가 조기유학자 본인이었지만, 조기유학이 결정된 이후에는 부모가 유학원에 일방적으로 조기유학을 맡기기 보다는 부모가 직접 지인이나 유학원으로부터의 유학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유학 전 과정을 관할하고 추진한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 본인주도형으로는 사례 1, 사례 3, 사례 5, 사례 6, 사례 8, 사례 12, 사례 13, 사례 15, 사례 16, 사례 17의 경우가 해당한다. 특히, 사례 6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 가고 싶어서 혼자 먼저 결정하고 유학을 준비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어구사력은 간단한 자기소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서 열린 유학박람회에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현지에서 온 학교장을 만나보고 지원하면서 조기유학이 성사되었다.

저는 제가 너무나도 가고 싶어했고, 부모님도 그에 수긍하셨어요.
(사례 1)

100% 본인의 의사였고 부모님은 하루 고민하신 후에 허락하셨어요.(사례 5)

스스로 가고 싶어서 혼자 결정하고 준비하였고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을 하셨지만 동의하셨고 저의 의견은 존중해 주셨어요.....유학박람회 참석해서 현지에서 온 학교장들을 만나보고 지원했어요.(사례 6)

제가 가고 싶어서 2년간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사례 8)

보낼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아이가 원해서 보냈어요. 너무나도 유학을 원했어요(사례 13 어머니)

아이가 너무나 강하게 원했어요. 캐나다로 여행을 다녀온 후 외국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가서 공부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직 아이가 어려 고민을 했지만 이미 큰 딸이 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내고자 준비를 시작했고 아이가 계속 강하게 원했기 때문에 결국 아이 아빠도 허락하게 되었어요.(사례 16 어머니)

아이가 워낙 공부도 잘하고 한국에서도 적응을 잘했기 때문에 사실 유학을 보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유학의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유학에 관한 책을 읽으며 주변의 유학을 다녀온 사람을 만나 의견도 물으며 준비하는 딸을 보며 또한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추진하게 되었어요.(사례 17 어머니)

부모주도형은 부모나 부모의 지인의 권유로 유학이 논의되어, 유학추진 전반에 걸쳐 부모가 모든 과정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유학자의 부모가 미국 현지 사정 및 유학지에 대한 정보를 직접 탐문하고 유학에 필요한 일체의 과정을 충분히 숙고하며 섭렵한 이후에 자녀의 조기유학을 진행한 경우이다. 또한 직접 부모가 유학에 필요

한 모든 준비를 담당하여 서류작성까지 직접적으로 작성한 후, 현지 학교에 연락하여 자녀의 입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사례 2, 사례 4, 사례 9, 사례 10, 사례 11, 사례 14, 사례 18의 사례가 부모주도형에 해당한다.

어머니의 의견을 들었고 저는 중립이었어요.(사례 4)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고, 부모님의 뜻과 다르지 않았어요.(사례 9)

부모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지만, 저도 유학을 원했어요. (사례 11)

외삼촌께서 의견을 처음 내시고 어머니께서 동의하셨어요. 그 당시 미국에 있었던 사촌들에게 미국의 교육환경에 관해 들었을 때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는 생각에 모험적이라 생각되어서 저도 유학을 추진하게 됐어요.(사례 14)

아버지 친구분의 권유와 부모님의 동의하에 결정했지만 본인의 의지는 없었어요.(사례 18)

3) 조기유학 생활

조기유학생들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조기유학 당시에 다닌 학교의 특성과 분위기,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 등 학교적응에 대한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참여자 18명 중 공립학교에 다닌 경우는 4명에 불과하며, 이외에는 모두 사립기숙사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2의 경우는 한국을 떠나 첫 4개월은 공립학교에 등록했었지만 이후 기독교 사립학교, 사립기숙사학교를 각 1년 6개월씩 다녔다. 이는 한국 국적을 가진 조기유학생이 미국 현지에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공립학교에 등록하기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 점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사

립기속사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하여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소규모로 교사와 학생간의 비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자녀의 학업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관리까지도 공립학교에 비하여 사립학교가 훨씬 안전하고 수월하다는 이점 때문에 사립기속사학교를 더욱 선호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문 사립기속사학교의 경우는 대학입시에 대해서도 많은 학교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여타 공립학교에 비하여 많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성취와 진로를 위해 조기유학을 결정한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한 사립기속사학교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1)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① 조기유학 종료자

미국 유학생생활에서 가장 기대하고 또한 바라고 있던 점은 한국보다 좀 더 자유로운 교육방식과 학교분위기, 더 많은 자유시간과 여유로움으로 들 수 있다. 이는 본 연구 참여자 모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이기도 할 수 있는 데, 조기유학을 오기 전 한국 학교에서 겪었던 시험 위주의 평가와 교육방식에 대한 불만, 입시위주의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 수록 입시라는 압력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미국에서의 유학생생활을 좀 더 많이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에서 유학생생활을 경험했던 선배나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기유학생생활에서는 한국에서보다는 좀 더 깊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며, 또한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기유학에서 경험하게 되리라는 여러 기대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본인이 가졌던 기대감에 부응하는 조기유학생생활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조기유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학교생활에서 한국에서와는 달리 클럽활동을 통

해 특히 운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 수 있었고, 좀 더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사례 3의 경우와 같이 한국에서의 암기와 시험위주의 평가를 대처할 수 있는 미국 학교에서의 발표 위주의 교육방식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졌던 것과는 달리 유학초기에 본인의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인하여 토론이나 발표 위주의 수업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기유학이 본인의 의지나 바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비하여 전적으로 부모의 의지로 조기유학이 이루어진 사례 14이나 사례 18의 경우는 조기유학에 대한 기대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조기유학에 대한 특별한 기대감이나 바람이 없이 시작한 경우에는 미국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좀 더 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적응하면서 학업성취에 필요한 부분만을 관리하며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국생활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은 한국에서 매일 학원 다니며, 공부만 하는 것을 벗어나고 싶었고, 외국인 친구들과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운동하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지내고 싶었어요.....한국에 있을 때 중학교 3학년 때도 저는 밤 11시까지 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사례 1)

한국에서 시험으로 내 자신의 성적이 결정 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또한 학교성적이 내 실력을 충분히 반영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실력평가방법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뿐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발표하는 것을 좋아하는 데, 한국에서 발표가 있어도 점수에 크게 반영도 되지 않고 그런 발표문화도 조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시험뿐 만 아니라 토론이나 발표 수업을 통해서 학생을 평가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좀 더 나의 다양한 면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 면에서 교육의 환경과 질이 미국이 한국보다 더 좋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당시에는 그저 한국 학교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단순히 다른 환경에 가고 싶었지 구체적인

기대사항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한국에서의 암기 위주식 수업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영어가 부족하니깐, 영어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거나 답을 다 외워버렸어요.....토론이나 발표식 수업 방식이 좋기는 했지만, 영어실력이 부족해서 한국말로 했을 때 보다 실력 발휘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로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니깐 오히려 토론과 발표가 스트레스가 되었어요.(사례 3)

한국처럼 학원이나 다른 과외를 하지 않고 학교공부에만 충실해도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전반적으로 노력에 대한 댓가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어요.....뭔가 색다르겠다라는 기대가 전반적으로 많았어요. 교육환경이라든지 특별히 한국과는 다른 문화에서 특히 기숙사라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 특히 교사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며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학업을 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 미국교육이라는 것이 수업시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닌 삶의 터전과 또한 여가시간을 통해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본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었어요.....자유자재로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과 달랐던 것은 거의 없었고 그저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사례 4)

자유로움과 평화로움 속에 느낄 수 있는 여유, 그로 인해 공부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했어요.....모두 같지만 생각보다 미국도 학업에 관심이나 열정이 많고 또한 선생님들도 학생에게 은근히 주는 압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요.(사례 7)

외국학교에서는 자율성과 또 너무 많은 과목수의 부담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고, 그 기대는 현실과 일치했어요.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외국인 친구를 사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같은 나라 친구들이 서로 말도 문화도 잘 통하는지라 허물없이 지내기엔 한국 친구들이 가장 편하다는 것도 느꼈어요.(사례 10)

자유로운 학교분위기, 꼭 대학생활을 할 것 같은 기대감과 다양한 친구들과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미국 학교 학생들도 학업과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열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공립학교라 그런지 생각보다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볼 때에 기대와는 다른 것을 느꼈어요.(사례 12)

사촌 형에게서 외국 학교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 왔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과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어요. 그러나 유학을 오고 싶어했고 알고 있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미국에 처음 와서는 스폰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드렸던 것 같아요. (사례 13)

별로 기대했던 점이 없어 모르겠지만 학교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학업에 스트레스가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는 본인의 생각과 같았고 다른 점은 동양인 학생이 본인 혼자라는 점이에요.....솔직히 얘기해서 꿈과 기대는 없었어요.(사례 14)

기대했던 것과 같았던 점은 교사와 학생들과의 자율적인 수업방식과 학생들에게 책임의식을 길러주며 동시에 창의력과 창조성을 개발하게 하는 교육방식이에요. 기대했던 것과 달랐던 부분은 미국 학생들은 시험이나 성적에 한국 학생들만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과 생각보다 규칙과 규율에 엄격했던 학교 분위기에요. (사례 16)

외국학교는 자유로울 것이고 학업에 대한 부담감도 적을 것이라 생각해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기대했던 것과 매우 비슷했어요. (사례 17)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외국 학교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설레임이나 기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학을 왔

기 때문에 기대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우선 영어로 모든 것을 해야 했지만 한국에서 보다는 공부가 훨씬 쉬웠고 수업시간이 짧고 한국보다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학교생활은 미국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과 달랐던 점은 별로 없었어요....생각보다 공부가 쉬워 성적이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나 고등학교는 너무 싫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무엇을 얻었다는 것보다는 그냥 버텨서 졸업했다는 느낌이 많고 대학을 가는 판명이었어요.(사례 18)

② 조기유학자의 부모

조기유학자 본인과 마찬가지로, 조기유학을 보낸 부모들의 기대 역시 입시 스트레스가 없이 보다 자유롭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조기유학을 결정하게 된 가장 주요한 동기이자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참여자(조기유학자의 부모) 모두 조기유학을 떠나기 전 한국에서의 시험위주, 암기 위주의 수업이나 주입식 교육에 대한 불만과 학교와 학원이라는 이중 학업생활에서 오는 자녀의 학업 부담감에 대한 고충을 조기유학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그대로 고스란히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진로를 예능계로 정한 경우 역시, 한국에서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편안한 환경에서 학업뿐 만아니라 자녀의 재능까지 좀 더 전인적인 교육방식으로 키워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기유학에 대한 기대와는 다르게 자녀의 언어습득이 예상외로 더디게 진행되고 학교에서 특별히 언어습득이나 학교적응에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기대와는 다르게 느낀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공부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습득하게 하는 전인적인 교육방침과 접근방법에 대한 기대나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매우 만족스러웠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가 한국에서보다는 조기유학생생활을 통해 좀 더 여유가 있고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자립심이 길러지고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해나가는 능력이 배양되었던 부분 역시 조기유학자의 부모가 조기유학에서 기대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만족스

러운 발전으로 여기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봉사활동도 점수 잘 받기 위해서 하고, 시험위주 암기 위주의 수업이어서 불만이었요, 하지만 미국은 좀 더 다양한 활동과 수업 방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어요,,,기대했듯이, 시험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깐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기대했던 것 보다 다르지만 더 좋았던 점은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자립심이 길러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부모님께 의지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사례 2)

넓은 세상에서 한국과 다른 경험을 하기를 기대했어요, 예상대로 한국에서의 4지선다형 암기식 교육이 아닌 다른 종류의 교육방식과 다른 학교활동을 경험했어요, 한국에서는 운동을 좋아해도 많이 못했는데 유학하는 학교에서 운동도 많이 할 수 있었어요,,,,,딸이 힘들고 외로울 것을 예상했었지만, 예상보다 딸은 더 힘들고 더 외로워했어요.(사례 3)

한국에서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공부하는 것에 비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는 데 유학을 보내고는 환경이 달라졌으니 공부를 편하게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고 기대와 비슷했어요, 학생을 성적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태도나 습관 그리고 행동 또한 수업자세나 태도, 숙제 등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었고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기대 이상의 것이었어요.(사례 4)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넓은 세계에서 공부하는 것을 기대했고 공부도 꽤 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공부량이 적었어요, (사례 5)

왠지 미국 학교는 훨씬 자유롭고 수업분위기도 편할 것 같은 것을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것과 같았어요,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면 교사들이 학생에게 많이 친절하고 생각 외의 관심을 써 주는 것이었어요.(사례 11)

한국에서는 학교생활과 과외공부 등으로 여유가 없으나 미국에서의 고교시절은 다양한 활동과 여유롭게 보내는 듯 보였으나 공부는 자율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사례 12)

한국에서 초등학교때도 공부를 잘했고, 중학교를 1학년하고 미국을 갔는데, 그 때도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매번 전교 10등안에 드는 학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과외를 하자, 또 이런 학원을 보내자 등등을 하면서 숨도 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 때는 한국과 같이 숨 쉴 틈도 없이 하는 것 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시키고 싶었는데, 미국은 기대한 것과 같았어요. 물론 미국도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한국 못지 않았어요. 계속 내신을 유지해야하고 에세이 치중 많이 해야 하고, 그 관리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미국은 자기 학교에서 내준 그 하루 분량만 성실히 하면, 좋은 성적을 받고 이것은 한국보다 조금 더 숨 쉴 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미국 가더니 훨씬 만족하고 여유를 가지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사례 13)

한국은 아무래도 학생들을 억지로 공부시키고 강압적으로 하는 면이 많은 데 미국의 교육환경은 자유로울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고 그 기대와 같았어요. 또한 한국은 오로지 학업으로만 학교성적을 가리게 되는 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 학생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전인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처음 느끼는 것이었고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사례 14)

(2) 학교 환경 및 교사와의 관계

공립학교에 입학한 경우 역시 백인이 주로 다니는 학교에 다녔으며 아시

안계 학생이 매우 소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 12가 다닌 공립학교만이 전체 학생 중의 50%가 백인이고 히스패닉이 30%, 흑인이 10%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아시안계 학생은 2%내외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공립학교에 입학한 조기유학생의 경우도 사립기숙사학교에 입학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문화의 주류는 백인계가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기유학자가 경험한 사립기숙사학교와 공립학교의 학교분위기 및 문화적 환경은 모두 “민주적이고 자유롭다”로 대별될 수 있겠다. 대체로 사립기숙사학교의 경우는 학교 규율은 엄격했으며, 특히 기독교 계열 사립기숙사학교의 경우는 생활규율이 매우 엄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학교규율에 대한 부적응이나 불만족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엄격한 생활규율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특히, 사립기숙사학교의 경우 교사가 학생들을 일대일로 관리하거나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학업 및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사립기숙학교에 비하여 공립학교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개방적이고 생활규율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공립학교의 경우는 보다 민주적이지만 개별적인 관계형성이나 생활관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립학교나 공립학교 모두 수업방식이나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으며, 본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수업방식에 대한 적응이 매우 순조로운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와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담지도 선생님이나 지도 선생님(educational advisor)과의 교분으로 인해 수월하게 학교생활을 적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임선생님이나 (성적이 우수한) 과목담당 선생님과 친분이 두터울수록 학교적응이 더욱 순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사립학교이든지 공립학교 간의 구분 없이 ESL수업이 있는 곳도 있었고 없는 곳도 있었지만, 본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ESL에서 그다지 크게 도움을 받지 않는 않았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대학 입시를 위한 AP과정을 통해 대학 진학 및 진로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나온 학교는 사립여자고등학교예요, 학교의 특성 중에 좋았던 점은 외국인 학생들만 전담하는 상담선생님이 따로 있었고, 각자 개인의 진로를 상담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외국인 학생들의 생활을 전담으로 상담해주는 선생님과 아주 잘 지냈으며, 부족한 게 있으면 찾아가서 무조건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셨어요,,,외국인을 상담하는 선생님은 기숙사에서 방 하나를 쓰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그분에게 가서 상담 받았고, 그러다가 언어가 두 달 뒤에 터진 것 같았어요.(사례 1)

학교분위기는 세 학교 모두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규율도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어요, Dress code는 청바지를 입으면 안되는 정도이고, 하지 말아야 할 교칙은 탈선수준의 것이어서 웬만하면 규율이 엄격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모두 친절했고 기독교학교라 아이들도 굉장히 착하고 정이 많았어요,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음에도 다들 친절하게 대해줬고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분위기도 대체적으로 밝았고 신앙심이 있는 아이들이라 너무 좋았어요, 규모 또한 작아서 서로 잘 알고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사례 2)

지켜야하는 규칙이 존재해서 그런 면에서는 엄격한 편이었으나 수업 스타일은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고 속박되는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한국 학교에서 보다는 심적으로 자유로운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복도 여러 스타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고 염색 금지나 귀를 뚫지 말아야 하는 규제 같은 것도 없었어요, (사례 3)

사람이다 보니까 적당히 엄격한 분위기였어요,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분위기였어요, 교사와는 관계가 무척 좋았는데 그 이유는 본인도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가 이야기도 하고 학업에 대한 관심도 표현했지만 선생님들도 굉장히 잘해 주셨기 때문에,,,,,백인 학생들이 교사와 맺는 관계보다는 아무래도 언어 때문에 부족했으나 전반적으로 모든 선생님들과 친했

어요,(사례 5)

아무래도 명망이 높은 사립기독교학교이다 보니 엄격한 학교분위
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욕을 한다거나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으면 처벌받
는 상황인 것 등 꼭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했지만 수업 내에서의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라든지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 예를 들어 남자학생과
여자학생이 사귀는 경우에서의 학교분위기는 꽤 자유로운 편이었어요.....학
교의 장점은 엄격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친절히 해주려하는 분위기였어요,
적절히 조화가 잘 된 것 같아서 선생님들에게 친근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어려움도 느끼기 때문에 버릇없이 굴 수가 없었어요.....그리고 기독교학교
이다 보니 모두가 친절한 편이었고 또한 명망이 높은 사립학교라 대학을
가는 데 도움이 되는 AP수업이 기독교학교치고는 꽤 있었어요, 또한 기숙사
에 함께 거주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학생들과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잘 챙겨주었고 학생들이 통제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쁘게 되는 일이 없
었던 것 같아요.(사례 6)

출석에는 엄격하지만 너무나도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였어요, 교사
와의 관계는 일대일분위기로 외국인 학생을 하나하나 다 신경써두고 도와
주는 분위기였어요.....몇 몇 학생들은 한국과 달라서 그런지 가끔 도를 넘
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하는 미술과 같은 스타일이신 선생님은 친하고 잘
맞았던 것 같지만 힘들게 했던 교수님은 모 아니면 도로 평가해주시는 선
생님으로 스타일이 다르다고 이해 못 해주시는 분들이셨어요.(사례 7)

학교분위기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웠어요, 선생님들이 외국인 학생
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분위기였고 ESL코스와 외국 학생 전담 상담선생님
도 계셨어요.(사례 8)

학교분위기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웠으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
고 존중해주는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학교였어요, 자유의 권리를

주지만 그 만큼의 책임도 지게 하는 엄격한 법칙 또한 적용이 되었어요. 선생님들은 대부분 외국인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셨고, 처음 학교에 들어와서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방과 후에 찾아가면 시간을 내서 도와주시기도 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차원에서 과외선생님을 찾아주시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동양 학생들은 자국에서 준비를 잘 하고 오는지 언어 때문에 크게 힘들어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의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생마다 advisor(지도교사)가 있었는데, 한 지도교사 당 학생 5~6명 정도가 배정되어 있었어요. 사실 그것도 첫 해에만 배정을 받고, 그 다음 해에는 본인이 골라서 원하는 선생님을 지도교사로 정하고 졸업 할 때까지 매주 만났기 때문에, advisor랑 가장 친했다고 볼 수 있어요.(사례 10)

카톨릭재단에서 운영하는 여자학교로 규율이 엄격하고 규제가 많았지만 수업분위기는 자유로웠어요. 유학 온 외국인 학생 수가 꽤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교사들은 외국인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였고 친밀하게 지냈던 선생님은 음악선생님, 그 밖에 advisor와 많이 가깝게 지내며 학교생활이나 그 밖에 힘든 일들이 있을 때는 많은 상담을 받았는데 그 분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학생들을 다방면으로 도와주셨던 친절하신 분이셨어요.....첫 학기는 아무래도 영어가 힘들어서 ESL을 하였고 ESL 선생님과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담임선생님께서도 영어와 그 밖의 유학생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상담을 받았고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사례 11)

학교는 보통 수준의 학교였고 학교분위기는 매우 자유로웠으며 교사들도 외국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는 분위기였어요. 학교에 동양인들이 많이 없었지만 도시가 작고 community가 꽤 잘 형성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친절했어요. 또한 저는 수학과 과학 수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성적도 반에서 항상 top이었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선생님과 유난히 친했었고 선생님들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학교에서 받을 수 있었던 도움은 ESL이었지만 저는 별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았고 상담을 가끔 대학을

가기 위한 진학상담을 자주 받았던 것 같아요.(사례 12)

사립학교이다보니 엄격하고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경쟁도 꽤 있었어요. 교사들은 외국인 학생을 이해하려는 분위기였지만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도와주려는 경향이 많아 교사가 먼저 도와주려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성실하려 노력하였고 또한 학업에 늘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관심을 받아 거의 모든 교사와 친밀하게 지냈어요.....기본적인 영어와 사립학교에서의 수업을 무리 없이 들어야 한다는 학교 측의 방침으로 ESL은 없었어요. 그러나 학생들을 도와주려는 상담이나 특별히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는 상담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사례 13)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규율이 엄격했어요. 유니폼을 입는 학교였고 약세사리를 하는 것 등 옹모나 품행에도 제한적인 면이 많았으며 지각이라도 하면 엄격한 체벌을 받았어요. 교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gap으로 그리고 동양인이 거의 없었던 학교의 특이성으로 인해 대부분 교사들은 도와주려는 마음은 있었으나 도움을 주는 방법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학교에 동양인이나 언어가 힘들어서 도움을 받을만한 학생들이 워낙 없다보니 ESL은 제공되지 않았어요.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상담을 받아보지 않았어요.(사례 14)

엄격하고 경쟁하는 분위기이지만 추가적인 도움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었어요. 대부분의 교사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교사들과 친하게 된 계기는 대부분 공통의 관심사를 토론해서였어요. 어느 교사는 학생에 대한 선호가 있거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성적에 반영이 되요.(사례 15)

학교가 정통 기독교침례교단에 속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엄격한 편이었어요. 예를 들면 교복은 없었지만 남학생들은 늘 깨끗하고 단

정한 분위기로 tie를 매야 했고 여학생들은 늘 긴치마를 입어야 했어요, 또한 일주일에 세 번씩 있는 학교예배에 꼭 참석해야 했고 만약 빠지면 성적표 행동란에 기록으로 남고 그 수가 많아지면 교장실에 가야하는 등 규율이 엄격했어요, 학교 안에서는 남녀의 규칙도 까다로워 행동에 제약을 받았어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손을 잡는다던지 너무 붙어있으면 안되었어요, 또한 학교 밖에서는 영화관에 가는 것이 규율에 어긋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전체적인 학교분위기나 학생들의 행동에 제약이 많을 편이지만 수업 시간만은 민주적이고 자유롭게 진행되었어요.(사례 16)

학교 자체 그리고 교육적인 면에서는 자유로웠지만 사립기숙학교 이다보니 학교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외국에서 온 학생이라 무조건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분위기는 아니었구요, 주로 선생님들은 외국인 학생을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편이지만, 학생의 성적, 성실성이나 노력 등에 따라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저는 외국인 학생이었지만 교사와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교사와 친하게 지냈어요, 학생들이 받을 수 있었던 도움은 ESL과 상담이 있었어요,...사실 ESL은 별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상담은 전반적으로 매우 좋았으며 상담자가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고 비밀은 지키되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학생들이 믿을 수 있었다 또 상담자를 좋아했어요.(사례 17)

공립이라 그런지 학교분위기는 대체로 자유로웠어요, 외국인 학생을 도와주려는 분위기였지만 공립이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신경을 써준 다거나 편의를 봐주지는 않았어요.....따로 친밀하게 지낸 교사는 없었는데 그것은 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별로 다가가지도 않았고 따로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상담선생님도 있었고 ESL class도 있었지만 양쪽 모두 도움을 받으려고 한 적은 없었어요.....학교가 공립이다 보니 사립에 비해 좀 느슨해서 오히려 적응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사례 18)

2. 조기유학의 결과 분석

1) 개인적 성취 평가

(1) 학업 및 학교생활

① 조기유학이 학업성취에 미친 영향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종료자의 학업성취와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조기유학 이전에 한국에서 학업성취 수준이 상위권이든 중위권에 속하든지 미국에서의 중고등학교 성적은 상위권에 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종료자의 조기유학으로 인한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조기유학자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기유학 당시의 학업성취 유형은 학업성취유지형과 학업성취향상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업성취유지형은 한국에서의 학업성취도와 거의 비슷하게 유지한 것을 의미하며, 학업성취향상형은 한국에서의 학업성취보다 미국에서의 조기유학 이후 학업성취가 향상된 상태를 의미한다.

학업성취유지형의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학교에서 성취한 학업성취가 전교 10등 이내에 속해 있었는데, 조기유학 이후에도 역시 최상위의 학업성취를 보였다. 이는 이미 한국에서 선행학습이 매우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기유학 이후에도 모두 영어작문만을 제외하고는 영어수업을 이해하고 학업성적을 유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 과목에서는 탁월한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하는 명문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학업성적을 유지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미국 가서 2달 정도만 영어로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웠고,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학업성적은 역사과목 한 과목을 빼고는 전부 B+이상을 받았어요. 수학은 항상 A였어요.(사례 1)

영어로 읽고 쓰는 것이 어려웠으나 학업성적은 좋았어요. 한국 학교에서보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더 쉬웠고 성적이 더 좋았어요. 주로 암기 위주가 아닌 작문, 에세이, 논술, 발표 등에 의해 성적이 매겨졌던 점이 좋았어요. 나는 한국에서 암기를 너무 싫어했는데 미국에서는 영어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긴 해도, 에세이나 발표수업에 흥미를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몇 개로 점수가 판가름 나는 데, 미국 학교에서는 과제나 발표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점수를 매겼어요. 그래서 각각의 과제들을 열심히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어요. 설령 한 과제를 망쳐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니깐 점수 받기가 더 쉬웠어요.(사례 2)

규모나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한국, 미국에서 모두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사례 3)

반에서 거의 top을 유지했어요.....공부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유학 전이나 후나 상위권을 유지했고 수학과 과학 성적은 최고로 올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들었던 영어와 역사는 중간을 유지해서 상위권을 유지했어요.(사례 5)

학업성적은 좋았고, 공부를 하기가 그다지 힘들지 않았어요. 한국 학교에서의 성적과 차이가 없었어요.(사례 9)

유학 초기에는 한국보다 공부하는 것이 훨씬 쉽게 느껴졌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reading과 writing이 필요한 영어 역사 등은 어려웠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위권은 유지했어요. 미국에서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수업태도나 준비 그리고 노력과 성실성 등 조금 주관적인 듯 하지만 정

말 학생을 전인격적으로 평가하는 느낌이 들어 어차피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로 공부하는 데에 있어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부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어요.(사례 11)

성적은 한국에서와 비슷한 것 같아요.....유학와서 공부하기는 그다지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문과 분야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는데 이과 부분은 아무래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성적은 처음 일 년은 수학이나 과학은 워낙 잘 배웠기 때문에 쉬웠지만 영어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영어로 글을 쓰는 과목 예를 들면 역사나 생물 과목에서 에세이를 쓴다고 하면 힘들었고 유학시절 처음에는 회화준비를 잘 해와 친구들과 교사들과의 대화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쓰기가 힘들었어요.....(사례 13)

유학 전과 후 모두 전교에서 5등에서 10등 정도로 별 차이가 없었어요, 유학을 온 첫 학기에 영어 작문 페이퍼를 썼는데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수학이나 과학은 한국에서 이미 진도를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 영어성적이 형편없어도 종합성적은 꽤 우수했어요, 처음 받았던 영어페이퍼로 인한 충격으로 방학 때는 남들 몇 배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 *high honor*를 놓치지 않았어요, 거의 최고의 학업성적을 받아 졸업할 때에는 아시안계 처음으로 교장선생님의 상을 받고 졸업했어요.(사례 17)

영어 때문에 처음 1년은 좀 어려웠지만 공립학교라서 인지 학업자체는 한국보다 훨씬 쉬웠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위 10%안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교에서 1, 2등 정도로 훨씬 잘 했으므로 미국으로 와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겠죠.(사례 18)

학업성취향상형의 경우, 한국에서는 학업성취는 중간수준이었으나 조기유학 이후에는 상위의 학업성취를 이룬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성적향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 학교에서 평가방식이 암기나 시험위주가 아니라 수업 참여의 성실성이나 과제수행, 학업의 진전 성과를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학업향상형도 마찬가지로 유학 초기에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토론형식의 수업방식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점차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상위권의 학업성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학과 수학은 상위권이었지만 역사나 문학과 같은 인문과목은 좀 힘들었어요, 또한 영작이 힘들었고 자신이 없었어요, 고등학교조차 진학하기 힘든 성적이었는데 오히려 미국에 와서 좋은 성적을 받고 대학도 좋은 곳으로 진학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를 많이 해야 되고 사교육이 활성화되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데 이곳에선 모든 교사들이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고 본인에게 맞는 교육법을 제공해주어서 학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이 붙었어요.(사례 4)

처음엔 아주 힘들었어요, 영어를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하지만 정작 어려웠던 것은 한국과 많이 달랐던 학교시스템이었어요, 에세이라는 것을 써오라는 숙제가 아주 자주 있었는데, 한국에선 전혀 작문숙제를 내주지 않았고 어떤 것을 연구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주석을 달고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어요.....처음엔 떨어진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점점 좋아졌던 것 같아요.(사례 6)

처음에는 어렵고 계속해서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버틸 수는 있는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보다는 유학 후 더 좋은 편이었어요.(사례 7)

처음 유학 시 모든 것이 서툴러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후 성적도 잘 나왔어요.(사례 8)

미국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성적은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한국에서의 성적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의 학업성적이 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해요. 학교의 규모가 작다보니, 두각을 나타내기도, 선생님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에도 더 수월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사례 10)

학업성적은 후수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성적과 비교해서 성적이 확실히 향상되었어요.(사례 15)

유학시절 성적은 반에서 상위로 언어로 인해 초반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부는 한국보다 많이 쉬었고 아무래도 과목 수가 많지 않다 보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또한 성적이 점점 나아지다 보니 신이 나서 공부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사례 16)

② 조기유학이 진학 및 진로결정에 미친 영향

가. 대학진학

조기유학이 대학진학에 미친 영향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의 조기유학자 현황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다시피,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종료자는 미국 동부지역에 위치한 명문 사립대학에 입학했거나 명문 주립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조기유학에서의 학업성취와 마찬가지로 대학진학에 대한 조기유학종료자의 평가와 만족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유학으로 나는 판단해요, 고등학교에서 잘 적응했으며, 처음 목표했던 대학을 잘 마쳤고.....(사례 1)

매우 성공적입니다, 유학을 오지 않고 한국에 교육을 받았을 때와 비교해서 높은 학업 성취,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삶에 만족 등 여러 가지

를 비교할 때 저의 조기유학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사례 4)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갈 만큼 우수한 성적의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저에게 기회였고 또한 좋은 결과였고,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사례 6)

원하던 대학에서 원하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성공적이라고 봐요.(사례 9)

나. 대학 졸업 후 진로과정

대학 졸업 이후 진로선택이나 진로과정에 대한 조기유학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대학졸업 이후 조기유학 이후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하는 경우(미국체류형)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한국귀국형)로 나눌 수 있는 데, 진로유형으로는 ①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② 대학원 진학하거나, ③ 결혼하여 전업주부로 지내거나, ④ 잠시 직업을 가졌으나 휴직상태로 나눌 수 있다. 조기유학 시 학업성취를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달리, 대학졸업 이후 진로유형이 다양한 만큼 조기유학종료자가 대학졸업 이후의 본인의 진로방향이나 직업선택, 업무영역과 관련해서는 성공과 실패, 또는 아쉬움과 새로운 진로설정 구상 등의 서로 엇갈리는 반응과 평가가 나타났다.

현재 직장에서 자신의 (글로벌)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가에 대한 평가에서는 현재까지는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인지도가 높은 직장으로 이직을 원하고 있었다. 미국이든 한국에 취업을 한 경우, 대부분이 현재는 경험을 쌓기 위해 취업을 한 것이며, 또한 본인의 업무나 통역이나 번역 업무 중심으로 한정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향후 좀 더 큰 조직이나 기업으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었다.

미국취업형으로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대학원 진학이 실패하였지만 박사

과정을 준비하면서 학교연구실에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미국취업형의 경우는 조기유학의 경험과 장기적인 미국유학생활로 인해 한국의 직장생활에 요구되는 집단적인 조직문화나 규율에 매우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며, 현재 미국의 직장문화에 매우 익숙하고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미국 현지에서 진로를 선정하고 직업을 가지기를 선호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인은 아직까지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 데 많은 불리함을 가지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업무 역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직장에서는 직업분야에서의 경험을 쌓거나 소양을 갖추는 정도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향후 직업준비의 한 과정으로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보수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는 조기유학 시에 가졌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좀 더 일을 하면서 가능하면 외국과의 비즈니스를 구상 중에 있어요, (사례 8)

대학원 연구실에서 연구조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대학원 재학 시 파트타임으로 교수님을 돕다가 첫 해 박사지원에 떨어지면서 그냥 계속 다니던 학교에 있게 되었어요..... 박사과정에 진학을 고민하면서 중간단계로 선택한 것으로 만족해요.

미국 노동법 상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그 외국인 근로자를 sponsor 하는 고용주가 경제적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나 본인처럼 교육 등 비영리 쪽으로 직업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큰 편이에요, Multinational corporation과 같이 큰 회사는 외국인 고용할 여유도 있고 해 본 경험도 많지만, 작은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외국인 고용을 꺼려요, (사례 10)

사립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의 교사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학생이었을 때 계셨던 교사들도 계셔 편하고 또한 많이 도와주고 편의를 봐주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현재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석사학위를 마치고 싶어요.(사례 13)

Strategy/Economic consulting입니다. 첫 직장을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비자문제로 급하게 결정한 부분이 있었고, 또 첫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서 점점 다른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수에 차이라기보다는 처음 취직할 때 조금 더 어려운 것인지 보수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현재의 직장으로 옮긴 이유가 조금 더 학교에서 배우고, 그 이후에 사회에서 공부한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부분에서 전 직장보다 훨씬 만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사례 15)

중이회사에서 senior marketing coordinator로 일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실무를 맡고 있어요. 한 직장에서 5년 동안 있어서 보수는 괜찮은 편이지만 신분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적은 편인데 보수는 보통 10%-15%정도 차이가 나요.

직장을 옮겨 보고 싶은 이유는 한 회사에서 인턴부터 줄곧 5년 이상 있다 보니 일이 새롭지 않고 흥미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제지업에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거래처였던 회사에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가 공채를 통해 정식 사원으로 발령받아 줄곧 일했어요. 직업이나 업무가 유학을 통해 얻은 역량을 발휘하는 데 만족스럽지만 직업이나 회사 자체는 제가 원하던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돌아가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한국을 떠나 생활했던 터라 한국과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

력, 특별히 한국의 직장인들처럼 일을 하고 직장의 조직문화에 익숙함에 많은 어려움이 느껴졌고 자신감도 상실해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에 남아있게 되었어요.(사례 17)

미국진학형은 미국에 소재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전공에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사례 4, 사례 12, 사례 18은 치과대학원에 진학하였는데, 전공 선택에 대체로 매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Tufts치대 재학 중이며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고유의 취향을 가지고 전공을 살릴 수 있어서 좋아요, (사례 4)

워낙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진학이었기 때문에 매우 만족해요, 또한 꽤 명망이 높은 학교에서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어 만족해요.(사례 12)

만족해요.(사례 18)

고대근동학을 전공하는 사례 5와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례 13의 경우는 조기유학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진로방향으로 현재 전공을 선택하고 있지만, 전공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한 적성이 맞아서 만족한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한편 사례 5의 경우는 본인이 조기유학 당시 생각한 방향으로 진로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고대 근동학을 전공하고 있는 데, 한국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유학 전에 전공과는 완전 다른 과목, 역사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역사를 선택한 이유는 교양과목으로 공부할 때 점수를 좋게 받아서 조금씩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공부가 재미있고.....그리고 소명에 연관하며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해요.(사례 5)

미국에 처음 유학을 올 당시만 해도 생각해보지 못한 신학 분야이고 특별히 분과이기 때문에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현재는 인생의 더 깊은 의미를 찾게 되고 신앙도 깊어지고 또한 학문을 좀 더 깊게 다루게 되다 보니 만족합니다.(사례 13)

한편, 사례 14의 경우는 학부를 끝마치지 못한 채, 새로운 분야로서 요리를 배우고 있었다. 이렇게 조기유학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학부중퇴로 인하여 향후 자신의 진로선택과 결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확신이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부중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결되고 있었으며, 또한 새로 시작한 분야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교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진학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그리 만족하고 있지 못한 편이에요, 여전히 학부를 끝내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약간 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유학을 왔을 때의 목적과는 다르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분야라 새롭긴 하지만 결국 사업을 공부해 음악과 요리를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지 본인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는 의문이에요, 그러나 학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였던 중도하차의 문제와 쉽게 포기하려는 습관은 고쳐지고 있어 그 부분에서는 흡족히 만족해요.(사례 14)

한국취업형의 경우, 조기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을 선택한 것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직장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큰 만족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싶었으나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며, 향후 가능하다면 미국에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원하거나, 한국에서 잠시 일하다가 현재는 휴직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의 직장 경험은 직장문화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과 소양을 갖추기 위한 한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향후 더 좋은 조건이나 미국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이직하여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고 있었다.

영국 유치원에서 교사로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이 직장에 만족해요, 외국계 유치원이어서 그런지 직장에서 딱히 다른 회사같은 조직적인 문화라던지 그런 것은 없어요.(사례 1)

만약에 미국에서 취업을 했더라면 귀국을 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직업이 미국에서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8년간 유학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서 집에 가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다니는 서울대 대학원에 오기 전 2년 가까이 컨설팅 회사에 재직했었어요,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으로서는 맞는 수준의 일이었고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만족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2년 가량 다니고 나왔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사를 보았을 때 진급을 해도 더 스트레스가 많고 일도 여전히 많고 고객사와 갈등이나 책임감도 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어도 만약 내가 정말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고 컨설팅 업무에 비전이 있었다면 즐겁게 일하고 계속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회사생활을 할 때 친구도 잘 못 만나는 등 내 생활이 없었어요, 상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긴장이 되었어요, 야근이 잦은 것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술자리를 통해서 고객회사와 관계를 맺고, 회사 내에서도 회식이나 술자리를 통해서 친해지는 면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사례 2)

외국계 헤드헌팅 회사에 현재 다녀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임원 assistant를 하고 있어요, 나의 적성에 맞지 않아요, 이 회사에 온 이유는 외국계이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임원을 도우는 역할 즉 소위 말하는 비서직이에요, 그런데 유학까지 갔다 와서 비서직을 한다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원래 들어올 때는 마케팅에 관심이 있었고, 회사에서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일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다지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사례 3)

국가기관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어요.....보수는 공무원이었으니 많지는 않았어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아무 무리가 없었을 정도로 문안하고 좋았기 때문에 만족해요, 직장의 조직문화는 뚜렷한 상하관계와 흐리멍텅한 퇴근시간 등으로 직장의 조직문화가 힘들었어요.....취업을 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쉬어야만 했어요, 유학을 위해 집은 떠나와 나누지 못한 부모와의 시간을 채우고 싶은 것과 다시 미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상반되어 나타나고 있어요.(사례 6)

국내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고급 한국어와 학문적인 용어의 습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역으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그리 쉽지 않게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경우와 만족해하는 경우로 엇갈린 평가가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의 대학원과정을 마치고 나면 다시 기회가 된다면 미국에서 진학을 하거나 직업을 가지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직업이나 진로방향에 대해서는 그리 만족도가 크지 않으며, 조기유학의 결과로서 진로평가에 있어서도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회사생활이 힘들어서 쉴 겸 공부도 해보자하는 생각으로 학교에 왔는데, 학교생활도 힘들어요.....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로스쿨에 진학해서 미국 변호사가 될 계획이에요, 아무래도 고급한국어보다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서, 한국에서 로스쿨 가는 것보다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사례 2)

새로운 방면에 도전하게 되어 만족해요, 같은 전공을 가지고 학부는 미국에서 석사는 한국에서 하게 되니 더 재미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전공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 또한 만족해요.(사례 11)

미국에서이건 한국에서 결혼한 여성의 경우는 조기유학 당시의 목적은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졸업 이후 미국에서나 한

국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보다는 결혼하여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다. 조기유학의 성과로서 현재의 전업주부로 지내는 데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지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의 아내로 엄마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진학은 할 필요를 못 느껴서 하지 않았고, 취업은 아직 아이가 어려서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때라 늦추고 있어요,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은 없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유학에서 얻은 경험과 실력을 써야 할 때가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가끔씩 안타까워요.(사례 16)

(2) 조기유학이 취업이나 진로선택에 도움 여부

조기유학경험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에서는 직장 근무지가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미국취업형의 경우는 모두 특채로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조기유학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미국에서의 취업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미국진학형의 경우에도 역시 조기유학으로 인한 영어실력이 도움이 되었다고 여기고 있었다. 한국취업형의 경우, 조기유학 경험으로 인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영어실력을 인정받아서 공채나 특채로 취업을 하였고 또한 주요한 업무가 영어 통·번역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했다고 여기고 있었다.

취업할 때 도움이 되었는데, 학력도 취업시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언어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었어요.(사례 1)

모든 인터뷰가 영어로 진행되었는데, 유학생활을 통해 얻은 영어 실력이 도움이 되었어요.(사례 6)

도움이 되었고, 해외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너무 번역위주의 업무를 하기는 어려웠어요.(사례 8)

본인이 일찍 유학을 와서 언어에 어려움이 크게 없었고 전공한 교육과 관련이 있으므로 가능한 직장이 아니었나 생각해요.(사례 10)

본인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사립고등학교 그것도 본인이 졸업한 학료로 교사직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립고등학교 졸업이 큰 도움이 되었고 그다지 어려움은 없었어요.(사례 13)

취업시 유학은 당연히 도움이 되었어요, 일단 언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며 대학에서의 전공이 직장에서 실무진의 역할을 하는데 또한 도움이 되고 있어요.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유학을 오지 않았으면 아예 돌아올 수도, 들어올 생각도 안 한 직장이었을 것 같아요.(사례 17)

2) 관계 평가

(1) 친구관계

유학 전에 한국에서 사귀었던 친구들과도 친분을 꾸준히 맺어온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유학이 장기화되면서 유학 전에 사귀었던 친구와는 연락이 단절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조기유학 당시와 현재, 조기유학종료자가 가장 절친하게 친구관계를 가졌던 대상은 아시안계 학생이거나 또 다른 유학생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체로 10명 내외로 절친한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친구관계는 대학 진학 이후 또한 현재까지도 이들 친구와는 거의 형제나 자매와 같이 느끼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자가 다녔던 학교는 모두 공립학교이건 사립기숙사학교와는 상관없이 백인학생이 대다수였다. 백인학생이 대다수인 학교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

다수 연구 참여자들과 가장 절친한 관계를 맺었던 친구는 아시안계 학생 또는 또 다른 한국에서 온 조기 유학생, 유학 이전에 한국에서 사귀었던 친구로 나타났다. 이는 혼자서 유학시절을 겪어내면서 거의 상황이 비슷한 한국유학생 친구나 문화가 비슷한 아시안계 친구들과는 형제자매 못지않은 동거동락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렇게 맺어진 친구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공립학교이던 사립기숙사학교이던 간에 절친한 친구관계를 맺게 된 경로나 동기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처한 입장이나 상황이 비슷하고 이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나눌 수 있던 계기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① 사립기숙사학교

조기유학 당시,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소규모의 학생 정원과 기숙생활을 한) 사립기숙사학교에 다녔던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은 기숙사생활에서 만났던 roommate와의 친분관계로 인해 소수이지만 사적으로는 매우 깊이 있는 친구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친한 친구는 5명 정도였고, 덜 친한 친구는 5명 정도였어요. 친구 사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기숙사에 같이 살아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어요.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쇄심을 가지고 내 말을 미국 친구들이 잘 들어줬어요, 그래서 언어가 친해지는데 있어서 장벽이 된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스스로 말하는 데 답답했을 뿐이었어요. 특히나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는 서로 언어의 고충을 이해하고 힘든 점을 공감하니깐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어요. 백인 2명, 흑인 1명,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 3명 정도와 절친했어요. 주로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와 친했고 그 다음 아시안계 유학생 친구와 친했어요. 서로 타지에 있다 보니 서로 더 잘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사례 2)

미국 친구들이 많았으나 언어의 한계와 문화 차이로 한국에서 가졌던 관계에서 만큼 만족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영어로 농담할 때 못 알아듣겠고-농담을 이해하려면 영어뿐 만 아니라 미국문화를 알아야만 이해하고 웃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 면에서 나는 문화가 온전히 이해가 안 되니깐 웃기지 않았어요. 해서 완벽한 의사소통이 안돼서 쓸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었어요. 또한 내가 영어로 말을 할 때 신경이 쓰이니깐 미국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한국 친구들과 한국말로 소통할 때 만큼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룸메이트들과 여행도 가고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같이 사는 룸메이트들과 친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인 친구들과는 5에서 6명 대부분 친하고 미국 친구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한 4명 정도 됐어요.....동양권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살았던 친구들과 친해지기가 더 쉬웠어요. 룸메이트들과는 함께 여행을 가고 집에 놀러 갈 정도로 속마음을 잘 이야기 할 정도로 친밀했어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사례 3)

워낙 백인이 다수인 학교이다 보니 미국 학생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통한 학생들은 동양인이었어요. 아무래도 외국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있어서 인 것 같아요.(사례 4)

친구는 많이 사귄 편이에요. 그러나 다른 나라 친구들과 대화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가끔 의문입니다. 백인, 한인유학생, 아시아 친구 등으로 여러 문화의 친구들을 만나며 발을 넓혀 갔어요.....기숙사 조교와 학생들 사이의 advisor, 그리고 미술에 관한 클럽활동을 했어요. 또한 교회를 다녔구요. 대학에 갈려면 필요해서 했고 교회는 이왕 하는 미국생활과 교회생활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했어요. 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친해질 수 있었고 리더십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교회에서 한국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고 어려울 때 심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어요.(사례 7)

학교 재학 시에는 다양한 인종의 친구를 많이 사귀긴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우정을 나눈 친구들은 대부분 한국과 중국, 홍콩 등 아시안 친구들이 많았어요.(사례 10)

친구는 많이 사귄 편이에요, 백인친구도 있었고 꽤 친한 편이지만 한국친구들이나 다른 아시안계 친구들보다는 친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정서나 고민이나 걱정 등이 달랐기 때문이고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갈등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룸메이트들과 여행도 가고 집에 놀러 가기도 하는 등 관계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생활권이 같아보니 금방 편하고 친하게 됐어요.(사례 11)

워낙 백인이 다수였던 학교라 백인 친구들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잘 통하는 아이들은 동양인이었어요, 베트남, 태국에서 온 친구들과 많이 친했었고 아주 친했던 백인 친구와 흑인 친구도 한 두명 정도 있었어요.(사례 13)

많이 사귄 편이었고 특별히 친구를 사귀기에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들은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었고 그 밖에 백인과 독일친구들이 있었어요.....백인 친구들과도 운동을 함께 하며 꽤 친한 편이었지만 한국 친구들처럼 친하지는 못했어요, 한국 친구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정서가 같고 고민이나 걱정도 비슷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잘 통했어요,백인 친구와 한국 친구처럼 친해지지 못한 이유는 언어적인 면이 가장 컸기 때문이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이나 극한의 개인주의 문화에서 오는 차이점 때문에.(사례 17)

② 공립학교

사립기숙사학교의 roommate와 같이 자연스럽게 학교 내 수업에서 또는 생활과정에서 절친한 친구를 사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내 클럽활동을 참여하거나 종교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내 거주하고 있던 또 다른 유학생 친구와의 교분으로 절친하게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 친구라 할 수 있는 친구는 없었어요, 동양인이 본인 한 명이 있기 때문에 학교 친구는 모두 백인 친구였어요, 한국 교회를 다녔지만 또래 친구가 없어서 약간의 우울증을 겪기도 했구요.(사례 5)

많이 사귀진 않았어요, 어려운 점은 역시 동양인이 백인에게 접근하기 쉽지 않았고 그들도 적극적으로 본인과 친해지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영어가 좀 더 유창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친구 중에는 아시아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한국 유학생들이 가장 많았어요, 한국 친구들과과는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어려울 땐 서로 도와주고 또 기쁠 땐 같이 웃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친했어요.(사례 6)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냈던 친구들이 없었을 정도로 거의 사귀지 못했어요,.....친구를 사귀지 못했던 이유는 모두 개인적인 일들로 언어의 문제가 가장 컸으며 그 당시 저의 가정이 겪고 있던 어려운 일들로 마음이 복잡했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귄 여가 없었어요.(사례 14)

고등학교 때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친구를 사귀기에 어려웠던 것은 워낙 친구 사귀는 것을 귀찮아했고 유학을 와서는 워낙 공부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친구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어요.(사례 18)

클럽활동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조기유학자 모두 클럽활동을 했다. 클럽활동은 본인의 관심분야나 흥미, 적성에 따라 클럽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참여한 클럽활동의 내용은 테니스, 배구, 농구, 수영, Lacrosse 등의 스포츠 클럽, 아카펠라 또는 중창, 바이올린, 플룻, 오케스트라 활동, 미술 전시 등의 예능활동, French club, 수학, 과학 등의 study club, international club이나 유학생 모임, 성경공부

나 종교활동, 무료로 집짓기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으로 구별할 수 있겠다.

클럽활동의 영향은 유학생할 초기의 학교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친구형성,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서의 학교생활과 비교하여 클럽활동을 처음에는 모두 의무적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클럽활동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수업시간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달리 좀 더 편하고 즐겁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또한 클럽활동을 통해서 더욱 자연스럽게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학교적응 차원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정신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클럽활동에서의 활동내역이 대학진학에도 도움이 될 것을 또한 많이 감안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전공이 다 악기 하나와 운동을 해요,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한국 체육시간처럼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실제로 하면서 너무 재미있어서 클럽활동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이 학교에서 악기 같은 경우는 따로 레슨까지 시켜주는 데 개인발전에도 좋고, 정서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처럼 뭐든지 다 잘해야 해서 늦게까지 학원가고 그러지 않아서 좋아요.(사례 1)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었고 대부분 학생들이 많은 활동을 하여 학교분위기 자체가 그랬어요.....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고 많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사례 3)

학교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했지만 하다 보니 재미있었고 또한 스트레스도 풀렸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network와 team building 또한 사회성이 늘었어요.(사례 4)

취미나 대학 가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영어도 편해지고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왠지 나오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 아이들과 접하는 것이 언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클럽활동을 통해 도움을 받았어요. (사례 6)

대학에 갈려면 필요해서 했고,.....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친해질 수 있었고 리더십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사례 7)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활동이라 했어요. 또한 대학갈 때 도움이 되기도 해서,.....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생각도 나눌 수 있었어요.(사례 9)

운동을 무척 좋아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한국 학교에서는 하지 못했던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스포츠를 직접 접하고, 학교선수생활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사례 10)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유익했고, 또 운동은 좋아하지 않지만 스트레스 해소와 또 공부를 하다 지친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서 유익했던 것 같아요. 대학진학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사례 11)

제가 좋아하는 것을 클럽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클럽활동을 통해서 언어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서 본인을 나타낼 수 없었던 부분을 제 장점을 보이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사례 14)

클럽활동은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에 유익했어요.(사례 15)

한편, 클럽활동을 통해서 만났던 친구들이나 활동 등이 특별히 유학생활을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가나 학과수업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이 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클럽활동뿐 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밀한 친구관계를 맺는 것 역시 드물거나 쉽지는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친구를 사귀기에 어려웠던 것은 워낙 친구 사귀는 것을 귀찮아했고 유학을 와서는 워낙 공부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친구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어요.....클럽활동은 habitat라고 집을 지어주는 것과 그밖에 글쓰기나 봉사클럽을 했는데 사실 이것저것 이름만 올려놓은 클럽들이 많았어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했고 참여를 하거나 열심을 다했던 것이 아니라..... 클럽활동으로 대학가는 원서를 쓸 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사례 18)

(2) 가족관계

가족관계변화에 있어서 의사소통채널, 동거, 유학경험이 주요한 영향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족 중에서 조기유학 이후에도 조기유학자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채널로서 역할을 했거나 빈번한 대화 기회를 가졌던 구성원과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반면, 그렇지 못한 가족구성원과는 대체적으로 소원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같은 맥락으로, 조기유학 과정에서 함께 동거하거나 유학을 경험한 가족구성원과는 애착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가족구성원과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유된 경험의 부재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조기유학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 관계의 변화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관계소원형, 관계유지형, 관계개선형. 관계소원형은 조기유학 과정에서 본인과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험을 했거나, 본인보다는 가족 간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관계유지형은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유학 전과 유학 후를 비교하여 크게 변화를 느끼지 않았던 경우를 의미한다. 관계개선형은 유학 전보다 유학 이후에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거나, 본인과 가족 구성원 중 부모나 형제자매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사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자의 경우는 가족관계 변화에서 한 가지 유형으로 대별되는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은 부모와는 관계소원형이면서 형제자매와는 관계개선형을 나타내는

등의 복합적인 관계변화를 겪었던 사례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관계소원형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조기유학자가 혼자 유학생 생활을 지내고 가족은 한국에 지내면서 가족구성원 간에 점차 의사소통의 기회가 줄어들고, 유학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점점 서로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소원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만 유학을 가고 그 외의 형제자매는 한국에 있었을 경우 역시 서로가 독립된 생활을 하고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서로에게 애뜻함은 있지만, 대화가 어렵거나 어색한 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관계소원형으로 변하게 되는 또 하나의 변인으로는 조기유학자의 유학을 돕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동거하고 아버지는 사업상 또는 또 다른 별거의 이유로 인해 기러기가족 형태로 유학생생활을 지낸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친밀하거나 유학 전과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소원해지고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서도 유학이라는 상황이 많은 한계를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가족 간의 애뜻함이나 그리움과 같은 가족애는 더욱 커지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유학 이후에는 실제로 본인과 가족 간의 대화를 하는 데는 많은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점차 서먹하고 낯설어지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다.

특히, 가족관계소원형 중에서 유학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생겼을 경우 본인이 유학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가족구성원에 비하여 더욱 수동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의 변화를 탐지하고 이에 적응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남동생과는 한국에 있을 때는 부딪히면서 자주 싸웠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져서 살면서 관계가 멀어졌어요, 같이 살았더라면 부딪히고 싸우면서라도 정 같은 게 들고 친밀해졌을 것 같은데, 떨어져 살다보니 그런 정마저도 없어지고 멀어진 것 같아요, 서로의 인생에 대해 관여를 안해요, (사례 2)

첫 해는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고 두 번째 해는 어머니, 고등학교 입학 한 후 동생과 누나와 떨어져 살았을 정도로 골고루 다 헤어져 살긴 했지만 관계는 대체적으로 좋았어요.....조기유학을 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가족들과의 의논시간이 적어서 서로 챙겨는 주지만 깊은 대화는 어색해요, 깊은 대화를 많이 못 나누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아요.(사례 5)

부모님과 의 사이와 또한 언니 오빠와의 사이가 좀 멀어진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같이있지 않으니 가족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gap이 생기고 부모님은 설령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본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함께 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유학 시 거주했던 가족은 없었으므로 모든 가족과의 관계가 독립적으로 변한 것 같은 어떤 부분에서는 서먹해진 것 같기도 해요.....가족이 겪은 문제는 어찌 보면 거의 모든 조기유학자의 가정들이 겪었을 문제나 일이라 생각할 뿐, 현재로는 앞으로 부모님이나 언니 오빠한테 그냥 잘 해야겠다는 생각만 할 뿐이에요.(사례 6)

집 떠나면 고생을 한다고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되어서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또한 가족에 대한 애뜻함과 표현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혼자 생활에서의 가족에 애정이 생긴 부분이 긍정적인 변화이고 반면 부정적인 변화는 아이러니하게 혼자서 개인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 누가 간섭하고 내 일에 신경 쓰는 것이 싫어서 그런지 가족과 잘 융합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례 8)

아무래도 자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면 반갑지만 의견충돌이 자주 일어났었어요, 또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별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함께 있었다면 두 분의 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가 남아있어요.....유학

시 어머니께서 자주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머니와는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지만 아버지는 자주 만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부모님께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많이 있다 생각되어 아버지에게는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멀어진 느낌이에요.....누나는 유학을 하지 않고 부모님 옆에 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모님의 상황과 분위기를 잘 알아 저보다는 더 가까이 더 많은 것을 나누며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누나는 저와 다르게 아버지와 시간이 많이 있었고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대화할 때 말이 통하지 않거나 서로 떨어져 지낸 시간으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별거 중이시라 매우 불만족스러워요.(사례 12)

부모님과 떨어져 있음으로 더 독립적이 되었고 또 떨어져 있으니까 더욱 잘 해야겠다는 생각과 마음이 많아져 좋았지만 아들이 하나인데 왠지 정상적인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이 들어 아쉬움이 없지는 않아요, (사례 13)

아무래도 어머니와 둘이 와서 유학을 했었고 아버지와는 지금도 떨어져 있고 동생과도 처음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역할과 친밀도에 영향을 미쳤어요, 부모님 두 분도 자주 떨어져 계셔야 했기 때문에 처음엔 힘드셨지만 나중에 떨어져 계신 것이 편하게 될 정도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쳤고 저도 힘든 유학시절에 아버지가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분노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한 번씩 아버지가 미국에 왔다 가실 때면 왠지 모를 아버지께 대한 애뜻한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사례 14)

조기유학으로 워낙 부모와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었고 더욱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엄마와 더 가까워지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다보니 유학을 하지 않은 주변 친구들에 비해 부모와의 대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사례 16)

관계유지형은 조기유학자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조기유학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인 데, 가족관계소원형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혼자서 유학생생활을 하지만 유학 이전에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그리 밀착되지 않았을 경우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위인 경우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인해 부부관계나 가족역학적인 변화에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가족관계의 변화 역시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워낙 가족이 각자 행동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어머니와 더 가까웠어요.....서로의 소중함을 더 아는 듯했으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힘들게 했어요.(사례 7)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고 또한 만날 때마다 깊은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그리 멀어진 것 같지는 않고...어느 정도 만족은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사례 9)

자녀에 대한 고민에서 부모님들이 완전히 자유로워지신 것 같아요, 부모님끼리의 관계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헤쳐 나가고 있는 것만으로 대견스러워 하시기 때문에.(사례 15)

관계개선형에서는 조기유학자의 형제나 자매도 역시 유학을 경험하고, 이러한 공동의 유학 경험으로 유학이전보다 더욱 친밀하고 결속력이 강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을 함께 한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대부분 서로의 유학경험을 나누고 미국에서 친구와 같이 연락을 자주 취하면서 매우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가족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하고 가족구성원 각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유학생과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하며, 이러한 문화적 또는 경험적 공통점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유학생생활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 관계가 어

색해지거나 소원해졌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 보다 가족을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서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만날 때 마다 너무 애뜻하고 좋았어요.....아무래도 언니와 학교를 같이 다녀서 언니와 친밀하고, 부모님은 누구와 더 친밀하다고 하기보다 두 분 다 친밀해요.(사례 1)

전화통화를 자주하면서 부모님과과는 오히려 더 친해졌어요, 엄마랑은 2-3일에 한번씩 통화하면서 친해졌고 아빠랑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통화했는데, 아빠랑은 엄마만큼은 친하지 않았어요.(사례 2)

누나도 유학을 왔고 한 때는 같은 도시에 누나가 있기도 했는데 그 후에 누나와 한국에 함께 있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사례 4)

자매들끼리는 밖에 나와서 서로 의지하다 보니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부모님과는 멀리 떨어져있으니 더 애뜻해진 것 같아요, 막내 여동생과 나이차가 많이 나서 대부분 유학생활동안 본인과는 떨어져 있었는데, 막내 동생이 유학생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주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동생도 유학을 시작하고 방학 때마다 동생과 만나다 보니까 금새 친해졌고, 예전에는 그저 애기 같았던 동생이 이제 친한 친구와 같은 관계로 변하게 되었어요.(사례 10)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고 남동생과는 한국에서는 조금 싸우는 편이었는데 서로 유학 후에는 싸움이 없어졌고 서로 이해관계도 깊어지며 더 친해졌어요.(사례 11)

큰 언니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언니가 음악 전공이라 늘 바빴기 때문에 같이 보낼 시간이 없었는데 유학을 와서는 워낙

함께 지냈기 때문에 더 가까워졌고, 작은 언니와는 유학을 와서 떨어져 있다 보니 더 애뜻해졌고 그리운 마음 애정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사례 16)

특히 엄마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처음 고등학교 때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모든 걸 다 공유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친밀해졌어요..... 아빠와 오빠와 떨어져 지냈으며 원래는 아빠와 훨씬 사이가 좋았는데 아무래도 떨어져 지내다 보니 엄마와 더 친밀해졌어요.(사례 18)

유학생들의 적응과정에서 독립적인 생활과 자립심,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유학 전보다 유학생 본인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학생 모두에게 보이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가족 간의 관계를 맺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매우 밀착된,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챙기는 어머니의 역할은 유학생 모두가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반면, 유학생 자녀와 유학생 부모 모두가 유학 기간 동안 자녀가 독립적이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강한 문화에서 생활한 것을 인정하고 자녀의 독립적인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경우에 조기유학 이후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유학 바로 갔다 와서는 갈등이 심했어요, 내가 유학 시 혼자 자유롭게 살았는데, 엄마랑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자유가 줄었어요.....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조율하게 되면서 갈등이 많이 없어졌어요, 유학 전과 비교해서는 유학 가기 전에도 엄마랑 친했고 지금도 친하기에 관계의 친밀감에 있어 큰 차이는 없어요, 엄마가 내가 외국에서 오래 혼자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성격이나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다보니, 오히려 유학 전보다 나를 더 이해해주세요.....동생에 대해서는 유학 전에는 서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한집에서 각자 생활했어요, 내가 유학 간 후에는 내가 미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집에 오니깐 동생이 유학 전보다 잘 해주고 잘 챙겨줬어요, 내가 유학가고 내 동생이 2년 후에 미국에

떠났어요.....서로의 영역과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내가 미국이라는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문화에서 생활했어요, 동생 또한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그러한 미국문화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러한 면을 엄마에게 이해해주길 요청했고 엄마가 이해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사례 3)

사춘기를 부모와 떨어져 보냈기 때문에 독립적이게 된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어찌 보면 한참 부모의 마음이 필요할 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금도 가끔 저를 아이 취급을 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 가족과도 의도하지 않게 독립성을 유지할 때가 있었는데, 조기유학이나 그로 인해 빚어지는 어떠한 자연스런 현상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저나 서로에게 서운하게 느낀 적은 없어요.(사례 4)

가족과도 독립성을 유지하게 됐어요, 가족이 많이 그리웠지만 제가 대학준비나 미래에 대한 준비로 가족에게 마음을 많이 나누지 못했어요, 막내딸이다 보니 워낙 예쁨을 많이 받고 자라 이기적인 성향이 유학 전에도 있고 워낙 성격이 독립적이라 가족들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유학 후 가족들로부터 더욱 독립성을 유지하게 되어 부모님께서 많이 안쓰러워하셨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 보니 모든 일들을 거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익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걱정을 덜어 드리고 싶은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 부모님은 서운해 하셨고 본인이 겪고 있는 모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많이 알고 싶어 하셨어요, 부모님은 처음 학교 시작 즈음 같이 오셨을 뿐 함께 지내시지는 않았어요.....처음에는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이 힘들고 왠지 마음이 아파 헤어지면 많이 울기도 했지만 시간과 횟수가 더해가며 점점 익숙해졌어요,오빠와 언니는 유학을 하지 않고 부모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과 본인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많은 것을 나누어 부모님과의 관계가 보다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사례 17)

결론적으로, 자녀의 조기유학 경험은 단순히 외국생활을 체험해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유학생 모두가 미국문화를 체득하고 동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만 자라온 전형적인 한국인의 성격과는 달리 한국사회와 미국사회의 문화양식이 공존하는 이중문화가 유학생 본인에게 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기유학생의 이중문화적인 요소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데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3)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평가

(1) 조기유학 이후 (외국어)영어실력 향상

영어실력의 향상은 조기유학종료자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다. 조기유학을 종료한 시점에서 현재, 대체로 이제는 자연스럽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영어 작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체로 어려워했으며, 특히 지금도 조기유학자 모두 미국 본토인과 같은 수준으로 작문을 하기에는 대체로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을 종료하고 한국사회로 돌아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자신있다고 응답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제는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편하게 느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와 국어 모두 자신있기까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유학생치고는 영어를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 한국에서 고2까지 있었고 책을 좋아해서 국어 실력은 다들 유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좋고 한국에서만 살았던 사람들 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사례 3)

이젠 한국말보다 편할 정도로 향상되었어요.(사례 4)

영어실력은 남들은 잘 한다고 하지만 본인은 현재 실력에 만족하지 않아요. 읽기와 쓰기 그리고 듣기 모든 다방면에 걸쳐 많이 향상되었어요.(사례 5)

저는 꽤나 오래 체류했었기 때문에 영어실력이 많이 늘었어요.(사례 6)

이제는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별 어려움 없이 대화할 수 있어 편안하고 언어는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어요. 자신이 있지는 않지만 두 개 국어 모두 편안히 쓸 수 있어요.(사례 7)

처음에는 입이 잘 안 떨어져서 고생을 했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지금 지금은 말하기와 듣기, 쓰기와 읽기 모든 면에서 향상하고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요.(사례 9)

한국에서부터 외국어를 해왔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긴 하지만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며 늘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 자라고 공부하다 보니 굉장히 향상이 되었고 이제는 능숙하게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편하게 외국어를 쓸 수 있어요.....영어 또한 회화는 문제가 없지만 작문을 한다면 여전히 힘든 과정에 있기 때문에.(사례 13)

영어실력은 정말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데.....저는 국어와 영어 모두 자신이 있어요.(사례 15)

영어실력은 미국사람과 자유로이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영어와 국어 모두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요.(사례 16)

현재는 백인이 다수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영어권 안의 생활을 하여 본인의 외국어 실력은 유학생인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수준급에 속해요. 영어와 국어 모두 편하긴 하지만 자신감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관점이기 때

문에 그리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사례 17)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능수능란하게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자(bilingualism)가 아니라, 한국어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반쪽언어자(semi-lingualism)가 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와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 실력에 대한 자신감의 하락이나 결여도 함께 내비치고 있다. 미국에서 현재 직장을 다니거나 학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대체로 영어 실력이 향상된 반면 한국어의 어휘력이 부족해지고 표현력이 서툴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 모두 자신이 없다고 대답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실력이 한국을 떠날 때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수준의 어휘력에 머물러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영어는 많이 향상 되었어요, 둘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국어는 사실 한국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어휘력과 구사력이 떨어지고 영어 또한 물론 백인 영어 수준을 따라가지는 못해요.(사례 2)

영어를 대해선 확실히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한국말에 대해선 친구들이 좀 이상하다고 평해서 본인 또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어요.(사례 4)

영어와 국어 둘 다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둘 다 자신이 없다는 말이 정답일 것 같아요.....국어능력은 시간이 갈수록 매우 쇠퇴했어요. 맞춤법이 틀리는 것은 기본이고 영어만 사용하다 보니 한국말이 어색했던 적이 있어요.(사례 6)

4년간의 고등학교, 그리고 또 4년간의 대학교, 1년의 대학원생활을 통해 영어는 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원어민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한국을 떠나올 때의 국어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어 역시 한국에서 대학까지 한 친구들에 비하면 어휘와 문장, 표현력 등에서 현저히 떨

어지는 것을 느껴요. 제가 어디를 가거나 조기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Bilingualism은 본인의 꾸준한 노력 없이는 semi-lingualism이 되어 버리기 쉬우며, 이것이 조기유학자의 최대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사례 10)

영어실력은 등기와 말하기, 쓰기와 읽기 모두 많이 향상되었고 여전히 쉽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늘고 있는 부분이고, 듣기와 말하기 수준은 유학생치고는 괜찮은 편이지만 한인 1.5세나 2세에 비교한다면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사례 11)

영어실력은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향상을 요구하는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어는 점점 잊어버리고 있고 영어는 천천히 늘고 있어 그리 자신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사례 14)

영어는 안하면 늘지 않아요. 지금은 영어도 국어도 자신이 없어요. 유학을 오면 영어도 국어도 다 잃어요.(사례 15)

(2)조기유학 이후 성격, 사고방식 및 자아 변화

조기유학 이후, 조기유학자의 성격이나 자아 변화에 있어서 유학 전보다는 미국문화의 영향 탓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졌으며, 독립심, 자립심, 책임감이 또한 많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조기유학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로서는 이문화 또는 타인에 대한 수용력과 포용력이 성취되었으며, 자신감과 결단력, 표현력과 대인관계 기술도 역시 유학 전보다는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조기유학 이후 자아가 강해지고, 더욱 이기적인 면이나 자신만의 고집이나 의견이 강해져서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과의 대화나 융화가 잘 되지 않게 변한 부분도 함께 지적하고 있었다.

책임감이 더 있어진 것 같아요,,,내 성격상 나 혼자만 챙기거나 이기적인 성격이 못 되요,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과 잘 지냈으며 전혀 내가 이기적이 되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문화적으로 한국보다 미국이 조금 더 친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문화적인 면에서 한국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이기적이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사례 1)

조기유학 전과 후 많이 다르지는 않았지만 유학 후 자신감과 결단력, 그리고 포용력과 수용능력이 생겼어요, 또한 유학 와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다보니 학업에 대한 큰 자신감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배움을 즐기게 되며 새로운 것에 대한 희망을 상황에 맞게 이루어 나가는 진취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변화는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자신감이 많아진 것이고 부정적인 변화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조기유학으로 인해 약간 이기적인 성향이 생긴 것도 같지만 그것은 자기 발전을 위한 사고방식 때문인 것 같아요.(사례 4)

좀 더 어른스러워졌고 성숙해졌으며 뭐든지 열심히 하는 성격으로 변할 것 같아요.(사례 7)

제 성격은 낙천적이고, 밝고 사교적이며 매우 솔직한 편이에요,,,,, 유학 전 성격도 비슷하지만 조금 더 소심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 있고 더 솔직하게 변했다고 생각해요,,,,,긍정적인 변화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개인주의 영향을 받아서 너무 자아가 센 사람이 되어 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체로 만족해요.(사례 10)

아무래도 미국에 오래 있다 보니 미국적인 사고로 유학 전에는 없던 개인주의적 성향이 생겼어요.(사례 11)

긍정적인 변화는 자기주장을 더 표현하고 좀 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이고 부정적인 변화는 본인이 싫어하는 것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면 바로 표현하기 때문에 너무나 직설적으로 변한 거예요, 좀 더 활발해지고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만족합니다.(사례 12)

아무래도 미국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 자신의 의견을 더 잘 표현하게 되었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바뀌어진 것 같기도 해요.(사례 13)

터울 많은 여동생이 있어 그 전까지 외아들로 자랐었기 때문에 이기적이었고 또 본인의 일만 찾고 본인만 생각하는 성격이었어요, 조기유학 후에도 이기적인 면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남을 배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또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과 접하게 되면서 자신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생기고 또한 대화의 기술을 통해 대인관계가 원만해졌어요, (사례 14)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함에 있어 포용력이 생기면서 마음도 더 넓어지게 되었어요, 긍정적인 변화는 유학 전에도 있었던 독립적인 성향이 더 짙어져 막내이지만 모든 일을 혼자서 다 잘 처리하려다보니 독립심과 책임감이 더욱 강해져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린 점이고 유학 전에는 많지 않았던 자신감과 표현력 그리고 창의력을 얻게 된 점이에요,

부정적인 변화로는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에 더 민감하게 되었고 고집이 더 강해지고 더 독립적이 되다 보니 한번 생각한 것은 좀처럼 바꾸지 않게 된 것과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의를 제시해 종종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예요.(사례 16)

집에서 막내인 본인의 이기적인 성향을 더욱 이기적으로 만들었지

만 부모님과 떨어져 공부해야 하는 본인은 유학을 하는 동안 매우 강해졌어요. 조기유학이 본인을 이기적으로 만든 이유는 아무래도 어려울 때 부모와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강해져야 했고 강해지려면 미국의 문화를 빨리 흡수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개인주의 성향이 짙게 되었고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찾고 하다 보니 원래 이기적인 성향이 더 짙어졌어요.....긍정적인 변화로는 독립성과 책임감이 생기고 의지가 강해졌어요, 부정적인 변화는 더욱 이기적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은 쉽게 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사례 17)

유학 전 한국에서 본인의 성격이 소극적이라고 느꼈던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생활에서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친구관계의 형성으로 조기유학 종료 이후 보다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 되거나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조기유학종료자 본인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내성적이었던 성격이 긍정적이고 자신감 많은 성격으로 변화되었어요.....긍정적인 부분은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부정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취향이 생겨서 내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서 오랜 시간을 생활하다 보니 본인 것은 본인이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듯해요.(사례 8)

유학 전에는 훨씬 더 내성적이라 자신을 표현할 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었는데 말도 잘 하지 않는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혼자 생활하면서 독립적인 면이 더 강해졌고 본인의 주장이 더 뚜렷해졌고, 자신을 표현할 때 좀 더 자신 있게 나타내어 내성적인 성격이 조금 더 외향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해요.(사례 11)

미국 문화와 여러 다른 문화에 접촉하고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되면서 그 전엔 내성적인 성향만 많이 드러났는데 외향적인 부분도 약간씩

나오게 되었어요.(사례 13)

한국에서는 조용한 편의 학생이었지만, 미국에서 더 밝고 건강하게 또한 활발하게 학교생활을 하며 워낙 긍정적인 성향이 더 드러나면서 낙천적으로 변했어요.(사례 16)

조기유학 이전에 한국에서의 본인의 성격이 활발하고 친구를 포함한 대인관계가 좋았었을 경우에는 조기유학 당시 미국 유학생생활에서 우선 영어로 모든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점과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조기유학 전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했으며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자신감의 상실이나 저하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성격변화에 대해서는 조기유학종료자와 그의 부모 모두 조기유학의 부정적인 영향이자 결과로 평가하고 있었다.

유학전에는 밝고 명랑했던 성격이 우울하고 어둡게 바뀌며 또한 영어가 쉽게 되질 않다보니 눈치도 많이 보게 되었고 자신감도 상실했어요,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혼자서 외국생활을 어린 나이에 하면서 꽤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성격으로 자랐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했던 탓에 사람들의 정 특히 가족의 정을 많이 그리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기대게 되고 의지하려 하기도 한 것 같아요.....혼자서 살림도 잘하고 독립적이고 생각이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변화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사라지고 매우 독립적인 동시에 극도로 의존적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예요, 또한 본인이 원해서 추진했던 유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함과 어두운 면의 성격이 많아졌을 때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의 마음을 안쓰럽게 했을 볼 때 오랜 유학생생활의 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사례 6)

한국에서는 인기가 많은 편이라 이기적이고 본인이 필요만 생각했었는데 유학을 와서는 상황이 달라지다보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로 인해 겸손함을 배울 수 있었으며 미국의 토론위주의 수업방식을 통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고 대화의 기술이 늘었어요. 부정적인 변화는 거의 강요되었던 토론이나 발표로 자주 위축이 되다 보니 본인의 성격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긴 했지만 위축감이 생겼어요.(사례 14)

유학 전에는 그냥 모두와 잘 어울릴 수 있을 정도로 등글등글하고 성격이 좋았어요. 그러나 유학을 와서 아무래도 외롭고 힘들다보니 성격에 모가 많이 났다고 생각이 되요.....조기유학의 긍정적인 변화는 솔직해진 것, 한국에서는 목사 딸이라고 은근히 눈치를 봤는데 유학을 와서는 사람들 눈치를 안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편이 되어서 좀 편하게 되었어요. 부정적인 변화는 너무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사례 18)

(3) 이문화 수용능력과 세계관 변화

이문화 수용능력이나 세계관의 변화에 있어서는 조기유학자 대부분이 조기유학 전보다는 훨씬 포용력과 수용력, 타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글로벌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를 현재 편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제적인 활동 참여나 또 다른 외국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을 때 자신감 있게 이를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지금이라면 다 잘 지내고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학을 통해서 확실히 외국문화에 대한 적응력이라든지 외국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웠어요.(사례 1)

미국에서 키운 적응력과 사교성을 통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사례 2)

유학을 통해 국제적인 시각이 생기고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떠한 나라의 사람과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영어 실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해요. 한국과 미국을 모두 이해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사례 8)

타 국가에 있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문화를 존중한다면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한국 문화 및 한류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알리며 서로 문화를 주고 받을 때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며 세계 공용어인 영어에 능통한 것인데, 저는 해외 거주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사례 11)

가장 필요한 능력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문화를 받아드림과 동시에 자신의 문화도 표현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데 유학을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얻었다고 보기에.(사례 12)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적응력인 것 같은 데 조기유학을 통해서 적응능력과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수용능력도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사례 13)

조기유학이 나의 글로벌 역량에는 확실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며 본인의 마음도 열 때 어느 정도는 친해질 수 있다고 봐요. 결혼 후 약 1년 간을 베트남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그 나라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재미있게 잘 지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봐요.(사례 16)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려고 한다면 일단 글로벌 언어인 영어

가 되기 때문에 적응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사람과 친해질 때 필요한 음식, 거의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것 때문에 친해질 수 있고 또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타 문화권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며 또 타 문화권 친구들을 만들며 그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기 때문에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사례 17)

(4) 조기유학 이후 한국문화와 현지문화의 동화 및 통합 수준 (한국문화와 현지문화에 대한 친밀성 수준)

조기유학 이후, 한국문화와 현지문화(미국문화)에 대한 조기유학종료자의 동화 및 통합수준에 있어서는 대부분 통합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즉, 한국문화나 미국문화 모두 매우 익숙하고 친밀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문화가 매우 익숙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아직까지는 한국문화를 더욱 친밀하게 느끼고 있었다.

한편, 조기유학종료자가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에 대하여 통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나, 한국문화와 미국문화를 본인 나름대로 통합하여 제 3의 문화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또는 한국문화보다는 미국 현지문화에 더욱 동화되어 이제는 한국문화보다 미국문화를 더욱 편하고 친밀하게 느끼는 사례도 나타났다.

나는 문화적인 면에서는 내가 배운 곳이 미국이어서 그런지, 미국 문화에 친밀감을 느껴요. 하지만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도 크게 부담감이 없이 잘 맞아요.(사례 1)

기본적으로 한국이 더 좋아요. 유학을 했지만 한국에서 그대로 오래 살았고 속에 한국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에 정서적으로 더 친밀감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자유로운 면과 노력하면 어떤 분야든 성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결국은 외국인이라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사례 2)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고 한국에 돌아오니 한국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나에 대한 간섭이 심하다고 느껴지거나 내 프라이버시가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는 무례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아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사례 3)

한국문화의 장점은 모든 것이 빠르고 교육적이고 건전한 문화프로그램들이 많다는 것이며 단점은 양보가 없고 쓸데없는 군중심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에게는 한국문화나 미국문화 둘 다 비슷하게 친밀하고 편해요.(사례 4)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점에서 미국문화가 좋아요. 언어나 외형, 겉으로 보여 지는 것에 의해서 한국문화가 더 편안하게 느껴져요.(사례 9)

본인은 두 문화 모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지만 둘의 장점을 섞어놓은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기유학으로 양쪽의 문화를 적절히 보고 배운 것을 합쳐서 본인만의 새로운 제 3의 문화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해요.(사례 10)

한국문화와 미국문화를 비교하여 우위를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문화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본인은 양쪽 문화 모두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아무래도 더 편안한 문화는 한국문화예요.(사례 11)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인이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문화가 아직은 더 친밀하고 또한 대인관계나 도덕심, 그리고 위아래관계가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본인의 성향으로 한국문화가 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사례 14)

본인은 한국문화가 친밀하게 생각되지만 미국문화가 편안하긴 해요.(사례 16)

본인에게는 미국문화가 더 편하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 문화가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미국에 적응하면 할수록 한국문화에 더 많이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사례 17)

조기유학종료자가 경험하고 인식한 한국문화와 미국문화를 비교하면, 한국문화는 집단주의적인 성격과 인간관계를 좀 더 중시하는 반면, 미국문화는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 문화가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조기유학종료자 모두,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에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내재해 있으며, 어느 문화가 더욱 우수하거나 비교하기 보다는 서로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미국문화는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인 반면에 한국문화는 다양성을 배제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미국문화는 다양성을 추구해서 그 다양성이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에 한국사회는 다르다는 것은 결국 사회성 부족으로 판단돼요. 또한 미국 직장에서는 자기 일만 딱딱하면 되어서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지만, 서로 친밀감을 느낄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한국 직장에서는 조직문화가 회식을 자주하거나 서로 관여하는 문화여서 부딪히는 면이 있지만, 친밀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사례 2)

미국문화는 프라이버시 및 개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인 것 같아요.(사례 3)

한국문화는 정이 많은 반면에 융통성이 너무 강해 중요한 기준이 무시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민족의식이 싫어요. 미국문화는 원칙주의예요. 융통성이 없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어요.(사례 5)

한국은 밤에 나가도 사람들이 많고 밝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이 외모지상주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고 봅니다. 미국은 자기 개성주의로 타인에 대한 신경을 거의 쓰지 않아요. 한국이 집단주의라면 미국은 개인주의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사례 7)

미국인들이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각각의 개성과 다른 관점이 존중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기적이고 또 본인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도 어느 정도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한국인들은 너무 남을 신경 쓰느라 비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쉽게 용납이 되지 않고 정이 많은 것도 장점이라고 봐요.(사례 10)

한국문화는 미국문화보다 단체행동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결력과 결합력은 좋아질 수 있지만 때론 막무가내의 군중심리의 작용이 많으며 또한 개인의 능력이나 의견은 좀 무시될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하여 미국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대신 노력만 하면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이 존중될 수 있는 기회가 많고...한국이 공동체적인 면을 주장한다면 미국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개인은 양쪽 문화 모두 친밀하고 편안해요.(사례 12)

물론 모든 문화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데 미국문화는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점에 비하여 한국문화는 공유적인 것이 많고 함께하는 문화라는 것에서 좋다고 생각돼요. 또한 미국문화는 극도의 개인주의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한국문화는 어떤 면에서 비이성적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사례 13)

미국인과 미국문화 그리고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비교했을 때 미국인과 미국문화가 좋은 점은 미국인은 모든 사람에게 잘 새 주는 듯 하나

냉정할 때는 냉정하게 공과 사가 분명하고 늘 여유롭고 문화 자체가 장점이나 너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앞에서 웃는 듯 하지만 뒤에서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모르는 잔인함이 있고 모든 일 처리가 느리고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이 단점이라 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인과 한국문화는 미국과 다르게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며 일처리가 빠르고 모든 일이 신속하게 돌아가는 동시에 술수가 많고 양보가 없으며 완벽히 합쳐지지도 못하는 어정쩡함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해요.(사례 17)

3. 조기유학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조기유학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절반의 성공사례) 분석

(1) ‘성공적인 조기유학’의 의미와 본인의 조기유학에 대한 성공 평가

조기유학자가 평가하는 ‘성공적인 조기유학’의 척도는 조기유학 당시 가졌던 목표 달성, 영어습득,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 개인 역량 강화를 들고 있었다. ‘성공적인 조기유학’의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조망되고 있었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본인의 유학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조기유학의 성공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가장 주요하게 나타났다. 조기유학을 통한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가 성공적인 조기유학의 척도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또한 영어를 습득하고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개발할 수 있을 때 조기유학의 성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기유학의 성공이라는 나름대로의 정의에 비추어 본인의 조기유학이 과연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기유학종료자들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본인의 조기유학이 성공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본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미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 또한 원하는 전공과 대학에 진학을 했기 때문

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조기유학의 성패를 가르는 부분은 삶의 만족도와 같이 정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기유학의 근본 목적이었던 학업성취가 본인이 목적인 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었다.

성공적인 조기유학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 찾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조기유학을 결정할 당시에는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외에 다른 진로에 대한 것이나 어떤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성공적인 유학으로 나는 판단해요. 고등학교에서 잘 적응했으며, 처음 목표했던 대학을 잘 마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과 책임감이 생겼고, 어딜 가도 잘 적응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사례 1)

성공적인 조기유학은 이탈하지 않고 영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조기유학 당시 일단 대학을 잘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 후엔 특별한 계획은 없었어요..... 조기유학은 성공적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큰 문제없이 잘 적응할 수 있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취직 시 유학이 이점이 돼서 적용되었기 때문에.(사례 2)

본인에게 가장 맞는 공부방법과 생활에서의 만족도를 찾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유학이라고 생각합니다.....조기유학을 결정할 당시 계획은 원하는 전공, 직업을 찾겠다는 계획 이외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었어요.....저의 조기유학은 매우 성공적이에요. 유학을 오지 않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와 비교해서 높은 학업성취,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삶의 만족도 등 여러 가지를 비교할 때 본인의 조기유학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봐요.(사례 4)

본인의 유학 목표를 달성하고 언어에 자신감을 얻고 결국에는 만족하는 것이라고 봐요.....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 본인의 조기유학이 성공적이라고 봐요.(사례 7)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은 영어였는데 본토 영어를 배우고 원하는 전공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였어요.....성공적인 조기유학이란 의미는 자립심을 키우며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하며 영어 구사능력을 극대화하여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글로벌 국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선진국의 매너와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에서 얻을 수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고 어려서 혼자의 생활로 인하여 소중한 것에 대한 부분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사례 8)

성공적인 조기유학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조기유학 결정 당시 계획은 저와 잘 맞는 분야를 찾고, 그에 따른 대학진학이 목표였어요.....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던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성공적이라고 봅니다.(사례 9)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공적인 교육의 결과는 자신의 정체성과 꿈을 찾아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나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조기유학이 다른 교육의 선택과 크게 다른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에 다른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본인은 꽤 괜찮은 유학생생활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의 꿈을 찾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세계사화와 무대에서 통하는 언어와 학문적 훈련이 가능했기 때문이에요.(사례 10)

학교생활을 잘 마치고, 유학한 곳의 언어와 문화를 잘 습득하는 것, 또한 변수는 늘 생길 수 있지만 유학을 왔던 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봐요.(사례 11)

성공적인 조기유학은 아무래도 조기유학 후 자신이 생각하기에 조기유학 결정과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조기유학을 결

정할 당시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목적이어서 향후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Ivy League에 입학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조기유학 후 삶에 만족이 커지고 성격도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곳에서 최선을 다해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 서로를 향한 마음이 애뜻해지고 또한 마음을 나누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통틀어 생각할 때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어요. 결국 유학으로 인해 얻은 것들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사례 13)

성공적인 조기유학은 본인의 최대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조기유학 결정 당시 계획은 대학에 진학하여 computer science 또는 engineering을 전공하려고 했어요.....성공이라고 봐요. 본인의 능력 이상의 사회적 성공과 자신감이 부여되었기 때문에.(사례 15)

성공적인 조기유학이란 학생이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더불어 유학생살로 인해 많은 것을 얻고,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조기유학 당시 계획은 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에서 취직을 할 계획이었어요.....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유학생살을 통해 본인의 인생에 많은 것을 얻었으며, 공부로 인해 스트레스만 받을 법한 학창시절을 너무나도 즐겁고 밝고 자유롭게 잘 지냈었기 때문에.(사례 16)

성공적인 조기유학은 어떠한 이유에서 유학을 왔건 현재 자신의 삶에 얼마만큼 만족하는지라고 생각해요.....유학 결정권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공은 아니었지만 그 후 가족 간의 관계나 본인의 진로나 학업을 볼 때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해요. 지금 본인의 삶이 만족스럽고 또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이 재미있고 본인에게 맞기 때문이며 앞으로의 본인의 진로가 기대되고 또한 자신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사례 18)

성공적인 조기유학은 먼저 유학을 하는 당시에 조기유학자가 행복하고 돌이켜 보았을 때 후회가 없는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졸업하고 어디서 얼마의 수입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행복지수가 우선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고 평가할 수 있어요. 현재 저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과거에는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을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었고 또한 유학을 와 집을 떠나 있을 때 부모님과 형제들의 마음과 후원은 저의 결정에 힘을 얻게 해 주었기 때문이에요.(사례 17)

조기유학종료자 중 자신의 조기유학이 꼭 성공적이었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사례 6의 경우, 학업성취가 목표한 대로 공적인 학업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조기유학 생활 자체를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이로 인해 본인의 성격이 좀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자신감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조기유학이 꼭 성공한 사례라고 보지만은 않았다. 특히, 조기유학 과정에서 겪었던 경제적 부담과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지내야 하는 데서 오는 정서적 지원의 부재 등은 본인의 성격 변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조기유학을 종결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12의 경우는 학업성취에서는 역시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본인이 원인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조기유학 과정에서 일어난 가족 간의 불화나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소원에 대해서는 조기유학의 부정적인 결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조기유학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살면서 역동적으로 가족관계 변화에 참여하지 못했고, 따라서 본인 스스로는 타지에서 수동적으로 단절된 가족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조기유학의 한 폐해로 여기고 있었다. 사례 13 역시 학업성취와는 별개로 조기유학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겪었던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본인의 조기유학을 위해 부모의 무리한 희생이나 경제적 부담은

부모에게만 지어지는 고통이나 근심이 아니라 조기유학자 자신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부담이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조기유학 기간 중 부모가 별거에 들어가거나 기러기가족, 부모의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가족 간 불화에 대한 경험은 조기유학에서 얻은 성공적인 학업성취의 여부를 떠나 조기유학자 스스로에게, 또한 부모에 대한 분노나 아쉬움, 서운함 등의 가족 갈등의 내재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가족관계의 변화는 조기유학자 자신의 유학생화에 대한 적응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조기유학이 반드시 성공적인지에 대한 회의론을 갖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기유학의 성패는 조기유학자 본인이 조기유학의 목적과 의지를 잃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가족공동체”라는 의식이 가족 구성원 간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경제적인 지원뿐 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까지 가족 구성원 모두 서로 나눌 수 있는 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5, 사례 11, 사례 14는 성공적으로 조기유학을 마쳤다고 판단하고 조기유학을 통해 얻은 것은 많지만 둘 다 조기유학의 원래 목적이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했다. 때문에 본인들의 조기유학이 성공적이었다고는 단언하지는 못하였다. 사례 3, 사례 10, 사례 16, 사례 17의 경우는 조기유학과정에서의 학업성취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조기유학과 대학과정을 마친 이후의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의 진로나 취업상태가 본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가능하면 좀 더 나은 조건이나 직장으로 이직을 원하고 있었다.

현재의 직장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직하려고 하고 있어요.....임원을 도우는 역할 즉 소위 말하는 비서직이에요, 그런데 유학까지 갔다 와서 비서직을 한다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요.....당시 한국 대기업에 많이 지원하지 않았어요, 지원하기 위해 치러야하는 시험과 토론 면접 등을 해야하는데 한국 대학생들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이직해서 대기업의 인사부에 취직하고 싶

어요,(사례 3)

조기유학을 결정할 당시 계획은 없었어요. 단지 한국의 교육방식이나 학교생활이 맘에 들지 않아 유학을 결정했어요.....성공에 가깝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한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 후회도 있어요. 초기에는 학교생활과 문화적인 차이로 오는 혼돈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성공으로 갔기 때문에,(사례 5)

성공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기유학을 통해서 본인이 얻은 것은 매우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굳이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지 않아도, 예를 들면 고등학교 후어나 대학 때 간다던지 그 후에 와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기유학 시절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기숙학교 생활과 일반사립학교의 장점, 그것들은 굳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느껴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기엔 감수하고 희생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사례 6)

조기유학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법대에 진학해서 사법고시를 통과했거나 법률 쪽 회사에 다니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 같아요.....다른 교육시스템을 몸소 체험하면서 여러 나라 친구들과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 여러 나라의 사회구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사회과학 분야 특히 교육정책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정말 좋아하고 관심있는 분야를 찾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다지 경제적으로 탄탄한 미래가 보장된 분야는 아니라는 것이 부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미국에서 더 큰 대학교를 갔더라면 다른 전공도 둘러보고 기회를 넓힐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요.(사례 10)

유학 당시에는 첼로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만 해도 약기가 좋았고 음악에 재능도 없지 않아 미국에서는 계속하여 하고 싶었는데 막상 유학을 와보니 다른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넓고 굳이 음악

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진로를 바꾸게 되었어요..... 음악을 더 공부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조기유학을 왔는데.....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학을 온 목적만 생각한다면 성공이냐 실패냐를 나누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학교생활을 잘 마쳤고, 현지에 적응하여 잘 지냈으며 현재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이지만 조기유학의 목적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인지 실패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례 11)

성공적인 것 같으면서 비성공적인 것 같아요. 성공적인 것 같은 이유는 일단 학업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이고, 비성공적인 이유는 꼭 본인의 조기유학 때문이 아니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망가진 것과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볼 때.(사례 12)

현재의 진학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그리 만족하고 있지 못한 편이에요. 여전히 학부를 끝내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약간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유학을 왔을 때의 목적과는 다르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분야라 새롭긴 하지만 결국 사업을 공부해 음악과 요리를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지 본인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 지는 의문입니다.(사례 14)

한 사람의 아내로 엄마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진학은 할 필요를 못 느껴서 하지 않았고 취업은 아직 아이가 어려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따라 늦추고 있어요.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은 없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유학에서 얻은 경험과 실력을 써야 할 때가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가끔씩 안타까워요.(사례 16)

중이회사에서 senior marketing coordinator로 일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실무를 맡고 있어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수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만족도는 괜찮은 편이지만.....업무가 유학을 통해 얻은 역량을 발휘하는 데 만족스럽지만 직업이나 회사 자체는 본인이 원하는 것은 아니예요.(사례 17)

결론적으로, 조기유학종료자가 평가한 조기유학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조기유학자 자신이 유학 초기에 가졌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기유학자 모두 높은 학업성취, 명문대학 입학 또는 자신이 원하는 전공/진로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조기유학이 성공적일 수 있는 일단의 조건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기본으로, 본인이 기대했던 영어라는 제 2의 언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하고,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친구와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대인관계 형성, 자신감 등을 가질 수 있을 때 조기유학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기유학의 성공이 본인만의 학업성취나 진로개발에만 있지는 않았으며, 원만한 가족관계의 형성과 가족 간의 정서적 지지가 충분할 때 더욱 조기유학 과정과 결과에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2) 조기유학 결과 분석 :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의 분류

조기유학 결과 분석은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종료자의 개인적 성취, 관계적 차원, 글로벌역량과 문화정체성 평가, 조기유학 및 조기유학 종료 이후 진로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 수준을 총괄하여 평가하였다.

개인적 성취에서는 조기유학 기간 동안의 학업성취 수준, 학교생활적응 수준, 졸업 여부, 중고등학교생활에서의 본인의 성취 평가 및 전반적인 만족도를 기준으로 조기유학 유형 분류 및 성공 여부를 분석하였다. 조기유학 종료 이후에는 대학진학 여부, 대학 및 전공 선택에 있어서 조기유학 당시의 목표 성취 여부, 대학생활 적응 수준, 대학생활에서의 본인의 성취 평가 및 전반적인 만족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 여부, 취업 시 업무/직무 만족도 또는 대학원 진학 시 전공 선택 만족도, 본인의 역량 발휘 여부를 기준으로 분

석하였다.

관계적 차원에서는 조기유학을 전후로 한 가족관계 변화 및 이에 대한 조기유학자의 평가 및 만족도, 친구관계 및 대인관계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글로벌역량과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외국어 능력(영어실력 향상) 및 한국어 능력, 이문화 적응능력, 문화정체성의 확립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총체적 평가는 개인적 성취, 관계 변화, 글로벌역량과 문화정체성을 포함하여 조기유학 종료자 본인이 조기유학 및 조기유학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표 IV-6> 조기유학 결과에 대한 분석 지표 및 사례 분류

| 분석 지표 | 내용 | 성공사례 | 절반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 |
|----------------|--|--|---|--|
| 개인적 성취 | 조기유학 기간 -중고등학교 | - 학업성취 - 학교생활적응 - 졸업 여부 - (조기유학 종료자에 의한) 개인적 성취 및 학교생활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 | 사례 1 사례 2 사례 4 사례 7 사례 8 사례 9 사례 13 사례 15 사례 18 | 사례 3 사례 5 사례 6 사례 10 사례 11 사례 12 사례 14 사례 16 사례 17 |
| | 조기유학 종료 이후 - 대학진학 | - 대학진학 여부 - 대학 및 전공 선택에 있어서 조기유학 당시의 목표 성취 여부 - 대학생활적응 - (조기유학 종료자에 의한) 대학생활에서의 성취 평가 및 만족도 | | |
| | 조기유학 종료 이후 - 대학졸업 이후 진로 | -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 여부 - 취업 시 업무/직무만족도; 대학원 진학 시 전공선택 만족도 - 직장/직무 또는 대학원 전공에서의 역량 발휘 여부 | | |
| 관계적 차원 | - (조기유학 전/후)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조기유학자의 평가 및 만족도 - (조기유학 전/후) 친구관계 변화에 대한 조기유학자의 평가 및 만족도 - (조기유학 전/후) 대인관계 변화에 대한 조기유학자의 평가 및 만족도 | | | |
| 글로벌 역량 및 문화정체성 | - 외국어능력(영어실력 향상) 및 한국어실력 - 직무능력 - 이문화 적응능력 - 문화정체성 확립 여부 | | | |
| 총체적 평가 | - 조기유학 과정(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졸업 이후) 및 결과에 대한 조기유학자의 총체적 평가 및 만족도 - 현재 상태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총체적 평가 및 만족도 | | | |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 종료자 모두 조기유학 기간에 미국 중고등학교

에서의 개인적 성취, 특히 학업성취는 모두 성공적이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진학률이 100%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조기 유학자가 유학을 떠날 당시 목표로 삼았던 대학을 진학했던 결과로도 이를 반증할 수 있다. 또한, 조기유학 초기에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나 발표와 토의 위주의 수업에 적응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각자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기유학을 종료할 즈음에는 대부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기유학의 결과 평가를 조기유학 당시의 개인적 성취, 특히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적응 여부로 판단했을 때는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자 모두 매우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었으며 이에 모두 성공적인 유학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기유학 과정이나 이후 관계적 차원에서의 평가와 조기유학 이후 대학진학 과정, 대학졸업 이후 진로성과와 관련해서는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으며, 이는 조기유학 종료자 자신의 평가와 만족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종료자 중에서 성공사례로는 사례 1, 사례 2, 사례 4, 사례 7, 사례 8, 사례 9, 사례 13, 사례 15, 사례 18를 들 수 있다. 이들 모두 조기유학 준비 당시 가졌던 조기유학의 목적을 예정대로 모두 성취했으며, 대학졸업 이후에도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을 또한 성공적으로 이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관계적 차원에서도 가족관계의 변화나 친구관계, 대인관계에서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조기유학으로 인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에서는 외국어능력 특히 영어실력의 향상과 직무능력, 이문화 적응 능력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화정체성에서도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에 대한 특별한 반감이나 적응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괄적으로 이들 성공한 사례에서는 조기유학의 결과에 대해 조기유학자 본인은 매우 만족하고 이는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로 함께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 성공사례에서 사례 1, 사례 8, 사례 13, 사례 15의 경우에는 조기유학 종료이후 취업을 한 상태이며, 그 외 사례에서 사례 2, 사례 4, 사례 18는 대학원을 진학하였으며 사례 7과 사례 9는 현재 조기유학을 바

로 마치고 대학을 진학한 사례에 속한다. 조기졸업 이후 대학이나 대학원으로의 진학한 경우, 개인적 성취나 관계적 차원, 글로벌역량 차원에서 조기유학 종료자가 아직까지는 만족스럽게 평가하는 성공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 종료자 모두 학업성취에 있어서는 모두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학을 진학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한 사례에 대한 조기유학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향후 좀 더 그 과정과 결과를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종료자의 조기유학에 대한 평가에서 절반의 성공 또는 실패한 조기유학에 포함된 경우에서는 성공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조기유학 당시의 개인적 성취에 있어서는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대학 졸업 이후 진로 성과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사례 6과 사례 16은 졸업 이후 잠시 취업을 했으나 현재는 무직 상태에 있다. 또한 향후 진로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사례 6의 경우, 학업성취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기유학 생활 자체를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이로 인해 본인의 성격이 좀 더 소심해지고 자신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조기유학이 꼭 성공한 사례라고 보지만은 않았다. 특히, 조기유학 과정에서 겪었던 경제적 부담과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지내야 하는 데서 오는 정서적 지원의 부재 등은 본인의 성격 변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조기유학을 종결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12의 경우, 학업성취에서는 역시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본인이 원인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관계적 차원에서 조기유학 과정에서 일어난 가족 간의 불화나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소원에 대해서는 조기유학의 부정적인 결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조기유학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살면서 역동적으로 가족관계 변화에 참여하지 못했고, 따라서 본인 스스로는 타지에서 수동적으로 단절된 가족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조기유학의 한 폐해로 여기고 있었다.

사례 14의 경우는 조기유학 종료 이후 학부과정에서 계속 전공을 바꾸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분명한 진로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또

한 관계적 차원에서 조기유학과정과 현재까지도 기러기가족으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지만 아버지와는 계속해서 별거 중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과 또한 가족이 해체위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관계 위기는 본인의 정서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지거나 전공선택, 학업을 꾸준히 지속하는 데 있어 갈등과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례 10의 경우는 원하는 대학원 진학에 실패하고 현재 미국 대학원 연구실의 연구조교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진로가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사례 5와 사례 11의 경우는 조기유학 종료 이후 현재의 전공선택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만 조기유학 당시 목표로 한 전공과 진로방향과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조기유학이나 대학 시절에 좀 더 다양한 경험과 전공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현재의 상태에 대한 흡족하지는 못했다.

사례 3의 경우는 조기유학의 결과로서 현재의 직장 and 직업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으로 돌아와서 외국계 헤드헌팅회사에서 임원을 도우는 비서직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성공적인 조기유학의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에 지원하지 않았던 점과 이후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싶어 하고 있었지만, 조기유학과 미국에서의 대학경험은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대학 경험이 없고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예전같이 않은 상태에서 한국 기업에서 요구하는 입사시험과 면접과정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사례 17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 종이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나 직업이나 업무가 조기유학 당시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며, 또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이직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현재 본인의 법적지위가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보이고 있었다.

2) 조기유학 결과 관련 변인 탐색

조기유학의 성공사례, 특히 조기유학 당시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주요한 변인으로는 조기유학자 본인의 개인적 요인, 부모요인, 학교 및 그 외 조기유학생활과 관련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조기유학자 본인의 개인적 요인으로는 조기유학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과 의지가 있어야 하고, 충분한 어학 준비/어학실력, 학업수행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조기유학자의 인성적인 특성으로는 학업과 유학생활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성, 자립심과 독립심이 필요하다. 또한 낯선 곳에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 친구나 교사와의 관계를 친밀히 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성적인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유학에 대한 자기의지, 높은 학업성취, 외국어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조기유학의 성공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조기유학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이순형, 2007).

자기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학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겠다는 목적의식이 뚜렷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사례 2)

글쎄, 내가 자식을 유학을 보낼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아이의 의지와 성격을 많이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가령, 소심한 아이들은 갑자기 다른 문화에서 적응능력이 떨어지므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공가능성이 떨어질 것이구요. 또한 유학을 결정하면 아이에 맞는 도시나 시골 등 지역, 기후, 혹은 학교 규모의 요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히 고려할 거예요.(사례 3)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본인이 얼마만큼 유학을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렇지 못하면 부모님이 체계적으로 자식에 맞는 학교 선택과 환경을 철저히 사전조사를 하여야 조기유학의 성공 가

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사례 8)

본인이 확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다면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유학하는 곳에서 친구를 포함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사례 11)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고 싶은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용기와 추진력.(사례 13)

조기유학자의 꿈과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어리지만 유학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유학자의 의지와 현실에 부모는 미래를 보며 결정할 수 있어야 해요. 예컨대, 유학을 오지 않고 한국에서 그대로 학업에 열중했다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친구가 조기유학을 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친구를 보았어요. 그런 면에서 학업도 중요하지만 유학자의 의지력, 결단력, 독립성, 적응력, 그리고 타 문화에 대한 수용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학자의 성격이나 인성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또한 조기유학은 아무리 유학자가 어리다고 해도 유학 결정권에 있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자녀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는 알아야 하기에 부모의 뜻으로 혹은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조기유학을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하고 또한 도피성유학은 더더욱 없어야한다고 생각해요.(사례 17)

구체적인 단기목표가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며칠 뒤에 시험은 몇 등, 학기말시험은 몇 점을 목표로 몇 일부터 공부시작 등 하나하나 다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외롭지 않게 지내는 것은 좋지만 너무 친구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 같아요. (사례 18)

조기유학의 성공을 위한 부모관련 요인으로는 자녀가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유학생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기유학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근거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가 조기유학생생활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성과악도 조기유학을 결정하기 전에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의 조기유학 이전과 이후에도 자녀와의 꾸준한 의사소통은 정기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가운데 자녀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조기유학자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지지와 가족구성원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 및 유지는 조기유학자에게는 정서적인 지지역할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조기유학의 성공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또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김성숙, 2006; 이강의, 2006; 이순형 외, 2007; 이해리, 2007; 조명덕, 2000; 최양숙, 2005). 특히, 본인이 원인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조기유학 과정에서 일어난 가족 간의 불화나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대해서는 조기유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조기유학에서 얻은 성공적인 학업성취의 여부를 떠나 조기유학자 스스로에게, 또한 부모에 대한 분노나 아쉬움, 서운함 등의 가족갈등의 내재적 요인을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는 조기유학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못했고, 따라서 본인 스스로는 타지에서 수동적으로 단절된 가족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조기유학의 한 폐해로서 여기고 있었다.

조기유학을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고 생각해요. 물론 재정적으로도 받쳐줘야 하고, 무엇보다도 가기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어 뿐 만 아니라 어느 학교를 갈 것이며, 어떻게 할지를 알아야 해요.(사례 1)

원만하면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 안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온도 따라야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하면,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사례 3)

가능하다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우선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시기가 분명해야 한다고 봐요. 무엇보다 유학자 당사자의 의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유학을 가야 하는 필요성을 알아야 해요. 그러나 부모님과의 충분한 상담도 중요하고 유학을 떠나기 전 많은 것을 상의하고 의논하는 것이 필요해요. 본인의 생각도 중요한 만큼 자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부모님과의 의견 일치가 있을 때에 성공적인 유학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한 자녀들이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이 자녀와 끊임없는 대화와 관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의 경우 주변 유학생 친구들 중에 부모나 보호자 내지는 유학을 하는 동안 가까이서 보호와 care를 받고 있는 친구들이 유학생생활을 더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사례 6)

조기유학을 떠나기 전 철저한 사전준비로 어느 학교를 나와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할 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이 필요하고, 진취적인 면도 발휘될 때 성공적인 조기유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해요. 또한 어떠한 가족들과는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색하거나 서먹해지지 않도록 자주 대화하고 가족들과 본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사례 12)

조기유학의 성공을 위한 가족관계 요인으로서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는 부모의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으로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자 중에서 조기유학 과정 중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본인의 조기유학을 위해 부모의 경제적 희생이나 기러기가족과 같이 관계적 희생이 이어졌을 경우, 조기유학자 본인에게도 정신적으로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조기유학에 대한 자신의 평가뿐만 아니라 조기유학을 종료한 이후 진로결정이나 선택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유학 과정에서 겪었던 경제적 부담과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지내야 하는 데서 오는 정서적인 지원의 부재감 등은 본인의 성격 변

화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조기유학으로 인해 학업성취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졌다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조기유학이 성공한 사례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조기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필요한 학교 및 기타 관련 요인으로 는 친밀한 친구관계 및 교사관계 형성, 조연자로서 멘토의 존재유무를 들 수 있다. 조기유학 당시, 원만한 친구관계가 형성되고 절친한 친구의 지지를 받았을 경우, 교사와의 유대관계가 돈독하게 형성되었을 경우 대인관계에 대한 확신과 적극성이 상승했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어느 정도의 통제와 또 충고나 조언 등을 할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나 교회 어른과 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의 통제, (사례 5)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유학을 오는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주변의 좋은 환경이나 조기유학에 관한 의견이나 충고 등을 듣고 얻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본인의 동기와 목적을 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요.(사례 14)

특히, 사립기숙사학교에 등록한 조기유학생의 경우는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roommate와의 친분관계로 인해 가족과 분리되면서 혼자 생활하는 데서 오는 단절감이 많이 상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기유학을 하는 친구와의 친밀한 유대관계는 형제자매 못지않은 동거동락의 경험을 갖게 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공립학교에 입학한 조기유학생 역시 조기유학자 본인과 비슷한 환경에 처한 또 다른 조기유학생이나 아시안계 친구를 중심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의 적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교사를 통해서 유학

생활 초기에 특히 겪었던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분위기,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과 지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분이 형성된 교과 담당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학업성취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에서 절친한 친구관계를 형성이나 밀착된 교사와의 관계형성이 어려웠을 경우에는 지인이나 클럽활동, 교회활동 가운데서 만난 멘토를 통해 학교생활 및 학업, 진로에 대한 일정한 상담과 정서적 지지가 있을 때, 보다 성공적으로 조기유학을 마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V-7> 성공적인 조기유학(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요인 | 주요 내용 |
|-------------------|--|
| (조기유학자) 개인적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의 분명한 목표의식 및 의지 ▷ 인성적인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성 - 자립심 & 독립심 -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 -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 ▷ 충분한 어학 준비/어학 실력 ▷ 우수한 학업수행 능력 |
| 부모 요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유학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철저한 사전 준비 ▷ (조기유학에 적합한 지에 대한) 자녀의 인성 파악 ▷ 전반적인 유학생황에 대한 (조언과 통제가 가능한) 꾸준한 의사소통 ▷ 자녀에 대한 신뢰 ▷ 가족 구성원 간의 지지 ▷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 ▷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 |
| 학교 요인 및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밀한 친구관계 형성 ▷ 친밀한 교사와의 관계 형성 ▷ 멘토의 존재 |

4. 현지 학교와 유학원 사례를 통해 본 조기유학 현황

본 절에서는 미국 동부 보스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1개교와 관리형 유학원 2개소에 대한 면접 및 현지 전문가 면접 조사결과를 통해 조기유학 현황 및 문제를 살펴본다.

1) 현지 학교를 통해 본 조기유학 현황: 미국 보스턴 소재 B 고등학교 사례

(1) 보스턴 지역의 특징

보스턴은 미국 동부에 위치한 교육도시이다. 미국 내 100대 사립고등학교 중 50여개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Harvard, Yale, MIT, Dartmouth, Boston University 등 200여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다.

미국사회에서도 대학 뿐 아니라 출신 고등학교 인맥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어 보스턴 지역 고등학교에는 세계 명문가의 자녀들이 유학을 하고 있다. 조기유학을 통한 글로벌 인맥의 형성을 위해 명문 사립고등학교 입학 목적으로 중학교부터 유학을 시작하게 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학교가 없어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지역의 명문사립고는 대학규모 이상으로 캠퍼스가 넓으며 교수진은 박사급이다.

교육적, 정치적 위상이 높은 도시로서 보스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폐쇄적·경쟁적·성취 취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물가가 높아 주거여건 및 생활여건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나쁜 편이다¹²⁾.

(2) B학교의 특성과 외국인 학생 지원프로그램¹³⁾

① B학교의 특성

B학교는 이 지역에 위치한 최고 수준의 학교이다. 이 학교의 학생 수는

12) 천○○ 면담 내용

13) 남○○ 면담 내용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360명 정도이며 외국학생은 10% 미만으로 선발, 유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 5명, 태국 5명, 중동 2-3명, 한국 16명 등으로 한국학생이 많은 편이다. 학교분위기는 사립기숙학교의 전통에 따라 엄격한 분위기이다.

② 외국인 학생 지원프로그램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지원은 프로그램으로 첫째, ‘다문화디렉터’가 있다. 다문화디렉터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다. 국가의 다양성 정책에 힘입어 5년 전 부터 도입되었다. diversity를 전공한 사람을 다문화디렉터로 선발, 고용하였으며 역사교과 등을 가르치면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다문화에 대해 민감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역할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정책이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각 학교에 일어난 변화이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민감성, 수용성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문화디렉터는 기숙사 학생리더로서 아시아 리더 1인을 배정하였다. 기숙사 리더 5명중 1인은 아시안 리더이다. 이외에 국제학생 클럽이 조직되어 있다.

영어지원프로그램은 없다. 어학수준이 준비된 학생을 선발하여 학교 입학 학생 중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지원하고 있다. 모든 교사가 상담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담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3) 한국학생들의 학교생활¹⁴⁾

① 학업 및 태도

교사들은 한국학생들의 학업에 대해 조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특히, 수학, 과학 과목을 잘한다고 평가한다. 태도에 대해서는 점심을 몰려 앉아서 같이 먹는 등 한국아이들 끼리 몰려다니는 경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14) 남○○ 면담 내용(2009.9.18)

러나 한국학생들은 기숙사 방을 함께 쓰려고 하지는 않아 독방이 많은 기숙사에 몰려 있다. 방을 같이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인학생들과 상당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행동은 음주와 흡연인데, 여학생들이 술, 담배를 하여 처벌 받은 경우가 있다. 술, 담배는 주로, 공동체에서 고립된 아이들이 한다.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아이들은 점점 학업성적도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마약은 술, 담배도 10배나 비싸고 유통경로도 복잡하기 때문에 주로 재벌 2세 중 문제 아이들이 한다.

② 교사-한국학생 관계

한국학생들은 교사와는 최소한의 관계를 맺으며 수업시간 발표도 성적에 반영되니까 최소한으로 한다. 미국학생들이 교실 밖에서도 교사와 만나며 Person to Person으로 맺는 것과 비교된다. 교사들은 한국 학생들을 좋게는 보지만 관계는 형성이 안된다. 교사측에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한 형성되지 않는다.

한국의 교사-학생 관계는 개인적이지 않으며 교사-학생집단으로 집합적이다. 한국학생들은 교사와 일대일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없다. 따라서 교사와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반면 미국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과 맞는 교사와 일대일 관계를 맺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관계를 교실 밖에서까지 이어나간다. 이러한 교사-학생 관계는 중국에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논문을 쓰는 데도 필요한 자질이다. 교사와 관계를 맺는 데서 한국학생들은 문화적 기반에 차이가 있다. 한국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와 일대일 관계를 맺는 것이 동료사회에서 튀는 행동, 이상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③ 친구사귀기

고등학교 보딩스쿨은 중학교 홈스테이보다 친구사귀기가 좋은 조건이다. 미국 동부의 지역 분위기는 지적이고 차가우며 오만한 분위기이다. Bostonian,

New Yorker, Texasian 등 미국 내 지역감정 있으며 이를 드러내고 잘 활용하는 것이 미국의 저력인 것처럼 보인다. 미국 동부에서도 일단 한번 친해지면 굉장히 친한 관계가 된다.

④ 한국학생들의 적응 문제

가. 문화적 차별

이 학교는 미국 내에서도 상류계급이 오는 학교이며 제3세계 최고지도자 자녀들이 모이는 학교이다. 이러한 차별의 벽 때문에 한국학생들은 한국학생들끼리 모이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백인문화로 흡수된다. 영어 이름을 만들면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된다. 한국 아이덴티티는 자신이 떠나온 시점에 머물러 있게 되며 대학 입학 후 교회와 학교에 새로 유입된 한국 사람들과 한국문화를 새롭게 접하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고민하게 된다. 대학 1, 2학년, 10대 후반이 자신의 정체성 문제를 돌아보는 시기이다. 고등학교시기에는 조밀하게 짜여져 있는 학교생활, 대입준비와 공부 등으로 미국문화에 흡수되면서 별 고민이 없이 지나가지만 대학 때는 새로운 Grouping이 이루어지면서 정체성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교포 1.5세 중에는 미국문화 쪽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부류(주로 중학교 때 온 학생들)와 한국문화 쪽으로 친밀감을 형성되는 부류(주로 고등학교 때 떠나옴)로 분화된다. 그래도 1.5세끼리는 서로 친밀하게 지낸다.

나. 정서적 문제

아이덴티티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정서적인 문제이다. 외로움과 소속감이 제일 큰 문제이다. 한국사회의 연결망 속에서 빠져 나오면서 외로움을 느끼며 친밀감이 적다. 대학생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이러한 문제가 어려워지면 학업성적도 점점 떨어지게 된다. 한국에서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이 왔으나 이러한 문제로 성적이 점점 하락화 하는 사례가 있었다.

다. 미성숙함과 새로운 규칙에 대한 적응 문제

유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미성숙함이란 부모님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그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다. 소중한 기회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없는 학생들이 있다.

학교에서는 Team Work를 잘해야 한다. 한국의 문화는 과거의 집단주의와 현재의 개인주의가 분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개인주의를 충분히 습득한 상태에서 Team Work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체의 새로운 법칙을 읽어내지 못하고 한국의 규칙을 고집하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¹⁵⁾. 교사의 인정을 많이 받아야 하는 아이들도 실패하기 쉽다. 공부를 잘해서 칭찬을 많이 받던 학생들은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지던 것이 미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힘들어 하게 되고 처음에 올 때는 학업성적이 좋았어도 점점 하향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2) 현지 유학원을 통해 본 조기유학 현황

(1) 보스톤 지역 유학원 현황

보스톤 지역에는 관리형 유학을 전문으로 하는 크고 작은 유학원이 수십개가 있다. 또한 홈스테이 가정도 많은데 자기 자녀 외 1~2명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중에는 10명씩 홈스테이 가정도 있다. 보스톤지역은 물가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여름 방학 등 캠프 많지 않은 편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벤쿠버나 LA 지역 등에서 많이 개최된다.

보스톤 지역에 오는 학생들은 학력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입학하는 학교수준도 상당히 높다. 이 지역의 경우 조기유학생의 입학지원은 유학원을 경유하기보다 해당학교가 한국에서 개최하는 학교설명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15) 천○○ 면담내용(2009.9.20 포커스그룹 인터뷰)

경우가 더 많다. 보스턴 지역의 특성상 상류사회의 배타적인 문화정향 등이 반영되어서 공식화된 유학원 보다는 공개되어 알려지지 않는 개인 에이전트(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유학업무 지원)들이 학교 연결 등 업무에 더 많이 활동한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스턴 소재 L, B 2개의 유학원을 방문, 면접하였다. L 유학원은 관리형 유학원으로 기숙학교나 명문 데이스쿨 입학에 위한 준비과정, 데이스쿨의 기숙사 과정,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여름방학 캠프과정, 추수감사절 등 기숙사에서 나와 지내는 학생들을 위한 단기방학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넓은 대지에 3동의 빌딩을 두고 있으며 호텔급 숙박시설(1인 1실, 전용 화장실 및 공용 샤워실 있음)을 갖추고 있다. 학생 침실, 학부모 방문자를 위한 침실 등과 더불어 피트니스 센터, 탁구장, 노래방, 악기연주를 위한 연습실 및 졸업식, 소연주회 등을 할 수 있는 소강당, 프로젝트 발표와 토의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실, 컴퓨터실, 식당이 있다. 총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업교실과 보스턴 인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B 유학원은 일반 유학원으로 사무실만으로 갖추고 있다.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조기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서비스 등을 실시하며 장소는 인근 호텔 등을 빌려 실시하고 있다.

(2) 유학원의 수익구조와 유학비용

유학원은 조기유학생을 대상으로 단순한 입학지원서비스 뿐 아니라 학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필요를 대행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수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조기유학생의 홈스테이나 방과 후 과외 연결 등에 따른 코미션, 여름방학, 혹은 짧은 방학을 이용한 특강 등의 교육프로그램, 교통편 제공, 학교와의 긴급한 관계에 부모를 대행하는 가디언십 등이 유학원의 수익이 되고 있다.

관리형 유학원인 L유학원의 경우, ESL, 여름방학과 짧은 방학 프로그램,

데이스쿨 학생을 위한 기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B 유학원의 경우, 방과 후 과외와 추수감사절 집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 유학원 기본 업무인 학교배치 서비스, 가디언십 서비스, 교통편 제공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이 지역 사립기숙고등학교 학비는 연 4~5만불 수준으로 일반대학 학비보다 더 비싸다. 그러나 학비 외에도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홈스테이¹⁶⁾, 짧은 방학기간 동안 기숙사에서 나올 때 마다 드는 경비, 방과 후 과외비, 방학기간 학습비, 이러한 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교통편에 따른 경비, 왕공항공료 등 다양한 부대비용이 소요된다. 유학원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 본 조기 유학 부대 비용은 <표 IV-8>과 같다.

<표 IV-8> 유학원 프로그램과 비용

| | L 유학원 | B 유학원 |
|-------------|--|--|
| 교육프로그램 | 1) ESL - 명문기숙학교, 명문공립학교 입학전 준비과정 (3-6개월) - 6개월 : 39,000불 2) 여름방학캠프: - 4주간 SAT, SSAT 준비과정 - 기숙하는 경우 8,500불 - 비기숙의 경우 5,800불 3) 짧은 방학 프로그램: -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방학, 부활절 봄방학, 주말이 길 때 - 하루당 200-400불, 개인과외는 시간당 100불 4) 데이스쿨학생 기숙프로그램 - 연 55,000불 - 학교 방과후 활동 교통편 지원 | 1) 방과 후 학원비 - 시간당 80불(IVY 졸업생), 재학생은 65불선 2) 추수감사절 집중코스 - 2주에 2,000불(과목당) - 토폴 또는 SSAT 개설 - 장소: 인근 호텔(숙박 및 강실) 3) 과외수업에 따른 교통비 - 기숙사 학생의 경우 과외 시 교통비 추가: 1회당 60불선, 왕복 120불 - 기숙사생은 보통 월 1회 정도 과외 받음. - 홈스테이 학생은 가정방문 과외시 교통비 추가 |
| 학교배치 및 면접지원 | - 학교당 1,500불(인터뷰서비스 비용 불포함) | - 학교당 1,600불(면접지원비 포함) |
| 가디언십 | - 시간당 120불이며 학교를 오가는 교통비는 별도 | - 1인당 연 8,000불 |

16) 일반적으로 기숙사비 보다 홈스테이경비가 더 비싸다. 홈스테이비는 월 2,500불-3,000불선으로 연 25,000불에서 30,000불이 소요된다.

L유학원은 데이스쿨에 다니는 조기유학생을 위한 관리형 유학원이다. 데이스쿨 기숙과정은 총 20명을 자체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이 유학원에서 기숙비만 해도 사립고등학교 학비보다 비싸며 입학전 6개월 준비과정 비용이 사립학교 1년치 학비수준이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반별로 10명씩 6개반으로 총 60명 규모이며 ESL과정은 총 20명 규모이다.

B 유학원은 교육프로그램으로 방과후 학원 및 과외 연결, 짧은 방학 기간 동안의 학습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홈스테이나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의 과외 수업을 지원하면서 교통편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얻고 있다.

L유학원의 경우 가디언십 서비스는 시간 당 비용으로 청구되지만 B 유학원의 경우, 알선하는 학생에 대해 공식적인 가디언십을 맡게 되면 1인당 연 8,000불의 비용을 받고 있다. 가디언의 업무는 유사시 학교에 개입,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홈스테이 학생에 대한 가디언십의 경우, 좀 더 저렴하다.

가디언의 역할은 학교에서 시험부정행위 등으로 퇴학의 위기에 있을 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정학 등의 조치로 이끌어내는 일을 맡게 된다. 기숙사에서 나와야 할 때 데리고 나오는 일, 홈스테이 연결해 주는 일, 학교 학부모 회의에 부모 대신 참석하는 일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학교배치 및 면접지원 서비스는 유학원의 주 수입원이다. L 유학원의 경우, 학교 배치서비스로 한 학교당 1,500불(면접비 불포함)을 받고 있다. B 유학원은 한 학교당 서류처리와 면접을 포함하여 1,600불을 받고 있다. 보통 학교를 찾기 위해 부모들은 10개 학교 정도에 지원서를 낸다. 명문과 중간, 하위 수준 고등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받는다. B 유학원의 경우, 9월 학기에만 20-30명 정도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 비용만으로도 유학원은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상의 자료를 기초로 사립기숙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주 1회 과외수업, 여름방학 4주, 추수감사절 2주간 과외 수업을 받는 기준으로 조기유학생의 연간 유학비용을 추계하면 <표 IV-9>과 같다. <표 IV-9>에 의하면 조기유학생이 유학을 떠난 첫해 1인당 연간 유학비는 101,900불(약 1억 1천 2백만원), 배치지원 서비스 비용을 뺀 연간 유학비는 약 86,000불(9천 5백

만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미국의 동부지역 중·고등학교에서 5년간 유학한다고 가정할 때 조기유학생 1인당 약 5억원의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표 IV-9> 1인당 연간 유학비용 추계

| 구 분 | 산 출 근 거 |
|------------|---|
| 학교배치 및 면접비 | 1,600불 × 10개학교 = 16,000불 |
| 가디언십 비 | 8,000불 |
| 과외수업비 | ○ 학기중 과외: 200불(교통비 포함) × 월 4회 × 4월 × 2학기 = 6,400불 ○ 추수감사절 과외 : 2,000불(2주) × 2과목 = 4,000불 ○ 여름방학 과외 : 8,500불(4주) |
| 학교학비 | 50,000불 |
| 한국과의 항공비 | 2,500불(왕복) × 2회 = 5,000불 |
| 용돈 등 기타 비용 | 500불 × 8개월 = 4,000불 |
| 합 계 | 101,900불 |

(3) 유학원의 조기유학생 모집

유학생 모집은 유학원의 수익과 직결된다. 유학원들의 유학생 모집은 조기유학생의 잠재적 풀이 있는 곳에 지사를 설립하여 개별적 접촉과 유학 설명회 등 세미나 개최를 통해 이루어진다.

B유학원의 경우, 한국지사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개인적 접촉을 통해 모집한다. 미국 본사에서 모집되는 학생도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에서 초등 학교, 중학교를 마친 후 미국고등학교로 오는 학생들이 많아 밴쿠버에서도 모집한다. 밴쿠버에서 모집하는 경우, 영어능력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습을 따라가기 수월해서 좋아 향후 밴쿠버 지사 오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B 유학원은 한국과 미국, 캐나다 세 곳을 오가며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4) 조기유학생의 적응에 대한 평가

관리형 유학원인 L 유학원 담당자가 말하는 조기유학 성공의 조건은 독립적,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기보다 무엇이든지 부모에게 묻고 결정하는 아이들이 있으며 기숙사에서 선생님들과 협의하여 해결하기보다 부모에게 전화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청소년이 많은 데 이 경우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반적으로 현지에서 볼 때 조기유학에 성공하는 청소년보다 실패하는 청소년이 더 많다.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규칙 준수에 약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 아이들의 경우, 프로젝트 시 인터넷 자료 등을 그대로 베끼는 것 등을 아무 문제인식 없이 하는 경향을 보이며 다른 나라 아이들 보다 규칙을 잘 안 지킨다. 공부만 잘하면 되고 시험만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친구 신용카드를 허위로 사용했다가 명문대 입학이 확정된 후 졸업 1주일 전에 퇴학당한 학생사례도 있다.

학교에서 한국학생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에서 발표기회를 적게 주는 등 실제로 한국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다, 실제로 한국아이들에 대한 차별 있으며 이는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에서 동남아 아이들 차별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양호하다.

5. 조기유학의 문제점 분석 및 정책대안

1) 조기유학 결과 분석에 따른 문제점

조기유학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드러난 조기유학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조기유학종료자의 대학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한 평가는 대학진학에 대한 평가보다 훨씬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학업 성취가 매우 우수하고 명문대학에 입학하여 성공적으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대학졸업 이후, 조기유학종료자의 진로선택의 폭은 상당히 좁게 나타나고 있었다. 많은 연구참여자가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였고 명문사립대학이나 상위권 대학 진학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대학 이후 진로에 있어서는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장기간의 유학생화로 인해 한국의 조직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가능한 현지에서 취업을하기를 원하고 있다. 분석결과 18 사례 중 미국에서 취업을 한 경우가 4사례, 대학 및 대학원 진학자가 7사례, 국내 취업자가 3사례, 국내대학원 진학자가 2사례, 전업주부가 2사례이다. 현지 취업사례를 보면 사립고등학교, 종이회사, 경제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한 사례는 대학연구실 조교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에서 대학 및 대학원에 진학해서 체류하는 경우가 총 11개 사례로 가장 많다. 한국에 취업중인 사람은 3명이며 그 중 1명은 이직을 고려중이고 무직 상태에 있는 한 명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조직문화가 맞지 않아 그만 둔 상태이다.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기유학 종료자는 한국의 대학원 수업이 어려워 다시 유학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취업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대학 졸업 이후 치과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한 경우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직장을 구하고 있거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공을 바꾸어 새로운 분야를 다시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이직을 원하거나 향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조기유학을 준비할 당시부터 대학졸업 이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잃을 경우 방황이나 미취업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국에서의 유학생생활이 장기화될수록 한국어실력의 저하와 한국문화에 대한 역 문화적응을 해야 하는 점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한국에 돌아와 직업을 갖고 전형적인 한국인으로 사는 방식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관계는 유학지에서 함께 동거한 가족(형제, 자매, 부모), 또는 동반유학은 아니었지만 유학 경험이 가지고 있는 가족(형제, 자매), 또는 유학기간 동안 의사소통채널이 되었던 가족, 주로 어머니와는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나 나머지 가족과는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녀의 조기유학 경험은 단순히 외국생활을 체험해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유학생 모두가 미국문화를 체득하고 동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만 자라온 전형적인 한국인의 성격과는 달리 한국사회와 미국사회의 문화양식이 공존하는 이중문화가 유학생 본인에게 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기유학생의 이중문화적인 요소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데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가족관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상층가정 보다 중층 가정에서 더 나타난다. 상층가정의 경우 부모-자녀관계가 유학 이전과 이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중층가정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기러기 가족의 발생 등 가족관계에 대한 부담 등 가족관계가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심한 경우 이혼 등 가족이 해체되기까지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조기유학에 소요된 유학비용에 대비하여 조기유학의 유익이나 의의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기유학생의 학비나 유학경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를 포함해서 조기유학자 본인에게도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의 안정성은 조기유학생의 유학생생활 전반에 걸쳐 정서적으로는 안정감을 주었으며, 가족관계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조기유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성공

적인 학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하층에 해당하거나 기러기가족으로 지냈을 경우, 조기유학생의 학비마련을 위한 부모의 희생과 이로 인한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된 점이 조기유학의 이점을 대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유학을 다시 선택하고 싶다는 의견이 주요했는데, 이는 유학비용이 부담스러웠더라도 조기유학자 본인에게는 좀 더 유의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경우, 유학은 가되 좀 더 유학경비를 줄일 수 있는 학교선택이나 조기유학이 아닌 대학 이후의 유학이 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셋째, 친구관계가 협애하다. 조기유학자의 친구관계는 좁은 편이다. 조기유학이 글로벌 인재를 접촉하고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지만 조기유학생들이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사립기숙학교에 입학한 경우, 사립기숙사에서 사귀게 된 roommate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는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클럽활동이나 교회활동을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립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사립기숙사학교보다는 밀착된 친구관계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적었으며 따라서 절친한 친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주변 지인을 통한 멘토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립기숙사학교이든 공립학교에 진학하던지 간에, 조기유학자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친구는 아시안계 학생이거나 유학생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통의 경험과 목표의식,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문화양식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넷째, 조기유학자들은 한국문화의 기반 하에 미국문화를 통합해 내지 못하고 미국문화에 동화되어 버려 한국의 조직문화에 적응하기를 힘들어 하고 있다. 조기유학 이후, 한국문화와 현지문화(미국문화)에 대한 조기유학 종료자의 동화 및 통합수준에 있어서는 대부분 통합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

었다. 즉, 한국문화나 미국문화 모두 매우 익숙하고 친밀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문화가 매우 익숙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아직까지는 한국문화를 더욱 친밀하게 느끼고 있었다.

조기유학종료자가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에 대하여 통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나, 한국문화와 미국문화를 본인 나름대로 통합하여 제 3의 문화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또는 한국문화보다는 미국 현지문화에 더욱 동화되어 이제는 한국문화보다 미국문화를 더욱 편하고 친밀하게 느끼는 사례도 나타났다.

미국현지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조기유학 종료자들은 한국에 돌아오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한국조직에서 일하기를 힘들어 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는 외국인신분에 따라 취업제한으로 취업이 어려우며 한국에서는 미국문화와의 차이로 한국의 조직문화 적응을 어려워 한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취업 장벽은 높아 글로벌 인재로 성공보다는 소시민적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학업성취에는 성공해도 글로벌인재 역량을 발휘하는 글로벌 인재의 길에 서지 못하고 현지 문화에 동화된 현지 사회의 주변인이자 한국사회의 주변인으로 소시민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여섯째, 조기유학의 목표가 막연히 명문대학 진학이며 대학졸업 이후 취업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기유학이 추진된다. 조기유학에 대한 진로계획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유학비 투자 규모를 명료하게 고려한 후 조기유학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유학을 결정하면 가계로서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이후 취업을 통해 회수하기 어려운 투자의 손실이 가능하다.

대학 졸업후 진로를 고려하여 조기유학 진로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조기유학을 추진해야 한다. 유학비용에 대비한 조기유학의 유익이나 의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위층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학비나 유학경비에 대한 부담이 부모를 포함해서 본인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층 이하에 해당할 경우나 기러기가족으로 지냈을 경우는 학비마련을 위한 부모의 희생이나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된 점이 조기유학의 이점을 대치할 만큼 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2) 조기유학 현황 분석에 따른 문제점

현지 고등학교와 유학원 사례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유학생 1인당 유학비의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동부 지역은 조기유학지 중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망하는 지역이다. 유학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미국의 동부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지만 조기유학생 1인당 연간 유학비는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1억여원이 소요된다. 중·고등학교 5년을 기준으로 5억여원, 대학 4년을 포함하면 1인당 10억여원의 유학비가 소요되고 있다.

둘째, 유학생 생활 중의 조기유학생이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정서적 고립이다. 외로움 등 정서적 문제를 긍정적으로 극복하지 못할 때 많은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떠안고 살게 된다. 학업적으로 눈부신 성공을 했다 해도 우울증, 불안, 공포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⁷⁾ 고등학교 생활 중 정서적 고립에 빠지는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음주, 흡연, 마약 등 문제행동에 빠지기도 한다.

셋째, 오랜 기간 받게 되는 문화적 차별로 인해 당면하게 되는 정체성의 위기이다. 한국학생들은 수업에서 발표 기회나 프로젝트 주제선정 등에서 문화적 차별을 받게 된다. 중고등학교 적응과정에서 한국학생들은 한국문화를 버리고 백인문화로 흡수된다. 그러다 보니 미국문화에 친밀감을 느끼지만 미국에 소속되지 못하고 한국에는 소속되지만 문화적으로 불편해서

17) 하버드대 재학 중인 많은 한국학생들이 실지로 우울증, 불안, 공포, 자살시도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고 공통성이 없다는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2009. 9.18. 천○○ 면접 조사 내용).

살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넷째, 세계를 향한 적극적인 관계 맺기의 어려움이다. 글로벌 인맥의 형성을 위해서 동부의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지만 실제 학교생활에서 한국학생들은 한국학생들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강하다. 문화적으로 다르고 마음 깊은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학생들은 한국 유학생끼리 친밀하게 지낸다. 백인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수업과 수업 밖에서 교사와의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시도하지만 한국의 학생들은 수업에서의 최소한의 관계로 끝낸다. 결국, 한국학생들의 세계를 향한 관계 맺기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게 된다.

3) 정책대안

(1) 안전한 조기유학 지원정책

- ① 조기유학 사전 인성검사 실시 등 조기유학에 관한 상담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조기유학의 성공 여부에는 개인적 특성 요인이 작용한다. 또한 당사자의 의지력, 결단력, 독립성, 적응력, 성숙함 등이 중요 요인이다.

또한 부모가 아이를 너무 과보호하여 아이를 망친 경우도 있었다. 과보호 하는 아이를 미국을 보내니 아이가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생겨 이상한 성품으로 변했다. 적어도 유학을 보내려면 아이에게 어느정도 자립심이 생겨야하고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사례 1모)

글쎄...내가 자식을 유학을 보낼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아이의 의지와 성격을 많이 고려할 것 같다. 가령, 소심한 아이들은 갑자기 다른 문화에서 적응 능력이 떨어지므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공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다.(사례 3)

학업도 중요하지만 유학자의 의지력, 결단력, 독립성, 적응력, 그리고 타 문화 수용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학자의 성격이나 인성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사례 17)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조기유학을 추진할 때 많은 어려움에 당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유학의 성공과 관련되는 인성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지, 조기유학을 감당할 만한 성숙이 이루어져 있는 지에 대해 사전 점검하여 조기유학에 대한 접근이 보다 신중해 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인성특성, 조기유학의 준비정도 등이 조기유학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으로 조기유학 전 인성검사를 통해 진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기유학에 관한 성공과 실패 사례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와 정보 제공, 조기유학에 소요되는 경비와 성과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등을 통해 조기유학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조기유학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교육청이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②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조기유학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살기 때문에 주변의 좋은 환경이나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이나 충고를 듣고 얻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통제와 또 충고나 조언 등을 할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유로운 환경에서의 통제 (부모님, 교회 어른 등).(사례 5)

본인이 확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다면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유학하는 곳에서 좋은 사람들(친구 포함)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사례 11)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유학을 오는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주변의 좋은 환경이나 조기 유학에 관한 의견이나 충고 등을 듣고 얻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인의 동기와 목적을 바로 이해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사례 14)

조기유학 현지에 홀로 떨어져 있는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청소년 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 줄 멘토이다. 유학생들 중에 도움을 받은 멘토가 있었는지 여부는 성공의 주요 변인이기도 하다. 안전하게 유학을 마칠 수 있도록 조기유학 청소년들이 유학지에서 멘토링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 한인교회, 한인단체 등이 주관하여 현지 조기유학생과 한인네트워크와 연결시켜 이들이 한인네트워크 내에서 보호받고 멘토링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현지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자원봉사단체 구성을 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현지에서의 멘토링 시스템 개발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

첫번째, 한인사회의 중학생에서 대학생 이상까지를 연결하면서 교육하고 역할 모델이 되게 한다.

- 중학생이상: 교육대상
- 고등학생: 중간스텝
- 대학생이상 : 스텝으로 구성(글로벌 리더십)

두번째, 청소년 멘토 양성이다. 대학생 이상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프로그램 연수하여 청소년지도자로 세운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좋은 지도자를 어떻게 키워내느냐에 있다.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 Support, 또는 이력서에 경력(Credit)이 되게 하는 것이다. 멘토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학부모들이 하게 할 수 있다. 멘토가 보살필 수 있는 청소년이 5-6명이 되게 되면 학부모들이 분담하여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소년의 경우 직접 만나서 감정을 함께 느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담 등의 방법은 비효율적이다.(천○○)

③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조기유학 청소년들은 주류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게 되면서 자신감 상실 등으로 자기 존중감과 주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례로 학교수업의 일환인 도서관 프로젝트 수업 등에서 한국프로젝트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도서관 등에 중국섹션은 있지만 한국자료는 없다. 동양문화는 중국으로 대표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국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프로젝트는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다. 한국학생들의 한국프로젝트에 대해 도서관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학생들은 본인들이 한국사회에서는 부모들의 배경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 대우 받지만 미국사회에 와서는 하층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학생들이 미국사회에 대해서 권리를 찾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데 비해 한국학생들은 부수적인 존재로 존재하며 조용하게 지낸다.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방과후 더 떠들고 노는 지 모르겠다.(천○○)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오래 동안 경험하면서 정체감과 존중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자신감과 주도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리더십이란 타문화권을 접촉하면서도 자신의 문화를 바탕으로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학생들이 타문화권에서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다른 나라 청소년들을 이끌어 나가는 경험, 자존감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의 제공이 필요하다.

한인사회에서 활동하는 젊은 지도자를 조직화하여 이들을 조기유학생 및 한인사회 청소년을 돕는 멘토로 양성하고 한인 청소년들이 타문화권에서 자존감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

조기유학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은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즉, 한국문화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한국청소년의 놀이문화를 주류문화로 하여 조기유학 청소년들을 문화적 리더로 육성함으로써 타문화권을 주도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다.

유학생의 당면문제는 정체성의 위기이다.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고 공통점이 없는 관계,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럴 경우, 초기 6개월의 투자, 섬겨주기로 서로 엮어서 이야기하게 하며 소그룹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 형성되면 서로 잘 모이면서 창의성이 생기고 문화적 창의성 발휘된다.

청소년문화에서 음악, 게임, 댄스 등에서 주류문화를 이끌어 낸다. 청소년 놀이문화를 한국식 놀이문화로 전화시켜 한국청소년을 백인사회 소수그룹에서 백인청소년을 포함 한국문화(정 문화)로 흡수해 버림으로 주류하는 인식을 갖게 한다. 즉, 문화적 리더로 육성한다. 청소년이 놀이문화의 리더가 되면서 자신감을 찾고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 음식문화(라면등), 노래 문화, 언어를 통해서 관계의 다이내믹스를 가르친다. 주류가 되어 타문화권을 주도해 나가도록 한다. 교민자녀들은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해 가는 데 조기유학생 문화에 흡수되면서 한국을 동경하게 된다. 교민 자녀 문제 역시 심각하다. 교민들이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교민들 사이에는 자녀들이 조기유학생 자녀와 못 어울리게 하려는 경향 존재하게 된다. 조기유학생 문화는 초기에는 한국문화이지만 중기, 말기를 거치면서 문화적 혼돈이 오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소수그룹으로서 주류가 아니라는 문제가 가장 크다. 리더십과 펠로우십의 역할 모델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천○○)

④ 홈스테이 필터링 방안을 마련한다

미국 유학생의 거주 형태는 기숙사형이나 홈스테이형이 많다. 중학교의 경우, 기숙사가 없어서 학생들이 미국가정, 혹은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많이 하게 된다. 재정적 이유로 홈스테이를 하는 가정의 경우 정서적

학대 등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해 이에 대한 필터링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미성년자 인권문제로 접근하는 것, ‘홈스테이 리그’를 창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재정적 이유 때문에 한 가정에서 6~7명씩 거주하는 경우, 사실상 정서적 학대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미국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인권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학생들 스스로 리서치해서 문제제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홈스테이 리그를 창출하여 홈스테이 관리체계를 세운다. 홈스테이 보고서 쓰기, 홈스테이 가정의 네트워킹,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 유학원 등에서는 홈스테이 가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천○○)

(2) 조기유학 수요 감소정책

① 질적 수준이 높은 다양한 국제학교를 설립한다

면접조사 결과 조기유학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중 하나는 해외유학생생활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해외유학생생활은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고 영어로 수업을 함으로써 영어실력 함양 및 글로벌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를 익히며 외국어 습득을 강화하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조기유학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학교는 시, 도별로 기숙형, 또는 통학형으로 다양하게 설립하되 해외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조기유학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기유학의 수요는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역량의 습득과 더불어 글로벌 교육을 통한 외국의 명문대 진학 욕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학교가 국내외 명문대 진학의 욕구를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조기유학의 대체효과가 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학교 진학이 조기유학보다 비용과 안전성, 장래성 등에 있어 장점이 있어야 조기유학의 대체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② 자유롭고 질적 수준이 높은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또 다른 동기는 입시위주 경쟁 교육을 떠나 폭이 넓고 자유로운 교육환경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있다. 학업성적이 상위권이던 중위권에 속하든지 간에 치열한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크고 한국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나오거나 크게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모든 공부와 대학입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자기개발이나 여가생활을 할 여유가 없이 밤낮으로 학교 수업과 학원으로 이어지는 공부에 대한 압박을 떠나 해외 학교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수업선택과 수업방식, 폭이 넓고 자유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매력은 조기유학의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동기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입시위주, 암기위주의 교육을 떠나서 다양한 수업선택과 수업방식, 운동과 음악예술활동 등 다양한 클럽활동 등을 통해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대안교육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여러 곳에서 대안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그 수와 규모가 너무 작다. 인가, 미인가 대안학교 등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너무 그 수가 너무 적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의 질적 수준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질적 수준이 높은 대안학교 등이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안교육을 통해 길러진 지적 능력과 창의성과 인성 등을 소유한 대안학교 졸업자들의 입시 전형이 확대된다면 조기유학의 대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③ 조기유학에 대한 국가차원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학비에 대한 막연한 기대치와 달리 실제 유학비용은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더 많이 든다는 점을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유학원 등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해외 조기 유학을 부추기는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객관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자료를 만들어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비치하도록 하여 학부모 상담 자료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기유학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조기유학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사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언론을 통한 조기유학자의 명문대 입학 관련 보도, 조기유학생의 비행관련 보도 등 일회성 보도로는 조기유학의 실태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해외조기유학의 환상을 갖지 않도록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기유학 대상국의 문화에 대한 정보, 교육제도에 대한 정보, 한국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에게 실제유학비용이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 지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조기유학자의 대학진학결과, 국내귀국현황, 조기유학종료 후 국내 및 국외 취업상태 및 취업률, 국내회귀율, 조기유학자의 취업동향, 학교 수준별 조기유학 경비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야 하며 학부모 상담자료 등으로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기유학에서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주의사항, 유학계획 대비 유학 경비 산출내역, 졸업 후 취업 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조기유학에 돌입하기 전에 장래 계획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유학을 추진할 것 등에 대한 유학안내가 필요하다.

④ 교환학생제도를 촉진, 정착시킨다

조기유학 수요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중고생 교환학생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우수 인재와 계층적 위화감

해소를 위하여 교육 선진국과 교환학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국비유학생 제도처럼 경제적 여유는 없지만 실력이 있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외국 문물을 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3) 조기유학 종료자의 활용촉진 대책

조기유학 종료자는 대학 진학 등 학업에서는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미국 문화에 동화해 버려 한국조직문화를 기피하는 성향과 더불어 국내취업을 선호하지 않게 된다. 또한 오랜 기간의 유학생화로 대학수준이상의 한국어 수준이 낮아 국내기업 등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가족과 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의 유학비를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국가사회를 위해 유용한 글로벌 인재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조기유학 종료자들이 한국문화에 재 적응하여 자신들이 축적한 역량을 한국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① 국내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여 국내 외 대학간 상호학점 인정제를 확대하는 등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조기유학으로 외국의 대학에 입학한 청소년들이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국내 대학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 외 대학간 상호학점 인정제 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교환 프로그램의 확대는 대학에 입학한 조기유학 청소년들의 한국문화 적응을 촉진할 뿐 아니라 국내 대학생의 해외문화 체험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해외 조기유학자는 대학 시기의 이러한 학점교류를 통하여 외국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에 통합된 자기정체성을 확보하여 외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주변인이 되지 않고 한국이든, 외국 현지이든 자유롭게 조기유학을 통해서 습득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것이다.

② 조기유학자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조기유학 종료자들은 한국을 떠나 장기간 교육 받는 동안 대학수준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 한국기업이나 국가가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본인 역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들이 한국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국교육지원체계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 조기유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이나 한인단체에서 한국어 교육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③ 조기유학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보호 체계를 수립한다

조기유학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조기유학 청소년들이 어느 지역에서 유학을 가서 어떻게 적응해 나아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조기유학 청소년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학국가 현지에서 조기유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현재에는 조기유학자를 포함한 장기 체류자에 대한 명단 및 신분문제 등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현지에서 조기유학 청소년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조기유학 청소년을 미래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려면 국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외교통상부 산하 현지 영사관에 조기유학생 관리를 위한 특별부서가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 조기유학자 및 외국장기체류자의 명단 관리, 유학국가, 체류지, 비자상태, 법적 상태 등에 대한 기초적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조기유학자의 진학과 취업 문제를 가족과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조기유학자에 대한 취업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조기유학 종료자들은 우선순위로 현지취업을 선호한다. 학업적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현지취업은 비자문제, 외국인으로서의 신분문제 등으로 용이하지 않다. 국내취업은 조직문화 적응 문제 등으로 기피하는 경향이다. 이들을 정부와 기업에서 필요한 해외 현지 인력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국내에서 파견하는 인력은 어학과 현지 사정 등에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제한이 있다. 조기유학자들을 현지에서 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들에게 한국기업과 정부의 현지인력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국내에서의 인턴기회 제공, 조기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인력충원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조기유학자들은 장기간 유학으로 현지문화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현지를 떠나기 싫어하고 한국의 조직문화를 힘들어 한다. 따라서 현지에서 이들을 고용,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조직문화와는 다른 방식의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정책제언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1) 조기유학 종료자의 조기유학 유형 및 실태

(1) 조기유학 종료자의 인구학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이 10명, 남성이 8명이다. 연령은 20-24세 3명, 25세-29세 13명, 30-32세 2명이다. 유학지는 캐나다 1명 외 모두 미국이다. 유학시점은 한국에서 중학교 재학 중에 떠난 경우가 10명,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 1학년에 떠난 경우가 8명이다. 연구 참여자 모두 최소 6년 이상의 유학경험을 가진 장기유학 사례로 6년에서 9년이 10명이며 10년 이상인 경우도 8명이나 되었다. 학력은 대학 재학생 2명, 대학중퇴자 1명이 있으며 이 외 모두 대학졸업 이상 학력이다.

이들의 현재 상태는 국내체류자가 6명, 미국체류자가 12명이다. 국내체류자가 33%, 미국체류자가 66%이다. 국내체류자는 대학원생 2명, 취업자 2명, 기타 가정주부 1명, 직장을 다니다가 쉬고 있는 경우 1명이다. 미국 체류자 중에는 대학생 2명, 대학원생 5명으로 학생 신분이 7명이며 취업자 4명, 대학중퇴 후 요리학교 재학자 1명이다. 전체적으로 대학, 대학원 등 학생 신분이 9명으로 50%이다. 취업자는 33%이며 가정주부, 휴직 등 기타 신분이 12%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의 2/3 이상은 아버지의 직업이 변호사나 의사, 대기업의 상무,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대체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상층 이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 참여자의 1/3이상은 서민층이나 중하층으로 인식하는 사례도 포함하고 있었다.

(2) 조기유학의 유형 및 실태

조기유학의 동기와 목적을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종료자는 대안 교육형과 글로벌인재육성형이 혼재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종료자 중에는 외국어능력 향상만을 목적으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어학연수형이나 조기유학의 경험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나 한국에서의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례는 없었다.

조기유학의 결정주체는 본인주도형, 부모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본인주도형이나 부모주도형은 모두 조기유학을 진행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유학원에만 맡긴 경우는 없었다. 유학원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유학지나 관련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활용하기 위해서였으며, 동시에 부모나 지인 등이 직접 현장답사를 한 후 자녀가 조기유학을 할 지역과 학교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형태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의 2/3는 사립기숙사학교에 등록하였으며, 1/3은 공립학교에 입학하였다. 사립기숙사학교에 입학한 경우는 혼자서 미국에 유학을 오거나 학교에 입학할 때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다가 혼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한 사례에 해당한다. 반면, 공립학교에 입학한 경우는 친지나 부모의 지인, 홈스테이를 잠시 지냈다가, 이후 조기유학 기간 동안 ‘기러기가족’으로 어머니와 함께 미국에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조기유학의 결과 분석

(1) 개인적 성취 평가

① 학업 성취

학업과 관련하여 조기유학이 학업성적에 미친 영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학 당시, 한국에서의 학교성적은 연구참여자의 2/3 이상이 반에서 5등 이내 또는 전교 10등 이내여서 매우 우수한 상태였다. 반면,

연구참여자의 1/3은 반에서 중간 등수의 학업성취를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 이전에 한국에서 학업성취 수준이 상위권 또는 중위권에 속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미국에서의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권에 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참여자의 학업성취가 매우 우수하였기 때문에 조기유학이 대학 진학에 미친 영향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조기유학의 학업성취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유학 종료 이후, 대학교 진학 역시 미 동부지역에 위치한 명문사립 대학에 입학하거나, 고등학교 성적이 상당히 상위권에 속해야 입학이 가능한 주립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참여자의 조기유학에 있어서 학업성취는 모두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직업적 성취

대학 졸업 이후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조기유학이 미친 영향은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대학졸업 이후, 미국에 위치한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에 소재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한 경우는 1/3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학업 성취면에서는 모두 성공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대학 졸업 이후 진로나 현재 직업이나 업무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 또는 아쉬움 등이 엇갈리는 반응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미국 현지에서 직장을 얻기를 원하고 있었다. 조기유학의 경험과 장기적인 유학생화로 인해 한국 직장에서의 집단적인 조직문화나 규율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능한 미국 현지에서 직장을 원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에서 직장을 찾고자 하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조기유학 당시의 목적은 미국에서의 명문대학을 졸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졸업 이후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기 보다는 결혼하여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다.

유학경험이 취업하는 데는 직장 근무지가 미국에서이든 한국에서이든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취업한 경우는 모두 특채 형태로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조기유학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취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취업한 경우 역시, 공채나 특채로 취업하였을 때 조기유학으로 인한 영어실력을 인정받아서 가능했다고 여기고 있었다.

현재 직장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가에 대한 평가에서는 현재 까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인지도가 높은 직장으로 이직을 원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취업을 한 경우, 현재는 경험을 쌓기 위해 취업을 한 것이므로 향후 좀 더 큰 조직이나 기업으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취업한 경우 역시, 현재는 경험을 쌓기 위해 취업을 한 것이며, 또한 본인의 업무가 통역이나 번역으로 한정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2) 관계 평가

① 가족관계

조기유학 과정에서 본인을 비롯하여 가족 간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가족 역학에서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 외아들이나 외딸의 경우처럼 본인 혼자만 유학을 경험했을 때와 형제나 자매도 역시 유학을 경험한 경우 서로 다른 가족관계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립적인 생활과 자립심,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유학생 모두에게 보이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가족 간의 관계를 맺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인 혼자서 유학생생활을 지낸 경우, 정서적인 차원에서 가족 간의 애뜻함이나 그리움과 같은 가족애는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유학 이후에는 실제로 본인과 가족 간의 대화를 하는 데는 많은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점차 서먹하고 낯설어지는 것을 모

두가 공감하고 있었다.

유학생 자녀와 유학생 부모 모두가 유학 기간 동안 자녀가 독립적이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강한 문화에서 생활한 것을 인정하고 자녀의 독립적인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경우에 조기유학 이후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매우 밀착된,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챙기는 어머니의 역할은 유학생 모두가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

유학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생겼을 경우, 본인은 외국에서 유학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가족구성원에 비하여 더욱 수동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의 변화를 탐지하고 이에 적응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러기가족 형태로 본인의 유학을 돕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동거하고 아버지가 사업상 또는 또 다른 별거의 이유로 인해 유학생황을 지낸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 경험이 없는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한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까지 애뜻한 마음은 있지만, 대화가 어렵거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학을 함께 한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대부분 서로의 유학경험을 나누고 미국에서 친구와 같이 연락을 자주 취하면서 매우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인다. 가족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하고 가족구성원 각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유학생과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적 또는 경험적 공통점이 없을 경우에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유학생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소원해졌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유학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담감이 없었고, 부모 간의 관계가 좋고, 형제나 자매가 함께 유학을 경험했을 때 가족 간의 대화나 친밀감 형성, 가족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이는 조기유학 종료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높은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② 친구관계

유학 전에 한국에서 사귀었던 친구들과도 친분을 꾸준히 맺어온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유학이 장기화되면서 유학 전에 사귀었던 친구와는 연락이 단절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조기유학 당시와 현재, 조기유학 종료자가 가장 절친하게 친구관계를 가졌던 대상은 아시안계 학생이거나 또 다른 유학생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체로 10명 내외로 절친한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친구관계는 대학 진학 이후 또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며 이들 친구와는 거의 형제나 자매와 같이 느끼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기유학자가 다녔던 학교는 공립학교이건 사립기숙사학교이건 상관없이 백인학생이 대다수였다. 백인학생이 대다수인 학교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과 가장 절친한 관계를 맺었던 친구는 아시안계 학생 또는 또 다른 한국에서 온 조기 유학생, 유학 이전에 한국에서 사귀었던 친구로 나타났다. 혼자서 유학시절을 겪어내면서 거의 상황이 비슷한 한국유학생 친구나 문화가 비슷한 아시안계 친구들과는 형제자매 못지않은 동고동락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렇게 맺어진 친구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공립학교이던 사립기숙사학교이던 간에 절친한 친구관계를 맺게 된 경로나 동기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처한 입장이나 상황이 비슷하고 이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나눌 수 있던 계기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3)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평가

① 영어 능력

영어실력의 향상은 연구참여자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다. 이는, 대체로 이제는 자연스럽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아직까지 모국어(한국어)를 더욱 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조기유학을 종료하고 한국사회로 돌아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는 영어와 한국어가 모두 자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반면, 미국에서 장기간의 유학생생활을 하고 조기유학 종료 이후에도 미국에서 직장이나 학업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능숙능란하게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자(bilingualism)가 아니라, 한국어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반쪽언어자(semi-lingualism)가 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만큼 한국어의 어휘력이 부족해지고 표현력이 서툴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영어와 한국어 모두 자신이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특히, 한국어 실력이 한국을 떠날 때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수준의 어휘력에 머물러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② 글로벌 역량 및 문화적 정체감

조기유학의 긍정적인 변화로는 이문화 또는 타인에 대한 포용력, 자신감과 결단력, 대인관계 기술이 향상된 점을 들고 있었다.

이문화 수용능력이나 세계관의 변화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포용력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외국인 누구와도 자신 있게 대화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글로벌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학 전에 비하여 좀 더 국제적인 활동이나 타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와 현지문화(미국문화)에 대한 친밀감에 있어서는 두 문화 모두 매우 익숙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한국문화는 집단주의문화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미국문화는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응답자 모두, 한국문화와 미국문화 모두 장단점이 나름대로 내재해 있으며, 어느 것이 특별히 우수하다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다르다는 점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현지 미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한국문화

가 아직까지는 더욱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반적 평가

본 연구참여자의 조기유학의 목표는 미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 또한 원하는 전공과 대학에 진학으로 잡고 있었다. 따라서 조기유학의 일차적인 목표 성취는 대부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신이 유학 이후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은 개인적인 성향,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해진 것을 지목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을 대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편하게 대화를 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어실력으로 인해 대인관계 기술과 자신감의 향상이 유학 이후 성취된 자신의 변화로 평가하고 있었다.

조기유학으로 인해 변화된 인생목표는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조기유학의 목적이 조기유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것까지 구상하고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유학비용에 대비한 조기유학의 유익이나 의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위층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학비나 유학경비에 대한 부담이 부모를 포함해서 본인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립기숙사학교에서의 독립적인 생활, 한국 학교분위기보다 자유롭고 선택이 다양한 학교문화, 다양한 민족과 문화 경험, 영어 실력 향상 등의 이점이 훨씬 크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층 이하에 해당할 경우나 기러기가족으로 지냈을 경우는 학비마련을 위한 부모의 희생이나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된 점이 조기유학의 이점을 대치할 만큼 큰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유학을 다시 선택하고 싶다는 것으로 평가할 때 본인에게는 부담스러운 유학비용에도 불구하고 조기유학의 선택이 좀 더 유의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유학은 가되

좀 더 유학경비를 줄일 수 있는 학교선택이나 조기유학이 아닌 유학이 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조기유학이 자신의 행복 증진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입시위주의 교육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었고 좀 더 자유로운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조기유학이 현명했다고 여기고 있었다. 한편, 조기유학으로 인해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 선택이 가능했다고 평가할 경우 역시 현재 본인의 행복 증진에 조기유학은 필수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조기유학을 통해 다양한 체험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에 만족하고 있었다.

2. 정책제언

(1) 안전한 조기유학 지원정책

① 조기유학 사전 인성검사 실시 등 조기유학에 관한 상담제도를 활성화한다.

조기유학의 성공 여부에는 개인적 특성 요인과 사전준비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당사자의 의지력, 결단력, 독립성, 적응력 뿐 만 아니라 목표의식, 외국어실력, 학업성적 등이 중요 요인이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조기유학을 추진할 때 많은 어려움에 당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유학의 성공과 관련되는 인성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지, 준비정도는 어떠한지를 사전 점검하여 조기유학에 대한 접근이 보다 신중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기유학 전 인성검사를 통해 진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기유학에 관한 성공과 실패 사례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와 정보 제공, 조기유학에 소요되는 경비와 성과 등에 대한 객관

적 정보제공 등을 통해 조기유학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조기유학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교육청이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②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조기유학 현지에 홀로 떨어져 있는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 줄 멘토이다. 유학생할 중에 도움을 받은 멘토가 있었는지 여부는 성공의 주요 변인이기도 하다. 안전하게 유학을 마칠 수 있도록 조기유학 청소년들이 유학지에서 멘토링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 한인교회, 한인단체 등이 주관하여 현지 조기유학생과 한인네트워크와 연결시켜 이들이 한인네트워크 내에서 보호받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현지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자원봉사단체 구성을 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현지에서의 멘토링 시스템 개발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

첫번째, 한인사회의 중학생에서 대학생 이상까지를 연결하면서 교육하고 역할 모델이 되게 한다.

두번째, 청소년 멘토 양성이다. 대학생 이상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프로그램 연수하여 청소년지도자로 세운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좋은 지도자를 어떻게 키워내느냐에 있다.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 Support, 또는 이력서에 경력(Credit)이 되게 하는 것이다. 멘토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학부모들이 하게 할 수 있다. 멘토가 보살필 수 있는 청소년이 5-6명이 되게 되면 학부모들이 분담하여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소년의 경우 직접 만나서 감정을 함께 느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담 등의 방법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③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조기유학 청소년들은 주류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게 되면

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기 존중감과 주도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자신감과 주도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리더십이란 타문화권을 접촉하면서도 자신의 문화를 바탕으로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학생들이 타문화권에서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다른 나라 청소년들을 이끌어 나가는 경험, 자존감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의 제공이 필요하다.

조기유학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은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즉, 한국문화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한국청소년의 놀이문화를 주류문화로 하여 조기유학 청소년들을 문화적 리더로 육성함으로써 타문화권을 주도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다.

④ 홈스테이 필터링 방안을 마련한다.

조기유학생의 거주형태는 기숙사나 홈스테이형이 많다. 재정적인 도움을 얻고자 6~7명씩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며 정서적 학대를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미성년자 인권문제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홈스테이에 대한 필터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학원등에서 홈스테이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홈스테이 리그를 창출하여 홈스테이 관리체계를 세운다. 홈스테이 보고서 쓰기, 홈스테이 가정의 네트워킹,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2) 조기유학 수요 감소정책

① 질적 수준이 높은 다양한 국제학교를 설립을 촉진한다.

면접조사 결과 조기유학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중 하나는 해외유학생활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해외유학생활은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건문을 넓힐 수 있고 영어로 수업을

함으로써 영어실력 함양 및 글로벌 역량 강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를 익히며 외국어 습득을 강화하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조기유학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학교는 시, 도별로 기숙형, 또는 통학형으로 다양하게 설립하되 해외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조기유학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기유학의 수요는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역량의 습득과 더불어 글로벌 교육을 통한 외국의 명문대 진학 욕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학교가 국내외 명문대 진학의 욕구를 해소시키지 못한다면 조기유학의 대체효과가 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학교 진학이 조기유학보다 비용과 안전성, 장래성 등에 있어 장점이 있어야 조기유학의 대체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② 자유롭고 질적 수준이 높은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또 다른 동기는 입시위주 경쟁 교육을 떠나 폭이 넓고 자유로운 교육환경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있다. 학업성적이 상위권이던 중위권에 속하든지 간에 치열한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크고 한국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낙오하거나 크게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모든 공부와 대학입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자기개발이나 여가생활을 할 여유가 없이 밤낮으로 학교 수업과 학원으로 이어지는 공부에 대한 압박을 떠나 해외 학교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수업선택과 수업방식, 폭이 넓고 자유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매력은 조기유학의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동기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입시위주, 암기위주의 교육을 떠나서 다양한 수업선택과 수업방식, 운동과 음악 예술 활동 등 다양한 클럽 활동 등을 통해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대안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여러 곳에서 대안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그 수와 규모가 너무

작다. 인가, 미인가 대안학교 등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너무 그 수가 너무 적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의 질적 수준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질적 수준이 높은 대안학교 등이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안교육을 통해 길러진 지적 능력과 창의성과 인성 등을 소유한 대안학교 졸업자들의 입시전형이 확대된다면 조기유학의 대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③ 조기유학에 대한 국가차원의 홍보를 강화한다.

학부모들도 학비에 대한 막연한 기대치와 달리 실제 유학비용은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많이 든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특히 유학원 등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해외 조기 유학을 부추기는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객관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자료를 만들어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 비치하도록 하여 학부모 상담 자료로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기유학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조기유학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사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언론을 통한 조기유학자의 명문대 입학 관련 보도, 조기유학생의 비행관련 보도 등으로는 조기유학의 실태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해외조기유학의 환상을 갖지 않도록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기유학 대상국의 문화에 대한 정보, 교육제도에 대한 정보, 한국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에게 실제유학비용이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 지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조기유학자의 대학진학결과, 국내귀국현황, 조기유학 종료 후 국내 및 국외 취업상태 및 취업률, 국내회귀율, 조강유학자의 취업동향, 학교급별 조기유학 경비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야 하며 학부모 상담자료 등으로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기유학에서 성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주의사항, 유학계획 대비 유학 경비 산출내역, 졸업 후 취업 문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이 필요하다. 조기유학에 들어가기 전에 장래 계획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유학을 추진할 것 등에 대한 유학안내가 필요하다.

④ 교환학생제도를 촉진, 정착시킨다.

조기유학 수요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중고생 교환학생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우수 인재와 계층적 위화감 해소를 위하여 교육 선진국과 교환학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국비유학생 제도처럼 경제적 여유는 없지만 실력이 있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외국 문물을 접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3) 조기유학 종료자의 활용촉진 대책

조기유학 종료자는 대학 진학 등 학업에서는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미국 문화에 동화해 버려 한국조직문화를 기피하는 성향과 더불어 국내취업을 선호하지 않게 된다. 또한 오랜 기간의 유학생화로 대학수준이상의 한국어 수준이 낮아 국내기업 등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가족과 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의 유학비를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국가사회를 위해 유용한 글로벌 인재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① 국내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여 국내 외 대학 간 상호학점 인정제를 확대하는 등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조기유학으로 외국의 대학에 입학한 청소년들이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국내 대학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내 외 대학 간 상호학점 인정제 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교환 프로그램의 확대는 대학에 입학한 조기유학 청소년들의 한국문화 적응을 촉진할 뿐 아니라 국내

대학생의 해외문화 체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해외 조기유학자는 대학 시기의 이러한 학점교류를 통하여 외국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에 통합된 자기정체성을 확보하여 외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주변인이 되지 않고 한국이든, 외국 현지이든 자유롭게 조기유학을 통해서 습득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것이다.

② 조기유학자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조기유학 종료자들은 한국을 떠나 장기간 교육받는 동안 대학수준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 한국기업이나 국가가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본인 역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들이 한국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국교육지원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조기유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학이나 한인단체에서 한국어 교육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③ 조기유학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보호 체계를 수립한다.

조기유학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조기유학 청소년들이 어느 지역에서 유학을 가서 어떻게 적응해 나아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조기유학 청소년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학국가 현지에서 조기유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현재에는 조기유학자를 포함한 장기체류자에 대한 명단 및 신분문제 등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현지에서 조기유학 청소년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조기유학 청소년을 미래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려면 국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외교통상부 산하 현지 영사관에 조기유학생 관리를 위한 특별부서가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 조기유학자 및 외국장기체류자의 명단 관리, 유학국가, 체류지, 비자상태, 법적 상태 등에 대한 기초적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조기유학자의 진학과 취업 문제를 가족과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조기유학자에 대한 취업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조기유학 종료자들은 우선순위로 현지취업을 선호한다. 학업적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현지취업은 비자문제, 외국인으로서의 신분문제 등으로 용이하지 않다. 국내취업은 조직문화 적응 문제 등으로 기피하는 경향이다. 이들을 정부와 기업에서 필요한 해외 현지 인력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국내에서 파견하는 인력은 어학과 현지 사정 등에 정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제한이 있다. 조기유학자들을 현지에서 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들에게 한국기업과 정부의 현지인력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국내에서의 인턴기회 제공, 조기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인력충원과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조기유학자들은 장기간 유학으로 현지문화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현지를 떠나기 싫어하고 한국의 조직문화를 힘들어 한다. 따라서 현지에서 이들을 고용,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조직문화와는 다른 방식의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란혜(2001). 해외귀국아동의 이문화체험과 귀국 후 사회심리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9(11), 175-191.
- 강만철(2008). 조기유학 한국학생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호주 브리즈번 지역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7(1), 15-27.
- 김경근(2003). 한국사회의 교육열과 청년실업, 교육열의 진단-해부-대책. 2003 교육열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김경근·윤혜준(2005). 교육적 동기에 의한 ‘탈한국’의 개연성이 있는 가족의 특징. 교육사회학연구, 15(3), 29-50.
- 김상희(2001). 귀국학생의 수학학습에 있어서 부적응 실태와 해결방안.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숙(2006). 기러기아빠의 생활 변화와 적응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41-158.
- 김양희·장온정(2004). 장기 분거 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러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23.
- 김영희·최명선·이지항(2005). 뉴질랜드 거주 기러기 어머니의 생활 실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11), 141-152.
- 김영희·최명선·이지항(2006). 뉴질랜드 거주 조기 유학생의 생활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 청소년학연구, 13(1), 55-84.
- 김익기(2006). 중국유학 한국청소년의 규모추정과 적응실태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창호(2002). 귀국학생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 이중언어학, 21, 122-140.
- 김혜순(2006). 해외 귀국 청소년과 해외 유학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및 부적응에 대한 비교 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원(2005). 조기유학에 관한 국민의식과 실태. 2005년도 제26차 KEDI 교육정책 포럼, 한국교육개발원. 3-44.
- 권미경(2006). 조기유학생의 생활 실태와 유학 국가에 따른 차이.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심포지엄, 11-32.
- 박규리·장지영·이주은·Grace Min·최윤서·이승연·변수연(2008). 해외 귀국대학생들의 다문화적 정체감에 관한 탐색적인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대회논문집.
- 박영숙·박광배·최상진·Marsella, A·김주한(2002). 미국 일시거주 한인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적응 촉진을 위한 인터넷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 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97-139.
- 방주아(2008). 조기유학 초등학생의 문화적응,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준중(2005). 누가 교육을 위해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가?: 교육 관련 ‘탈’한국 현상의 사회적 성격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95-120.
- 양계민(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엄명용(2002). 장기 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 문제: ‘기러기 아빠’.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2), 25-43.
- 오옥환(2000). 한국사회의 교육열: 기원과 심화. 교육과학사. pp.159
- 윤철경(2008).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 연구 :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순형 · 권미경 · 최민화 · 최은정 · 조미경 · 방주아(2007). 조기유학 유형별 분석을 위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개발사업(2007-공모-50).
- 이종각(2003). 교육열 제대로 보기: 교육열의 환경과 정체와 운동법칙 교육열 올바르게 보기 서울 : 원미사. pp.72-73.
- 이혜리(2007). 청소년의 역경과 긍정적 적응: 유연성의 역할.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임인숙(2008). 중국 조기유학생의 유학생생활 실태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보호요인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성성(2006). 한국인 중국 조기유학생의 유학 선택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명덕(2000). 한국학생들의 영어권 교육체제로의 이동현상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 경원전문대학 논문집, 22, 173-198.
- 조삼섭 · 심성옥 · 신일기 · 이지현(2006). 조기유학 성공과 실패 사례 조사 및 학부모 제도를 위한 홍보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과제(2006-공모-9).
- 조은(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싱글로벌 모자녀 가족 사례 연구. 경제와 사회, 64, 148-171
- 조혜영. 조기유학생 학업수행과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03-245.
- 조혜영 · 최원기 · 이경상 · Abelman, N.(2007). 청소년들은 어떻게 조기유학을 결정하게 되는가?: 미국 소도시 유학생들의 사례. 청소년학연구, 14(4), 115-143.
- 천세영 · 박소화(2008). 초국적 교육; Post-nationality의 관점에서 본 조기유학. 인문학연구, 74, 329-351.

- 최양숙(2008).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인한 분거가족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기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67-97
- 최진숙(2007). 초등단계에 영어조기유학을 하고 귀국한 학생들의 학부모 포커스 그룹 인터뷰. 언어학, 15(2), 77-98.
- 한국교육개발원(2008). 2008교육통계분석자료집.
- 한준상·기영화·강양원·박현숙·샤론 메리엄(2002). 조기유학생 적응지도에 관한 연구: 조기유학제도의 문제 및 개선방안. 청소년학연구, 9(1), 199-220.
- 황혜신(2006). 조기유학생의 적응과 만족도.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심포지엄, 51-70.

부 록

- 부록 1. 조기유학 종료자 면접조사지
- 부록 2. 조기유학 종료 어머니 대상
면접조사지
- 부록 3. 현지 유학원과 학교 대상
면접조사지
- 부록 4. 조기유학 종료자와 어머니
응답내용

부록 1. 조기유학 종료자 면접조사지

면접관:

□ 면접참여자 기본 사항: 기본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연령
2. 성별
3. 유학을 시작한 학년/최종적으로 끝낸 학년(본인의 한국 학년을 기준으로) / 유학을 위한 해외체류기간은 총 몇 년입니까?
4. 유학을 했던 곳
5. 학력
 - 유학지에서의 최종학교명, 전공
 - 한국에서의 최종학교명, 전공
6. 부모의 직업과 경제수준
7. 결혼 여부(기혼, 미혼)
 - 기혼자라면 자녀의 수와 나이, 배우자의 국적 및 신분(외국인/한국인, 교포__세, 한인영주권자 등)

□ 조기 유학 결정 : 조기유학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무엇 때문에 조기유학을 가(오)게 되었습니까?
2. 조기유학을 결정할 때 누구의 의견을 들어 결정했으며 본인의 의사는 어떠했습니까?
3. 조기유학(나라, 학교, 시기 등)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4. 조기유학을 갈(을) 때 누구와 함께 갔(왔)습니까? (유학지에서는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같이 산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거나, 잘못 지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조기유학을 결정할 당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6. 조기유학 전 본인의 학업성적은 어떤 편이었습니까? 또한 외국어(현지어) 수준은 어느 정도였나요 ?

□ 조기유학생할 : 지난 유학생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유학하여 다닌 학교의 특성과 분위기,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사립학교, 공립학교, 기숙학교
- 명망이 있는 높은 학교, 아니면 보통수준 학교
- 한국아이들이 많은 학교, 아니면 백인들이 많은 학교, 혹은 흑인들이 많은 학교
- 학교분위기(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학교분위기, 엄격한 학교분위기)
- 교사와의 관계(선생님들이 외국인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분위기, 아니면 엄격한 분위기 등)
- 다니던 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웠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도움 (ESL, 또는 상담 등)
- 학교의 장,단점 등

2. 귀하의 학교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 친구관계, 클럽활동, 학업성적 등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2-1. 친구관계는 어떠하였습니까?

- 많이 사귀 편입니까? 아닙니까? 친구사귀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습니까?(백인,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 아시아친구, 흑인친구 등)
- 친구들과 어느 정도로 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마약 등 비행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까?

2-2. 클럽활동이나 종교생활

-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 왜 했습니까?
- 유익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2-3. 공부나 학업성적

- 유학시절 학업성적은 어떤 편이었나요? 공부를 하기가 어느 정도 어려웠나요?
- 유학 전 한국학교에서의 성적과 비교하여 어떠하나요?
- (귀국학생의 경우) 귀국한 후 학교성적은 유학가기 전 학교성적과 비교하여 어떤 편이었나요? 향상된 편인가요? 아니면 나빠졌나요?

- 본인의 외국어(영어) 실력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영어와 국어 모두에 자신이 있으신가요?

2-4. 문화차이와 적응과정

-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 어떤 점이 적응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까?

-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 조기유학을 마칠 즈음 그러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2-5.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 한국학교와 달리 외국학교생활에 대해 본인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 학교생활은 실제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달랐습니까?

- 기대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조기유학 종료 : 조기유학을 종료하고 귀국한 학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조기유학을 종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까?

2. 유학을 연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까? 연장하고 싶었다면, 혹은 연장하고 싶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기유학에 대한 평가

1. 자기 자신의 성격에 미친 영향

- 자신의 성격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그러한 자신의 성격을 좋아하십니까?

- 유학 전 자신의 성격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기유학이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달라지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는 각각 무엇이 있습니까?

- 그러한 자신의 성격변화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신다면 어떤 점에서, 불만족하신다면 어떤 점에서 불만족하십니까?

2.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 형제는 몇 명입니까? (가족관계 파악: 부, 모, 형 1명, 누나 1명 등)
- 형제들은 유학을 하였는 지, 아닌 지?
- 조기유학이 가족(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 유학 시 함께 거주했던 가족과 떨어져 있던 가족이 있다면, 본인과 그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한 지? (보충질문) 누구와 더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지?
-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는 각각 무엇이 있습니까?
- 그러한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해 본인은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

3. 친구관계에 미친 영향

- 지금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 친구는 유학 전 한국친구인 지?, 미국에 유학 와서 사귀 한국친구인 지?, 아니면 누구인 지?) 또는 현재 본인이 친하다고 느끼는 친구는 몇 명이십니까? 어떤 친구들입니까?
- 그 친구와 친하게 된 경위, 이유는? 왜 그 친구와 가장 친하게 되었습니까?
- 조기유학이 친구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는 각각 무엇이 있습니까?
- 현재의 친구관계에 대해 만족(또는 불만족)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만족(또는 불만족)하십니까?

4. 진학 및 진로에 미친 영향

- 조기유학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조기유학하지 않은 다른 형제, 또는 친구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 조기유학을 통해 자신의 진학 및 진로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는 각각 무엇이 있습니까?
- 그렇게 달라진 것에 대한 본인의 만족수준과 느낌은 어떠한 지? 만족하거나 불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지? 등

5. 글로벌 역량 또는 문화정체성에 미친 영향

- 조기유학으로 자신의 국어, 영어 능력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양쪽 언어를 어느 정도 자유로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 당신이 만일 한국, 미국을 떠나 중국 등 동남아국가, 아프리카, 아랍 국가에서 살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들과 친해질 수 있다고 봅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들과 친해 질 수 있다고 봅니까?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며 당신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 당신은 미국인·미국문화와 비교하여 한국인과 한국문화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점은 무엇이며 나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는 어느 문화가 더 친밀하고 편안하게 느껴지십니까?

- 조기유학을 통해 당신이 미국 등 다른 문화와 접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변화에 대해 당신은 어떤 점에서 만족(또는 불만족) 하시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귀하가 생각하기에 ‘성공적인 조기유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조기유학은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응답자는 조기유학의 성공여부를 ‘행복지수’라고 하였는데 어떤 점에서 유학이 자신의 행복지수를 높여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학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충질문)

- 그렇다면 조기유학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다시 그 상황이 된다면, 조기유학을 선택할 마음이 있습니까?

8. 조기유학을 통해 얻은 경험은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생활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나 직장,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이라면]

1. 현재의 진학 성과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한다면 어떤 점에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떤 점에서 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 (국내대학 진학자의 경우) 입학할 때, 어떤 전형으로 입학하셨습니다?

- 대학입학시, 유학경험(또는 학력)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셨으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에서 어려우셨습니까?

3. (외국대학 진학자의 경우) 대학입학시 제도적으로 외국인 학생으로서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시오.

5. (졸업 후) 어떤 취업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6. 그러한 계획이 달성될 가능성은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취업 중이라면]

1. 현재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2. 현재의 직장과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족하신다면, 어떤 점에서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떤 점에서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 보수수준
 -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 직장의 조직문화 등
3. 현재의 직업이나 업무가 귀하가 유학을 통해 얻은 역량을 발휘하는 데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 혹은 불만족하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 지 말씀해 주십시오.
4. 취업 시, 어떤 방법으로 취업하셨습니다습니까?
(공채, 특채, 또는 공채형식+아는 사람 소개 등)
 - 취업시, 유학경험(또는 학력)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셨으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에서 어려우셨습니까?
5. (외국 취업자의 경우), 취업시 제도적으로 외국인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직장생활에서 외국인으로서 유리(또는 불리)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 지 말씀해 주십시오.
6. 미래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한 계획이 달성될 가능성은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타의 경우라면]

1.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2. 귀하가 현재까지 진학하거나 취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4.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달성가능성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록 2. 조기유학 종료 어머니 대상 면접조사지

면접대상 학부모 특성

1. 연령
2. 본인학력(유학여부) 및 배우자의 학력(유학여부),
3. 자녀의 수 및 유학여부
4. 자녀유학 시 동반거주 했는지 여부

조기 유학 결정 : 조기유학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무엇 때문에 자녀의 조기유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2. 조기유학을 결정할 때 가족 중 누구의 의견을 들어 결정했으며 자녀의 의사는 어떠했습니까?
3. 조기유학(나라, 학교, 시기 등)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4. 자녀는 유학 중에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았습니까? 자녀는 같이 산 사람과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지내거나, 잘못 지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조기유학을 결정할 당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6. 조기유학 전 자녀의 다음과 같은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 6-1. 학업성적
 - 6-2. 외국어(영어)실력
 - 6-3. 가족관계(부모와의 관계, 형제관계, 부부관계 등)

자녀의 조기유학생활 : 지난 유학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자녀의 유학생활 중에 부모로서 겪었던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2. 자녀를 유학 보내면서 한국학교와 비교하여 외국학교에 대해 기대하신 바가 있으셨을텐데, 실제로 그 기대와 같았던 점은 무엇이고 달랐던 점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한 평가

1. 자녀의 성격에 미친 영향
 - 유학가기 전 자녀의 성격은 어떠하였습니까?

- 조기유학을 통해 자녀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는 각각 무엇이 있습니까?
- 현재 그러한 자녀의 성격에 대해 부모님으로써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만족(또는 불만족) 하십니까?

2.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 조기유학시킨 자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친밀하다고 느끼십니까?
- (자녀를 유학시키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또는 (유학시키지 않으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와의 관계와 비교하여), 현재 어머니와 유학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 점에서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기유학한 자녀와 다른 가족(형제, 아버지, 일가친척 등)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학자녀는 다른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 조기유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이 형제관계, 부부관계 등에 미친 영향은 없습니까?
- 자녀의 조기유학이 가족(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는 각각 무엇이 있습니까?
- 현재 조기유학 자녀의 어머니와의 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혹은 불만족)하신다면, 어떤 점에서 만족(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3. 친구관계에 미친 영향

- 자녀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자녀와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어떤 친구들입니까?
-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또는 불만족) 하신다면, 어떤 점에서 만족(또는 불만족) 하십니까?
- (만일 자녀가 유학을 가지 않았다면, 혹은 유학가지 않은 다른 자녀나 사례와 비교하여) 조기유학으로 자녀의 친구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는 각각 무엇이 있습니까?

4. 진학 및 진로에 미친 영향

- 조기유학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녀의 진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조기 유학하지 않은 다른 형제, 또는 친구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 조기유학을 통해 자녀의 진학 및 진로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는 각각 무엇이 있습니까?
- 그렇게 달라진 것에 대한 본인의 만족수준과 느낌은 어떠한 지? 만족하거나 불만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지? 등

5. 글로벌 역량 또는 문화정체성에 미친 영향

- 조기유학으로 자녀의 국어, 영어 능력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양쪽 언어를 어느 정도 자유로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 당신의 자녀가 만일 한국, 미국을 떠나 중국 등 동남아국가, 아프리카, 아랍 국가에 가서 산다고 할 때,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혹은 아니라면), 어떤 점에서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신의 자녀는 미국인·미국문화, 한국인과 한국문화 중 어느 것을 더 친밀하고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조기유학을 통해 자녀가 미국 등 다른 문화와 접하면서 자녀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변화에 대해 당신은 어떤 점에서 만족(또는 불만족) 하시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귀하가 생각하기에 ‘성공적인 조기유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자녀의 조기유학은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렇다면 조기유학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다시 그 상황이 된다면, 귀하는 자녀의 조기유학을 선택할 마음이 있습니까?

8. 조기유학을 통해 얻은 경험은 현재 자녀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3. 현지 유학원과 학교 대상 면접조사지

【유학원】

1. 한국에서 유학보내려면 연간 1인당 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되는가?
 - 학비
 - 하숙(기숙사)비
 - 방과후 학원비
 - 용돈

2. 유학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① 학교찾아서 정해주기: 어떤 학교, 왜 그 학교인가?
 - 어떻게 찾나?
 - 가디언 찾기와 관리는 어떻게 하나?

 - ② 기숙, 하숙 찾아주기
 - 어떻게 찾나?
 - 가디언 찾기와 관리는 어떻게 하나?

 - ③ 방과후 프로그램
 - 어떤 프로그램인가?
 - 비용은?

3. 한국에서 어디를 접촉해서 오게 되나?
 - 한국연계 유학원이 있나?
 - 한국, 미국 양쪽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4. 연간 몇 명이나 본 유학원을 통해 모집되나?
 - 어떤 학생들이 얼마나오나?(초, 중, 고)
 - 한국에서는 어떻게 모집하나?

5. 부적응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도와주나?
 - 학생들은 어떤 문제로 가장 어려워하나?

- 어떻게 돕고 있나?
- 유학을 잘 마치려면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나?

6. 유학원에서 제공하는 보호, 관리가 어떤 도움, 또는 효과를 주고 있다고 보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 교】

1. 학교의 특성

- 학생수
- 교사수
- 학년구성
- 진학률
- 인종구성
- 외국인 학생수 / 그 중 한국학생수
- 학교레벨 / 명망도
- 연간 학비
- 학교분위기: 엄격함, 자유로움, 교사학생관계
- 기숙학교

2. 외국인 학생의 문제

- 1) 외국 학생들이 학교적응과정에서 겪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나?
- 2) 한국 학생들은 주로 어떤 어려움을 겪나?
- 3) 한국학생에 대한 평가
 - 학업수준
 - 태도 및 행동
 - 문화적응
 - 문제점

부록 4. 조기유학 종료자와 어머니 응답 내용

[사례 1]

| 분류 | 항목 | 청소년 | 항목 | 어머니 |
|----------------|--------------------|--|--|-------|
| 인구 학적 특성 | 연령 | 여 | 연령 | 55세 |
| | 성별 | 28 | 본인 학력 | 학사 |
| | 유학기간 | 총 11년(고등학교 부터 시작) | | |
| | 유학지 | 미국 | 배우자학력 | 학사 |
| | 최종학력 | 학사 졸 | 자녀 수 | 3녀 |
| | 부모의 경제수준 | 상 | 타자녀유학여부 | 모두 유학 |
| | 결혼여부 | 결혼 | 현지동반 거주여부 | 비동반 |
| | 현재신분 (학생,취업,기타) | 취업(영국 유치원 교사) | | |
| 유학 평가 | 성격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달→책임감 및 자신감 증가 ·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스스로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랑, 활달→자신감 생기고 적극적으로 변함. | |
| | 가족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과 언니, 여동생 · 서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날 때 애뜻하고 좋았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생활을 해서 그런지 엄마에게 기대지 않고 자기 일은 알아서 하게 됨. · 변한 모습이 대견스러움. · 경제적 부담이 있었지만 잘 해결 되었고 부부관계에 영향은 없었음. | |
| | 친구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한친구는 10명 정도이며 모두 유학중 만난 친구임. ·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것 보다 나하고 잘 맞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친구들이 많으며, 한국인 친구들과도 잘 지냄. · 대인관계는 좋지만 친밀한 교제가 좀 부족 · 현재 한국친구들이 없으며, 중학교친구를 만나면 공통 애깃거리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같음. | |

| | | | | | |
|----------|-----------------|---|--|----------|--|
| | 진로영향 | ·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는 자신감과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음. | · 눈이 넓어지고 사고가 넓어진건 좋은데 공부를 오래해야하는 학문을 택한 것 같아 때론 아이의 의사대로만 해준건지 하는 후회가 있음. | | |
| |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 · 한국어 영어 양쪽 언어 다 자유롭게 구사 · 어느나라를 가더라도 다 잘 지내고 잘 적응할 수 있음. · 미국문화에 친밀감을 느끼며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한국문화도 크게 부담감은 없음. | · 사용은 자유로운데 국어 어휘력이 좀 부족 · 성격은 활발한데다 스스로없이 잘 적응하는 아이라 특별히 걱정안함. · 한국문화를 편안하게 생각,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워 함. | | |
| | 조기유학 '성공'의 의미 | · 처음부터 갈 때 대학을 목표로 갔었는데, 생각보다 더 크게 성공적임. · 유학 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재정적으로나 학교에 대한 정보도 충분해야 함. | · 부모, 자녀 양쪽이 다 만족하며, 신뢰와 믿음이 더 생기고 서로 성장했다면 그게 성공임. · 시기와 영어 준비, 아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 |
| | 향후유학선택여부 | · 다시선택 | · 다시선택 | | |
| | 전반적 평가 | · 자신감과 책임감이 생겼음. | · 스스로 자기 일을 잘 해결하고, 소통하고 남을 배려하며, 좋은 환경이라 감사함. | | |
| 유학 결정 과정 | 유학이유 | · 언니의 유학으로 동기가 됨. | · 한국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었음. | | |
| | 의사결정과정 | · 내가 원했으며, 부모님도 동의 | · 나의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나중에는 자녀가 원했음. | | |
| | 유학정보 | · 언니와 부모님이 직접 해 주셨음. | · 배우자가 직접 알아보고, 유학원에서 추천해주는 학교에 입학. | | |
| | 가족동반여부 | · 초반에는 동반했으나 기숙사로 들어가 언니와 함께 있었음. | · 비동반. | | |
| | 유학당시 향후계획 | ·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계획이 있었음. | · 대학 마칠 계획이 있었음. | | |
| | 유학 전 학업성적과 가족관계 | · 영어실력은 좋았음. | · 상위권/ 영어는 기초실력이 좋았음. · 가족관계는 원만했음. | | |
| 학교 생활 | 학교 | 종류 | · 사립여자기숙학교 | 자녀의 학교생활 | · 외롭고 두려워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었으나 모범적으로 잘 하였음. |
| | | 인종구성 | · 거의 백인이며 흑인 동양인은 극 소수였음. | | |

| | | | | |
|------------|-------------|---|--|---------------------------------|
| | 외국학생지원 | · ESL과정과 외국인 상담선생님이 있었음. | 어려움 | |
| | 분위기 | · | | |
| | 교사와의 관계 | · | | |
| | 친구관계 | · 친구들과의 관계는 아주 좋았으며, 각자 잘 하는 것들을 서로 지지해 주는 분위기였음. | | |
| | 클럽활동 | · 처음에는 그냥 한국 체육시간처럼 생각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클럽활동을 좋아하게 되었음. · 학교에서 악기 레슨을 시켜주는 면이 좋았음. | | |
| | 학업성적 | · 초반에만 영어가 어려웠으며 점차 적응했음. · 학교에 대학과 진로를 찾기 위해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자신에게 맞는 대학으로 진학하게 도와 주심. | | |
| | 문화차이와 적응 | · 영어 때문에 2달간 힘들었지만 그 후에는 한국처럼 자유롭게 했었음. · 고등학교보다는 대학이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웠었음. · 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적응이 되었음. | | |
| | 학교생활평가 | · 미국교육이 자기가 잘하는 것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줘서 좋았음. · 한국에 있을 때 보다 인생에 대해 책임감이 생겼음. · 내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었음. | 자녀의 학교생활평가 | ·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줘서 자신감을 가지게 했음. |
| 유학종 료과정 | 종료이유 | · 유학 당시 대학교만 마치고 들어온다고 계획했었고, 학업이 마치고 바로 귀국하였음. | | |
| | 유학연장의지 | · 기회가 된다면 이중언어습득에 대해 학업을 해 보고 싶음. | | |
| 현재 | 취 업 중 | 직장과 업무 | · 유치원 교사 | |
| | | 직장만족여부 | · 외국계 유치원이라 1년에 4번이 방학이고 오후 4시되면 다 끝남. 다른 회사같은 조직 적인 문화는 없으며, 서로 존중해주고, 자기일에 충실해서 만족함. | |
| | | 본인의 역량 발휘여부 | · 선생님 중 외국에 어릴 때 가서 학위를 받아온 사람은 나밖에 없어 언어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나를 많이 의지 함. | |
| | | 취업방법 | · 공채, 무엇보다도 언어적인 면에서 도움 | |

| | | |
|--|----------------|--|
| | 외국취업시 장벽유무 | · 미국에 있을 때 샵에서 1년 정도 일했는데, 그때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취직이 어려움이 있었음. |
| | 향후계획과 달성가능성 | · 다시 공부를 하고 싶음. |

[사례 2]

| 분류 | 항목 | 청소년 | 항목 | 어머니 |
|----------------|--------------------|---|--|-----------|
| 인구 학적 특성 | 연령 | 만25세 | 연령 | 53 |
| | 성별 | 여 | 본인 학력 | 학사 |
| | 유학기간 | 총 8년(중학교 2~대학교 졸업) | | |
| | 유학지 | 미국 | 배우자학력 | 학사 |
| | 최종학력 | 학사 | 자녀 수 | 2남 1녀 |
| | 부모의 경제수준 | 중 | 타자녀유학여부 | 1남 1녀 유학 |
| | 결혼여부 | 미혼 | 현지동반 거주여부 | 첫 2년 반 동반 |
| | 현재신분 (학생,취업,기타) | 학생(서울대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 | |
| 유학 평가 | 성격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적이고 낮가림이 심했음→활발, 낮가림이 없어졌음. · 유학중에 모르는 사람들을 알고 적응하려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되어짐. · 삶 전반에 억압적이고 눈치를 봐야하는 분위기가 없고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성격이 활발해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부정적 경향, 소극적→자립심, 사교적이고 친구의 폭이 넓어짐 · 해보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좋아 보이며, 생각의 폭도 넓어진 것 같음. 다양한 인종과 배경의 사람을 만나서 사고의 폭이 넓어짐. | |
| | 가족관계영향 | · 부모님, 남동생 2명 | · 부모와의 관계는 변화가 없었음.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남동생과는 한국에 있을 때 자주 싸웠는데 계속 떨어져서 살면서 관계가 멀어짐. · 부모님과는 전화통화를 자주하면서 오히려 더 친해짐. | |
| 친구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한 친구는 유학하면서 사귀 친구이며 4~5명 정도이나 연락은 다 못 하고 지냄. · 기숙사 생활 하면서 비행청소년이나 예술적인 면에서 특이한 아이들 등의 부류의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때 만난 후배나 선배와 연락이 더 많으며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과 사교가 잘 안 맞는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음. · 미국에서 공부했으면서도 백인 친구가 한 명도 없고 아이도 아쉬워함. |
| 진로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교육을 받았고 영어를 잘한다는 점이 직업의 선택 폭을 넓혀 주었고, 한국 대학 졸업생에 비해서 더 많은 직업 선택의 폭을 가져준다고 생각함. · 두 언어 모두 탁월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진로가 정해졌고 한국에 있었다면, 취업을 했을지 알 수 없음. |
|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우나 둘 다 백인 또는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부족함 · 미국에서 키운 적응력과 사교성을 통해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음. 다른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 같음. · 유학을 했지만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한국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더 친밀감을 느낀다고 생각함.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자유로운면과 노력하면 어떤 분야든 성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결국은 외국인이라는 느낌을 계속 받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능력은 전문적 용어 등에서는 많이 떨어지나 의사 소통은 어려움이 없음. ·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도 영어를 잘하면 그게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며 조기 유학을 통해서 얻은 적응력도 도움이 될 것임. · 한국인/한국문화가 지배적으로 친밀하게 느낀다고 생각함. |
| 조기유학 '성공'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하지 않고 영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자기 동기부여가 중요하며 유학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겠다는 목적의식이 뚜렷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아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 가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과외 활동도 열심히 해야 명문 대학교에 갈 수 있음. |

| | | | | |
|----------|-----------------|--|---|--|
| | 향후유학선택여부 | · 다시 선택 | · 다시 선택 | |
| | 전반적 평가 | ·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점으로 작용하였고 큰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겪었음. 삶의 전반에 있어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모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함. | ·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적극적으로 성격으로 바뀌었음. · 주관이 뚜렷해졌고 혼자 생활하면서 혼자 결정하는 습관 때문인지 결단력이 생김. | |
| 유학 결정 과정 | 유학이유 | · 아버지가 언어의 어려움을 느끼시고 권유 | · 한국의 교육 현실이 암담해서 추진 | |
| | 의사결정과정 | · 부모님의 권유하셨고 나도 좋았음. | · 부모님이 권유 | |
| | 유학정보 | · 친척으로부터 도움 받음. | · 친척으로부터 도움 받음. | |
| | 가족동반여부 | · 엄마와 함께 지냄. | · 초반부 2년만 같이 지냄. | |
| | 유학당시 향후계획 | · 대학을 잘 가는 게 목표였음 | · 공부 잘해서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영어만 잘해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음. | |
| | 유학 전 학업성적과 가족관계 | · 중상위권/문법은 중, speaking은 유창하진 않았음. | · 상위권/문법위주의 학습 · 남동생과는 친밀하지는 않고 서로 별로 상관하지 않는 무관심한 사이. 부부는 오로지 자식 교육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임. | |
| 학교 생활 | 학교 | 종류 | · 기숙사 | |
| | | 인종구성 | · 전교생 200명, 5%의 한국유학생이 있었고 주로 백인 70-80% 많았음. | |
| | | 외국학생지원 | · ESL 수업은 없었음. 학교 공부가 어려웠는데 그에 대한 도움을 받고 후에 선생님들한테 받았음. | |
| | | 분위기 | · 규율도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고 드레스 코드는 청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 정도이며 하지 말아야 할 교칙은 탈선 수준이었음. | |
| | 교사와의 관계 | · 학교들이 작았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방과후에 공부에 관해서 부족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학업면에서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었음 | | |
| | | 자녀의 학교생활 어려움 | · 영어가 부족하니깐 미국 학교에 학부모 간담회 등에 참석할 수 없는 부분이 어려웠음. · 아이가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교육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만족스러웠음. | |

| | | | |
|----------|--|---|---|
| 친구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인 2명, 흑인 1명,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 3명 정도와 절친했음. ·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은 없었고 오히려 기숙사에 같이 살아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음. ·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내 말을 미국 친구들이 잘 들어주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는 서로 언어의 고충을 이해하고 힘든 점을 공감하니까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음. · 주로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와 친했고 그 다음 아시아계 유학생 친구와 친했음. 서로 타지에 있다 보니 서로 더 잘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할 수 있었음. | | |
| 클럽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은 필수과목이었고 다른 클럽은 대학 진학을 위해 이력서에 넣기 위해 했음. ·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특히 운동을 통해 체력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음. | | |
| 학업성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로 읽고 쓰는 것이 어려웠으나 학업성적은 좋았음. · 한국 학교에서보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더 쉬웠고 성적이 더 좋았음. 각각의 과제들을 열심히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고, 한 과제를 망쳐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 · 영어 국어 둘다 가능 | | |
| 문화차이와 적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장벽에서 오는 문제점이 가장 어려웠고 그로 인해 미국 학생들과 온전히 소통하기는 하기는 어려웠음. 농담 같은 경우 문화적인 것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영어가 잘 이해되지 않았음. · 문화적 차이, 살아온 환경의 차이 그리고 내가 영어를 백인처럼 유창하게는 이해 못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백인 아이들과는 온전히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거나 언어적으로도 온전히 소통하는 느낌이 안 들었음. · 백인 중에서도 아시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정서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소통이 되었음. | | |
| 학교생활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실력이 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교생활을 재밌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음. · 기숙사에서 혼자 잘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혼자 잘 적응했고 다른 친구들도 혼자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랑 친해지면서 학교생활이 즐거웠고 잘 적응했음. | <p style="text-align: center;">자녀의 학교생활평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위주의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자기 개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깐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음. ·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자립심이 길러진 것 같고 부모님께 의지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졌을 것 같음. |
| 유학중 | <p>중요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에 미국에서 취업을 했더라면 귀국을 안했을지도 모르지만 직업이 미국에서 구해지지 않았음. 그러던 찰나에 8년간 유학하면서 | | |

| | | | |
|-----|---------|--|---|
| 료과정 | |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서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음. | |
| | 유학연장의지 | ·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미국에서 대학원을 갈 생각은 없었고 나중에 갈 생각은 있었음. | |
| 현재 | 취업 중 | 직장과 업무 | · 현재 다니는 서울대 대학원에 오기 전 2년 가까이 컨설팅 회사에 재직했었음. |
| | | 직장만족여부 | ·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으로서는 맞는 수준의 일이었다고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만족이 있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2년 가량 다니고 퇴사. |
| | | 본인의 역량 발휘여부 | · 역량을 발휘하는 데는 좋았음. 외국어 면에서도 그렇고 대학을 통해 배운 비판적 사고 능력이 일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음. · 처음 신입 수준에서는 여러가지 배울수 있어서 그 단계까지는 만족스러운 직업이었으나, 거기까지였음. |
| | | 취업방법 | · 아는 사람 소개를 통해 인턴을 한 후 정식 입사되었음. |
| | | 외국취업시 장벽유무 | ·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필요했으므로 유학경험이 plus로 적용했던 것 같음. |
| | 진학 | 향후계획과 달성가능성 | . |
| | | 진학만족여부 | · 국내 대학원 국제통상 전공 재학 중 |
| | | 국내입학시 전형방법 | . |
| | | 외국대학입학시 장벽유무 | ·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실 검 공부도 해보자하는 생각으로 학교에 왔는데, 학교 생활도 힘이 듬. |
| | | 향후취업계획과 달성가능성 | · 현재 다니는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향후 미국 로스쿨에 진학해서 미국 변호사가 될 계획임. 고급한국어보다 영어로 공부하는게 더 쉬운 것 같아서 한국에서 로스쿨 가는 것보다 미국 로스쿨 공부하는게 더 쉬운 것 같음. |

[사례 3]

| 분류 | 항목 | 청소년 | 항목 | 어머니 |
|----------------|--------------------|---|--|-------------|
| 인구 학적 특성 | 연령 | 만27 | 연령 | 53 |
| | 성별 | 여 | 본인 학력 | 학사 |
| | 유학기간 | 중1부터 7년 | | |
| | 유학지 | 미국 | 배우자학력 | 미국 석사 |
| | 최종학력 | 미국 학사, 심리학 | 자녀 수 | 딸 1명, 아들 1명 |
| | 부모의 경제수준 | 상 | 타자녀유학여부 | 아들 1명 |
| | 결혼여부 | 미혼 | 현지동반 거주여부 | 비동반 |
| | 현재신분 (학생,취업,기타) | 취업(외국계 헤드헌팅회사/매니지먼트와 임원비서) | | |
| 유학 평가 | 성격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발하고 쾌활→ 외로움과 스트레스로 우울증 경험. · 변화에 만족하며, 경험이 성숙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랑하고 쾌활 · 유학 당시 내향적으로 바뀌고 예민해지고 자신감을 상실. · 한국 온 후 부정적변화가 많이 회복되어 현재는 만족. | |
| | 가족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동생 1명/ 유학 중 · 유학 바로 갔다와서는 자유가 줄어 갈등이 시작됨.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조율하게 되면서 갈등이 많이 없어졌음. · 동생이 유학 전보다 잘 챙겨 주면서 더 가까워짐. · 서로의 영역과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되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와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함. 오랫동안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유학하고 돌아왔을 때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거쳐야했고 그 과정이 힘들었음. | |
| | 친구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때 만난 친구 약 10명, 그 중에서 아주 친한 사람은 3명 ·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친해짐. · 한국에선 잘 맞는 친구만 친했는데 유학 가서는 한국에서는 절대 친구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친구들과도 기숙사에서 함께 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에서 만난 고등학교 대학생 동창들 · 친구들이랑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 친구들이 인격적으로 다 좋고 그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음. ·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유학을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하다 보니 친구가 된 경우가 있음. 친구의 폭이 넓어짐. · 인간관계 능력이 향상.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과 관계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 다름에 대한 포용력이 커지고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 않았어도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유지 했을 것 같으며, 단지 유학을 갔으니깐 유학중 만난 친구들이랑 많이 친한 것 같음. · 인간관계가 좋았고 친구들의 종류가 달라졌을 뿐 관계 면에서 변화 없음. |
| 진로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계 헤드헌팅 회사에 근무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외국 교육/생활 경험이 있었던 면으로 볼 때, 유학이 영향을 미침. · 해외 관련 업무를 주로 맡거나 영어를 활용해야 되는 직무를 주로 맡곤 하며, 인턴 때도 번역 및 통역 일을 주로 하였음. · 영어 관련 업무(각종 자료 번역, 해외 출장 조정 등)를 해야 할 때 힘듦.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취직하거나 대학원으로 유학을 갔을 것 같음. · 유학을 했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것이 없으며, 그런 면에서 취업할 때나 취업한 후 불리 할 것 같음. 그러나 유학을 했기 때문에 사고의 폭이 넓어졌고, 영어 실력이 좋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 같음. · 취업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경쟁력이 떨어짐. 한국 졸업생보다 상식, 한문, 한글이 어눌하며, 인적성 검사 등 취업 준비면에서 정보도 부족 함. |
|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 국어(한자어) 실력에 한계가 있으나 영어권 원어민들과 문안하게 대화 가능. · 적응력, 포용력, 겸손하게 다양한 문화에 잘 적응하는 성격이어서 친밀해질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음. · 미국문화는 프라이버시 및 개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인 반면 한국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는 줄고, 영어실력 향상 · 문화정체성에 헛갈려하는 면이 있으며 서구적이지 않으면서도 정서적으로는 한국적이지만 문화면에서는 미국문화에 익숙해져 있음. |
| 조기유학 '성공'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 안정에 좋을 것 같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운도 따라야 하는 것 같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해가 안 된다면 유학하는 것이 좋으며, 외국어와 타문화 습득면에서 효과적. · 19살 이전에 유학가면 부모와 함께 가야하며 가치관이 정립될 시기에 부모가 함께 없으면 애들이 혼란스러워 함. |
| 향후유학선택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의 성격, 성숙도, 독립성 등을 형성하는데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 혼자 간다면 선택할 마음이 없으며, 정서적 안정과 성숙이 중요하고, 영어실력은 나중에 쌓아도 된다고 생각함. |

| | | | | |
|----------|-----------|--|--|--|
| | 전반적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야가 넓어지고 포용력이 커짐. 인간관계나 직장생활, 공부를 할 때도 도움이 되었음. · 학비가 싼 대학으로 진학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지 못한 점, 그 때 어려서 잘 몰랐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관계 및 환경에서 생활하다보니, 갈등 해결하는 능력이 길러졌고 영어실력 향상. · 영어 쓰기실력 면 등 미국식 영어를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잘 구사할 수도 있음. | |
| 유학 결정 과정 | 유학이유 | · 고등학교 진학 후 입시 중심에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어 동기 부여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유학 고려. | · 딸이 유학가겠다고 하였고, 한국 공부가 재미없고 미국에선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함. | |
| | 의사결정과정 | · 영어 회화 과외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면 잘할 것 같다고 조기유학 제안을 해 주셨고 내가 어머니에게 조기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하여 유학을 결정하게 됨. | · 아이가 고등학교 때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게 되었음. | |
| | 유학정보 | · 외국인학교에서 일하는 분으로부터 | · 외국인학교에서 일하는 분으로부터 | |
| | 가족동반여부 | · 비동반 | · 비동반 | |
| | 유학당시 향후계획 | · 구체적 계획은 없고 미국에서 학사 공부를 할 계획이었고, 졸업 후 진로는 공부를 하면서 결정하려고 하였음. | · 아직 고등학교였으니깐 미래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고 유학을 하면서 생각해본다는 계획이었음. | |
| | 유학 전 학업성적 | 학급 상위 5%안/ 기초회화 가능 | · 학업성적은 좋았으나 다른 것은 잘 모르겠음. | |
| 학교 생활 | 학교 | 종류 | · 사립 기숙학교 | 자녀의 학교생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이 가장 힘들었음. · 딸이 힘들다고 전화했을 때 정서적지지를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어려웠음. |
| | | 인종구성 | · 백인이 대부분, 한국인 약 6% | |
| | | 외국학생지원 | · ESL 수업이 있었고, 각 학생마다 상담 선생님이 있어 공부와 관련한 전반적 상담진행. | |
| | | 분위기 | · 미국 친구들이 많았으나 언어의 한계 및 문화의 차이로 한국에서 가졌던 관계에서만족 만족 할 정도는 아니었음. | |
| | 교사와의 관계 | · 선생님들이 캠퍼스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선생님 집에 놀러 가거나 함께 여행을 갈 정도로 친한 편이었고 공부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따로 약속을 하여 만나서 물어 볼 수도 있었음. | | |

| | | | | |
|--------|----------|--|--|--|
| | 친구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친구들과는 대부분 친하고(5~6명) 미국 친구는 친한 친구가 한 4명 정도 됐음. · 친구를 사귀기는 어렵지 않았으며, 미국인 친구들의 경우 한국에서 사귀 친구들과 비교해서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같이 놀면서 편하지 않을 때가 있었음. 동양권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살았던 친구들과 친해지기가 더 쉬웠음. · 룸메이트들과는 함께 여행을 가고 집에 놀러 갈 정도로 속 마음을 잘 이야기 할 정도로 친밀했으며,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음. | | |
| | 클럽활동 | ·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 하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었고 대부분 학생들이 많은 활동을 하여 학교 분위기 자체가 그랬음. | | |
| | 학업성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은 영어로 해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음. · 유학생 치고 영어를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 국어 실력은 유학생들에 비해 조금 좋고 한국인보다는 조금 떨어짐. | | |
| | 문화차이와 적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 언어의 한계로 대화를 자유자재로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 실력이 조금씩 향상 되면서 차차 나아진 것 같으나 언어에 대한 부담이 완전히 해결 되지는 못했음. ·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음. | | |
| | 학교생활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이나 발표식 수업 방식이 좋기는 했지만, 영어로 이 모든 것을 해야하니깐 오히려 토론과 발표가 스트레스 되었고, 발표하기 전에도 할 말을 모두 외워서 하는 등 남들보다 준비를 많이 해야 했음. ·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많이 참여했고, 운동이 필수 활동이었으며, 체력도 좋아지고 새로운 경험도 되었음. | 자녀의 학교생활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넓은 세상에서 한국과 다른 경험을 하기를 기대했고, 다른 종류의 교육 방식 및 학교 활동을 경험했음. · 한국에서는 운동을 좋아해도 많이 못했는데 유학하는 학교에서 운동도 많이 할 수 있었음. · 힘들고 외로울 것을 예상했었지만, 예상보다 더 힘들어했음. |
| 유학종료과정 | 종료이유 | · 대학 졸업하고 더 공부할 마음이 없었음.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있어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었고 내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음. | | |
| | 유학연장의지 | | | |
| 현재 | 취업중 | 직장과 업무 | · 외국계 헤드헌팅 회사 | |
| | | 직장만족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성에 맞지않고, 이직을 준비중. 외국계이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똑똑하신 분들이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음. · 보수는 연봉 2600만원 정도이며, 인간관계는 좋으나, 작은 회사여서 체계가 안 잡혀있음. | |
| | | 본인의 역량 | · 임원의 비서직이었으며, 유학까지 다녀와 비서직을 한다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음. | |

| | | |
|--|----------------|--|
| | 발취여부 | · 초기에는 마케팅에 관심에 있었고, 회사에서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일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기회가 별로 없었음. · 영어 면에서는 오히려 향상할 수 있었는데 이전에 알지 못한 비즈니스 이 쓰는 법을 배움. |
| | 취업방법 | · 특채로 입사했으며, 같은 대학원 졸업한 분이 직장 상사여서 도움이 되었고, 모든 인터뷰가 영어로 진행되었고 유학 생활을 통해 얻은 영어실력이 도움이 되었음. |
| | 외국취업시 장벽유무 | |
| | 향후계획과 달성가능성 | · 이직해서 대기업의 인사부에 취직하고 싶으며, 추후에는 대학원에서 심리학 더 공부하고 싶음. · 목표가 뚜렷해 어떻게 노력할지 알 것 같고, 그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사회 생활경험과 이력서 쓰는 노하우가 생겨 대기업 지원하는 것 에 대한 용기가 생겼음. |

[사례 4]

| 분류 | 항목 | 청소년 | 항목 | 어머니 |
|----------------|--------------------|----------------------------|--------------|-------|
| 인구 학적 특성 | 연령 | 29 | 연령 | 53 |
| | 성별 | 남 | 본인 학력 | 학사 |
| | 유학기간 | 총 19년(중학교 1학년~현재까지) | | |
| | 유학지 | 미국 | 배우자학력 | 학사 |
| | 최종학력 | 학사 | 자녀 수 | 1남 1녀 |
| | 부모의 경제수준 | 중 | 타자녀유학여부 | 모두유학 |
| | 결혼여부 | 미혼 | 현지동반 거주여부 | 비동반 |
| | 현재신분 (학생,취업,기타) | 학생(미국 Tufts University 치대) | | |

| | | | |
|----------|---------------|---|--|
| 유학 평가 | 성격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순하고 순종적, 남을 배려 → 자신감과 결단력, 포용력과 수용 능력, 진취적인 성격으로 변함. · 서로 다른 두 문화를 조화시켜 나만의 것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만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종적, 온순, 배려를 잘 함 → 자신감향상, 생각의 폭 증가, 긍정적 · 본인의 권유로 유학을 오게 된 것이라 적응을 잘 할지 의문이었는 데 적응을 잘 하고 성격도 긍정적인 변화가 많아 만족. |
| | 가족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모, 누나 1명, 누나 유학 했음. · 사춘기를 부모와 떨어져 보냈기 때문에 독립적이나 지금도 가끔 본인을 아이 취급을 하실 때가 있음. · 누나와 같은 도시에서 유학을 했을 때 한국에 함께 있었을 때 보다 더 가까워졌음. · 늘 아쉬운 마음은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중에도 전화로 이메일로 자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친밀했음. · 자녀 모두 유학을 보냈기에 부담이 되었음. · 가끔 만나니 마음이 더 쓰이고 좋은 영향을 주어 만남이 더 기다려졌음. · 가족이 하나가 된 느낌. |
| | 친구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 친한 친구는 한국 아이들 10명 · 사귀게 된 숫자는 비슷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못 사귄 것 같음. · 서로 겪는 일들에 대해 대화를 하며 각자가 가진 편견이나 궁금증을 많이 풀게 되었고 도와야 할 부분들을 도와가며 우정이 깊어짐. · 친구들과의 이해심과 조건 없는 우정을 볼 때 만족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유학 친구이며 같은 학교에서 기숙생활 한 친구로 돈독히 지내며 자주 만나는 친구. · 한국 친구 뿐 아니라 외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는데 한국에 있었다면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겠지만 미국처럼 다양하게 만나고 친하게 되기는 힘들었을 것 같음. |
| | 진로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을 하지 않았다면 결혼했을 것임. · 한국에서는 미술과 아동교육에 관심이 많았으나 취미일 뿐이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치대로 결정. · 진학과 진로가 확실히 결정되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없어졌고 또한 다행히 지금 하고 있는 치대 공부와 본인과 맞기 때문에 만족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학을 나와 사회 생활을 하며 결혼했을 것임. · 생각보다 좋은 성적과 활동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것. · 진로가 확실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적성파도 맞아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음. · 본인은 굉장히 만족스러움. |
| |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가 더 편하고 국어는 자유롭게 표현은 못함. · 의료 봉사 활동과 교회 활동 등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본인 또한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을 받으며 친해질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개 언어 모두 자유로이 쓸 수 있음. · 문화 수용 능력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능숙히 해냄. · 양쪽 사람과 문화 모두 편안하고 친밀하게 느끼지만 미국에서 지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화나 미국 문화 둘 다 비슷하게 친밀하고 편함. · 다른 인종과 문화를 더 존중하며 이해하려는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만족. 미국 문화는 한가지의 문화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중 문화 속에서 고유문화를 만들어 내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낸 시간이 오래다 보니 더 편한 문화는 미국 문화일 듯 함. · 고등학교를 지내면서 백인 속에서 지내다 보니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던 적이 있었는데 대학을 가면서 한국 친구들과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자녀의 변화에 대해 만족. |
| | 조기유학 '성공'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에게 가장 맞는 공부 방법과 생활에서의 만족도를 찾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유학임. · 유학을 오지 않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와 비교에서 높은 학업 성취,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삶에 만족도 등을 고려했을 때 매우 성공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준비된 계획으로 유학을 결정하고 유학을 왔을 때 유학자에게 맞는 공부 방법과 스타일을 터득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잘 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 좋은 성적과 학교생활 그리고 친구와 훌륭한 스승을 만날 수 있었고 성격이나 가족관계 등 모두 긍정적인 면으로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성공적. · 부모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자기 관리 |
| | 향후유학선택여부 | · 다시 선택, 외로움에 대해서 미리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음. | · 다시 선택 |
| | 전반적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춘기 때 배웠던 여러 가지 습관과 교사들의 조언과 지혜가 중요히 활용되고 마음에 남아 있음. · 다른 문화를 미리 경험하고 대처법을 알면 좋을 것 같고,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때 좋은 스승님께서 주셨던 도움과 말씀은 삶의 지침서로 지혜와 능력이 되어 삶을 풍성하게 한다고 함. |
| 유학 결정 과정 | 유학이유 | · 더 넓고 자유로운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 어머니의 권유와 유학다녀온 다른사람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결정. | · 편하고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추진 |
| | 의사결정과정 | · 어머니의 의견을 들었고 본인은 중립적 | · 본인의 의견이 강했고 배우자도 동의했으며 아이들의 의사도 반영 |
| | 유학정보 | · 주변의 다른 조기 유학생과 가디언으로부터 | · 주변의 다른 조기유학생 |
| | 가족동반여부 | · 혼자 기숙생활 | · 비동반 |
| | 유학당시 향후계획 | · 원하는 전공, 직업을 찾겠다는 계획 이외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었음. | · 특별한 계획은 없었고 아들에게 맞는 전공을 찾았으면 하는 계획 |

| | | | | | |
|----------|---|--|--|--------------|--|
| | 유학 전 학업성적과 가족관계 | · 중간 정도/ 외국인과의 자유롭게 대화하는 수준 | · 반에서중위권/외국인과 회화를 하고 있어서 실력이 좋았음 · 부모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누나와도 유학에 대해 나누며 유학 후에는 더욱 돈독해짐. 부부관계는 좋은 편이다. | | |
| 학교 생활 | 학교 | 종류 | · 사립기숙학교 | 자녀의 학교생활 어려움 | · 환경이 달라졌으니 공부를 편하게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고 기대와 같았음. · 학생을 성적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태도나 습관 그리고 행동 또한 수업 자세나 태도 숙제 등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았음. |
| | | 인종구성 | · 백인들이 많았으며 흑인들과 아시안 10-15% 그 중 한국 학생은 20명 정도였음. | | |
| | | 외국학생지원 | · ESL 은 없었지만 교사의 조언과 상담이 있었음. | | |
| | | 분위기 | ·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학교분위기와 엄격한 학교분위기 밸런스가 잘 맞았음. | | |
| | 교사와의 관계 | · 수업 후에도 선생님들이 외국인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분위기. · 운동 코치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제자와 스승과의 각별할 사이가 되고 졸업 후에는 본인의 멘토가 될 정도로 정말 기대하지 않았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었음. | | | |
| | 친구관계 | · 유학 생활을 하며 가장 친한 친구를 얻었음. · 백인이 다수인 학교라 미국 학생들을 많이 알고 있었으나 마음이 통한 학생들은 외국생활과 문화(음식, 언어)라는 공통점이 있어 동양인이음. | | | |
| | 클럽활동 | · 학교에서 클럽활동을 요구했고 하다 보니 재미있고 스트레스도 풀렸음. ·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맥이 사회성이 늘어나게 했음. | | | |
| 학업성적 | · 과학과 수학은 상위권이었지만 인문과목(역사, 문학,등)은 힘들었으며, 영작이 힘들고 자신이 없었음. · 고등학교 조차 진학하기 힘든 성적이었는데 오히려 미국에 와서 좋은 성적을 받고 대학도 좋은 곳으로 진학 할 수 있었음. · 모든 교사들이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고 본인에게 맞는 교육법을 제공해 주어서 학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붙었음. · 영작 하는 방법을 터득 후 성적도 잘 나오게 되었음. ·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할 정도로 향상되었지만 한국말에 대해선 친구들이 좀 이상하다고 평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감. | | | | |
| 문화차이와 적응 | · 백인과 타 민족 아이들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멋있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가라는 생각을 하였음. · 캠퍼스 생활이 작은 사회였기 때문에 사소한 마찰 때문에 생활이 쉽지는 않았으나 코치와 상담 속에 나아졌고 적응하게 되었음. | | | | |

| | | | | |
|------------|--------|---|--|--|
| | | · 인간관계는 힘들었지만 부딪치고 겪어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방법을 터득하며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함. | | |
| | 학교생활평가 | · 학교공부에만 충실해도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전반적으로 노력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였음. · 교육 환경이 수업 시간에만 제한 된 것이 아닌 삶의 터전과 여가 시간을 통해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본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었고 새로운 기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었음. | 자녀의 학교생활평가 | · 유학자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어렵고 힘들 때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잘 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 좋은 성적과 학교 생활 그리고 친구와 훌륭한 스승을 만날 수 있었고 성격이나 가족관계 등 모두 긍정적인 면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음. |
| 유학종 료과정 | 종료이유 | | | |
| | 유학연장의지 | | | |
| 현재 | 진학 | 진학만족여부 | · 치대 재학 중이며 고유의 취향을 가지고 전공을 살릴 수 있어서 만족. | |
| | | 국내입학시 전형방법 | | |
| | | 외국대학입학 시 장벽유무 | · 유학 비자로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학비가 시민권자들에게 더 유리해 경제적인 부담이 불리한 점. | |
| | | 향후취업계획 과 달성가능성 | · 치대 졸업 후 병원 개업을 할 계획인데 한국에서 할 지 미국에서 할 지 아직 결정은 못함. | |

[사례 5]

| 분류 | 항목 | 청소년 | 항목 | 어머니 |
|----------------|--------------------|--|--|-----------|
| 인구 학적 특성 | 연령 | 28세 | 연령 | 55 |
| | 성별 | 남 | 본인 학력 | 학사 |
| | 유학기간 | 총 14년(중학교 1~) | | |
| | 유학지 | 캐나다 | 배우자학력 | 석사 |
| | 최종학력 | 학사 | 자녀 수 | 2남 1녀 |
| | 부모의 경제수준 | 상중 | 타자녀유학여부 | 모두 유학 |
| | 결혼여부 | | 현지동반 거주여부 | 초기 1년은 동반 |
| | 현재신분 (학생,취업,기타) | 학생(캐나다 토론토대학교 고대근동학전공) | | |
| 유학 평가 | 성격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성적이면서 꼼꼼함→독립심, 스트레스가 줄어들음. · 내성적인 성격이 불만족이지만 성격의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만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성적→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등 많이 밝아짐. · 배려가 많아지고 성격이 부드러워 조금함이 생김. | |
| | 가족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누나 1명, 남동생 1명 ·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긴 만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짐. · 동생이 남자라 가장 친했고 부모님과과의 관계는 자녀들을 위해 희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만큼 못 한 것 같아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음. · 가족들과의 의논 시간이 적어서 서로 챙겨는 주지만 깊은 대화는 어색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밀하고 서로 이해하고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 하려고 애씀. · 큰 아들은 모든 가족과의 관계가 좋고 아무래도 장남이다 보니 가족에 대한 책임과 약간은 부담의식도 있는 것 같음. · 자주 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해 아쉬운 점들이 있음. | |
| | 친구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에서 대학시절 만난 친구, 한국학생임. · 세 명 정도이고 그 중 두 명은 유학 전부터 한국에서 알던 친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유학 과정에 만난 한국 유학생과 아시안계 친구들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나머지 한 명은 캐나다에서 만난 친구임. ·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있어서 문화 차이와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 때에 친구들로 여전히 가깝고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임. · 모두들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로 만족. |
| 진로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전에 전공과는 완전 다른 과목(역사)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교양 과목으로 공부할 때 점수를 좋게 받아서 조금씩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음. · 흥미로운 과목을 자세히 공부하며 연구하며 전반적으로 재미있게 공부했기 때문에 만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는 잘 갔을 것이고 졸업 후에는 사회생활을 했을 것 같음. ·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공부를 즐기고 교수와의 관계도 좋음. |
|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쪽 언어 가능 ·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마음이 필요 한데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친해지기는 힘들 것 같음. ·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문화가 더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문화가 더 친밀하고 편안함. ·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고 관계에 무게를 실게 되 어 더 친밀해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쪽 언어 가능 ·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끈기로 함께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 들은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듬. · 한국문화, 한국 사람 그리고 한국 음식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음. 아무리 유학을 하고 외국 생활이 편하고 좋다고 해도 본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 같음. |
| 조기유학 '성공'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자기가 목표한 한길로 꾸준히 가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유학을 시작하는 것. 그렇지 못할 경우 경제적으로나 시간 적으로 많이 낭비하게 됨. · 어느 정도의 통제와 또 충고나 조언(자유로운 환경에서의 통제 -부모님, 교회 어른 등)을 할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학업과 삶에 임하는 것. · 부모의 기도와 믿음. 그리고 좋은 환경과 스승 및 친구. |
| 향후유학선택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 안함. |
| 전반적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본인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 해하려는 마음이 생김. ·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다하면서 멀리 보지 못하고 미래 에 대해 잘 준비하지 못한 것이 후회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람들을 더 많이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

| | | | | | |
|----------|--|--|--|--------------|---|
| 유학 결정 과정 | 유학이유 | · 여행 갔다가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지고 엄격한 규율과 처벌이 한국 학교와 교육 방식이 싫었음. | · 더 넓고 자유로운 곳에서 공부를 즐기면서 하고 싶은 자녀들이 원했음. | | |
| | 의사결정과정 | · 본인이 원했음. | · 본인이 원했음. | | |
| | 유학정보 | · 캐나다로 가족 여행을 왔다가 모든 것을 결정함. | · 캐나다에 살고 있는 친척으로부터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받음. | | |
| | 가족동반여부 | · 첫 해는 어머니, 누나, 남동생이 왔으며 1년 후 어머니만 귀국하시고 고등학교부터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음. | · 처음 1년은 본인과 함께 지냈음. | | |
| | 유학당시 향후계획 | · 한국의 교육 방식이나 학교 생활이 맘에 들지 않아 유학을 결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계획이 없었음. | · 더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라는 자녀들을 믿었고, 엄마로서 특별한 계획은 없었음. | | |
| | 유학 전 학업성적과 가족관계 | · 반에서 5등 이내 /중학생 치고는 꽤 잘 하는 편이었음. | · 반에서 5등에서 10등 사이/ 영어를 좋아해 꽤 잘했음. ·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늘 잘했고 남매들끼리는 재미있게 잘 지내으며, 부부관계 또한 서로의 일이 다르고 바쁘지만 가깝고 좋은 편임. | | |
| 학교 생활 | 학교 | 종류 | · 사립기숙학교 | 자녀의 학교생활 어려움 | · 자녀들의 사춘기를 어떻게 다뤄야 할 지 몰라 애를 먹은 적이 있음. |
| | | 인종구성 | · 백인이 95%였으며 한인은 본인 혼자 | | |
| | | 외국학생지원 | · ESL은 없었고 상담은 있었으나 도움받지 않았음. | | |
| | | 분위기 | ·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분위기. | | |
| | 교사와의 관계 | · 교사와는 관계가 무척 좋았는데 그 이유는 본인도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가 이야기도 하고 학업에 대한 관심도 표현했지만 선생님들도 굉장히 잘해주셨기 때문. · 백인 학생들이 교사와 맞는 관계보다는 아무래도 언어 때문에 부족했으나 전반적으로 모든 선생님들과 친했음. | | | |
| | 친구관계 | · 친구가 많이 있었지만 소심한 성격상 깊이 사귀지는 않았고 한국 교회를 다녔지만 또래 친구가 없어 약간의 우울증도 겪기도 함. | | | |
| 클럽활동 | · 모든 학생들이 시즌마다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했으나 흥미로웠기 때문에 더 많은 클럽활동을 했음. · 클럽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며 또한 친구도 사귀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많이 즐겼음. | | | | |
| 학업성적 | · 반에서 거의 top을 유지함. 학교 취침시간인10시 이후 몰래 공부하면서 성적 유지했지만 영어와 역사는 아무리 해도 힘이 들었음.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전이나 후나 상위권 유지, 수학/과학 성적은 좋았으나 영어/역사는 중간을 유지. · 국어에 더 자신 있음. | | |
| | 문화차이와 적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반에는 개인주의가 적응이 되지 않아 충격이었지만 자연스레 백인 친구들과 놀며 익숙해짐. · 거의 모든 학생이 백인이라 놀랐음. 느끼한 음식, 토론식 수업 방식이 적응하기 어려웠음. | | |
| | 학교생활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적으로는 자유로운 교육 방식을 기대 · 학교에 대한 자부심(유학 당시는 교복이 학교의 자랑이 됨) | <p>자녀의 학교생활평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넓은 세계에서 공부하는 기대를 했고 공부도 꽤 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 달리 공부량이 적었음. |
| 유학종료과정 | 종료이유 | · | | |
| | 유학연장의지 | · | | |
| 현재 | 진학 | 진학만족여부 | · 공부가 재미있고,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소명에 연관하며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 | |
| | | 국내입학시 전형방법 | · | |
| | | 외국대학입학시 장벽유무 | · 캐나다라 비자를 받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과 졸업 후 편한 사회생활을 하였음. | |
| | | 향후취업계획과 달성가능성 | · 박사 학위를 받아 교수를 하고 싶음. | |

[사례 6]

| 분류 | 항목 | 청소년 | 항목 | 어머니 |
|----------------|--------------------|--|--|--------|
| 인구 학적 특성 | 연령 | 28 | 연령 | 54 |
| | 성별 | 여 | 본인 학력 | 학사 |
| | 유학기간 | 총 11년(고등학교1학년~대학교) | | |
| | 유학지 | 캐나다, 미국 | 배우자학력 | 학사 |
| | 최종학력 | 학사 | 자녀 수 | 1남 2녀 |
| | 부모의 경제수준 | 중상 | 타자녀유학여부 | 1녀만 유학 |
| | 결혼여부 | 미혼 | 현지동반 거주여부 | 비동반 |
| | 현재신분 (학생,취업,기타) | 무직 | | |
| 유학 평가 | 성격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고 유쾌한 성격→우울하고 눈치도 많이 보게 되었고 자신감 상실, 의존적 · 변해버린 본인의 모습을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때 오랜 유학생활의 폐해란 생각을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고 유쾌하고 명랑→우울해졌고 영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신감도 잃게 되었음. · 혼자 알아서 뭐든지 잘하는 독립적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 유학 전에는 꽤 명랑하고 밝고 자신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다시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
| | 가족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언니 1, 오빠 1 · 멀어진 느낌이 들며 가족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본인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얘기하지 않을 때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생김. · 어떤 부분에서는 서먹해졌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함께 있었을 때는 가까웠던 언니 오빠와의 사이가 좀 멀어졌고 부모님과도 자주 만날 수 없다 보니 좋은 소식만 전해야 한다는 느낌에 속마음을 다 표현 못 하고 넘어간 적이 있음. · 딸이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나타나다 보니 모든 것을 나누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서먹하게 됨. | |
| | 친구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하면서 만난 한국친구들이 있는데 대략 10명 정도 · 외국 생활 하면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할 때 옆에서 있어주었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한국 유학생들이며 이름은 알고 있음. · 친구의 숫자는 적지만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사귀었다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 비슷한 고민을 하였기 때문에 더 잘 통합. 한국친구들과 멀어지게 된 측면도 있고, 많은 친구들을 다양하게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 사귀는데 서툴게 된 측면이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는 기회를 주었음. |
| | 진로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게 된 것 자체가 기회였고 좋은 결과였음. ·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취업할 때 도움이 되지만 한국에 인맥이 없기 때문에 사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으로 인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길이 열리게 되었음. ·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었고 앞으로도 언어를 잘 해 놓은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함. |
| |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능력은 시간이 갈수록 매우 쇠퇴 · 사람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해 어느 정도는 친해질 수 있지만 서양권문화가 아니면 조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함. · 그들이 원한다면 친해질 수는 있겠지만 본인에게 그들과 친해질 능력은 없다고 생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는 점점 어려워하지만 한국어 영어 꽤나 자유로이 사용 · 언어와 문화 수용 능력 그리고 적응 능력. 어느 정도 능력은 갖추었지만 살긴 힘들 것 같음. · 유학 전 성격과 후 많이 변했고 바뀌었지만 다른 문화를 접하고 수용하게 되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충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 | 조기유학 '성공'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시기가 분명해야 하며 당사자의 의욕 있어야 하고 또한 유학을 가야 하는 필요성을 알아야 함. · 부모님과 충분한 상담도 중요하고 부모님과의 의견 일치 있을 때에 성공적인 유학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자녀와 끊임없는 대화와 관심이 필요 함. · 가능 하다면 부모님과 동반 유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의사가 의지가 중요하고 부모의 의견 또한 중요 · 유학을 온 목적 그리고 방향성 또한 뚜렷함이 필요하고 부모 중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동반 거주가 필요함. · 딸의 의사로 갔지만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고 정말 딸에게 유학이 맞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 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유학을 결정하기 전에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유학자의 성격과 상황 분석등이 필요함. |
| | 향후유학선택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안함 |
| | 전반적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를 잘하게 되었고 외국생활을 익숙히 잘해낼 수 있음. · 독립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스스로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에 대한 자신감으로 성격도 다시 자신감 있게 바뀌었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 능력과 책임감이 생김. |
| 유학 결정 | 유학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분위기인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준비가 힘들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유학을 보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되었음. |

| | | | | | |
|---------|--|--|--|--------------|---|
| 과정 | 의사결정과정 | · 스스로 가고 싶어서 혼자 결정하고 준비했고 부모님이 동의하셨음. | · 딸 아이의 의사가 강했고 아이의 의사를 존중 | | |
| | 유학정보 | · 유학박람회 참석하여 현지에서 온 학교장들을 만나보고 지원 | · 유학박람회서 현지 학교장들을 만나며 학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 | | |
| | 가족동반여부 | · 비동반 | · 비동반 | | |
| | 유학당시 향후계획 | · 공부를 마치고도 계속 외국에서 살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유학 결정 당시 이민을 염두해 두고 있었음. | · 일단 공부를 마치고 직장 생활도 미국에서 할 것을 계획했었음. | | |
| | 유학 전 학업성과 가족관계 | · 반에서 10등에서 15등 사이/전혀 못했음. | · 반에서 10등에서 15 등 사이/간단한 회화도 힘들어 하는 실력 · 막내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으며, 부부관계도 좋았음. | | |
| 학교 생활 | 학교 | 종류 | · 사립기독교학교 | 자녀의 학교생활 어려움 | · 혼자 집을 떠나 잘 하고 있을 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았으나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잘 처리는 딸을 믿었음. |
| | | 인종구성 | · 백인이 다수였고 아시안 학생들은 전체의 7%정도였고 한국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10명 이내였음. | | |
| | | 외국학생지원 | · ESL 과 교내 상담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음. | | |
| | | 분위기 | · 꼭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했지만 학교 분위기는 자유로웠음. | | |
| 교사와의 관계 | · 엄격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친절히 해주려 하는 분위기가 적절히 조화가 잘 된 것 같아서 선생님들에게 친근함도 느끼면서 동시에 어려움도 느끼기 때문에 버릇없이 굴 수 없었음. | | | | |
| 친구관계 | · 많이 사귀진 않았는데 동양인이 백인에게 접근하기 쉽지 않았고 그들도 본인과 친해지려 하지 않았음. 영어가 좀 더 유창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아시아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한국유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한국친구들과는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어려울 땐 서로 도와주고 또 기쁠 땐 같이 웃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친했음. | | | | |
| 클럽활동 | ·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했고,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교회를 안 가면 처벌받았기 때문에 다녔음. · 취미나 대학 가는 데에 도움이 되었고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영어도 편해졌음. · 여러 아이들과 접하는 것이 언어 때문에 힘들었지만 클럽활동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을 배웠음. | | | | |

| | | | | |
|--------|----------|--|---|---|
| | 학업성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를 못하는 것과 한국과 다른 학교 시스템이 힘들었음. 한국에선 작문숙제를 전혀 해보지 않아 어려웠고 객관식 시험이 거의 없었던 것도 인상 깊었음. · 영어와 국어 둘 다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둘 다 자신 없음. | | |
| | 문화차이와 적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지만 기쁘게 받아들였고 덕분에 문화적 이질감 때문에 느끼는 스트레스는 거의 없었음. · 아이들이 교내에서 키스하는 자체가 큰 문화충격이었고 파트너와 함께 참가하는 졸업파티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음. | | |
| | 학교생활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연한 기대와 멋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 환상 또한 있었고 한국의 대학 같은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공부 또한 즐기면서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음. · 처음 유학을 갔을 때는 영어의 아주 기본만 알고 갔는데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영어 구사함. | <p>자녀의 학교생활평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가 없고 부담이 없는 학교생활. 그러나 기독교 사립학교이다 보니 생각보다 규칙이 많았고 까다로웠음. |
| 유학종료과정 | 종료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 번역 분야는 박사 과정이 필요 없고 빨리 직장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모두 직장을 알아보았지만 한국에서 먼저 연락이 와 종료하게 되었음. | | |
| | 유학연장의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 남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음. | | |
| 현재 | 기타 | 현재하는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은 조금 쉬면서 여행을 하고 있음. | |
| | | 무직 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을 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쉬어야만 했음. | |
| | | 당면한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이 갑자기 좋지 않게 되어 일을 쉬게 된 것. 유학을 위해 집을 떠나와 나누지 못한 부모와의 시간을 채우고 싶은 것과 다시 미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상반되어 나타남. | |
| | | 향후계획과 달성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의 직장처럼 본인의 능력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 | |

[사례 7]

| 분류 | 항목 | 청소년 | 항목 | 어머니 |
|--------------------|---|--|---|-----|
| 인구 학적 특성 | 연령 | 21 | 연령 | 52 |
| | 성별 | 여 | 본인 학력 | 학사 |
| | 유학기간 | 총 6년 | | |
| | 유학지 | 미국 | 배우자학력 | 학사 |
| | 최종학력 | 학사 | 자녀 수 | 1녀 |
| | 부모의 경제수준 | 중상 | 타자녀유학여부 | |
| | 결혼여부 | | 현지동반 거주여부 | 비동반 |
| 현재신분 (학생,취업,기타) | 학생(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Graphic design) | | | |
| 유학 평가 | 성격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고 명랑→사람을 의심하고 소심해짐. · 어른스러워졌고 성숙해졌으며 뭐든지 열심히 하는 성격으로 변함. ·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쉽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고 명랑한 성격→자신감이 많아지고 생각이나 남을 배려하는 것에 있어서 어른스러워졌음. · 유학 전에는 모든 것을 엄마와 상의하고 의논하였는데 유학을 하면서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면이 생김. | |
| | 가족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외동 딸 · 서로의 소중함을 더 아는 듯했으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힘들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의 삶에 충실한 가족이었고 딸이 떠나고는 더 각자의 삶이 되었음. · 떨어져 있다 보니 더 소중했고 가끔씩 만날 때면 많은 것을 나누며 세 식구가 하나로 친밀해짐을 느낄 수 있었음. | |
| | 친구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전 한국친구, 유학시 사귀 한국친구, 백인 친구 정도로 약 10명 정도 · 미국 와서 사귀 아주 친한 한국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같고 교회도 같이 다녔기 때문에 친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전에 만난 친구와 유학 후에 만난 한국친구 그리고 백인 친구가 있음. · 지금의 친구 보다는 적은 수이겠지만 좀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음. | |

| | | | |
|----------|---------------|--|--|
| | 진로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도 비슷한 전공을 가지고 한국 대학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뭔가 계속 아쉽고 답답했을 것 같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은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공부했을 것 같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음. ·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찾아 자유로운 환경에서 즐기며 공부를 하고 있음. |
| |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실력은 저하되고 영어는 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로 자유로이 사용 ·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다 친해 질 수 있다 생각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실력은 줄어든 것 같지만 영어는 점점 늘고 있음. · 일단 언어적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은데 영어가 되니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어울려 사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임. · 다른 사람과도 어렵지 않게 친할 수 있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 |
| | 조기유학 '성공'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단력이 설만한 나이에 조기유학 하는 것 / 조기유학 전에 영어 집중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자녀와의 뜻이 하나로 유학의 목적을 이루고 결과에 만족하는 것 · 부모와도 많은 얘기를 나누며 또한 자신의 전공을 찾고 전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유학을 오기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영어에 대한 준비와 가족들의 지지가 필요 함. |
| | 향후유학선택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선택 |
| | 전반적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감, 일하는데 있어서 폭을 쉽게 넓힐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자신감과 책임감이 생겼으며 긍정적인 사고로 모든 것에 열심히 하려는 자세 |
| 유학 결정 과정 | 유학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 본인의 마음과 또한 딸의 의사로 인해 |
| | 의사결정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과 상의 후 결정하였고 본인은 매우 긍정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의 의사가 강했고 딸 또한 유학을 원했는지 좋아했고 배우자는 혼자 보내는 것을 걱정했지만 딸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개인적인 희망은 접었음. |
| | 유학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원 |
| | 가족동반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동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동반 |

| | | | | | |
|----------|--|--|---|-----------------|---|
| | 유학당시 향후계획 | · 졸업을 하고 대학에 입학한 후 미국에서 취업할 계획 | · 미국에서 미술 전공으로 대학을 나오는 것. | | |
| | 유학 전 학업성적과 가족관계 | · 반에서 10등 정도/ 영어는 간단한 회화 정도 | · 중상/단어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회화는 간단하게 할 수 있었음. · 세 가족이다 보니 친밀하고 가까웠음. | | |
| 학교 생활 | 학 교 | 종류 | · 사립기숙사학교 | 자녀의 학교생활 어려움 | · 자녀가 여자아이라 걱정이 되었지만 기숙사 분위기가 좋고 또한 교사들이 학생 하나하나를 신경 써 주고 보살펴 주어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음. |
| | | 인종구성 | · 백인들이 80% 정도로 많았고 나머지는 유럽계와 아시안계 학생 | | |
| | | 외국학생지원 | · ESL 은 제공되었고 상담도 받을 수 있었음. | | |
| | | 분위기 | · 출석에는 엄격하지만 너무나도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 | | |
| | 교사와의 관계 | · 1대 1 분위기로 외국인 학생을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고 도와주는 분위기였음. · 본인이 하는 미술과 같은 스타일이신 선생님은 친하고 잘 맞았던 것 같지만 힘들게 했던 교수님은 모 아니면 도로 평가해주는 선생님으로 스타일이 다르다고 이해 못해주는 분들이셨음. | | | |
| | 친구관계 | · 많이 사귀었으나 다른 나라 친구들과 대화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가끔 의문이 들기도 함. · 백인, 한국유학생, 아시아친구 등으로 여러 문화의 친구들을 만나며 발을 넓혀 갔음. ·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가 다 다르겠지만 어느 나라에서 왔던지 상관없이 생각이 같아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음. | | | |
| | 클럽활동 | · 대학을 가려면 필요해서 했고 교회는 이왕 하는 미국생활과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 했음. · 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친해질 수 있었고 리더십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교회에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알게 돼 어려울 때 심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음. | | | |
| 학업성적 | · 한국에서 보다는 좋은 편이었고 초반에는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버틸 수는 있었음. ·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별 어려움 없이 대화할 수 있어 편안하고 언어는 계속하여 향상되고 있음. · 자신이 있지는 않지만 두 개 국어 모두 편안히 쓸 수 있음. | | | | |
| 문화차이와 적응 | · 유학을 원했기 때문에 학교에 처음 갔을 때는 드디어 왔다는 생각에 기뻐고 본인이 멋있게 생각되었음. · 그냥 미국사람들은 사고 방식이 본인과 다르다고 생각한 본인만의 고정관념. · 발표력 위주의 수업 방식과 자유 분방한 학교 생활에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차차 이해하며 적응해 나갔음. | | | | |

| | | | | |
|--------|--------|---|---|--|
| | 학교생활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움과 평화로움 속에 느낄 수 있는 여유. 그로 인해 공부도 즐겁게 할 수 있었음. · 미국도 학업에 관심이나 열정이 많고 또한 선생님들도 학생에게 은근히 주는 압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생각과는 많이 달랐음. · 인맥(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 생각보다 빠르게 입이 열리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되었음. | <p>자녀의 학교생활평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게 한국처럼 예술도 하고 공부도 해서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정말 잘하고 재능 있는 부분을 키워주었음. |
| 유학종료과정 | 종료이유 | · | | |
| | 유학연장의지 | · | | |
| 현재 | 진학 | 진학만족여부 | · 원하는 전공이 있는 학교라 만족하지만 조금 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음. | |
| | | 국내입학시 전형방법 | · 외국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생활 가능. | |
| | | 외국대학입학시 장벽유무 | ·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신청에 한정되어 있어 불리 함. | |
| | | 향후취업계획과 달성가능성 | · 디자인 관련 회사에서 미국에서 약간 경험을 쌓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일을 하고 싶음. | |

[사례 8]

| 분류 | 항목 | 청소년 | 항목 | 어머니 |
|----------------|--------------------|---|--|-------|
| 인구 학적 특성 | 연령 | 32 | 연령 | 57 |
| | 성별 | 남 | 본인 학력 | |
| | 유학기간 | 총 9년(중학교 졸업 ~ 대학교) | | |
| | 유학지 | 미국 | 배우자학력 | |
| | 최종학력 | 학사 | 자녀 수 | 2남 1녀 |
| | 부모의 경제수준 | 중상 | 타자녀유학여부 | |
| | 결혼여부 | 기혼 | 현지동반 거주여부 | 비동반 |
| | 현재신분 (학생,취업,기타) | 취업(IT 관련 업종) | | |
| 유학 평가 | 성격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성적→긍정적, 자신감증가 · 자기 자신을 우선으로 챙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성적→밝고 적극적, 자신감 증가 · 이기적인 면이 생겼음. | |
| | 가족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이 생겼고 애뜻함과 표현도 많이 하게 되었음. · 혼자서 개인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 누가 관섭하고 내 일에 신경 쓰는 것이 싫어서 그런지 가족과 잘 융합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에 대한 애뜻함과 더 큰 믿음이 생겼음. · 만날 때는 더욱 반갑고 기쁘고 헤어질 때는 아쉬웠고 부모가 늘 사이가 좋고 편한 것이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음. | |
| | 친구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관계는 좀 더 다양해 졌으며 유학생끼리의 사이도 지속적이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 · 외국학교에 같은 처지에 있던 한국학생들끼리의 관계를 매우 특별했으며 지금까지도 편하게 연락하고 만남. · 한국에서의 사회 활동에는 인맥이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나라 문화권의 아이들과 또한 한국에서 유학 온 여러 부류의 친구들까지 친구가 되어 더 많은 친구를 얻고 그 중 몇몇은 거의 형제에 가까운 관계가 되어 사람을 얻는 동시에 리더로서의 자질도 함께 얻게 되었음. · 여러 다양한 부류의 친구들을 만나고 사귀게 된 점이고 서로 도 | |

| | | | |
|----------|---------------|---|--|
| | | | 움을 줄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도와주는 그런 관계임. |
| | 진로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국제적인 시선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어느 한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찾는 다는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좀 더 글로벌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실질적으로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 하고 있음. |
| |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을 통하여 국제적인 시각이 생기기도 세계를 상대로 어떠한 나라의 사람과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영어 실적을 갖추었음. · 글로벌 역량은 갖추었으나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중학교 이후의 한국어 사용 단어로 인하여 어려운 단어를 구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
| | 조기유학 '성공'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심을 키우며 영어 구사능력을 극대화 하여 선진국의 매너와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성공적인 유학생활에서 얻을 수 있음. ·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고 어려서 혼자의 생활로 인하여 소중한 것에 대한 부분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음. · 본인이 얼마만큼 유학을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부모님이 체계적으로 자식에게 맞는 학교 선택 및 환경을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하여야 조기 유학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의 결과에 대해 본인이 어떠한 상황이던지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원해서 간 유학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모든 행동과 말에 부모가 강제적으로 유학을 보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갔다는 것을 각인 시켜서 추후에 부모가 원망을 사지 않도록 하였음. ·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학교 및 생활여건)하며 이후 본인의 의지가 얼마만큼 강한지가 중요함. |
| | 향후유학선택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선택 |
| | 전반적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자립심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젊은 나이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보다는 나은 삶 또는 넓은 세상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기에 뭐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참여함. |
| 유학 결정 과정 | 유학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다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들이 적극적으로 원했음. |
| | 의사결정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가고 싶어서 2년간 부모님을 설득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였고 배우자가 최종 결정을 하였음. |
| | 유학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원 |

| | | | | | |
|----------|--------------------------|---|--|-----------------|---|
| | 가족동반여부 | ·비동반 | ·비동반 | | |
| | 유학당시 향후계획 | ·영어를 배우고 원하는 전공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였음. | ·자기 인생 열심히 살고 앞으로 유산보다는 넓은 세상에서 넓은 시야를 갖기를 원했음. | | |
| | 유학 전 학업성과 가족관계 | ·중상/ 단어를 많이 알며, 기본적인 회화수준 | ·반에서 상위/회화는 중급 | | |
| 학교 생활 | 학 교 | 종류 | ·사립학교 | 자녀의 학교생활 어려움 | ·아들이 아플 때 돌봐줄 수가 없었고 자식을 100% 믿고 알아서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전 화상으로 조언 정도는 해주었음. |
| | | 인종구성 | ·전교생 1000명(백인, 흑인 골고루 분포)에 한국학생 60명 정도였 으며 아시아계통이 많았음. | | |
| | | 외국학생지원 | ·ESL 코스 및 외국 학생 전담 상담 선생님 | | |
| | | 분위기 | ·민주적이고 자유로웠음. | | |
| | 교사와의 관계 | ·선생님들이 외국인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분위기였음. | | | |
| | 친구관계 | ·백인, 한국, 아시아, 흑인 친구 가리지 않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친하게 지냈음.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멀리 있는 친구들은 이메일을 자주 주고 받으며 또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적인 모임도 갖고 운동도 같이 하며 자주 만나는 편임. ·마약과 비행을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음. | | | |
| | 클럽활동 | ·평소 운동을 좋아하고 팀 스포츠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대학 갈 때 많은 장점으로 쓰이게 되었음. ·항상 친구들과 함께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타 학교와의 원정 경기를 통하여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음. | | | |
| | 학업성적 | ·공부에 크게 연연하지 않되 수업은 절대로 빠지지 않고 즐기면서 학교 생활을 하였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지만 숙제는 꼭 해가는 학생이었음. ·영어 실력은 정말 많이 향상되었다고 어떠한 외국인을 만나도 영어로 자신 있게 대화 할 수 있음. ·국어와 영어 모두 자신이 있음. | | | |
| | 문화차이와 적응 | ·영어로 수업을 듣고 미국친구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는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었음. ·영어를 100%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답답함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음. | | | |
| 학교생활평가 | ·학교생활은 기대했던 바와 같아 만족스러움. | 자녀의 | ·한국보다는 자유롭고 학생 개개인을 더 키워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과 떨어져 유학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웠음. · 학교에서 개개인의 학생을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모든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 달랐음. | 학교생활평가 | 주는 것을 기대했고 또한 운동이나 다른 예술 활동 등 공부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아이들을 전인격 적으로 가르칠 것 같은 것을 기대했고 모두 기대와 같았음. |
| 유학종료과정 | 종료이유 | . | | |
| | 유학연장의지 | ·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었고 끝났기 때문에 종료하였고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학원에 진학하려 했으나 한국에 직장이 바로 되어 종료함. | | |
| 현재 | 취업중 | 직장과 업무 | · IT 관련 업무 | |
| | | 직장만족여부 | ·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외국과의 비즈니스를 구상 중에 있음. ·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그 상품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에 매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음. | |
| | | 본인의 역량 발휘여부 | · 영어를 통하여 해외 업체들과의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음. | |
| | | 취업방법 | · 공채를 통하기도 하고 아는 사람 소개도 받았음. | |
| | | 외국취업시장벽유무 | . | |
| | | 향후계획과 달성가능성 | ·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 달성 가능성은 100% 라고 생각함. | |

[사례 9]

| 분류 | 항목 | 청소년 | 항목 | 어머니 |
|--------------------|---------------------------|--|---|-------|
| 인구 학적 특성 | 연령 | 만 20 | 연령 | 45세 |
| | 성별 | 남 | 본인 학력 | 석사 |
| | 유학기간 | 총 6년(중학교 2학년~) | | |
| | 유학지 | 미국 | 배우자학력 | 학사 |
| | 최종학력 | 학사 | 자녀 수 | 2명 |
| | 부모의 경제수준 | | 타자녀유학여부 | 모두 유학 |
| | 결혼여부 | | 현지동반 거주여부 | 동반 |
| 현재신분 (학생,취업,기타) | 학생(미국 Cooper Union, 건축전공) | | | |
| 유학 평가 | 성격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성적이면서 조용함→자유롭고 게을러 짐. · 다양한 시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성적→자신의 의견을 표현 · 청소년기를 외국에서 보내기 때문에 자국의 또래들의 정서적, 문화적인 면을 습득하기 어려워 문화적 혼돈기를 겪고 있음. | |
| | 가족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모, 여동생 1명 · 서로를 더 챙겨주고 이해하게 되었지만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역할에 영향을 끼쳤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이 되는 대로 가족이 같이 있으려고 노력함. ·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자기 개발, 자유로운 생각 등)이 많았음. | |
| | 친구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하다고 느끼는 친구는 많으나, 특정 그룹으로 묶을 수 없음. · 학교에서 만나게 되었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한 서로 도우면서 친하게 되었음. ·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서로 잘 맞고 마음도 잘 나누어서 만족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유학을 온 친구들로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친구들임. ·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생각보다 친구들을 폭넓게 사귀지 못하였음. · 한국에서 또래 친구가 없음. | |
| | 진로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과 진로가 정해졌고 원하던 대학이나 분야가 없다가 유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처럼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 | |

| | | | |
|----------|-----------------|--|---|
| | | 을 와서 확실히 알게 되었음. | 을 것 같고 본인이 좋아하는 진로보다는 일류대학에 목표를 두는 교육에 열중했을 것이라 생각됨. |
| |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영어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서로 이해하고 다가가려 한다면 친해질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봄,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점에서 미국의 문화가 좋음 · 언어나 외형, 걸음으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한국의 문화가 더 편안하게 느껴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쪽 모두 번갈아 통역이 가능할 정도로 자유로이 사용 · 가장 필요한 능력은 언어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언어를 습득했다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음. · 아직까지는 두 문화 모두 편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짐. |
| | 조기유학 '성공'의 의미 | ·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대학에서 원하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본인이 원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법을 배우는 것. | ·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주는 일. |
| | 향후유학선택여부 | · 다시선택 | · 다시선택 |
| | 전반적 평가 | · 성격이 변하고 목적이 뚜렷해졌음. | · 다양하고 폭 넓은 선택의 기회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한 성격이 좀 더 외향적으로 변해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감사함으로 살고 있음. |
| 유학 결정 과정 | 유학이유 | · 자유로운 환경 다양한 경험 | · 한국의 교육제도가 싫어서 |
| | 의사결정과정 | ·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 결정 | · 부모가 설득(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선진국의 다양한 교육기회 등)한 후 아이가 동의하였음. |
| | 유학정보 | · 어머니 친구분과 어머니로부터 | ·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
| | 가족동반여부 | · 동반 | · 동반 |
| | 유학당시 향후계획 | · 본인과 잘 맞는 분야를 찾고, 그에 따른 대학 진학이 목표 | · 계속 외국에서 공부시킨 후 귀국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맞기로 함. |
| | 유학 전 학업성적과 가족관계 | · 반에서 상위/기본적인 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에서 5등 정도/외국어 실력은 좋지 않았음. · 서로 간에 신뢰가 깊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보내고 대화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독 했음. |

| | | | | | |
|----------|----------|--|------------------|---|--------------------------------|
| 학교 생활 | 학 교 | 종류 | · 공립학교 | 자녀의 학교생활 어려움 | · 처음 3~6개월간 언어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음. |
| | | 인종구성 | · 백인이 많았음. | | |
| | | 외국학생지원 | · | | |
| | | 분위기 | ·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 | |
| | 교사와의 관계 | · 교사들과의 친밀한 관계. 외국인 학생들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려는 분위기였고 대부분의 선생님들과 친밀하게 지냄. · 유학 후 소극적으로 성격이 변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생님을 찾아 갔고 또한 공부나 다른 모든 면에 열심히 하는 본인을 선생님께서 예뻐해주시심. 그러나 특별히 본인이 관심 있는 과목의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냈음. | | | |
| | 친구관계 | · 친구는 많이 사귀 편이 아니었으며 대부분이 백인 친구였고 서로 잘 도와주고 챙겨주는 관계였음. | | | |
| | 클럽활동 | ·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활동이라 했고 대학갈 때 도움이 되기도 했음. ·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생각도 나눌 수 있었음. | | | |
| 학교 생활 | 학업성적 | · 학업성적은 좋았고, 공부를 하기가 그다지 힘들지 않았음. · 처음에는 입이 잘 안 떨어져서 고생을 했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지금은 말하기와 듣기 그리고 쓰기와 읽기 모든 면에서 향상하고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 · 영어 국어 모두 할 수는 있지만 모국어가 더 편함. | | | |
| | 문화차이와 적응 | ·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 · 다양한 인종과 문화(언어, 종교, 휴일 등)를 적응하기 어려웠고 미국은 너무 많은 자유와 가능성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음. · 많은 것들이 자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립심이 생기면서 익숙해 졌음. · 아직까지 유학 중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을 보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임. | | | |
| | 학교생활평가 | ·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것(다양한 방과 후 활동), 교장선생님, 교수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점, 긴 방학이 좋았음. · 생각보다 더 많이 자유로웠고 너무 많은 가능성이 주어지다 보니 왠지 모르게 게으르게 됨. | 자녀의 학교생활평가 | · 모든 아이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점과 개개인의 노력과 성향에 따라 많은 칭찬을 하는 것. · 생각보다 언어 습득이 쉽지 않은 점(빠른 시간 내에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학교 측에서 도와주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음). | |
| 유학종 | 종료이유 | · | | | |

| | | |
|-----|---------------|--|
| 료과정 | 유학연장의지 | . |
| 진학 | 진학만족여부 | · 좋은 교수님들과 작업환경 |
| | 국내입학시 전형방법 | . |
| | 외국대학입학시 장벽유무 | ·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은 없었음. |
| | 향후취업계획과 달성가능성 | · 할 수 있다면 박사과정까지 공부할 예정이며 군대는 대학 졸업 후 장교로 갈 생각임. |

[사례 10]

| 분류 | 항목 | 청소년 | 항목 | 어머니 |
|---------|--------------------|---------------------|-----------|-------|
| 인구학적 특성 | 연령 | 29 | 연령 | 55 |
| | 성별 | 여 | 본인 학력 | 학사 |
| | 유학기간 | 총 10년(고등학교 1학년~대학원) | | |
| | 유학지 | 미국 | 배우자학력 | 학사 |
| | 최종학력 | 석사 | 자녀 수 | 3녀 |
| | 부모의 경제수준 | 중상 | 타자녀유학여부 | 모두 유학 |
| | 결혼여부 | | 현지동반 거주여부 | 비동반 |
| | 현재신분 (학생,취업,기타) | 취업(미국 대학원 연구실 연구조교) | | |

| | | | |
|----------|---------------|---|--|
| 유학 평가 | 성격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천적이고, 밝고 사교적이며 솔직→자신감 있고 더 솔직 · 개인주의 영향을 받아서 너무 자아가 센 사람이 되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천적, 솔직→자신감 상승, 강한 자아를 갖게 됨. · 친구도 여럿 잘 사귄 수 있는 성격이긴 하나, 마음을 다 열지는 않고 또한 약간 소심한 부분도 있음. |
| | 가족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여동생 2 · 자매들끼리는 밖에 나와서 서로 의지 하다 보니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부모님과와는 멀리 떨어져있으니 더 애뜻해짐. · 동생과 유학을 공유하며 친한 친구 같은 관계로 변함. · 자매들간 특성상 또한 모두 유학을 했기 때문에 서로 보이지 않는 질투가 있었음. 결국 선의의 경쟁이 되어 나쁘진 않았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일들을 열심히 잘 해내고 있는 자녀들이 모두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음. · 딸과 친밀하기도 하지만 관계 자체가 믿고 의지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어떨 때는 아이에게 위로를 받을 때가 많았음. ·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더 돈독하고 좋아진 것 같고 아이들끼리는 서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 더 많이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등 대부분 가족 관계는 원만했음. |
| | 친구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하다고 느끼는 친구는 한국 친구이며 모두 3명 ·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 받거나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생각보다 친한 친구는 별로 없음. · 무엇이든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유학 와서 만났다는 것이고 그 친구를 통해 삶이 더 풍성해짐을 느낄 수 있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가 많지 않은 편이라 모두 잘 알고 있는 편 · 모두들 자라온 환경이나 지금 처한 상황들이 비슷해 서로 공감대 형성이 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신앙생활을 봉사도 하고, 친구들 관계에 만족 · 한국에 있었다 해도 친한 친구의 숫자는 비슷했을 것이며,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 보다 동생들과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임. |
| | 진로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교육 시스템을 몸소 체험하면서, 여러 나라 친구들과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 사회 구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사회과학 분야 특히 교육(정책)분야에 관심을 갖게 됨. ·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찾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경제적으로 탄탄한 미래가 보장된 분야는 아니라는 것이 우려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처럼 자신이 원하는 전공과 일을 찾아 하고 있음. · 유학 전 에는 사실 범대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으나 여러 다양한 문화와 나라 그리고 교육 시스템도 체험하면서, 비교를 하니 다양한 사회와 사회구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사회과학 분야 특히 교육(정책)분야로 진로를 정함. |
| |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능력은 고등학교 수준에 정체를 되어 있고 영어는 오히려 전 문지식(전공분야)에 대해서 논할 때 더 편함. 두 개 국어 모두 비슷하게 자유로운 편이지만, 한국말을 할 때 마음이 더 편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쪽언어 모두 구사 · 언어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류/ 나를 열어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고 나오는 업연히 다른 사람들을 받아 줄 수 있는 능력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벽을 허물고 친하게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음. · 진심으로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하여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인 것 같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나라에서 편안히 어울리며 살 수 있을 지는 의문 임. · 양쪽 문화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충하는 문화를 가장 친밀하고 편안하게 생각한 다는 것을 느꼈음. |
| | 조기유학 '성공'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정체성과 꿈을 찾아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나 그럴 준비가 되어있는 것임. 본인의 꿈을 찾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세계 사회와 무대에서 통하는 언어와 학문적 훈련이라고 생각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자녀가 모두 결과에 만족할 수 있을 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음. · 아이의 의지가 중요하며 부모는 그러한 아이의 의지를 믿을 수 있어야 함. |
| | 향후유학선택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선택 |
| | 전반적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많지 않고, 한국의 장학단체는 한국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을 우선으로 지급, 이런 제도적인 차별은 장학금이 꼭 필요한 조기유학생 출신들에게 많은 좌절감을 안겨주게 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는 것과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포용력이 많아졌고 또한 남을 배려하는 모습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음. |
| 유학 결정 과정 | 유학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보다 넓은 세계에서 다양한 문화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생활하며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가 심각하게 유학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고 좀 더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공부하며 글로벌 시대에 맞는 공부를 하고 싶 다며 부모를 설득. |
| | 의사결정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의 권유와 본인의 호기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딸의 의견을 들었고 다음은 본인이 찬성 |
| | 유학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반엔 친척의 도움을 받았고 아버지께서 직접 다니시며 알아 보셨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척의 도움과 배우자와 본인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꼼꼼히 알아보았음. |
| | 가족동반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동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동반 |
| | 유학당시 향후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의 영향으로 미국 법학대학원에 진학하여 변호사가 되고 자 하였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을 결정할 당시에는 고등학교로 유학을 보냈으니 대학을 마치고 워낙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라 대학원까지 마쳤으면 하는 계획이었음. |

| | | | | | |
|----------|---|---|--|--------------|-----------------------------|
| | 유학 전 학업성적과 가족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에서 5등 이내/영어 수준은 간단한 의사소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에서 5등 안/영어실력은 간단한 회화 · 가족과의 관계는 참 좋은 편이었음. | | |
| 학교 생활 | 학교 | 종류 | · 사립여자기숙학교 | 자녀의 학교생활 어려움 | · 아이가 보고싶은 그리움 말고는 특별히 없었음. |
| | | 인종구성 | · 전교생의 11%외국인이었으며 한국인은 11명이었음. | | |
| | | 외국학생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년 동안ESL 클래스와 일반수업을 병행 · 각 학생마다 지도교사(advisor)가 있었는데, 한 지도교사 당 학생 5~6명 정도가 배정되어 있었음. 첫 해에만 배정을 받고 다음 해는 원하는 선생님을 지도교사로 정할 수 있었음. | | |
| | | 분위기 | · 민주적이고 자유로웠으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학교였음. 자유의 권리를 주지만 그만큼의 책임도 지게 하는 엄격한 법칙 또한 적용됨. | | |
| | 교사와의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셨고, 처음 학교에 들어와서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찾아가면 시간 내서 도와주시기도 하였음. · 정말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차원에서 과외선생님을 찾아주시기도 하였음. | | | |
| | 친구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재학 시에는 다양한 인종의 친구를 많이 사귀긴 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우정을 나눈 친구들은 대부분 한국과 중국 홍콩 등 아시안 친구들이 많았음. | | | |
| | 클럽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주 활발하게 했던 동아리 활동은 없고, 외국인 학생이다 보니 페스티벌 같은 행사는 의무적으로 참여. · 본인은 주로 운동 팀 스케줄 위주로 활동했는데 빡빡한 스케줄로 다른 활동을 많이 할 여유가 없었음. 운동을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한국 학교에서는 하지 못했던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스포츠들을 직접 접할 수 있어서 좋았음. | | | |
| 학업성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서의 학업성적이 더 성공적이었으며, 학교의 규모가 작다 보니, 두각을 나타내기도, 선생님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에 더 수월해서 그랬던 것 같음. | | | | |
| 문화차이와 적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은 문화차이를 즐기는 편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럴 때 이렇게 한다”라며 다른 점을 이야기하면 다른 아이들이 즐겁고 신기하게 들어주고,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면 본인도 재미있게 경청하곤 했음. · 문화차이 때문에 실수라도 하는 경우가 있다면 몰라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서로 배우기도 하고 이해도 하면서 큰 오해 | | | | |

| | | | |
|--------|--------|---|--|
| | | 없이 지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은 많이 느끼지 못했음. | |
| | 학교생활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학교에서는 자율성과 또 너무 많은 과목수의 부담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고, 그 기대는 현실과 일치했음. ·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외국인 친구를 사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같은 나라 친구들이 서로 말도 문화도 잘 통하는지라 허물없이 지내기엔 한국친구들이 가장 편하다는 것도 느꼈음. | <p>자녀의 학교생활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학생이라 학교 사람들이 양간의 견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지만 기대 외로 너무나 다들 친절했고 유학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며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었음. |
| 유학종료과정 | 종료이유 | · | |
| | 유학연장의지 | · | |
| 현재 | 취업중 | 직장과 업무 | · 대학원 연구실에서 연구조교를 하고 있음. |
| | | 직장만족여부 | · 본인이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보수는 괜찮은 수준이라 만족 |
| | | 본인의 역량 발휘여부 | · 박사과정에 진학을 고민하면서 중간단계로 선택한 것으로는 만족(research skill을 더 배우고 연마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
| | | 취업방법 | · 아는 교수님 사무실이라 큰 인터뷰 과정 없이 채용 |
| | | 외국취업시 장벽유무 | · 미국 노동법 상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그 외국인 근로자를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주가 경제적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어 잘 해주지 않으려고 함. 특히나 본인처럼 교육 등 비영리 쪽으로 직업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큰 편임. |
| | | 향후계획과 달성가능성 | · 앞으로 박사에 진학하거나 이 곳 연구실에서 얻은 경험 (기술 쪽)을 가지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려고 함. 외국인 고용이 더 제한된 상황이라 가능성이 희박하나 도전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함. |

[사례 11]

| 분류 | 항목 | 청소년 | 항목 | 어머니 |
|----------------|--------------------|--|---|-------|
| 인구 학적 특성 | 연령 | 29 | 연령 | 53 |
| | 성별 | 여 | 본인 학력 | 석사 |
| | 유학기간 | 총 9년(중학교 3학년~) | | |
| | 유학지 | 미국 | 배우자학력 | 학사 |
| | 최종학력 | 학사 졸업 | 자녀 수 | 1남 1녀 |
| | 부모의 경제수준 | 중상 | 타자녀유학여부 | 모두 유학 |
| | 결혼여부 | 기혼 | 현지동반 거주여부 | 비동반 |
| | 현재신분 (학생,취업,기타) | 학생(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전공) | | |
| 유학 평가 | 성격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성적, 독립적→주장이 뚜렷해짐, 외향적 · 미국적인 사고로 유학 전에는 없던 개인주의적 성향이 생김. ·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효과적인지 알게 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진취적이고 자신감이 생김. · 너무나 어른스러워 진 모습에 안쓰럽긴 하였음. | |
| | 가족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모, 남동생 1명 · 부모님과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 더욱 애뜻해 졌고 만날 때 마다 대화가 많아지고 깊은 얘기를 할 때도 많았음. ·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고 남동생과는 서로 유학 후에는 서로 이해관계도 깊어지며 더 친해졌음. · 유학을 하면서 혼자 해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더 강해져 어떨 때는 부모님께서 걱정 하실까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떨어져 살면서 자녀들을 덜 간섭하고 잔소리도 없다 보니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음. · 남매끼리 서로 더 이해하게 되며 관계가 깊어진 것 같고 가족같이 가깝고 친하게 잘 지내고 있음. · 첫 째이고 아빠 엄마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많이 있는 것 같음. | |
| | 친구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하다고 느끼는 친구는 약 7명 · 기숙사에서 함께 몇 년간 생활하면서 친하게 되었고, 다른 친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 시절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들이라 마음을 터놓고 잘 지내고 서로에게 유익한 정보도 제공하여 도움을 주기 때문 | |

| | | | |
|----------|---------------|--|---|
| | | 들보다 마음이 맞았고 대화가 잘 통했으며 특히 어렵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 준 친구이기 때문임. | 에 친구끼리 서로 받쳐주고 이끌어 가는 관계임. |
| | 진로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을 와보니 다른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넓어진로를 바꿈. · 여러 가지 선택을 두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택할 수 있었음. · 더 넓은 세상이 눈을 돌려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사는 현재에 만족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을 통해 더 많은 가능성이 생기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하므로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졌을 것임. · 음악을 공부하던 딸이 일반 문과로 진로를 바꾸었음. · 글로벌 시대에 살면서 외국어 실력을 일찍부터 키울 수 있었고 외국 문화를 일찍 배워서 긍정적 변화가 있었음. |
| |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쪽 언어 모두 큰 불편 없이 자유롭게 사용 ·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문화를 존중한다면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음. · 더 편안한 문화는 한국 문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영어 모두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음. · 다양한 국가에서 유학 온 학생들과 생활한 경험이 있으므로 외국에서 잘 적응하여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현재는 돌아온 지 몇 년이 지났고 한국에서 직장생활과 학업을 계속하면서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음. |
| | 조기유학 '성공'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을 잘 마치고, 유학한 곳의 언어와 문화를 잘 습득하는 것. 유학을 왔던 본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유학을 마쳤을 때 본인의 만족도. · 본인이 확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다면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유학하는 곳에서 좋은 사람(친구 포함)을 만나는 것이 중요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대화하고 자녀의 상태를 잘 파악해야 함. · 현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 | 향후유학선택여부 | · 다시 선택 | · 다시 선택 |
| | 전반적 평가 | ·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고, 새로운 곳에 가고 그 곳에서 적응하는데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음. | ·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으며 문제해결 능력도 향상되었음. |
| 유학 결정 과정 | 유학이유 | · 경쟁력이 심하지 않으면서 음악을 보다 즐기면서 공부 할 수 있는 좋은 곳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 · 딸이 음악을 전공하고 있어서 처음 유학을 권유하고 준비 |
| | 의사결정과정 | · 부모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본인도 유학을 원했음. | · 배우자와 함께 결정했으며, 자녀도 원하였음. |
| | 유학정보 | · 어머니의 친구분으로부터 학교에 관한 도움받음. | ·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정보를 받음. |

| | | | | |
|----------|---|--|--|--|
| | 가족동반여부 | ·비동반 | ·비동반 | |
| | 유학당시 향후계획 | ·체계적으로 레슨 및 음악교육을 받고 미국에 있는 음대로 진학할 계획. | ·당시 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유학하는 곳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향후에 사정을 따라 현지나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 | |
| | 유학 전 학업성적과 가족관계 | ·반에서 상위/ 회화수준은 보통 | ·반에서 5등에서 10등정도/ 문법 실력은 좋았지만, 회화 실력은 보통 ·아이들을 모두 보내고 둘 만 남다 보니 둘 만의 시간을 자주 갖게 되며 가까워진 것 같음. | |
| 학교 생활 | 학교 | 종류 | ·사립기숙학교 | |
| | | 인종구성 | ·백인수 60%, 남미 25%, 한국인 5% | |
| | | 외국학생지원 | ·ESL이 있었으며 담임선생님이 유학생들에 전반적인 상담을 해주심. ·Advisor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대학가는 데 필요한 상담을 자주하였음. | |
| | | 분위기 | ·규율이 엄격하고 규제가 많았지만 수업 분위기는 자유로웠음. | |
| | 교사와의 관계 | ·외국인 학생수가 많아 대부분 교사들은 외국인 학생을 이해하고 도와주었음. ·친밀하게 지냈던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 외국인 학생이었기에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였고 특히 본인이 음악을 전공하고 있어서 음악 선생님께서 유난히 예뻐해 주셨던음. | | |
| 친구관계 | ·많이 사귀 편. 백인 친구도 있었고 꽤 친한 편이었지만 한국 친구들이나 다른 아시안계 친구들 보다는 친하지 못했음. ·정서나 고민이나 걱정 등이 달랐기 때문이고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갈등 때문이었던 것 같음. ·학교를 같이 오고 가면서 또한 수업 이후에도 계속 기숙사에서 함께 먹고 공부하며 거의 같이 생활하다시피 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가족같이 편하고 가깝게 지냈음. | | | |
| 클럽활동 |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유익했고,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또 공부를 하다 지친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었음. ·대학진학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 | | |

| | | | | |
|--------|--------------|---|-------------------|--|
| | 학업성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초기에는 쉽게 느껴졌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읽기, 쓰기가 필요한 영어, 역사 등은 어려웠음.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위권은 유지 · 미국에 와서는 언어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음. · 사고력과 창조성이 키워졌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공부를 즐기면서 하게 되어 향상이 되었음. · 영어 실력은 외국인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편할 만큼 향상, 그러나 쓰기와 읽기는 여전히 쉽지 않음. | | |
| | 문화차이와 적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수가 적었던 것과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고 또한 학생과 선생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인상 깊었음. · 토론식 위주의 수업 방식, 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문화와 학교 수업에의 적응이 쉽지 않았음. · 교육 방법에 대한 차이로 한국의 주입식 교육방식에 익숙해져 있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 되었음. | | |
| | 학교생활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시간과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공부 (본인에게는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 한국과 달리 사교육이 없어서 기대했던 대로 자유시간이 많았지만, 학교 분위기와 규율은 생각보다 지켜야 하는 규칙이 많았음. · 미국 아이들도 경쟁심이 있었음. | <p>자녀의 학교생활평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고 수업 분위기도 편할 것 같았음. · 교사들이 학생에게 많이 친절하고 생각 외의 관심을 써 주었음. |
| 유학종료과정 | 종료이유 | · | | |
| | 유학연장의지 | · | | |
| 진학 | 진학만족여부 | · 새로운 방면에 도전하게 되어 만족함. 같은 전공을 가지고 학부는 미국에서 석사는 한국에서 하게 되니 더 재미있고 음악보다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전공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 만족. | | |
| | 국내입학시전형방법 | · 일반적으로 입학했으며 유학 경험으로 인해 얻은 여러 가지 성격적인 변화라든지 특히 영어를 잘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음. | | |
| | 외국대학입학시장벽유무 | ·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을 때 외국인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음. | | |
| | 향후취업계획과달성가능성 | ·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고 싶다는 계획은 있음. | | |

[사례 12]

| 분류 | 항목 | 청소년 | 항목 | 어머니 |
|----------------|--------------------|---|--|----------|
| 인구 학적 특성 | 연령 | 24 | 연령 | 53세 |
| | 성별 | 남 | 본인 학력 | 박사(유학) |
| | 유학기간 | 총 9년(중3 때 ~ 현재까지) | | |
| | 유학지 | 미국 뉴욕 | 배우자학력 | 석사 |
| | 최종학력 | 치대 재학 중 | 자녀 수 | 2명 |
| | 부모의 경제수준 | 상 | 타자녀유학여부 | 1명만 했음 |
| | 결혼여부 | 미혼 | 현지동반 거주여부 | 초반 2년 동반 |
| | 현재신분 (학생,취업,기타) | 학생(미국 뉴욕치대) | | |
| 유학 평가 | 성격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용한편이며 의견표현을 잘 안함→독립적, 융통성, 자신감 · 자기 주장을 더 표현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으나 싫은 부분은 직설적 표현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적, 의존적인 성향 → 능동적이며 독립적 · 자신을 책임지며 살려는 모습이 만족스럽지만 예전의 원만했던 성격을 다시 찾았으면 함. | |
| | 가족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어머니, 누나 · 자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 유학당시 부모님께서 별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에 도움을 못 드려 아쉬움과 분노가 남아있음. 아버지는 자주 만날 수 없었고 마음을 열지 못해 더 멀어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커졌고, 대화를 통해 관계가 더욱 친밀. · 만나는 시간이 짧아서인지 서로 아끼게 되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 누나와의 관계는 편치 않고 멀어진 느낌 · 서로 습관이 달라 오해가 생김. | |
| | 친구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한 친구는 5~6명 임. · 가장 친한 친구와는 비슷한 시기에 미국을 같이 와서 고민도 비슷하고 처한 상황 등이 비슷하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친구와 교회친구/ 친구들이 다양해짐. · 남을 많이 배려하게 됨.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민이나 어려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들어주고 조언을 해 주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음. ·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힘들어 졌으며, 외국인인 가까운 친구가 많지 않아 불만족. | |
| | 진로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평범하게 학교를 다녔을 것임. · 진로가 유학으로 인해 달라진 것은 없음. ·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공부(전공) 외에 배운 것이 많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대학원의 다른 과에 지원했을 수도 있음. · 본인의 미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생각 함. |
| |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능력은 맞춤법 등 어휘가 부족하고 영어회화는 100% 원어민 수준은 아님. ·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 ·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타 문화의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했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친구들과는 영어를 자유로이 사용하고 한국 친구들과는 한국말을 자유로이 사용 · 이미 한나라에 적응을 했다면 다른 나라 역시 쉽다고 생각함. · 미국 문화는 본인이 미국이 편하다고 하고, 남의 시선을 중시하는 한국문화에서 본인에게 집중하는 문화로의 변화를 만족해함. |
| | 조기유학 '성공'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사전 준비로 어느 학교를 졸업해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할 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이 필요함. · 가족들과는 떨어져 지내야 하기 때문에 어색하거나 서먹해지지 않도록 자주 대화하고 가족들과 본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필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원하는 일을 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행복할 수 있다면 성공적 임. · 자녀가 사는 환경을 편안하고 좋게 하는 것, 거주 환경과 보호자의 울타리가 필요하고 또한 신앙이 있다면 믿음 생활도 중요함. |
| | 향후유학선택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선택 |
| | 전반적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찍 가족을 떠나 혼자 살아 본 경험이 본인을 좀 더 독립적으로 그리고 강하고 남자답게 만들어 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생각과 책임감 있는 행동 |
| 유학 결정 | 유학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권자여서 미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공부 환경이 대학 입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등 더 나은 점이 많은 것 같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들의 적성을 찾아 주기 위해 |

| | | | | | |
|-------|---|--|---|--------------|-------------------------------------|
| 과정 | | 시작. | | | |
| | 의사결정과정 | · 본인의 의사가 컸고 당시 미국에 친척과 부모님 친구 분 등 지인이 많아 부모님도 흔쾌히 허락하심. | · 배우자의 의견을 들었고 아들 역시 동의했음. | | |
| | 유학정보 | · 아버지 친구분께 도움을 받음. | · 친척과 배우자의 친구로부터 학교에 관한 정보를 받음. | | |
| | 가족동반여부 | · 초반에만 동반 | · 초반에만 동반 | | |
| | 유학당시 향후계획 | ·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영주권이 있었으므로 미국에 남아 체류할 계획도 있었음. | · 영주권이 있었으므로 미국에서 살기로 계획 | | |
| | 유학 전 학업성적과 가족관계 | · 반에서 5등내외/ 미국 거주(2년)경험으로 회화는 상 | · 반에서 5등내외/ 회화 실력은 좋았음. · 부모와는 원만했으나 누나와는 친밀하지 않았음. | | |
| 학교 생활 | 학교 | 종류 | 공립학교 | | |
| | | 인종구성 | · 전체 학생의 50%정도가 백인, 히스패닉 30%, 흑인 10%, 나머지는 유럽권 학생 5-8%, 아시아계 학생이 2%였음. 한국학생은 본인 포함 5명이었음. | 자녀의 학교생활 어려움 | · 혼자 떨어져 지낼 아들이 많이 염려가 됐지만 신앙으로 해결. |
| | | 외국학생지원 | · ESL이 있었고 상담은 대학을 위한 진학상담을 받았음. | | |
| | | 분위기 | · 매우 자유로웠으며 학교에 동양인들이 많이 없었지만 외국인에게 친절했음. | | |
| | 교사와의 관계 | · 학교 선생님들이 친절했고 상담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음. | | | |
| 친구관계 | · 공부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과 친했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백인친구들을 사귀기 쉬웠는데 학교가 있는 동네에 외국인 없다 보니 다들 신기하기도 하고 친절히 대해주었으며 특별히 본인이 수학이나 과학은 월등히 잘 하다 보니 백인 친구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하기도 했음. 그러나 백인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음에도 한국인 친구와 더 친했던 것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때문이었음. | | | | |
| 클럽활동 | · 대학을 가는데 유리했고 학교에서 다양한 클럽 활동을 제공해 꽤 많은 클럽 활동을 했었음. · 다양한 분야에서 클럽 활동을 하고 싶은 본인의 의지가 많았기 때문. · 클럽에서 친구들과 친해 질 수 있었고 학교생활에 더욱 흥미가 더해졌고 자신감이 생겼음. 교회활동으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기 | | | | |

| | | | | |
|------------|----------|---|--|--|
| | | 도와 찬양을 통해 위로를 얻었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어른들의 보호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음. | | |
| | 학업성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은 공부를 하기는 쉬운 편이었고 한국에서의 성적과 비슷했음. · 외국어 실력은 향상되었고 영어가 국어보다 조금 더 자신이 있을 정도로 영어가 편해짐. 그러나 영어와 국어 모두에 자신이 있지는 않음. | | |
| | 문화차이와 적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술과 담배는 물론 마약 등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적응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어려웠음. 그러나 그 아이들과는 별로 친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과 공부에만 집중하였음. | | |
| | 학교생활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학교라 생각과 달리 자유로운 학교생활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볼 때에 기대와 달랐음. · 학업 성적이 좋아 관심을 많이 받았고 백인 친구들이 본인에게 수업내용을 많이 물어보려 했었음. | <p style="text-align: center;">자녀의 학교생활평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는 학교생활과 과외 공부 등으로 여유가 없으나 미국에서의 고교 시절은 다양한 활동과 여유롭게 보냈음. |
| 유학종 료과정 | 종료이유 | | | |
| | 유학연장의지 | | | |
| 현재 | 진 학 | 진학만족여부 | · 계획했던 진학이었고 명망 높은 학교에서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어 만족. | |
| | | 국내입학시 전형방법 | | |
| | | 외국대학입학 시 장벽유무 | · 제도적으로 불리했던 점은 없었으며, 각 학교마다 어느 정도 외국인 학생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건과 능력만 된다면 모두 똑같이 기회를 주어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었음. | |
| | | 향후취업계획 과 달성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 보조의사로 몇 년 일을 하다가 개업을 할 계획. · 90%정도. 전문직 학교이기 때문에 직업을 찾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돈을 모아 어머니의 도움과 함께 하면 개업을 할 예정. | |

[사례 13]

| 분류 | 항목 | 청소년 | 항목 | 어머니 |
|--------------------|--|---|---|------|
| 인구 학적 특성 | 연령 | 28 | 연령 | 52 |
| | 성별 | 남 | 본인 학력 | 대학원졸 |
| | 유학기간 | 총 13년(중학교 1학년~ 현재까지) | | |
| | 유학지 | 미국 | 배우자학력 | 대졸 |
| | 최종학력 | 미국 석사 | 자녀 수 | 1남 |
| | 부모의 경제수준 | 중상 | 타자녀유학여부 | |
| | 결혼여부 | 기혼 | 현지동반 거주여부 | 비동반 |
| 현재신분 (학생,취업,기타) | 학생(미국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신학대) | | | |
| 유학 평가 | 성격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성적, 관찰력 높음→의견 잘 표현, 개인주의적 성향 ·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많은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음. · 유학 와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개인주의 성향이 있어야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 노력 중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용하고 신중→자신감 상승, 정확한 의사표현 · 매너가 좋아짐. | |
| | 가족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과 본인 · 부모님과 거리감이 생기게 되었지만 한국에 있었다라면 너무 가까워 부모에게 많은 것을 의존했을 거라 생각됨. · 늘 연락을 했기에 어색하거나 남 같다는 느낌은 없음. · 가족관계의 변화와 조기 유학으로 인해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부모님과 본인 모두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들 한명이다 보니 노후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졌음. · 조기유학으로 가족관계가 더욱 돈독해짐. | |
| | 친구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유학 중 사귄 한국인 3-4명 정도 · 반대 성격과 성향이 강하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친구는 거의 없고 미국유학중 만난 친구가 있음.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유학은 친구에서 형제관계로 변하게 하였음. · 유학을 통해 깊은 친구 관계, 서로 이익이 없어도 도우며 친할 수 있는 관계여서 본인에게는 긍정적인 변화임. · 친한 친구의 숫자가 몇 되지 않고 상황이 달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연락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임. | |
| 진로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고 대학원을 졸업해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었을 것 같음. · 이공계 과목에서 문과 공부도 하면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찾음. 미국에 와서 신앙이 깊어지다 보니 다루는 학문도 달라지게 되었고 직장 역시 영향을 받게 되었음. · 삶의 의미가 있고 현재 일이나 공부 모두에 만족하며 행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있었어도 대안학교를 보냈을 것임. · 항상 아이의 의견을 존중함. |
|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쪽 언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며 간단한 것은 동시통역 가능. · 유학을 통해서 적응 능력과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수용 능력도 생겼음. · 각 문화의 장점을 찾다 보니 새로운 제 3문화가 생겨지게 되고 한국을 떠나있지만 한국문화를 그리워하고 찾게 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변화에 만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쪽 언어 구사 자유로움. · 선교에 대한 꿈이 있어 어디서든 적응 잘 할 것임 |
| 조기유학 '성공'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후 성격도 좋아지고 가족과의 관계는 아쉽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애뜻해지고 또한 마음을 나누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통틀어 생각할 때에 성공적임. ·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고 싶은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용기와 추진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을 보내려면 부모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준비를 많이 해야함. · 부모, 재정, 자녀, 준비 이 모든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함. |
| 향후유학선택여부 | · 다시 선택 | · 다시 선택 |
| 전반적 평가 | · 조기 유학을 하므로 현재 공부하는 학문이나 직업이 삶에 도움을 주며 독립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 할 수 있게 한 | · 조기유학을 보냄으로써 모든 부분에서 자녀에게 도움이 되었음. |

| | | | | | |
|----------|--|--|--|--------------|-------------------------------------|
| | | 것이 큰 도움임. | | | |
| 유학 결정 과정 | 유학이유 | · 입시때문에 꼭 유학을 가고 싶은 본인의 의사가 컸음. | · 아이가 원했음. | | |
| | 의사결정과정 | · 본인의 의사로 오게 되었지만 부모님의 의견도 들었음. | · 본인의의사가 컸음. | | |
| | 유학정보 | ·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고 유학원을 통해서 서류작성을 함. | · 미국 중령과 미국교회에 계신 지인을 통해 교류 | | |
| | 가족동반여부 | · 비동반 | · 비동반 | | |
| | 유학당시 향후계획 | ·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목적이어서 향후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Ivy League에 입학하려는 계획이었음. | · 특별한 계획은 없었고 아들이 행복한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 함. | | |
| | 유학 전 학업성과 가족관계 | · 중1 때 전교 3등/ 회화경험이 있어 좋은편 | · 상위 1%/ 회화는 어학코스가 필요하지 않을 수준이었음. | | |
| 학교 생활 | 학교 | 종류 | 사립기숙학교 | 자녀의 학교생활 어려움 | · 아이가 고등학교 4학 때 IMF터져 가세가 기울어 힘들었음. |
| | | 인종구성 | · 약 90% 백인, 나머지는 유럽, 캐나다, 동양인. 한국 학생은 전체에 3% 정도였음. | | |
| | | 외국학생지원 | · 학생들을 도와주려는 상담과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상담이 있었음. | | |
| | | 분위기 | · 사립학교이다 보니 엄격하고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경쟁도 꽤 있었음. | | |
| | 교사와의 관계 | · 교사와 학생의 비율이 1 대 5로 친밀한 관계. · 교사들은 외국인 학생을 이해하려는 분위기였지만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도와주려는 경향이 많아 교사가 먼저 도와주려는 분위기는 아니었음. · 성실하러 노력하였고 수학과 과학 성적이 늘 전교 상위였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 선생님과는 특별히 관계가 좋았음. | | | |
| 친구관계 | · 본인과 기질과 성향이 맞는 친구들을 사귀는 편이었으며,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지는 못했음. · 백인 친구들이 있었지만 마음이 잘 통하는 아이들은 동양인이었고, 베트남, 태국에서 온 친구들과 많이 친했었고 아주 친했던 백인 친구와 흑인 친구도 한 두 명 정도 있었음. · 친했던 한국 친구가 두 명 정도 있었는데 본인이 형제가 없는 외동 아들이다 보니 그 친구들은 형제처럼 생각됨. | | | | |

| | | | |
|--------|----------|------------|---|
| | | | · 마약을 하는 친구가 있긴 했지만 친한 친구 중에서는 담배나 술을 하는 정도였음. |
| | 클럽활동 | | · 스포츠를 많이 했고 사회봉사 활동도 참여했는데 학교에서 시켰고 해야 했기 때문에 시작했지만 재미있었고 또한 스트레스도 풀리면서 좋았으며, 성경 공부는 본인의 advisor 가 이끌었기 때문이고 부모님도 성경 공부 클럽을 절대 찬성하셨음. · 고등학교 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삶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만약에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조연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학교 생활이 망가졌을 것 같음. |
| | 학업성적 | | · 수학이나 과학은 워낙 잘 배웠기 때문에 쉬웠지만 영어는 조금 어려웠음. 에세이를 쓰는 것은 힘들었고 처음에는 회화 준비를 잘 해와 대화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음. ·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지만 학교에 들어와서 늘 영어를 쓰는 환경에서 공부하다 보니 향상이 되었고 태어난 사람처럼 편하게 외국어를 쓸 수 있음. |
| | 문화차이와 적응 | | · 유학 초반에는 한국적 사고 방식이 많아 선생님과의 관계와 친구들에 대한 적응이 힘들었음. · 학업에는 노력한 만큼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음. · 워낙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생각하려다 보니 관계가 점점 힘들어 지는 것을 느꼈음. |
| | 학교생활평가 | 자녀의 학교생활평가 | ·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폭넓고 다양한 인간관계,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좋았음. · 학생의 참모습과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꿈이 있었음. · 이론 중심보다는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공식만 알아서는 안 되는 전인격적인 학업 방식과 생활을 배우게 되었음. |
| 유학종료과정 | 종료이유 | | |
| | 유학연장의지 | | |
| 현재 | 진학 | 진학만족여부 | · 생각지 못한 신학이고 특별히 문과이기 때문에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인생의 더 깊은 의미를 찾게 되고 신앙도 깊어지고 또한 학문을 좀 더 깊게 다루게 되다 보니 만족 |
| | | 국내입학시전형방법 | |

| | | |
|--|---------------|--|
| | 외국대학입학시 장벽유무 | · 조기 유학생이다 보니 영어가 능숙하고 미국 문화에 적응력도 많고 성적도 좋아 학교 입학 시 유리하게 작용 |
| | 향후취업계획과 달성가능성 | · 본인은 학업과 취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본인의 취업 계획이었고 향후 5년간은 같은 계획으로 있을 것임. |

[사례 14]

| 분류 | 항목 | 청소년 | 항목 | 어머니 |
|-----------------|------------|---|--|-------|
| 인구학적 특성 | 연령 | 26 | 연령 | 50 |
| | 성별 | 남 | 본인 학력 | 고졸 |
| | 유학기간 | 총 11년(중학교2~현재까지) | | |
| | 유학지 | 미국 | 배우자학력 | 고졸 |
| | 최종학력 | 학사 | 자녀 수 | 1남 1녀 |
| | 부모의 경제수준 | 중하 | 타자녀유학여부 | 모두유학 |
| | 결혼여부 | | 현지동반 거주여부 | 동반 |
| 현재신분 (학생,취업,기타) | 학생(미국 경영대) | | | |
| 유학평가 | 성격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부족→배려하는 마음, 포용력 ·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겸손함을 배웠음. · 토론이나 발표로 자주 위축이 되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긴 했지만 위축감이 생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집이 센, 자기방식을 고수→자신감과 책임감이 생김 · 환경에 적응하느라 아들이 조금 힘들어 했고 성격이 격해짐. | |
| | 가족관계영향 | · 부모님과 여동생 한 명. | · 아버지만 남겨 두고 모두 함께 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관계가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든 유학 시절에 아버지가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과 그리움이 분노로 남았음. ·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그리 좋지 못하셨고 아들인 본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전 같지 않고 아이들 또한 아버지와 거리감이 생겼다고 함. 이런 문제들이 쌓이다 보니 가족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됨. · 아이들과 엄마와의 관계가 돈독해 졌으나 아빠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안 좋아졌음. |
| 친구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는 5~7명 정도이고 모두 미국에 온 시기가 비슷함. ·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는 형 집에서 하루 지냈는데 그때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고 또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하게 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은 거의 모두 한인 1.5 세임. · 좋은 우정을 나누려는 아들과 친구들을 보면서 만족 · 여러 부류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사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중 가장 친한 친구와는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우정으로 발전했음. |
| 진로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를 그리 잘 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 입학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음. · 요리 학교에 다니려고 했으나 학교의 비싼 등록비가 부담스러워 고민하던 중 멘토의 조언과 함께 사업을 공부하여 음악과 요리가 만날 수 있는 사업장을 열고 싶은 마음에 현재로는 사업을 공부하고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에서 식당과 사업으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음. · 정말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찾았지만 음악을 포기하게 되어 아쉽고 속상하지만 결국 모든 공부를 마쳤을 때는 하나의 취미로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괜찮음. · 모든 지 너무 빨리 포기하고 시작한 것을 끝내는 것이 어려움. |
|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 · 다른 문화 포용력이 많아졌기 때문에 친해질 수 있음. · 남을 배려하고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며 타 문화에 대한 적응력과 수용력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쪽 언어 모두 자유로이 사용 · 사고가 이기적이지도 않고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살 수 있을 것임. · 한국 문화가 훨씬 더 친밀하고 편안하게 생각함. |
| 조기유학 '성공'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 주변의 좋은 환경이나 조기 유학에 관한 의견이나 충고 등을 듣고 얻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또한 본인의 동기과 목적을 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을 결정하고 마칠 때까지 가족의 관계 그리고 유학 생활에서의 본인의 의지. 또한 유학 목적의 달성과 결과에 대한 만족도. · 부모와 자식간의 충분한 대화와 유학자 본인의 강한의지. |

| | | | | |
|----------|-----------------|--|--|--|
| | 향후유학선택여부 | · 다시선택 | · 다시선택 | |
| | 전반적 평가 | · 어디를 가도 다른 인증들이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으며 자유로우며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아직까지 학부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 힘들고 답답함. · 기회가 많고 한국보다는 여유로운 환경으로 본인이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때나 쉽게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 나태하게 만들기도 하였음. | · 유학을 통해 얻은 귀한 경험들이 그 때는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지만 지금의 아들을 만들어 주었고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실패를 맛보면서 아들은 점점 더 강해졌음. | |
| 유학 결정 과정 | 유학이유 | · 미국에 계신 친척께서 유학을 권하심. | · 음악을 공부하는 아들의 미래와 좀 더 크고 음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었음. | |
| | 의사결정과정 | · 친척이 의견을 내시고 어머니께서 동의하셨음. 본인도 원해서 유학을 추진하게 됨. | · 엄마인 본인의 의사가 강했고 아들 또한 유학을 흔쾌히 받아들임. | |
| | 유학정보 | · 현지 유학원을 통해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음. | · 친척이 학교에 관한 전반적인 도움을 주었음. | |
| | 가족동반여부 | · 동반 | · 동반 | |
| | 유학당시 향후계획 | · 음악 전공을 살려서 대학에 입학하여 계속 음악을 하고 싶은 계획을 가졌음. | · 고등학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 전공(바이올린)을 살려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서 결국 음악으로 대성하게 되는 것. | |
| | 유학 전 학업성적과 가족관계 | · 중상위권/ 단어만 아는 수준 | · 반에서 10정도/ 외국어 실력은 거의 없었음. · 아들과 남편과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음. | |
| 학교 생활 | 학교 | 종류 | · 카톨릭 사립학교 | 자녀의 학교생활 어려움 · 언어가 잘 되지 않아 아들의 학교 생활과 전반적인 다른 면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그래서 무료로 하는 영어 강습도 듣고 또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영어 실력이 늘었음. |
| | | 인증구성 | · 백인이 다수였고 한인은 본인 혼자였음. | |
| | | 외국학생지원 | · 동양인이나 언어가 힘들어서 도움을 받을만한 학생들이 없어 ESL은 제공되지 않았음. 학생들을 위한 상담은 있었지만 본인은 한 번도 상담을 받아보지 않음. | |
| | | 분위기 | ·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규율이 엄격함. 유니폼을 입는 학교였고 액세서리를 하는 것 등 옹모나 품행에도 제한적인 면이 많았음 | |

| | | | | |
|----------|--|---|-----------------------|---|
| | | 며 지각이라도 하면 엄격한 체벌을 받음. | | |
| 교사와의 관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분위기였음. · 동양인은 거의 없었던 학교로 대부분 교사들은 도와주려는 마음은 있었으나 도움을 주는 방법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음. · 특별히 친밀하게 지낸 교사는 없었으나 수학은 성적이 뛰어나다 보니 선생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관계도 좋았지만 그에 비해 영어와 역사는 이해력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 그 과목 선생님 하고는 친밀도가 낮았음. | | |
| 친구관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냈던 친구들이 없었을 정도로 거의 사귀지 못하였음. · 언어의 문제가 가장 컸으며 그 당시 본인의 가정이 겪고 있던 어려운 일들로 마음이 복잡했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 여유가 없었음. · 유일하게 친했던 친구는 미국으로 이민 왔던 한국 친구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가깝게 지냈던 친구는 백인과 스페인 사람. 학교 생활 외에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으므로 그리 친했다고 볼 수 없음. | | |
| 클럽활동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아하는 것을 클럽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클럽활동을 통해서 언어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 본인을 나타낼 수 없었던 부분을 본인의 장점을 보이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음. | | |
| 학업성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학업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거의 실기에만 시간과 노력을 부었고 영어 때문에 공부를 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았음. · 영어 실력은 지금도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향상을 요구하는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 |
| 문화차이와 적응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양인이 혼자이기 때문에 적응이 어려워 불안하고 겁이 많이 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았음. · 언어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표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적응하기가 힘들었음. 수업 시간에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고 흔히 있는 발표 시간은 워낙 내성적이고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힘들었던 본인에게는 적응이 남달리 어려웠음. · 미국에 대해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공부하러 온 것이며 성격적으로는 본인의 안일함 그리고 자신감의 부재 등 한국에서부터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유학을 와서는 더욱 드러났음.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처음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당연한 것들이라 생각해서 천천히 적응력을 키워가며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열심을 다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 | | |
| 학교생활평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와 여유로움을 제외하고는 기대했던 바가 없음. · 부모님은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생계 유지에 바쁘셨고 또한 주변에서 권고나 도움을 주실 분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꿈과 기대를 가져야 하는지 몰랐었음. | <p>자녀의 학교생활평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학생을 전인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처음 느끼는 것이고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임. |

| | | | |
|------------|--------|--|---|
| | | · 음악이 전공이다 보니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고 그로 인해 자신을 조금이나마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알릴 수 있었음. | |
| 유학종 료과정 | 종료이유 | · | |
| | 유학연장의지 | · | |
| 현재 | 진 학 | 진학만족여부 | · 진학 성과에 대해서는 사실 그리 만족하고 있지 못함. 여전히 학부를 끝내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약간 있기 때문.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유학을 왔을 때의 목적과는 다르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분야라 새롭긴 하지만 결국 사업을 공부해 음악과 요리를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지 본인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 지는 의문이 들긴 함. |
| | | 국내입학시 전형방법 | · |
| | | 외국대학입학 시 장벽유무 | ·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유학생에게는 제도적으로 장학금을 잘 주지 않는 현실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지만 외국인 학생으로는 놀랍게 전액 장학금을 받고 진학 해 입학과 학교 생활이 전반적으로 유리했었음. |
| | | 향후취업계획 과 달성가능성 | · 졸업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 다음은 좋은 사업 경영자를 만나 주방장으로 일하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배우며 또한 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몸에 배일 수 있는 사업 경험을 해 보고 싶은 계획이 있음. |

[사례 15]

| 분류 | 항목 | 청소년 | 항목 | 어머니 |
|----------------|----------|-------------|---------|-------|
| 인구 학적 특성 | 연령 | 28 | 연령 | 63 |
| | 성별 | 남 | 본인 학력 | 고졸 |
| | 유학기간 | 총 7년(고등학교~) | | |
| | 유학지 | 미국 | 배우자학력 | 학사 |
| | 최종학력 | 석사 | 자녀 수 | 1남 3녀 |
| | 부모의 경제수준 | 중상 | 타자녀유학여부 | 안했음. |

| | 결혼여부 | 미혼 | 현지동반 거주여부 | 비동반 |
|----------|----------------------|--|---|-----|
| | 현재신분 (학생, 취업, 기타) | 취업(경제 전략 컨설팅회사) | | |
| 유학 평가 | 성격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판적 사고, 생활력이 강해졌으며 자립심, 리더십 향상 이기적 성격으로 변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향적이고 활발한 성격→폭 넓은 대인관계가 가능할 정도로 성격이 좋아졌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생겼음. | |
| | 가족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님/ 1남 3녀 막내. 유학 오기 전에는 어머니가 더 학업/생활에 관여를 많이 하셨는데, 유학 온 후에는 아버님이 더 관여를 많이 하셨음 부모님끼리의 관계는 더 좋아지셨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가족의 상황은 특별했기 때문에 아들의 유학으로 관계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아들이 가진 장애로 딸들에게 소홀했는데, 아들의 유학 후 딸들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됨. 허전한 마음은 있었지만 특별히 변한 것은 없었음. | |
| | 친구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 전 한국친구가 가장 친함. 미국 유학 시 친구관계에서 유익했던 것은 넓은 범위의 인간관계 가능. 좁은 커뮤니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게 됨. 하지만 친한 친구 숫자는 비슷했을 것 같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 몇몇은 알지만 다는 모름. 아들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위로할 수 있는 친구들을 유학 시절 만나 감사함. | |
| | 진로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하면서 필요한 전공보다는 원하는 전공을 선택했음. 한국에서 이를 수 있는 최고를 넘어 썼기 때문에 만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한 전공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아 큰 영향은 없었음. 아버지부터 누나까지 같은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경영과 경제 쪽으로 진로를 정한 것 같음. | |
| |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영어 모두 가능 외국에 간다면 문화를 비교할 수 있고, 나아가 본인에게 맞는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영어 모두 가능 적응 능력이 뛰어나고 대인 관계가 좋아 서서히 적응할 수 있을 것임. 문화적 변화나 적응 능력 등은 조기 유학을 통해 얻어 만족함. | |
| | 조기유학 '성공'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생각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모의 강요나 관여가 아닌 신뢰가 중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것과 본인과 부모 모두 만족스러운 것을 의미함. 아이가 하고 싶어 해야 하고, 부모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

| | | | | |
|----------|----------------|--|--|--|
| | 향후유학선택여부 | · 다시 선택 | · 다시 선택 | |
| | 전반적 평가 | · 미국 내에서 직업을 가져서 만족스러움. | · 본인이 얻은 것은 자신감과 독립심. 예전에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했는데 혼자 이루어 놓은 성취감과 무엇을 해도 자신 있게 하는 추진력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진취력을 얻어 만족스러움. | |
| 유학 결정 과정 | 유학이유 | · 한국 교육보다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특히 장애인에 위한 시설 문제), 교육 환경 문제로 | · 장애가 있기도 했지만 남편의 친구의 권유가 있었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유학을 추진하였음. | |
| | 의사결정과정 | · 결정시 본인이 유학에 관한 의지가 강했음. | · 아이의 의견을 존중함. | |
| | 유학정보 | ·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분의 도움 | · 배우자 친구의 도움을 받았음. | |
| | 가족동반여부 | · 비동반 | · 비동반 | |
| | 유학당시 향후계획 | · 대학(원)에 진학하여 컴퓨터 공학 또는 engineering을 전공하려고 했음. | ·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나온 곳에서 공부를 편안히 했으면 하는 계획 | |
| | 유학 전 학업성과 가족관계 | · 전교 10등 이내/ 토플성적은 좋았으나 스피킹이 부족했음. | · 전교 5등 이내/ 영어는 읽기와 쓰기는 실력이 있었음. · 부모와 누나들 모두와도 관계가 좋았음. | |
| 학교 생활 | 학교 | 종류 | · 사립카톨릭고등학교 | |
| | | 인종구성 | · 90%가 백인이며 한국인은 10명내외 | |
| | | 외국학생지원 | · ESL을 제공하며, 공식적인 도움보다는 교사들과의 관계를 통한 도움을 받았음. | |
| | | 분위기 | · 엄격하고 경쟁하는 분위기 하지만 추가적인 도움은 본인이 하기 나름. | |
| | 교사와의 관계 | · 학생에 대한 선호가 있었으며, 알게 모르게 성적에 반영이 되었음. · 믿음에 기본이 된 관계형성이 중요함. | | |
| | | | 자녀의 학교생활 어려움 | · 아이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지만 신앙으로 이겨내었음. |

| | | | | |
|--------|----------|--|--|---|
| | 친구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는 많이 사귀 편이었고, 학교 내에서 400명중 200여명 정도의 친구가 있었음. 다양한 부류의 친구들 이었고 그 중 아주 가까운 친구도 많이 있었음. | | |
| | 클럽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으로 한국 학생들이 하는 클럽들을 하였으며, 인기 있는 클럽일지라도 내가 싫어하면 안 했음.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에 유익하였음. | | |
| | 학업성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성적 우수하였고 한국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도 확실히 향상되었음. 영어는 안 하면 늘지 않으며, 영어 국어 둘 다 자신 없음. 유학을 오면 영어도 국어도 다 잃지만 영어와 국어가 동시에 필요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은 얻었음. | | |
| | 문화차이와 적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었으나 약간의 인종차별(백인들만의 배타성)이 있었음. 유학 종료 때쯤 문제가 해결되었음. | | |
| | 학교생활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공학에 입학하고 싶었으나 남학교이어서 실망하였음. 기대하지 않게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함. | <p style="text-align: center;">자녀의 학교생활평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처럼 스트레스 받으며 공부를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았음. 아이가 장애로 인해 놀림거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기대했고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향한 배려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음. |
| 유학종료과정 | 종료이유 | · | | |
| | 유학연장의지 | · | | |
| 현재 | 취업중 | 직장과 업무 | · 경제 전략 컨설팅 | |
| | | 직장만족여부 | · 첫 직장을 비자 문제로 급하게 결정한 부분이 있었고, 일하다 보니 다른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됨. | |
| | | 본인의 역량 발휘여부 | · 갖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 함. | |
| | | 취업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번째 두 번째 직장 모두 특채(미국은 공채 특채의 구분이 모호)였음. 서류지원 통과하기가 학력덕분에 쉬웠음. 하지만 인터뷰는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느낌을 받았음. | |
| | | 외국취업시 장벽유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자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결국 이 문제는 내국인을 선호함. 지금 같은 경기 침체/ 고 실업률 시기에는 회사 재정상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며, 미국에서도 | |

| | | |
|--|-------------|-------------------|
| | | 외국인 고용을 장려하지는 않음. |
| | 향후계획과 달성가능성 | · MBA에 입학 할 계획임. |

[사례 16]

| 분류 | 항목 | 청소년 | 항목 | 어머니 |
|--------------------|----------|---|---|-------------------------|
| 인구 학적 특성 | 연령 | 30 | 연령 | 60 |
| | 성별 | 여 | 본인 학력 | 학사 |
| | 유학기간 | 총 9년(고등학교1학년~대학원 1년과정) | | |
| | 유학지 | 미국 | 배우자학력 | 학사 |
| | 최종학력 | 학사 | 자녀 수 | 3녀 |
| | 부모의 경제수준 | 상 | 타자녀유학여부 | 모두유학 |
| | 결혼여부 | 기혼 | 현지동반 거주여부 | 부모와는 비동반(현지에서 언니와 동반거주) |
| 현재신분 (학생,취업,기타) | 무직 | | | |
| 유학 평가 | 성격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량 쾌활→독립적, 책임감 강해짐, 포용력이 넓어짐. · 한 번 생각한 것은 좀처럼 바꾸지 않게 된 것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의를 제시해 종종 관계에 어려움을 겪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외향적, 독립적→명량, 쾌활, 남의조언을 잘 안들으려고 하는 개인주의 | |
| | 가족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언니2명 ·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한 것 같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떨어져 있다 보니 서로 그리움이 커졌고, 엄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했음. 떨어져 있었지만 관계는 가까웠고 친밀. · 두명의 자녀가 유학가다보니 남아있는 자녀와 더욱 가까워짐.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을 하지 않은 주변 친구들에 비해 부모와의 대화가 많이 부족하며, 큰 언니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를 안 하다 보니 딸과 본인의 사이에 gap 이 생겼지만 아빠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졌음. |
| | 친구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전 한국 친구 · 유학을 와 있을 때도 자주연락하며 유학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는 서로 그 동안 나누지 못했던 우정을 나누며 더욱 친해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전 한국에서 친했던 친구, 유학을 갔다 온 친구 · 친구의 폭이 넓고 다양해졌음 |
| | 진로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디자인 샵을 경영하며 일을 배우고 있었을 것임. · 계획에는 없었던 대학원 과정을 하게 된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공부를 하는 진로에는 변화가 없음. · 유학을 했지만 지금은 한 사람의 아내와 엄마로 집에 있기 때문에 좋은 실력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 |
| |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쪽 언어는 자유롭게 사용 · 고등학교 시절에는 문화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함. ·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며 본인의 마음도 열 때 어느 정도는 친해 질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와 영어 모두 자유롭게 사용 ·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베트남에서 2년 정도 거주했었는데 베트남 사람과 친분도 쌓고 그 나라 문화도 배우고 잘 적응 했었음. |
| | 조기유학 '성공'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유학생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유학을 선택한 학생의 의지가 강해야 하고, 외국 문화를 즐기며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쪽으로만 쏠리지 않고 유학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아이의 성향과 필요 그리고 미래를 잘 볼 수 있어야 함. · 자신을 계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한 유학을 통해서 배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성공 |
| | 향후유학선택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선택 |
| | 전반적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폭이 넓어져 원만한 대인 관계를 이룸. ·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학교에서의 상담을 할 때 유리하게 작용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영향을 미치며 딸이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
| 유학 결정 과정 | 유학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생활이 너무 멋있고 좋아서 조기 유학을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가 계속 강하게 원했음. |
| | 의사결정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의사가 강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의사가 가장 컸음. |

| | | | | | |
|-------|--|---|--|--------------|---|
| | 유학정보 | · 친척이 학교를 알아봐 주셨고 시기는 부모님과 미국에 있는 큰 언니와 상의 후 결정 | · 친척이 학교를 알아봐 주셨음. | | |
| | 가족동반여부 | · 친척집에서 지냄. | · 친척집에서 지냄. | | |
| | 유학당시 향후계획 | ·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취직을 할 계획 | · 디자인 쪽으로 공부를 시키고 싶었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상황에 따라 대학원에 가거나 디자인 계통 직장에서 일을 배우는 계획 | | |
| | 유학 전 학업성과 가족관계 | · 반에서 중간 정도/ 영어는 간단한 회화정도 | · 반에서 중간정도/ 영어는 간단한 회화정도 · 가족관계는 좋았음. | | |
| 학교 생활 | 학교 | 종류 | · 기독교 사립학교 | 자녀의 학교생활 어려움 | ·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이 많았지만 그 걱정을 덜기 위해 친척집으로 보내어서 그리 어려웠던 일은 없었음. |
| | | 인종구성 | · 백인이 대다수였으며 아시안계는 거의 없었음. | | |
| | | 외국학생지원 | · 규모가 작아 ESL은 없었으나 상담선생님은 있었음. | | |
| | | 분위기 | · 정통 기독교 침례 교단에 속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엄격 (학교 안에서는 남녀의 규칙도 까다로워 행동에 제약)했으나 수업시간 만은 민주적이고 자유롭게 진행 | | |
| | 교사와의 관계 | · 외국 학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친절히 지도해 주었음. · 처음 입학했을 때 영어가 쉽게 되지 않아 힘들었을 때 본인이 원하면 선생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셔서 도와주시곤 하였음. · 영어가 짧다 보니 쉽고 편하게 선생님과 관계를 맺을 수는 없었지만 계속 노력하고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거의 모든 선생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음. | | | |
| 친구관계 | · 본인의 언어가 부족한데도 많이 이해하고 도와주며 본인의 장점과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등 가깝게 지냈음. · 백인이 많아 백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는데 모두 본인을 약간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또한 공부와 다른 모든 것에 늘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좋게 보았는지 본인과 친하게 지내려는 백인 학생들이 있었음. | | | | |
| 클럽활동 | · 사회성을 기르고(운동을 함께 할 때에 서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더욱 친해질 수 있고 또한 영어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활동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함과 또한 운동을 즐겨 많이 하므로 건강에도 도움 됨. · 많이 뛰는 운동을 하면서 학업으로 인해 받았던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 | | |

| | | | | |
|--------|----------|--|--|---|
| | 학업성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는 한국보다 많이 쉬웠고 아무래도 과목 수가 많지 않다 보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또한 성적이 점점 나아지다 보니 신이 나서 공부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같음. · 영어 실력은 미국사람들과 자유로이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며 영어와 국어 모두에 자신 있음. | | |
| | 문화차이와 적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와 의사 소통. 그러나 늘 긴치마를 입고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것도 힘들었음. · 점심은 사먹거나 싸서 오게 되어 있었는데 양이 너무나 작고 그 시간 이후에는 다른 것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항상 너무 배가 고파서 힘들었음. | | |
| | 학교생활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게 책임의식을 길러주며 동시에 창의력과 창조성을 개발하게 하는 교육 방식과 자유적인 학교 분위기와 수업 방식이 좋았음. · 미국 학생들은 시험이나 성적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과 생각보다 규칙과 규율이 엄격했던 학교 분위기. · 자신감과 학교 생활을 너무나 신나게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한국에서는 그리 흥미롭지 않았던 공부를 즐기며 여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편안한 학교 분위기. | <p>자녀의 학교생활평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고 실제로 학교의 분위기와 학교 생활이 기대와 같았음. ·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경쟁도 별로 없이 너무 성적에만 억매이지도 않게 공부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많이 놀랐고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었음. |
| 유학종료과정 | 종료이유 | · 계획한 과정을 다 마쳤고 한국에서 아주 훌륭한 디자이너 밑에서 일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 종료 | | |
| | 유학연장의지 | · 전공이 디자인 쪽 이다 보니 그리 높은 학력은 필수가 아니고 실전과 경험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유학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취업을 하고 싶었음. | | |
| 현재 | 기타 | 현재하는일 | · 한 사람의 아내로 엄마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음. | |
| | | 무직 이유 | · 진학은 할 필요를 못 느껴서 하지 않았고 취업은 아직 아이가 어려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때라 늦추고 있음. | |
| | | 당면한어려움 | · 유학에서 얻은 경험과 실력을 써야 할 때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움. | |
| | | 향후계획과 달성가능성 | · 내년 초 쯤에는 디자인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데 여건과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임. | |

[사례 17]

| 분류 | 항목 | 청소년 | 항목 | 어머니 |
|----------------|--------------------|--|---|--------|
| 인구 학적 특성 | 연령 | 28 | 연령 | 60 |
| | 성별 | 여 | 본인 학력 | 학사 |
| | 유학기간 | 총 8년(중학교 3학년~대학졸업) | | |
| | 유학지 | 미국 | 배우자학력 | 석사 |
| | 최종학력 | 학사 | 자녀 수 | 1남 2녀 |
| | 부모의 경제수준 | 중상 | 타자녀유학여부 | 1녀만 유학 |
| | 결혼여부 | 기혼 | 현지동반 거주여부 | 비동반 |
| | 현재신분 (학생,취업,기타) | 취업(미국 종이회사/senior marketing coordinator) | | |
| 유학 평가 | 성격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성적, 이기적인 성향→독립적이며 책임감 강해짐. · 미국의 문화를 빨리 흡수하다 보니 개인주의 성향이 짙게 되었고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찾고 하다 보니 원래 이기적인 성향이 더 짙어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성적→독립적, 책임감 강해짐, 이기적인 면이 생김. ·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딸을 보면 상황들을 떠올라 마음이 아프고 약간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
| | 가족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 1남 2녀 · 가족과도 독립성을 유지하게 됨. 가족이 많이 그리웠지만 본인의 대학 준비나 미래에 대한 준비로 가족에게 마음을 많이 나누지 못함. · 모든 일들을 거의 혼자 결정했는데 부모님은 서운해 하셨고 본인이 겪고 있는 모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많이 알고 싶어하셨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와는 많은 것을 나누고 대화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깝고 친밀 · 아이가 워낙 독립적이고 혼자 스스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 어떨 때는 가족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음. · 너무 쓸데없이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려다 보니 가족들에게도 독립적인 성향이 나옴. | |
| | 친구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학교에서는 서로 경쟁 관계가 되어 오히려 타 학교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 편하였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자주 만나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딸이 친구가 많은 편이 아니라 몇 명을 사귀어도 깊게 사귀어 만족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못하더라도 많은 정을 나누고 더 친하게 될 수 있었음. · 친구는 한 6명 정도로 그 친구들은 모두 본인의 성격과 성향을 잘 이해해주고 본인이 힘들 때 도움이 되었던 친구들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있는 친구와는 떨어져 지낸 지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좋은 우정을 간직하고 있음. · 유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을 더 잘함. |
| 진로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유학을 오게 되어 미국 생활,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가 익숙하고 편하다 보니 대학 입학 시, 특별히 인터뷰를 할 때 자신감이 많았고 그 이후 대학에 진학해 대학 생활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었음. ·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오래 한 것이 장점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직장에 취직될 수 있었고 일을 할 때나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도 긍정적인 면으로 도움을 주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을 안 왔으면 한국에서의 삶을 힘들어 하며 유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음. · 미국에 와서 미국과 미국 문화 그리고 타 문화권에 대한 적응력과 수용 능력이 많아지고 또한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학교를 입학할 때에도 또한 직장을 잡을 때도 유리한 점이 많았음. |
|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벽하진 않지만 두 언어를 편하고 자유로이 쓸 수 있음. ·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타 문화권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며 그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기 때문에 친해질 수 있음. · 조기 유학은 학교 안에서 다른 민족과 교제하며 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글로벌 역량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영어 모두 자유로이 편하게 사용 · 그 나라 민족의 특수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본인의 문화도 나눌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 함. ·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한 그리움과 애뜻한 마음이 많음. ·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만나며 어울리며 나와 다른 것일지라도 배우려는 자세가 생겼고 그로 인해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짐. |
| 조기유학 '성공'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유학자가 행복하고 돌이켜 보았을 때 후회가 없는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함. · 유학의 선택이 본인이 원한 것이어야 하며 본인의 인생을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가족들이 믿고 바라봐 준 덕분이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안정된 가정과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었음. · 유학자의 의지력, 결단력, 독립성, 적응력, 그리고 타 문화 수용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학자의 성격이나 인성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자녀의 뜻이 맞아야 하고 유학 전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 · 유학을 통해 얻은 경험들이 밑거름이 되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과로 인해 삶이 행복할 때 성공적 임. · 부모와 자녀간의 충분한 대화, 그리고 유학자의 의지와 가족들의 협력이 필요함. |

| | | | | | |
|----------|-----------------|--|--|--------------|--|
| | 향후유학선택여부 | · 다시 선택 | · 다시 선택 | | |
| | 전반적 평가 | · 미국인 직장에 다니고 있어 유학을 통해 얻었던 경험(언어와 타 문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음. · 너무 일찍 혼자 유학을 와 강해지려고 했던 시간들이 본인에게도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다시 선택 할 수 있다면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하고 후기 유학을 선택할 것 같음. | · 현재에도 결혼하여 미국에서 가족과는 떨어져 살고 있지만, 독립적이고 나이에 비해 책임감도 강해 직장을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음. · 어렸을 때부터 집을 떠나 공부했던 터라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살펴 주고 싶지만 유학 때부터 익혀 온 습관과 또한 여러 가지 힘들었던 상황들을 혼자서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면서 배운 것들이 좋은 경험으로 잘 살고 있음. | | |
| 유학 결정 과정 | 유학이유 | · 새로운 환경과 언어,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었던 본인의 의사 | · 두 번 어학 연수 후 너무나 유학을 원했음. | | |
| | 의사결정과정 | · 본인이 혼자 결정하고 부모님을 설득 | · 아이가 의견을 냈고 결정의 시간 오래 걸렸지만 유학을 향한 꿈을 버리지 못하는 딸을 보며 결국 허락하게 됨. | | |
| | 유학정보 | · 유학원 | · 유학원 | | |
| | 가족동반여부 | · 비동반 | · 비동반 | | |
| | 유학당시 향후계획 | · 확실한 직업 선택이나 전공에 대한 결정은 없었고 유학을 했던 곳에서 대학은 나오고 유학을 마치면 한국에 돌아와서 살고 싶다는 계획을 함. | · 대학을 나오고 기회가 된다면 미국에서 일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 | | |
| | 유학 전 학업성적과 가족관계 | · 전교 5등에서 10등 사이/영어는 상당히 잘 하는 편이었음. | · 전교에서 상위/영어를 워낙 좋아해 실력이 좋았음. · 남매들도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서로 위하며 사이가 좋았으며 부부관계 역시 가깝고 대화가 많고 친밀했음. | | |
| 학교 생활 | 학교 | 종류 | · 사립기숙학교 | 자녀의 학교생활 어려움 | · 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나 가족이 걱정할 까봐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음. · 아이와의 자연스런 대화를 통해 아이가 겪고 있는 것을 함께 느끼려 노력했었음. |
| | | 인종구성 | · 백인이 다수였고 전체 학생의 6% 정도가 아시안 학생이었고 그 중 1/3 정도가 한국 학생이었음. | | |
| | | 외국학생지원 | · ESL 과 상담이 있었는데 ESL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음.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자가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고 비밀은 지키되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한국 학생들 중 우울증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음. | |
| | 분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인 면에서는 자유로웠지만 사립 기숙 학교이다 보니 학교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분위기도 조성되었음. | |
| | 교사와의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온 학생이라 무조건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분위기는 아니었음. 주로 선생님들은 외국인 학생을 어느 정도 이해 해주는 편이었지만, 학생의 성적, 성실성 이나 노력 등 에 따라 엄격하게 다름. 본인은 외국인 학생이었지만 교사와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교사와 친하게 지냄. · 학교의 규모가 작아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도 비교적 낮다 보니 수업 시간마다 개개인이 집중을 받으며 선생님과의 관계가 자연히 친밀하게 발전할 수 있었으며 학생의 수가 많지 않다 보니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음. 또한 대체로 따뜻한 학교 분위기로 다른 학생들에게 이 학교를 추천하고 싶어 함. | |
| | 친구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한 친구들은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었고 그 밖에 백인과 독일친구들이 있었음 · 백인 친구들과도 운동을 함께 하며 친한 편이었지만 한국 친구들처럼 친하지는 못함. 한구 친구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정서가 같고 고민이나 걱정도 비슷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잘 통했음. 백인 친구와 한국 친구처럼 친해지지 못한 이유는 언어적인 면이 가장 컸기 때문이고 문화(자유로운 사고 방식과 극한 개인주의)에서 오는 차이점 때문. | |
| | 클럽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였음. · 클럽을 통해 백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었으며 학교 안에서 또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됨. | |
| | 학업성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을 온 첫 학기에 영어 작문 페이퍼를 썼는데 낮은 점수가 나왔다. 반면, 수학이나 과학은 한국에서 이미 진도를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 영어 성적이 형편 없었어도 종합 성적은 꽤 우수하였음. · 공부를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았음. · 유학 전과 후 모두 전교에서 5등에서 10등 정도로 별 차이는 없었음. · 영어와 국어 모두 편하긴 하지만 자신감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리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

| | | | | |
|--------|----------|--|---|---|
| | 문화차이와 적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다르게 자유롭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좋게 느껴짐. · 학생과 교사 사이가 한국 학교처럼 어렵지 않고 너무 편했는데 어떻게 해야 편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었음.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좋지만 모든 관계가 평행적이고 짙은 개인주의 성향과 모든 일에 너무 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적응하려 할 때 어려움을 겪었음. · 적응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언어문제였음. | | |
| | 학교생활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생활도 자율적인 편이고 교복이 없으며 과목도 본인이 자기 자신에 맞게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선택제도. · 개인이 원하고 잘하는 것을 키워줄 수 있는 분위기. 기대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얻는 것은 졸업할 때 교장 선생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졸업하게 되었고 또래 친구들이 학업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어려울 때 상담을 하고 친구들의 필요나 어려움들을 종합해 교사와 대화할 수 있게 된 것. | 자녀의 학교생활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다는 자유롭고 학생들을 전인격적인 면으로 키워주는 것을 기대했고 기대와 같았음. |
| 유학종료과정 | 종료이유 | · | | |
| | 유학연장의지 | · | | |
| 현재 | 취업준비 | 직장과 업무 | · 종이 회사에서 senior marketing coordinator로 일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실무를 맡고 있음. | |
| | | 직장만족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수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만족 · 직장 내에서 조직 문화는 꽤 평등하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 줄 수 있는 관계들임. | |
| | | 본인의 역량 발휘여부 | · 직업이나 업무가 유학을 통해 얻은 역량을 발휘하는데 만족스럽지만 직업이나 회사 자체는 본인이 원하던 것은 아님. | |
| | | 취업방법 | · 아버지가 제지업에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거래처였던 회사에 인턴을 하다 공채를 통해 정식 사원으로 발령받았음. | |
| | | 외국취업시 장벽유무 | · 한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거래하는 일들을 맡아서 도울 수 있지만 또한 영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미팅이나 회사 사람들 관계에서 오는 어려운 점들이 있음. | |
| | | 향후계획과 달성가능성 | · MBA 과정을 하며 공부를 하고 싶은 계획이 있고 신분 문제가 해결되면 학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임. | |

[사례 18]

| 분류 | 항목 | 청소년 | 항목 | 어머니 |
|--------------------|--------------|---|--|------------|
| 인구 학적 특성 | 연령 | 26 | 연령 | 53 |
| | 성별 | 여 | 본인 학력 | 석사 |
| | 유학기간 | 총 12년(고등학교~현재까지) | | |
| | 유학지 | 미국 | 배우자학력 | 학사 |
| | 최종학력 | 학사(대학원 재학 중) | 자녀 수 | 1남 1녀 |
| | 부모의 경제수준 | 서민층 | 타자녀유학여부 | 안함 |
| | 결혼여부 | | 현지동반 거주여부 | 고등학교 때만 동반 |
| 현재신분 (학생,취업,기타) | 학생(미국 뉴욕 치대) | | | |
| 유학 평가 | 성격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고 누구와도 잘 어울림→낮을 많이 가리고 친해지기 어려움. · 눈치를 안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편해졌으나 사람들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밝은 성격→적극적이고 책임감 강해짐. · 미국 조직에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함. | |
| | 가족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 오빠 1명 · 엄마와 함께 지냈으므로 더욱 관계가 돈독하며 아빠와는 떨어져 있어 그런지 마음이 애뜻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함없는 관계이고 친구 같은 딸이며, 친밀함. · 유별날 정도로 가족애가 아주 끈끈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함. | |
| | 친구관계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준히 연락하거나 만나는 친구들은 10명 정도 · 친구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음. ·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진다는 것을 배웠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학교친구이며 미국 친구들도 있지만 한국 친구들이 더 많음. · 바쁘기 때문에 학교나 병원에서 같이 잘 지내는 정도임. · 친구에게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음. | |

| | | | |
|----------|---------------|--|---|
| | 진로영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진로를 찾았을 거라 생각함. · 한국만큼 공부, 경쟁을 치열하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과 지금까지 해 온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또한 감사의 마음이 생긴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의대나 법대는 갔을 것 같지만 미국처럼 좋은 기회를 갖진 못했을 것 같음. · 환경이 좀 더 좋아지긴 했지만 아이가 의대나 법대를 생각해왔기 때문에 달라진 것은 없음. |
| | 글로벌역량 및 문화정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국어 모두 편함. · 본인의 성격과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데 배울 수 없을 것 같은 본인의 생각 때문에 제 3세계는 관심 없음. · 미국식 개인주의를 받아들여 자신이 변한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좋다고 생각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쪽언어 완벽하게 사용 · 대인관계를 깊이 있게 맺지 않아 걱정은 되지만 책임감이 강해서 잘할 것임. · 미국사회에 잘 맞는 아이임. |
| | 조기유학 '성공'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단기목표가 중요하며 계획을 세워 공부해야 함. · 너무 친구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 스스로 조기유학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가늠하는 것 같음. |
| | 향후유학선택여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선택 |
| | 전반적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후 가족간의 관계나 본인의 진로, 학업을 볼 때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음. · 한국에 있을 때는 철부지였는데 유학을 와서 눈치가 빨라지고 자립심이 강해지는 등 성격의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학업이나 인간 관계나 도움을 주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 환경이 좋고 공부를 잘하고 있으니 만족함. |
| 유학 결정 과정 | 유학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친구분의 권유로 그리고 부모님의 권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 놀러갔다가 국립학교에 입학서를 넣었더니 4개 학교에 합격이 되었고 아이가 원했음. |
| | 의사결정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친구분의 권유와 부모님의 동의 하에 결정하였지만 본인의 의지는 없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의 의사를 반영했고 가족도 찬성했음. |

| | | | | | |
|----------|---|--|---|-----------------|--|
| | 유학정보 | · 아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음. | · 학군제였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았음. | | |
| | 가족동반여부 | · 어머니와 함께 있었음. | · 고등학교때만 함께 있었음. | | |
| | 유학당시 향후계획 | · 당시에는 별 계획이 없었지만 공부를 계속 해서 전문직에 종사 하고 싶은 생각은 함. | · 계획은 전혀 없었고 미국에서 1년 학교를 다니더니 대학성적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자신의 꿈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졌음. | | |
| | 유학 전 학업성적과 가족관계 | · 전교 5등이내/ 영어는 기본회화는 했으나 영어는 잘 못했음. | · 전교 5등 이내/ 아주 잘 했음. · 가족관계는 좋았음. | | |
| 학교 생활 | 학교 | 종류 | · 공립학교 | 자녀의 학교생활 어려움 | · 부모로서의 어려움은 없었으나, 본인이 현지 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함이 있 었음. |
| | | 인종구성 | · 백인이 다수였음. | | |
| | | 외국학생지원 | · ESL과 상담선생님이 있었으나 도움받지는 않음. | | |
| | | 분위기 | · 자유로웠음. | | |
| | 교사와의 관계 | · 본인이 별로 다가가지도 않았고 따로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 · 한국에서 막 와서 영어도 못하고 적응도 안 된 상태인데 미국아이와 똑같이 대하려는 선생님들 때문에 좀 힘들었었음. | | | |
| | 친구관계 | · 유학을 와서는 워낙 공부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친구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낌. · 친구라기 보다 그냥 본인이 도움을 받았던 관계였음. | | | |
| | 클럽활동 | · Habitat: 집을 지어 주는 것을 했으며,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클럽들도 많았음. · 클럽활동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했었고 대학갈 때 도움이 많이 되었음. | | | |
| | 학업성적 | · 공부를 하는 것에 비해 영어 실력은 높진 않지만 처음에 비해 많이 향상. · 영어 때문에 처음1년은 좀 어려웠지만 공립학교라서 학업은 한국보다 훨씬 쉬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음. | | | |
| 문화차이와 적응 | · 모든 것이 낯 설고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답답했으며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음. · 미국 아이들과는 말이 잘 통하지 않고, 한국 아이들은 친밀감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졸업함. · 대학 때는 친구를 많이 사귀었음. | | | | |

| | | | | |
|--------|--------|--|---|---|
| | 학교생활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의지에 상관없이 유학을 왔기 때문에 기대는 없었음. · 영어로 모든 것을 해야 했지만 공부가 훨씬 쉬웠고 수업시간이 짧고 자유로웠기 때문에 학교 생활은 미국이 좋았음. | <p>자녀의 학교생활평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국립학교는 스쿨버스로 등하교시키고 인성교육을 중요시했고 엄격했음. |
| 유학종료과정 | 종료이유 | · | | |
| | 유학연장의지 | · | | |
| 현재 | 진학 | 진학만족여부 | · 진로를 너무 쉽게 결정(모두가 선호한다는 이유)한 생각이 들지만 만족함. | |
| | | 국내입학시전형방법 | · | |
| | | 외국대학입학시장벽유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다녔던 사립대학교에서 성적을 유지하면 장학금의 일부 지원을 약속해놓아,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1학년 때에만 주고 2학년 때부터는 성적을 유지했는데도 주지 않았음. 유학생들에게 너무 재정적 지원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대학원 들어 올 때는 의료계라 유학생들에게는 입학이 바늘구멍이었으며, 외국인 학생들에게 많이 불리한 것들이 느꼈음. | |
| | | 향후취업계획과 달성가능성 | · 졸업하고 레지던트는 생략하고 전문의과정을 3년 정도 공부한 다음 바로 개업할 계획이며, 한국면허시험도 볼 생각임. |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문진 ◆

- 김익기 동국대학교 교수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조정실장
박영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설인자 백석대학교 교수
손준종 교원대학교 교수
정혜숙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삼섭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협력진 ◆

- 안성희 미국 BNM 연구소 이사장
천승혁 미국 BNM 연구소 소장
손상현 한세대학교 글로벌교육원
-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이경상 · 안선영
-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 · 장원섭
-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 · 안선영 · 이계오 · 이미리 · 김성식 · 김명희 · 박일혁
- 09-R02 아동 · 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 · 김영애 · 조선하
-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 · 김성연
-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 09-R04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 · 송병국 · 김혁진
-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 · 박병식
-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 · 최은실
- 09-R07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 · 조손가정 아동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해연 · 이용교 · 이향란
-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 · 방은령
-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II / 이종원 · 김영인
- 09-R10 아동 · 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 · 박형란
-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 · 설수영 · 원형중 · 설민신
-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청소년 진로 · 직업 지표 / 최인재 · 김봉환 · 황매향 · 허은영
-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아동 · 청소년 활동 · 문화 지표 / 임지연 · 김정주 · 김신영 · 김민
-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 · 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 · 김희진
-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 · 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 · 천정웅 · 신승배 · 이중섭
-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 · 청소년 증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 · 조혜영 · 이수정
-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 · 윤철경 · 임재훈
-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 · 문경숙 · 송민경

-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 · 김진호 · 임성택 · 주동범
-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 · 임영식 · 문호영 · 김남정 · 한지연
-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 · 김동일 · 김성희
-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 · 강병로
- 09-R16-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종 · 윤옥경 · 조남익
-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 · 오해섭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 · 박은혜 · 이상훈 · 최은영 · 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 · 조흥식 · 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 · 정대영 · 황순영 · 김영미 · 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 · 박현옥 · 이경숙 · 김민 (자체번호 09-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 · 김원경 · 고정욱 · 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 · 이근매 · 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 · 김나라 · 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 · 김냥향 (자체번호 09-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사고력 영역 / 조아미 · 김정희 · 설현수 · 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 수시과제

-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이종원·천정웅·이용교·길은배·전명기·정효진
-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서정아·길은배·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이·조아미
- 09-R23 이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
-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정익중·박현선·천창암·박현동
-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김지경·성운숙
- 09-R26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임희진·김현철 (2010년 발간)
-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진미정 (2010년 발간)
-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김성희·박영숙·이명균 (2010년 발간)

■ 용역과제

- 09-R29 2009 취약위기 이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임희진·안선영·김지연·강현철·김광혁·김기남·박창남
-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성운숙
-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조혜영
-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조사 / 장근영·이종원
-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증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박진규·박정배
-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김미숙
- 09-R37 이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
- 09-R3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박영균·성운숙·문경숙·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박수선
- 09-R4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김기현·김지경·임희진
-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이기봉·최인재
-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전명기
-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희주 (2010년 발간)
-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이혜연·서정아·홍연균·유진이·김영호·김광남·황성수(2010년 발간)
-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양계민 (2010년 발간)
-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 09-s04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숍 (4/11)
-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 09-s06 독일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5/25)
-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 09-s1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 09-s20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 09-s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55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다솔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연구보고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연구 I :
청소년의 조기유학 결과와 정책방안**

인 쇄 2009년 12월 22일

발 행 2009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예림피앤디(주) 전화 (02)2263-0483 대표 한필연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77(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99-4(93330)

978-89-7816-796-3(세트)

